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자료

- 회의일시 : 2020. 8. 13.(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신승운(위원장), 고연석, 권오영, 김문식, 김창준,
박은경, 박정혜, 오용섭, 이종민, 이혜은, 장경희,
정은우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비 고
【심의사항】 10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1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2	지정조격 권1~12, 23~34	공 개
3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공 개
4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공 개
5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공 개
6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공 개
7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공 개
8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제다라니	공 개
9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 개
10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공 개
【검토사항】 10건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11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12	간이벽온방(언해)	공 개
13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공 개
14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공 개
15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	공 개
16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공 개
17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공 개
18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공 개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19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명칭변경	공 개
20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명칭변경	공 개
【보고사항】 1건		
21	국외 긴급매입 국유문화재 관리청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추진계획 보고	공 개

심 의 사 항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4-001

1.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三國遺事 卷四~五)

가. 심의사항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신청(’18.10.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5.14.)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7.1.~8.1.)하고,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419-3호(2002.10.19. 지정)
- 명 칭 : 삼국유사 권4~5(三國遺事 卷四~卷五)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범어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정보박물관
- 수 량 : 2권 1책
- 규 격 : 33.5×21.2 cm
- 재 질 : 고정지(藁精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94(조선 태조 3) 판각, 조선 초기 인출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표지, 권수제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고대사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이다. 범어사 소장인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 권4~5는 현존하는 『삼국유사』 중에서 간행시기가 가장 앞선 판본이다. 그 가치는 학술적인 점에 한정되지 않고, 민족의 역사, 풍속, 종교, 문학, 예술, 언어 연구에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유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유물은 민족 문화유산의 결집체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아울러 고간본으로 다른 소장본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보로 승격하여 영구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삼국유사』의 경우, 기 부여된 국가문화재 지정번호는 유물명(서명)을 기준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래서 국보 제306-1호와 국보 제306-3호는 태조 3년(1394) 간본이고, 국보 제306-2호는 중종 7년(1512) 간본이다. 또한 보물 제419-2호는 태조 3년(1394) 간본이고, 보물 제419-4호는 중종 7년(1512) 간본이다. 이러한 지정 방식은 혼란을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판본의 경우에는, 동일한 유물명(서명)으로 부제(가지번호)를 부여하기 보다는 판본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梵魚寺 所藏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 권4~5는 태조 3(1394)년 무렵에 조성된 조선조 초기의 인본으로 권4에는 「義解第五」가 수록되고 권5에는 「神呪第六」·「感通第七」·「避隱第八」·「孝善第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1) 조선조 초기의 原板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이고 (2) 壬申本(正德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천자료이며, (3) 壬申本의 翻刻系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고 (4) 口訣研究에 귀중한 자료이다.

梵魚寺 所藏의 寶物 제419-3호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는 이미 國寶로 지정된 國寶 第306號의 郭永大 所藏本과 國寶 第306-3號의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本과 동일한 판본일 뿐만 아니라, 國寶 第306-2號의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의 壬申本보다 시대가 앞선 판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梵魚寺 所藏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 권4~5는 國家指定文化財 國寶로 승격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國益일 것으로 판단된다.

<지정근거>

이미 國家指定文化財 國寶로 지정된 『三國遺事』의 版本은 다음과 같다.

- 國寶 第306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3卷1冊(卷3~5). 郭永大 所藏.
- 國寶 第306-2號. 『三國遺事』. 壬申(1512)本. 5卷2冊(完帙).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
- 國寶 第306-3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2卷1冊(卷1~2).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

<表 1> 『三國遺事』의 現傳本과 文化財 指定의 現況

版本	[名稱]	現存本		文化財指定	所藏處	傳來歷	備考
		卷次	缺張				
A本 太祖 3(1394, 甲戌)年頃 (朝鮮初期本)	과른本	「王曆」卷1~2 (2卷1冊)	-	國寶 제306-3호	延世大學校 博物館	과른 孫寶基 教授 遺族 寄贈	
	石南本	「王曆」卷1	缺張:	-	不明	石南 宋錫夏 舊藏	
	鶴山本	卷3~5 (3卷1冊)	卷3: 張1~6 卷5: 張27~30. 「跋文」	國寶 제306호	郭永大 (松隱의 養孫)	鶴山 李仁榮 教授 舊藏 松隱 李秉直 畫家 舊藏	
	泥山本	「王曆」卷1	不明	-	個人	泥山南氏 舊藏	
		卷2 (1卷1冊)	卷2: 張17~20	寶物 제419-2호	誠庵古書博物館 (조동기·조성은·조영 기·조왕기 外)	泥山南氏 舊藏	
	趙種業本	卷2 (1卷1冊)	卷2: 張9, 49B	-	趙種業 遺族		
梵魚寺本	卷4~5 (2卷1冊)	卷5: 張26~27	寶物 제419-3호	梵魚寺 聖寶博物館	1907年 釋 吳惺月 寄贈	口訣 懸吐	
B本 中宗 7(1512, 壬申, 正德 7)年 (壬申本·正德本)	順菴手澤本	完帙 (「王曆」卷1~5) (5卷2冊)	-	-	(日本) 天理大 圖書館	順菴 安鼎福 舊藏 今西龍 入手	
	서울대本	完帙 (「王曆」卷1~5) (5卷2冊)	-	國寶 제306-2호	奎章閣韓國學研究院	黃義敦 舊藏 全鑿弼 舊藏	
	晚松文庫本	完帙 (「王曆」卷1~5) (5卷2冊)	卷2: 張49 卷3: 張1~2A	-	高麗大學校 晚松文庫	晚松 金完燮 寄贈	
	六堂文庫本	卷3~5 (3卷1冊)	卷3: 張1~10 卷5: 張18B~30 「跋文」	寶物 제419-4호	高麗大學校 六堂文庫	朝鮮廣文會 舊藏 (六堂 崔南善)	口訣 懸吐
**	* 壬申本(正德本)의 後刷本 및 筆寫本 除外						

○ (지정 가치 있음)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는 전체 5권 가운데 권4~5만 남아 있는 책이다. 그러나 조선초기본으로서 이미 지정된 국보 제306호 학산본(鶴山本) 권3~5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조선조 초기에 조성된 권1~5의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학산본에 없는 권5의 제27~30장 가운데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조선초기본의 복원은 물론 조선 중종대 간행된 임신본(壬申本) 가운데 판독하기 어려운 글자들은 비교 검토하고, 현전하지 않는 인용문헌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은 이미 국보로 지정된 국보 제306호 광영대 소장본과 제306-3호 연세대박물관 소장본과 동일한 판본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국보로 승격하여 지정하고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선조 초기에 인출된 임신본 이전의 『삼국유사』 인본은 아래 <표 1>과 같이 파른본·松隱本·泥山本·梵魚寺本·趙種業本 등이 전해지고 있다. 선초본을 저본으로 한 필사본은 <표 2>와 같이 孫晉泰가 石南 宋錫夏 수장의 선초본을 저본으로 필사한 石南本, 자신의 수장본을 필사한 鶴山本이 있다. 이후 중종 1(1512)년 판각의 임신본은 順菴手澤本·奎章閣本·晚松文庫本·六堂文庫本 등이 전해지고 있다. 『삼국유사』의 인본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조선조 초기 인본 5종과 임신본 4종 정도 확인되고 있으나, 특히 선초본의 경우에는 완질이 아닌 잔권의 형태로 전래되고 있다.

〈표 1〉 삼국유사 선초본 전래 현황							
文化財		문화재명	卷次	缺張	名稱	收藏處	舊藏者
국보306-3호	2018.02.22.	三國遺事	王曆,1,2	完本	파른本	연세대 박물관	파른 孫寶基
국보306호	2003.02.03.	三國遺事	3-5	3(1-6), 5(27-30),跋文	松隱本 (鶴山本)	郭永大	鶴山 李仁榮 松隱 李秉直
		三國遺事	王曆,1	??	泥山本	개인	泥山南氏
보물419-2호	2002.10.19.	三國遺事	2	17-20		誠庵舊藏	
보물419-3호	2002.10.19.	三國遺事	4,5	5(26-27)	梵魚寺本	梵魚寺성보박물관	吳惺月
			2	9,49	趙種業本	도난	寧越嚴氏
〈표 2〉 선초본을 저본으로 한 필사본							
		三國遺事	王曆,1	王曆(10,11)	石南本	고려대 도서관	石南 宋錫夏 孫晉泰 筆寫
		三國遺事	3-5	3(1-6) 5(4장)	鶴山本	고려대 도서관	鶴山 李仁榮 筆寫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선초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은 5종이며, 선초본을 저본

으로 필사한 사본은 2종이다. 사료적 관점에서 서적은 인출연대가 빠를수록 오식이 적기 때문에 중시되고 있다. 『삼국유사』 고려본의 전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선초본의 인출연대가 가장 빠르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선초본은 임신본보다 가치가 훨씬 높다. 그러나 선초본은 완질이 없으며, 잔본으로만 전래되고 있다.

그러므로 2015-2017년 경상북도와 군위군에서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해 『삼국유사』 판각사업을 수행할 때 왕력과 권1-2는 파른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권4-5는 범어사본을 저본으로 판각하였다. 松隱本(鶴山本)에 권3-5가 있지만 수장자가 끝내 공개를 거부하여, 권3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수장의 鶴山 李仁榮이 자신의 선초본을 임시한 鶴山本으로 판각하였다.

지정신청본인 범어사본 권4-5는 다음과 같은 가치가 있다.

첫째, 지정신청본은 선초본인 송은본과 상호보완 관계로서 선초의 『삼국유사』를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이란 점이다. 이 송은본 권5는 장27-30이 결장인데, 범어사본은 장26-27이 결장이므로 합하면 전체적으로 장26만 결장이다.

둘째로 서적은 인출연대가 빠를수록 저자의 원문에 가깝고, 거듭 인출될수록 오식이 늘어난다. 따라서 선초본은 통행본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료이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삼국유사』를 판각할 때 선초본, 임신본과 여러 논문을 참고해서 교감한 이유이다. 선초본의 권4-5는 송은본과 범어사본만 확인된 상태이다.

셋째로 서체, 규격, 行款 등에 있어 임신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여, 임신본은 선초본을 저본으로 번각한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되는 판본이다. 자형에 있어서도 범어사본은 일관된 반면에 임신본은 여러 명의 각수가 분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넷째는 묵서된 音讀口訣과 한글현도가 있어 구결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란 점이다. 범어사본에는 선초본 가운데 유일하게 권4 ‘圓光西學’·‘二惠同塵’·‘慈藏定律’·‘元曉不羈’·‘義湘傳教’에는 묵서된 구결이 집중되어 있다.

다섯째는 檀君神話를 비롯하여 鄉札로 쓰인 향가 14수가 수록되어 있어, 국어국문학 연구에도 귀중한 문헌이다.

범어사본은 『삼국유사』 현존본 가운데 가장 빠른 간본인 동시에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초기본의 훼손된 부분과 결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정덕본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귀중한 서적이다. 충렬왕 7(1281)년경 편찬된 『삼국유사』는 한국학의 고전이며, 우리 고대의 종교·역사·지리·문학·언어·민속·사상·미술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사료의 보고이다. 따라서 지정 신청된 『삼국유사』는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시킬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 국보 제306-3호. 파른본.



그림 4 국보 제306호. 松隱本.



그림 5 보물419-3호. 梵魚寺本.(표지)



그림 6 보물419-3호. 梵魚寺本.(권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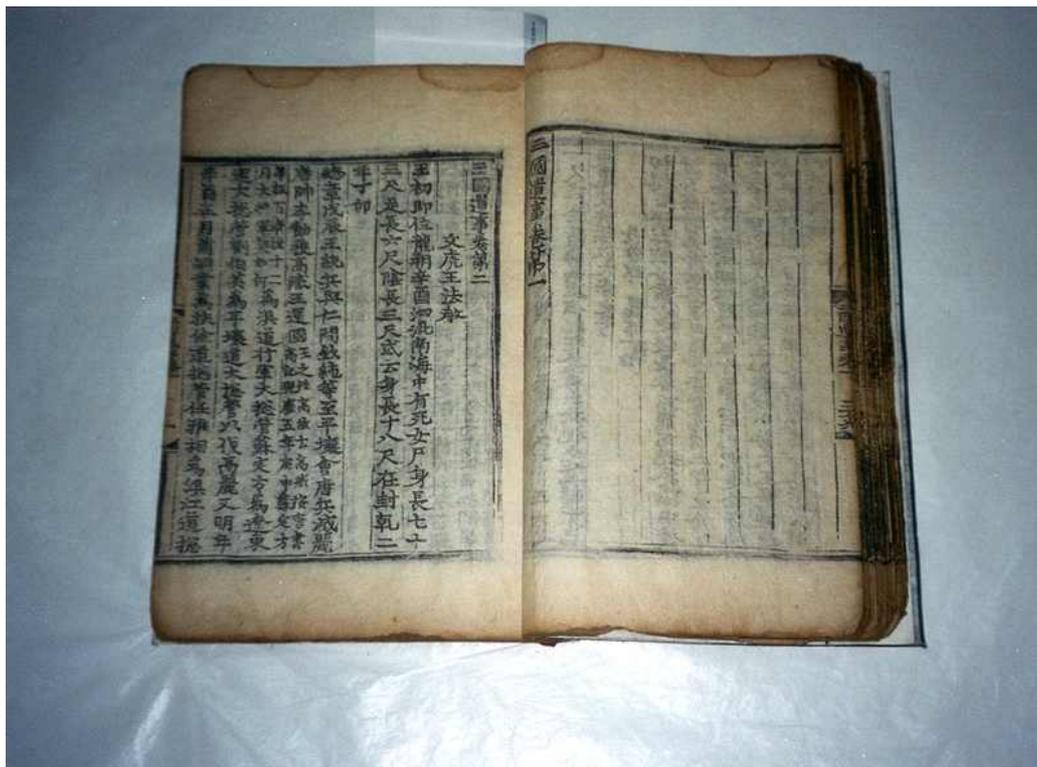


그림 7 보물419-2호. 泥山本.



그림 8 보물419-2호. 泥山本.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개장, 전장 배접(권5의 제26-27장은 결락)

○ 내용 및 특징

일연(一然, 1206~1289)이 편찬한 『삼국유사』는 정사(正史)에 없는 유문(遺文)과 일사(逸事)를 바탕으로 찬술한 편년체 역사서이다. 모두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9편은 왕력(王歷)·기이(紀異)·흥법(興法)·탑상(塔像)·의해(義解)·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이다.

『삼국유사』를 처음 간행한 시기나 간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곧 일연 입적 전의 간행설, 충숙왕 10년(1310)경의 무극(無極) 간행설 그리고 태조 3년(1394)경 경주부사 김거두(金居斗)가 『삼국사기』를 중간하면서 함께 간행하였다는 설 등이 있는 것이다. 현전하는 가장 앞서는 것으로는 바로 태조 3년(1394) 경의 판본이다. 학계에서는 이 판본들을 소장자나 기관의 명칭을 붙여 학산본(鶴山本), 파른본, 이산본(泥山本), 조종업본(趙種業本), 범어사본(梵魚寺本), 석남본(石南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석남본과 이산본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다. 현재 국내소재가 확인되는 태조 3년(1394) 간본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국내소재가 확인되는 태조 3년(1394) 간본과 지정 현황1)

구분	권수(책수)	지정명칭	지정번호	지정시기
1	학산본 권3~5(1책)	삼국유사 권3~5	국보 제306-1호	2003.02.03
2	파른본 권1~2(1책)	삼국유사 권1~2	국보 제306-3호	2018.02.22
3	이산본 권2(1책)	삼국유사 권2	보물 제419-2호	2002.10.19
4	조종업본 권2(1책)	×	×	미지정 가내 소장(추정)
5	범어사본 권4~5(1책)	삼국유사 권4~5	보물 제419-3호	2002.10.19

이에 비해 현재 유통되는 국역본의 저본은 중종 7년(1512)에 경주부윤 이계복(李繼福, 1608~?)이 경주부에서 중간한 판본이다. 이 판본을 임신본 또는 정덕본(正德本)이라고 일컫는다. 순암수택본(日本 天理大 소장), 규장각본, 만송문고본·육당문고본 등 몇 종이 전하는데,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중종 7년(1512) 간본의 지정현황

구분	권수(책수)	지정명칭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1	서울대본 완질(5권2책)	삼국유사	국보 제306-2호	2003.04.14
2	육당문고본 권3~5(1책)	삼국유사 권3~5	보물 제419-4호	2002.10.19

부산 범어사 소장의 『삼국유사』 권4~5(1책)는 태조 3년(1394) 경에 간행된 판

1) 이 중에서 파른본을 제외한 소장본들은 결락장이 있다. 곧 학산본은 권3의 제1-6장, 권5의 제27-30장, 발문, 이산본은 제17-20장, 조종업본은 제9장, 제49장(후반엽), 범어사본은 제26-27장이 결락되어 있다.

본으로 추정된다. 인쇄상태로 보아 초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 권4는 「의해 제오」, 권5는 「신주 제육」·「감통 제칠」·「피은 제팔」·「효선 제구」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개장된 앞표지에는 “『三國遺事』第五”라는 서명과 권차 표시 그리고 「梵魚寺留鎮」, 「梵魚寺圖書館」이라는 목서가 있다. 본문에는 구결과 한글현토가 보인다. 앞표지 이면(裏面)에는 “歲光武十一年丁未夏求來於「慶北東萊金井山內院禪場」”과 같이 “광무 11년 정미(1907) 여름에 동래 금정산 내원선장에서 구해왔다.”는 목서가 있다. 이어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수록된 당나라 시인 나은(羅隱, 833~909)의 “採得百花成蜜後, 不知 / 辛苦爲誰恬, 鴻飛天末 / 跡留沙, 人去黃泉名在家”를 옮겨 놓았다. 뒤표지 이면에도 『선가귀감』의 마지막에 수록된 시(“孤輪獨照江山靜, 自笑一 / 聲天地驚, 如是舉唱明”宗旨, 笑殺西來碧眼僧”)를 옮겨 놓았고, 뒤표지에는 『천슈경』이라는 목서가 있다.



<사진1> 『삼국유사』 권4~5의 표지와 권4의 권수제면

한편 권4의 권수제면 서미(書眉) 가운데 부분에는 「吳惺月藏書/惺月」이라는 작은 원형의 장서인이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1865~1943)의 옛 소장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寄贈」이라는 목서가 있으므로 소장기관에서는 “1907년 범어사 오성월에 의해 소장 보관”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범어사 소장의 『삼국유사』 권4~5의 학술적인 가치는 구결연구, 타 소장본의 결락 보완, 중간본인 임신본의 오탈자 및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가치는 야사이기는 하나 삼국시대의 역사서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찾을 수 있는 고간본 유물이라는 점일 것이다.

○ 참고문헌

- 채상식, “『삼국유사』 해제.”, 2010.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남권희, “파른본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도현철, “조선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 간행”,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 2013년 6월.
- 하일식, “일연과 『삼국유사』, 파른본의 특징”,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해제, 연세대학교박물관, 2016.
- 부산광역시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18. 9.
- 범어사, “문화재승격 신청서”. 부산 : 범어사정보박물관, 2018. 8.
- 『삼국유사』:범어사 소장 국가지정 전적 영인본. 문화재청·금정구청, 2010.
-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書誌記述 및 現狀

梵魚寺 所藏 指定申請本 『三國遺事』 卷4~5의 書誌記述과 現狀은 다음과 같다.

□ 書誌記述

三國遺事. 卷4~5 / 一然(1206~1289, 高麗)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太祖 3(1394)頃 造成, 朝鮮 初期 印出 推定].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4.0×17.0cm, 界線, 半葉 10行21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5×21.2cm. 韓紙(藁精紙). 線裝(改裝).

題簽題: 三國遺事

卷頭題: 三國遺事

版心題: 三國遺事

卷尾題: 三國遺事

表 紙: 後代改裝.

狀 態: 거의 全張이 褙接되어 있으며, 卷5의 第26~27張은 缺落된 상태이고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다.

傳來歷: 梵魚寺의 初代 住持를 역임한 僧侶知識人 吳惺月(1865~1943)이 1907년에 梵魚寺에 기증하여 현재 梵魚寺 聖寶博物館에 현재까지 소장되어 있으며, 2002년 10월에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고 그 후 2010년에 文化財廳과 金井區廳이 影印·刊行하여 學界의 研究用으로 제공되고 있다.

保存處理: 2009~2010년에 紙類文化財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保存處理가 실시되었다.

評述: 중종 7(1512, 壬申)년보다 앞선 조선 초기의 印出本으로 추정되며, 壬申本에서 判讀이 어려운 글자의 判讀이 가능하고 口訣研究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既指定: 國寶 第306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3卷1冊(卷3~5). 郭永大 所藏.

國寶 第306-2號. 『三國遺事』. 壬申(1512)本. 5卷2冊(完帙).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

國寶 第306-3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2卷1冊(卷1~2). 延世大學校 博物館 所藏.

□ 現 狀

指定申請本 『三國遺事』 卷4~5는 日帝強占期에 佛教改革運動과 抗日運動 및 敎育活動을 활발히 전개하고 梵魚寺의 初代 住持를 역임한 僧侶知識人 吳惺月(1865~1943)이 1907년에 梵魚寺에 기증하여 현재까지 梵魚寺聖寶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그 후 2002년 10월에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고 2010년에 文化財廳과 金井區廳이 影印·刊行하여 學界의 研究用으로 제공되고 있다.

指定申請本 『三國遺事』 卷4~5는 2009~2010년에 紙類文化財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保存處理가 실시되어 거의 全張이 裱接되어 있으며, 卷5의 第26~27張은 缺落된 상태이고 表紙는 後代에 改裝되었다.

○ 指定申請本의 內容 및 特徵

『三國遺事』는 충렬왕 7(1281)년경에 普覺國尊 一然(1206~1289)이 편찬한 三國時代의 史書로 韓國學의 고전이며, 한국 古代의 歷史·地理·文學·宗教·言語·民俗·思想·佛教美術·考古學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史料의 寶庫이다. 그러나 構成과 體裁의 昏亂, 神異한 說話 그리고 誤字와 脫字 등의 종합적인 研究와 정밀한 校勘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三國遺事』는 도합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편은 卷頭의 「王曆第一」, 권1~2의 「紀異第一·第二」, 권3의 「興法第三」·「塔像第四」, 권4의 「義解第五」, 권5의 「神呪第六」·「感通第七」·「避隱第八」·「孝善第九」 등이다. 卷頭의 「王曆第一」에는 三國과 駕洛 및 後三國의 王代와 年表가 수록되어 있고 권2의 「紀異第二」에는 古朝鮮 이하 三韓·扶餘·高句麗·百濟와 통일 이전의 新羅 등 역대 여러 나라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紀異第三」에는 新羅 文武王 이후의 통일신라를 비롯한 百濟·後百濟·駕洛國記 등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권3의 「興法第三」에는 불교 전래의 역사가 신라를 중심으로 수록되어 있고 「塔像第四」에는 불교 신앙의 대상인 石塔·梵鐘·佛像·寺刹 등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4의 「義解第五」에는 신라의 學僧과 律師의 傳記가 수록되어 있다. 권5의 「神呪

第六」에는 密敎와 神僧의 사적, 「感通第七」에는 감동을 주는 古傳, 「避隱第八」에는 행적을 감춘 高僧들의 傳記, 「孝善第九」에는 孝行과 報恩에 관한 美談이 수록되어 있다.

『三國遺事』는 고려조 충선왕(1309~1313) 충숙왕(1314~1329) 연간의 1310년대 무렵과 조선조 태조 3(1394, 갑술)년경 그리고 중종 7(1512, 임신)년에 겨울에 慶州府尹 李繼福(1608~?) 등에 의하여 慶州府에서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초간본이 언제 간행되었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普覺國尊의 제자인 無極(?-?)에 의하여 1310년대에 간행된 것이 初刊인지 重刊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현재까지 고려조의 판본은 傳來되는 것이 없으며, 태조 3(1394, 갑술)년 무렵에 판각되어 조선조 초기에 인출된 壬申本 以前의 印本으로는 枋本·石南本·鶴山本·泥山本·趙種業本·梵魚寺本 등이 전해지고 있으며, 중종 7(1512, 壬申, 正德 7)년에 판각되어 인출된 壬申本(正德本)으로는 順菴手澤本·奎章閣本·晚松文庫本·六堂文庫本 등이 전해지고 있다. [<表 1> 『三國遺事』의 現傳本과 文化財 指定의 現況 參看]

<表 1>에서 나타나듯이, 『三國遺事』의 印本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朝鮮朝 初期印本 6종과 壬申本 4종 정도가 확인되고 있으나, 특히 朝鮮朝 初期印本의 경우에는 完帙本이 아닌 殘卷의 형태로 각각 소장되고 있다.

梵魚寺 所藏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 권4~5는 태조 3(1394)년 무렵에 조성된 朝鮮朝 初期印本으로 권4에는 「義解第五」가 수록되고 권5에는 「神呪第六」·「感通第七」·「避隱第八」·「孝善第九」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역사·문화·서지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指定申請本은 조선조 초기의 『三國遺事』의 原板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원천자료이다. 指定申請本 권3~5는 鶴山本 권3~5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 조선조 초기에 조성된 권1~5의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이며, 특히 鶴山本에서 闕張된 권5의 제27~30장 가운데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둘째로, 指定申請本은 壬申本(正德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원천자료이다. 권4 제14장 제9A행 제14자(0414A0914)의 ‘幡’은 壬申本인 서울대本이나 晚松文庫本에는 漏落되고 권4 제20B장 제4행 제20자(20B0420)의 ‘上’은 서울대本이나 晚松文庫本에서 ‘工’으로 잘못 板刻되어 있어, 壬申本의 誤脫字 및 誤謬를 보완하거나 校正할 수 있는 자료이다.

셋째로, 指定申請本은 書誌的 特性 및 書體 등에 대한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壬申本이 조선조 初期印本을 底本으로 翻刻한 系統의 版本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이다.

넷째로, 指定申請本은 口訣研究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권4에 수록된 「義解」의 편목 가운데 <圓光西學> · <二惠同塵> · <慈藏定律> · <元曉不羈> · <義湘傳教> 등의 항목에는 墨書된 구결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구결 가운데는 고려말~조선조 초기에 사용된 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國寶로 지정된 『三國遺事』는 國寶 第306號의 郭永大 所藏本<壬申(1512)以前本, 3卷1冊(卷3~5)>과 國寶 第306-2號의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本<壬申(1512)本, 5卷2冊(完帙)> 및 國寶 第306-3號의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本<壬申(1512)以前本, 2卷1冊(卷1~2), 파른本>에 지나지 않는다.

梵魚寺 所藏의 寶物 제419-3호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는 國寶 第306號의 郭永大 所藏本과 國寶 第306-3號의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本과 동일한 판본일 뿐만 아니라, 國寶 第306-2號의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의 壬申本보다 시대가 앞선 판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梵魚寺 所藏의 寶物 제419-3의 지정신청본 『三國遺事』는 國家指定文化財 國寶로 昇格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 指定事例

- 國寶 第306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3卷1冊(卷3~5). 郭永大 所藏.
- 國寶 第306-2號. 『三國遺事』. 壬申(1512)本. 5卷2冊(完帙). 서울大(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
- 國寶 第306-3號. 『三國遺事』. 壬申(1512)以前本. 2卷1冊(卷1~2). 延世大學校博物館 所藏.

○ 文獻資料

- 一然 著, 『三國遺事』. 木板本.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太祖 3(1394)頃造成, 朝鮮 初期 印出 推定]. 卷4~5. 梵魚寺 所藏本.
- 一然 著, 『三國遺事』 卷4~5. 影印本. 부산 : 문화재청 · 금정구청, 2010.
- 채상식, “『三國遺事』 해제” <『三國遺事』 卷4~5. 影印本. pp.6~18 所載>.
- 채상식, “범어사 소장 『三國遺事』의 자료적 가치”, 『지역과 역사』 제27집(부경역사연구소, 2010년)
- 부산광역시청,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부산 : 부산

광역시, 2018 09.

- 범어사, <문화재승격 신청서>. 부산 : 범어사정보박물관, 2018. 08.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의견서>. 부산 :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2018. 08.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東方學志』 제162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년 6월).
-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간행”, 『東方學志』 제162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년 6월).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東方學志』 제162집(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3년 6월).
-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mn>)

○ 其 他 (소장 경위 등)

指定申請本 『三國遺事』 卷4~5는 일제강점기에 佛敎改革과 抗日運動 및 敎育活動을 전개하고 梵魚寺의 初代 住持를 역임한 吳惺月(1865~1943)이 1907년에 梵魚寺에 기증하여 현재까지 梵魚寺聖寶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이는 指定申請本の 卷頭に 있는 “歲光武十一年丁未夏求耒於/ 慶北東萊金井山內院禪場/ 採得百花成蜜後不知/ 辛苦爲誰話鴻飛天末/ 跡留人黃泉名在家”와 권말에 있는 “孤輪獨照江山靜自笑一/ 聲天地驚如是舉唱明/ 宗旨笑殺西未碧眼僧”의 墨書된 識記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遺物取得經緯書> 參看]

그 후 2002년 10월에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고 2010년에 文化財廳과 金井區廳이 影印·刊行하여 學界의 研究用으로 제공되고 있다.

□

書誌事項

三國遺事. 卷4~5 / 一然(1206~1289, 高麗) 著. -- 木板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太祖 3(1394)頃 造成, 朝鮮 初期 印出 推定].

2卷1冊 : 四周雙邊, 半郭 24.0×17.0cm, 界線, 半葉 10行21字 註雙行, 細黑口, 上下內向黑魚尾 ; 33.5×21.2cm. 韓紙(藁精紙). 線裝(改裝).

題簽題: 三國遺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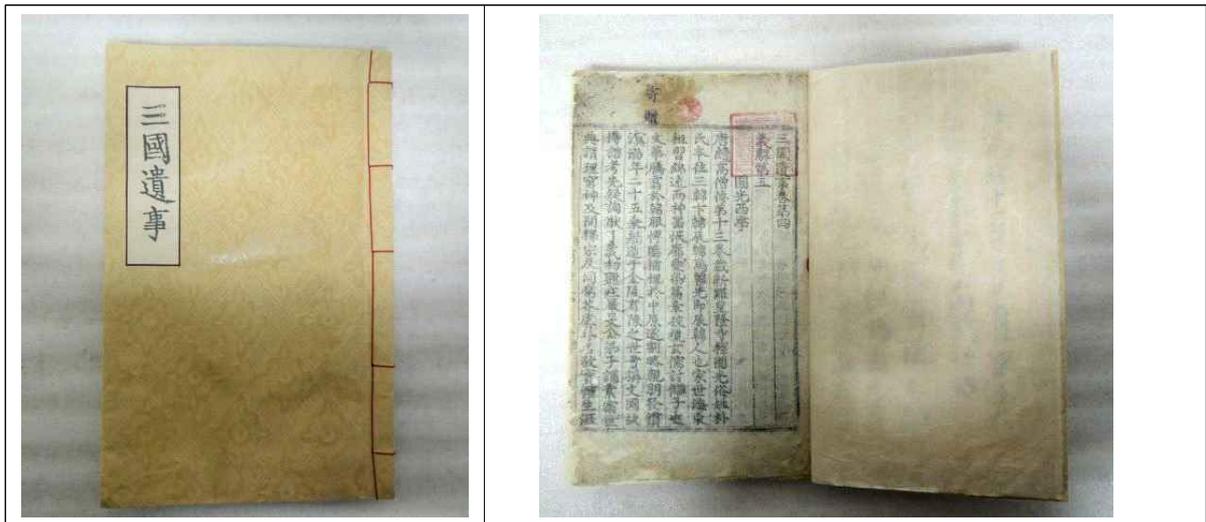
卷頭題: 三國遺事

版心題: 三國遺事

卷尾題: 三國遺事

○ 현 상

범어사 소장본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5는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吳惺月, 1865~1943)의 옛 소장본으로서 1907년경 기증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거의 전체가 배접되었으며 표지는 후대에 개장된 상태이다. 권5의 제26~27장은 결락된 상태이나 보존상태는 좋은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삼국유사(三國遺事)』는 1281년(충렬왕 7)에 일연(一然, 1206~1289)이 편찬한 사서로 한국학의 고전이며, 한국 고대의 역사·지리·문학·종교·언어·민속·사상·불교미술·고고학 등에 대한 사료의 보고이다. 그러나 구성과 체재의 혼란, 신이한 설화 그리고 오자와 탈자 등은 종합적인 연구와 정밀한 교감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내용은 「王曆」(권1)·「紀異」(권1-2)·「興法」(권3)·「塔像」(권3)·「義解」(권4)·「神呪」(권5)·「感通」(권5)·「避隱」(권5)·「孝善」(권5) 등 모두 5권 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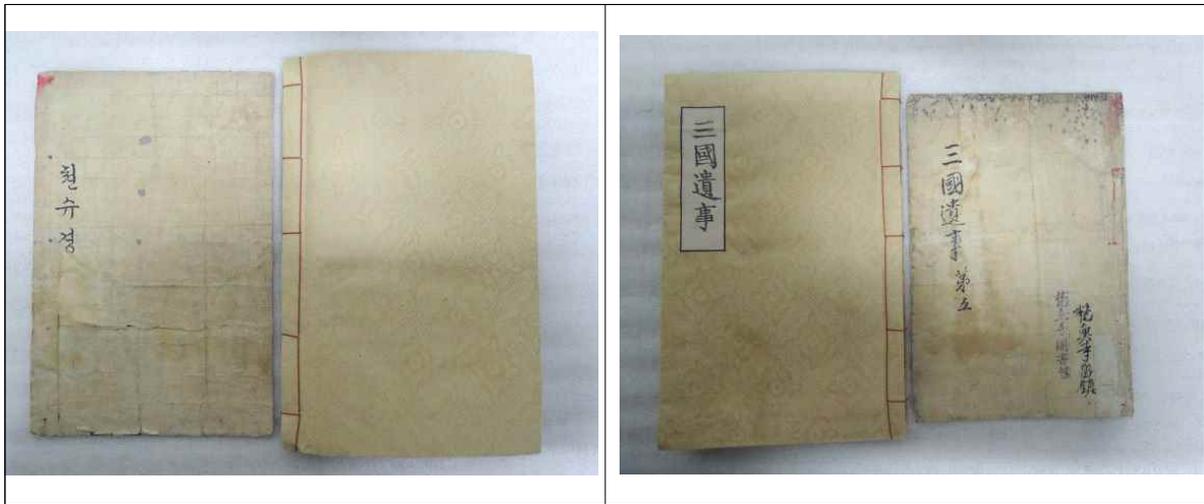
『삼국유사』 판본은 초간본의 간행시점이 명확하지 않으나, 1310년대와 1394년(태조 3)경, 1512년(중종 7, 正德壬申)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본 『삼국유사』 권4~5는 1394년(태조 3)년 무렵에 인출된 책으로 판단된다. 권4에는 「의해(義解)」, 권5에는 「신주(神呪)」·「감통(感通)」·「피은(避隱)」·「효선(孝善)」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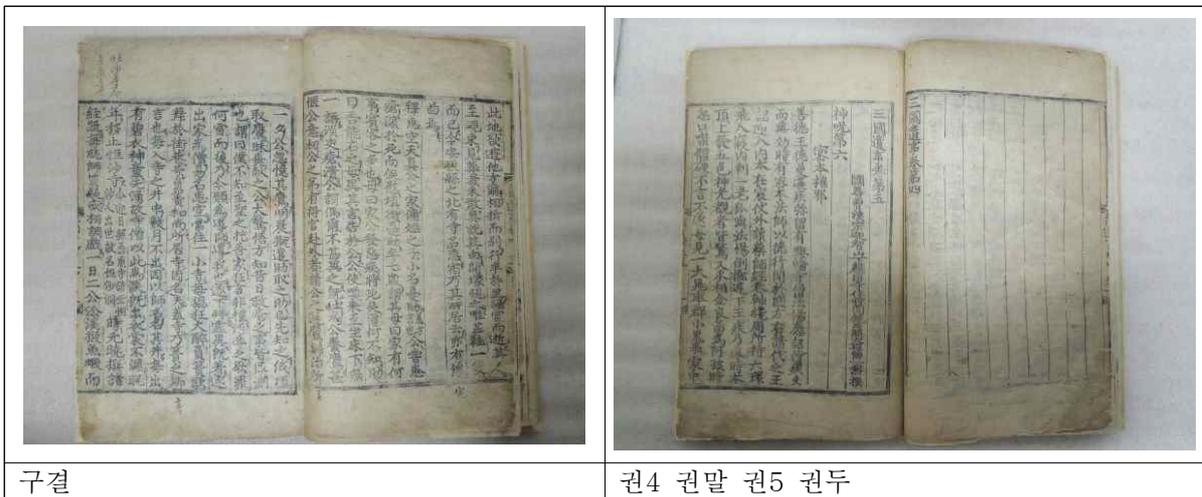
표지는 개장된 상태이다. 본래의 표지 역시 개장되었던 것으로 앞표지에는 ‘三國遺事 第五’라는 표제와 함께 ‘梵魚寺留鎮’과 ‘梵魚寺圖書館’이란 목서가 쓰여 있고,

뒤표지에는 ‘천슈경’이라는 한글 목서가 있다. 앞표지 이면(裏面)에는 “광무 11년 정미(1907) 여름에 동래 금정산 내원선장에서 구해왔다(歲光武十一年丁未夏求來於「慶北東萊金井山內院禪場」)이라 하여 전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어 『선가귀감(禪家龜鑑)』에 수록된 당나라 시인 나은(羅隱, 833~909)의 “採得百花成蜜後, 不知 / 辛苦爲誰恬, 鴻飛天末 / 跡留沙, 人去黃泉名在家”를 옮겨 놓았다.

권4의 권수제면 서미(書眉) 가운데 부분에는 ‘吳惺月藏書/惺月’이라는 작은 원형의 장서인과 ‘寄贈’이라는 목서가 있어 이 책이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오성월(1865~1943)의 옛 소장본이었으며 이후 기증된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조사본은 본문 글자와 광곽·계선 등의 인출 상태 등으로 볼 때 1394년(태조 3) 경에 간행된 판본을 중심으로 조선 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본문에는 구결과 한글 현토가 목서되어 있고, 일부 장의 두주(頭註)에 훼손된 글자나 본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구결

권4 권말 권5 권두

○ 지정사례

- 국보 제306호 삼국유사 권3~5 (곽영대/松隱本)
국보 제306-2호 삼국유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보 제306-3호 삼국유사 권1~2 (연세대 박물관/파른본)
보물 제419-2호 삼국유사 권2 (성암고서박물관/泥山本)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부산 범어사)
보물 제419-4호 삼국유사 권3~5 (서울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 문헌자료

- 김상현, 「『三國遺事』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제162집, 2013.6.
남권희, 「파른본 『三國遺事』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제162집, 2013.6.
하일식, 「『三國遺事』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제162집, 2013.6.
채상식, 「부산 범어사 소장 『三國遺事』」, 『三國遺事』(범어사 소장 국가지정(보물) 전적 영인본), 2010.



○ 현 상

조사대상 『三國遺事』는 고려 충렬왕 7(1281)년 普覺國尊 一然(1206-1289)이 편찬한 삼국시대의 불교서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서적이다. 이 『삼국유사』 권4/5는 조선 태조 3(1394)년 慶州府使 金居斗가 『三國史記』를 중간할 때 함께 판각한 판목에서 그 가까운 시기에 인출한 선초본의 일부로 추정된다. 본서는 일제강점기 불교개혁운동, 항일운동, 교육활동을 전개한 승려지식인 吳惺月(1865-1943)이 주지로 있던 범어사에 기증한 서적이다. 현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으며, 2002년 10월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었다.

<서지사항>

三國遺事, 권4/5 / 一然(高麗) 撰.
木版本. [太祖 3(1394)年頃] 33.5 × 21.2cm.
1冊(零本). 四周雙邊. 半郭 24.0 × 17.0cm. 有界, 10行21字. 細黑口, 內向黑魚尾.

印 : 吳惺月藏書, 寄贈, 梵魚寺圖書館藏書印.

○ 내용 및 특징

『三國遺事』는 고려 충렬왕 7(1281)년 普覺國尊 一然(1206-1289)이 편찬한 삼국시대의 불교서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서적이다. 일연은 경주의 속현이었던 章山郡

(경산) 출신이다. 자는 ‘晦然’이었으나, 나중에 ‘一然’으로 바꾸었고, 호는 無極과 睦庵을 썼다. 대표적인 제자는 混丘와 竹虛를 들 수 있다.

고종 6(1219)년 14살로 설악산 陳田寺로 출가하여 大雄長老의 제자가 되어 具足戒를 받았고, 고종 14(1227)년 승과의 選佛場에 응시하여 장원에 급제하였다. 그 뒤 琵琶山の 寶幢庵에서 수년 동안 참선에 몰두하였고, 고종 23(1236)년 10월 몽고가 침입하자, 보당암의 북쪽 무주암으로 거처를 옮겨 깨달음을 얻었다. 이 해에 三重大師의 僧階를 받았고, 고종 33(1246)년 禪師의 法界를 받았다. 知訥의 법통을 계승하였다.

최씨 무인정권과 밀접한 유대가 있던 鄭晏의 초청으로 고종 36(1249)년 남해의 定林寺에 머물면서 分司大藏都監의 작업에 약 3년 동안 참여하였다. 고종 43(1256)년 輪山の 吉祥庵에 머물면서 『重編曹洞五位』 2권을 지었고, 고종 46(1259)년 大禪師의 승계를 제수 받았다. 원종 2(1261)년 원종의 부름을 받고 상경하여 강화의 禪月寺 주지가 되었고, 중앙정계와 관련을 맺은 후 이를 배경으로 가지산문의 재건에 힘썼다. 원종 5(1264)년 영일군 雲梯山の 呑魚寺로 옮겼으며, 원종 9(1268)년에는 조정에서 베푼 雲海寺의 大藏落成廻向法會를 주관하였다. 비슬산 仁弘寺(1274년 仁興寺로 개칭)의 주지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원종 15(1274)년 비슬산 동쪽 기슭의 湧泉寺를 중창하고 佛日寺로 고친 뒤, 「佛日結社文」을 지었다. 충렬왕 3(1277)년 왕명으로 청도 雲門寺의 주지에 취임하여 충렬왕 7(1281)년까지 선풍을 크게 일으켰다. 이 때 『삼국유사』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렬왕 8(1282)년 왕에게 禪을 설하고 개경의 廣明寺 머물렀다. 충렬왕 9(1283)년 國尊으로 추대되어 圓鏡冲照라는 호를 받았다.

충렬왕 10(1284)년 조정에서는 토지 100여 頃을 주어 경상도 軍威의 麟角寺를 수리하고 주재하게 하였다. 이후 궁궐에 들어가서 九山門都會를 두 번 개최하였는데, 이는 가지산문이 일연을 중심으로 고려 불교계의 전 교권을 장악한 것을 뜻한다. 충렬왕 15(1289)년 손으로 金剛印을 맺고 입적하였다. 입적하던 해에 인각사 동쪽 언덕에 탑을 세웠으며, 시호는 普覺이고 塔號는 靜照이다.

특정 신앙이나 종파에 얽매이지 않고 선교를 막론하고 많은 불교 서적을 편수했다. 그러나 선종 계통과 事典의 성격을 지닌 저작이 많다. 저서로는 『話錄』 2권, 『偈頌雜著』 3권, 『重編曹洞五位』 2권, 『祖派圖』 2권, 『大藏須知錄』 3권, 『諸乘法數』 7권, 『祖庭事苑』 30권, 『禪門拈頌事苑』 30권, 『三國遺事』 5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重編曹洞五位』는 초기 성리학적 분위기와 서로 맥락이 닿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고 한다.

『삼국유사』가 처음 간행된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일연이 입적하기 전에 간행하였다는 견해, 일연의 제자인 寶鑑國師 無極이 충숙왕 10(1310)년경 초간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 선초 태조 3(1394)년경 慶州府使 金居斗가 『三國史記』를 중간할 때 함께 처음 간행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선초본은 잔본으로나마 전래되어, 합치면 완질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통행본의 저본은 중종 7(1512)년에 慶州府尹 李繼福(1608-?)이 경주부에서 간행한 이른바 壬申本(正德本)이다.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도 상당수 수록되어 있어서 『삼국사기』와 함께 우리 고대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원천이 된다. 내용은 5권9편 14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의 王曆과 권1~권2에는 紀異, 권3에는 興法과 塔像, 권4에는 義解, 권5에는 神呪, 感通, 避隱, 孝善이 수록되어 있다. 왕력에는 삼국, 가락국과 후삼국의 왕대와 연표가 수록되어 있고, 紀異에는 고조선 이하 여러 고대국가의 흥폐·신화·전설·신앙 등과 신라 최후의 敬順王까지의 신라와 백제·후백제·가락국과 관계되는 역사 등 62편이 수록되어 있다. 興法에는 37편의 신라 중심의 불교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고, 塔像에는 불교 신앙의 대상인 石塔·梵鐘·佛像·寺刹 등에 관한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義解는 신라의 고승들에 대한 설화와 전기 13편이다. 神呪에는 密敎의 승려들에 대한 행적 3편, 感通에는 부처와의 영적 감응을 이룬 일반 신자들의 설화, 避隱에는 깊은 학문과 엄격한 도덕률을 지닌 고승들의 異蹟에 대한 10편의 설화, 孝善에는 뛰어나게 효행을 한 5사람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조사대상 『삼국유사』 권4~5는 태조 3(1394)년 무렵에 조성된 조선조 초기인 본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인 선장본으로 장책되어 있었다. 2009-2010년에 지류문화재보존처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존처리를 하여 거의 전체 책장이 배접되어 있다. 근래 새로운 표지를 덧댄 상태이며, 권5의 26-27장은 결락된 상태이다. 표지에 梵魚寺留鎮이란 목서가 있다. 내용은 권4는 義解이며, 권5는 神呪이다. 권5에만 서명 다음 행에 國尊曹溪宗迦智山下麟角寺住持圓鏡冲照大禪師一然撰이라 수록되어 있다. 본문 내용에는 音讀口訣과 한글현토가 소자로 목서되어 있다. 서미에는 頭註로서 훼손된 글자나 본문 내용 등이 먹으로 필사되어 있다.

○ 문헌자료

- 경상북도, 三國遺事 판각사업 완료 및 경상북도 교감본 추진상황 보고서. [2017]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東方學志 162 (2013.06) 3-27.
 南權熙, 『三國遺事』 諸版本의 서지적 분석. 한국고대사연구 79 (2015.09) 203-246.
 南權熙, 泥山本 「三國遺事」의 書誌的 考察. 서지학연구 제5·6집 (1990.06) 205-234.
 채상식, 부산 범어사 소장 『三國遺事』. 『三國遺事』(범어사 소장 국가지정(보물) 전적 영인본) (금정구청, 2010)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東方學志 162 (2013.06)

○ 기 타

주지를 역임한 바 있는 吳惺月 스님이 범어사에 기증한 서적이다. 현재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수장되어 있으며, 2002년 10월 보물 제419-3호로 지정되었다.

○ 지정사례

- 국보 제306호. 『三國遺事』 권3/5. 광영대. (2003.02.) 선초본. 松隱本.
국보 제306-3호. 『三國遺事』 권1/2. 연세대 박물관. (2018.02.) 선초본. 파른本.
보물 제419-2호. 『三國遺事』 권2. 조동기. (2002.10.) 선초본. 泥山本.
보물 제419-3호. 『三國遺事』 권4/5. 범어사. (2002.10.) 선초본. 梵魚寺本.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20-04-002

2. 지정조격 권1~12, 23~34 (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가. 심의사항

‘지정조격 권1~12, 23~34’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지정조격 권1~12, 23~34’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12.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9.9.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지정조격 권1~12, 23~34(至正條格 卷一~十二, 二十三~三十四)
- 소유자(관리자) : 손성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수 량 : 2책
- 규 격 : 24.0 × 15.6cm
- 재 질 : 죽지(竹紙)
- 판 종 : 목판본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346년(元 順帝 6/ 고려 충목왕 2년)



『지정조격 권1~12, 23~34』 - 권수제, 내지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元 順帝, 至正6)에 완성한 원나라 최후의 법전으로 중국에서는 물론 고려와 조선에도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자료이다. 조격(條格)과 단례(斷例)로 이루어진 이 법전은 명나라 초기에 산일되어 서명과 목록만이 『흙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 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단례(斷例)의 표현형식이 율(律)과 다르지만, 편목(篇目)과 조목(條目)은 앞뒤 시대의 율전(律典)과 분명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지정조격』이 동아시아 고대 법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조격』의 영향력은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세종대 원 간본을 토대로 50부가 간행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를 문신들에게 반사하여 읽게 하였다는 내용 등은 그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조사본 『지정조격』은 원의 법률이지만, 고려와 조선의 법제 및 법률 적용에 있어 기본적인 자료로서 참고되었고, 조선 세종대에는 필요에 의해 간행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책은 현재 중국이나 몽골 등에서는 전래되지 않는 원간본(原刊本)으로서, 고려 말~조선 초 법제사 연구와 서지학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따라서 조사본 『지정조격』은 현존하는 유일본으로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법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유물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조격』이 우리나라 저작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물 지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논이 필요하겠으나, 이 책이 중국에조차 완질이 전하지 않는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는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국내외에서 이미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책의 반출 등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물 지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지정 가치 있음)

『至正條格』은 중국에서도 역사적·사회사적·법제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법전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에 큰 영향을 미쳐 중시할 법전이다. 중국에서는 고대 법전을 집대성한 『唐律』, 송초 『唐律』의 重詳定刑統을 반포한 외에는 정규로 반포한 형률이 없었다. 金에 이르러 『泰和律』을 반포하였는데, 『唐律』의 편목을 준수하고 조문만 소규모로 변경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망실되었다. 그 다음의 형률이 『大明律』이다. 『唐律』의 12篇에 비해 『大明律』은 七篇三十門으로 개편되었고, 조문에도 많은 증산이 있어 크게 달라졌다. 『至正條格』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두 법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러던 차 『至正條格』이 발견되면서 『至正條格』이 두 법전의 다리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斷例의 표현형식이 律과 다르지만, 篇目·條目은 앞뒤 시대의 律典과 분명한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至正條格』이 『大明律』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드러났다. 잔본 『至正條格』은 원의 말기 역사와 중국고대 법제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그 중요성의 조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술적인 가치로 보면 기존에 알려진 『通制條格』과 간행연도에 있어 10년의 시차로 간행되어 내용상 크게 차이나지 않을 듯하다. 또한 『至正條格』 4권 중에 2권 정도만 전래되고, 그나마 한 권은 훼손이 심해 내용의 연결에 한계가 있다. 유물로서 고고학적 가치는 높지만,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通制條格』과 『元典章』에 수록된 문서는 수량이 많고 광범위하지만, 각각 인종 연우 3(1316)년과 영종 지치 2(1322)년이 하한선이란 점이다. 그러나 『至正條格』에는 지치 4(1344)년까지 수록되었고, 그 40%는 지치 2년 이후 大都에서 제정한 마지막 단계의 문서이다. 또한 정치, 경제, 법률, 군사, 문화 등 여러 방면에 미치는 문서 대다수가 새로운 자료란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② 『通制條格』 및 『元典章』과 수록내용상 시기적으로 상당부분 중복된다. 그렇지만 두 법전은 물론 다른 역사서에도 수록되지 않거나 수록되어도 소략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해, 殘本 『至正條格』에는 보다 자세하게 수록된 경우도 있어서 『至正條格』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점이다.

③ 법제사의 시각에서 잔본 『至正條格』의 내용, 특히 斷例는 중국고대 율령식 법전의 발전과정상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④ 순제는 지정 28(1368)년 명나라의 주원장에게 밀려 大都를 버리고 만리장성 북쪽의 上都로 패주한 후, 뒤를 이어 중원을 호령한 明은 한족의 법과 제도로 정비했으므로, 『至正條格』은 더 이상 중국에서는 용도가 없게 되었다. 이로서 인멸되어 원나라 최후의 법전으로 중국이나 몽고에도 전래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2002년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서 원간본 『至正條格』 잔본 2책이 발견되었으니, 요행히 원말 인쇄술로 제작된 『至正條格』의 유일본이란 점이다. 유일하게 전래하는 古本으로 서지학 연구에도 가치가 높다.

⑤ 『至正條格』은 원의 법률이지만, 고려 및 조선의 법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고려는 제4대 광종년간에서 제6대 성종년간 사이에 관제와 율령을 제정하였다. 고려의 형법은 唐律 502조를 고려실정에 맞게 가려서 엮은 71조의 성문법이였다. 그 내용을 분류하면 名例律, 職制律, 戶婚律, 奴婢律, 詐僞律, 盜賊律, 雜律이다. 名例律은 오늘날의 刑法總則에 해당하며, 職制律은 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戶婚律은 백성의 탈세, 호적, 혼인에 관한 범죄, 奴婢律은 노비와 관련된 범죄, 詐僞律은 관과 민간의 문서나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 도용 등의 범죄, 盜賊律은 모반, 모살, 유괴, 독살, 저주, 강도와 절도, 공갈 등의 범죄, 雜律은 오늘날의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한다.

이 고려의 법령은 몽고의 고려 침입이후 100년 이상 시행되지 못하고 『至正條格』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목민인 몽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농경민인 고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는 많이 달라 법적용에 난관이 없을 수 없었다. 특히 고려는 長男子先·賤者隨母法의 법체계였지만, 몽고는 末子先·一良一賤從良의 법체계는 충돌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원은 양국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일정부분 양해하게 되었다.

이후 원이 중원의 문제에 골몰하게 되기에 이르자, 고려는 공민왕 5(1356)년에야 비로소 원의 내정간섭에서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려 말기는 권문세족·불교승려·외척 등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공양왕 3(1391)년 정몽주는 고려 전래의 법령·『至正條格』·『朱子家禮』·『大明律』 등을 참작해 新律을 만들어 법질서를 확립하려고 힘썼다.

『至正條格』은 조선에 적합한 신법을 제정하던 조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至正條格』은 세종 연간에도 중국 제도를 연구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세종 5(1423)년 10월 3일 承文院에서 『至正條格』 10부와 『吏學指南』 15부와 『御製大誥』 15부를 인쇄하기를 청하자, "각각 50부씩 인쇄하라"로 명한 바 있다. 세종 8(1426)년 10월 27일 律文은 漢文과 吏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도 모두 알기가 어려

운데, 율을 배우는 생도는 더욱 어려울 것이므로 문신 중에 訓導官을 선발해 『至正條格』·『唐律疏義』·『大明律』을 강습하게 하였다. 세종 12(1430)년 3월 18일 詳定所에서 여러 분야의 取才에 있어 경서와 여러 기예의 수목에 대하여 아뢰는 내용에 漢吏學 가운데도 『至正條格』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록 외에도 성종 24(1493)년 12월까지 간간이 『至正條格』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經國大典』 반포 이전에는 여전히 참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至正條格』은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영향을 큰 미쳤다. 『至正條格』은 현재 중국이나 몽골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지 않는 逸書가 되었다. 비록 조사 대상본은 완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법전이고, 더 이상 완본이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의결사항

- 보 류 - 추가보완 필요

조사보고서

□

書誌事項

至正條格 / 順帝(元) 命編.

木版本. [順帝 至正 6(1346)]

2冊(卷一~十二, 卷二十三~三十四). 四周單邊. 半郭 19.1 x 12.8 cm. 有界. 19~20行 26~28字. 黑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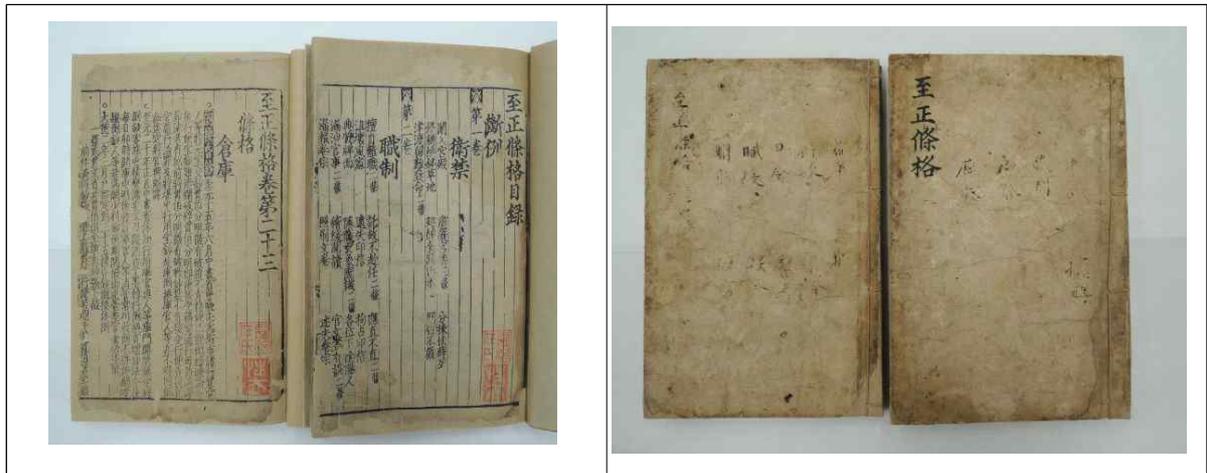
上下下向黑魚尾 ; 24.0 × 15.6 cm.

藏書印 : 鬲河任氏, 性夫.

○ 현 상

조사본은 2002년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서조사팀이 경주시 양동마을 경주손씨 서

백당 종가에서 발견한 이후 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어 보관되고 있다. 원 표지는 개장되었고 책 전체가 배접된 상태이다. 중국식의 사침안(四針眼) 장정으로 묶여진 책은 일부 결락된 부분과 오염은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다. 조사본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나 종이는 죽지이므로 남아있는 잔편에 대한 안정적인 보존처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내용 및 특징

『지정조격(至正條格)』은 1346년(元 順帝, 至正6)에 완성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원나라는 두 차례 법전을 반포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첫 번째는 1323년(元 英宗, 至治3)년에 반포한 것으로 많은 단행 법령 및 판례를 모은 『대원통제(大元通制)』이다. 이 법률은 제조(制詔) · 조격(條格) · 단례(斷例) · 별류(別類)의 4부로 나누어진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가운데 조격 653조만 전래되어 후에 『통제조격(通制條格)』이라는 이름으로 간행되었다. 두 번째는 1345년 완성한 『지정통제(至正通制)』로서 조격(條格)과 단례(斷例) 부분만 확인되어 일반적으로 『지정조격』이라 한다.

이 책은 명나라 초기에 산일되어 서명과 목록만이 『흙정사고전서총목(欽定四庫全書總目)』 등 다른 문헌에 전해져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져 있을 뿐 전체는 전해지지 않았다.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이행되어가는 정치적인 변동 속에서 법률도 한족의 법과 제도로 정비되면서 산일되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정조격』과 관련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① 문하부(門下府)에서 봉상 소경(奉常少卿) 김첨(金瞻)을 탄핵하였다. 김첨이 건의하였었다.

"본조(本朝) 국학(國學)에서 봄·가을 두 정일(丁日)을 당하여 문선왕(文宣王)을 제사하는 데에 참람하게 대뢰(大牢)008) 를 쓰니, 예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빌건대, 『지정조격(至正條格)』 제군현(諸郡縣)의 품식(品式)에 의하여 양(羊) 셋만 쓰소서."

그러나 본조에서 대뢰(大牢)를 쓴 지가 오래인데, 김침이 경솔히 고치고자 하였으므로, 탄핵한 것이다.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1400 1월 24일 기축)

② 승문원(承文院)에서 계하기를,

"『지정조격(至正條格)』 10부와 『이학지남(吏學指南)』 15부와 『어제대고(御製大誥)』 15부를 인쇄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기를, "각각 50부씩 인쇄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22권, 세종 5년/1423 10월 3일 경술)

③ 임금이 말하기를,

"인법(人法)은 함께 써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가까운 율문(律文)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율문(律文)이란 것이 한문(漢文)과 이두(吏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율을 배우는 생도이겠는가. 이제부터는 문신(文臣) 중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훈도관(訓導官)을 두어 『당률소의(唐律疏義)』·『지정조격(至正條格)』·『대명률(大明律)』 등의 글을 강습(講習)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니, 이조로 하여금 정부(政府)에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4권, 세종 8년 10월 27일 정해)

④ 『지정조격(至正條格)』 을 문신(文臣)에게 나누어 주었다.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1434 12월 28일 신미)

⑤ 승정원(承政院)에 전교(傳敎)하기를,

"한(漢)나라 때에는 입춘(立春)에 관대한 조칙(詔勅)을 내렸다. 내가 생각하건대, 인군(人君)의 정사(政事)는 사시(四時)에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나 봄 기운은 만물을 발양(發揚)하게 하니, 내가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가벼운 죄에 관계된 사람들을 풀어 주고자 한다. 그것을 오늘의 경연 재상(經筵宰相)에게 물어 보도록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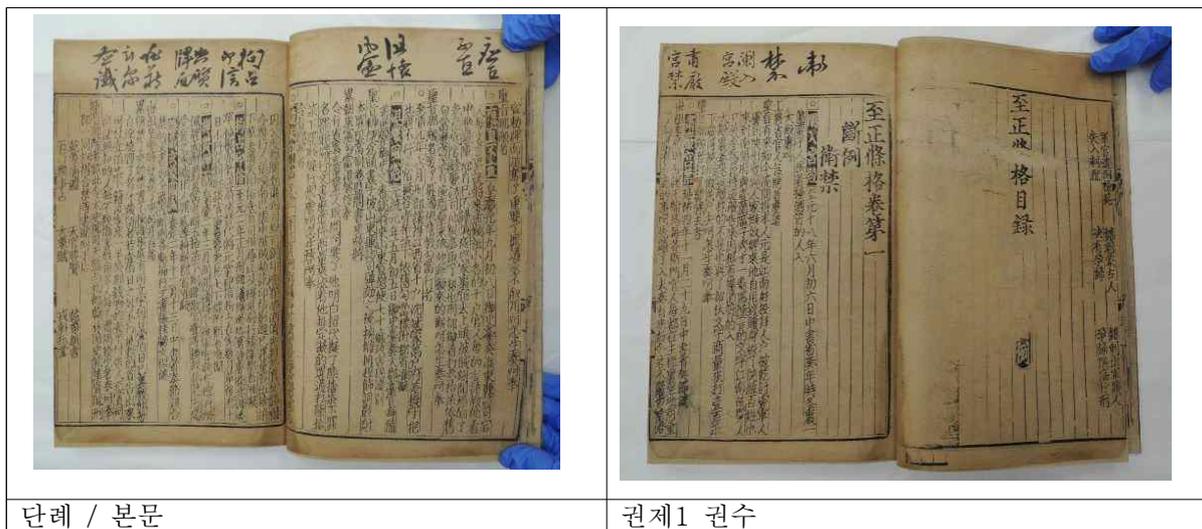
하니, 윤필상(尹弼商)·채수(蔡壽)·허계(許誠)가 아뢰기를, "이 일은 『한사(漢史)』,

『월령(月令)』에 모두 실려 있고, 『지정조격(至正條格)』에도 실려 있습니다. 입춘(立春)에 행춘 어사(御史)를 나누어 보내어 억울한 옥사[冤獄]를 심리(審理)하게 해서 시행함이 편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285권, 성종 24년/1493 12월 22일 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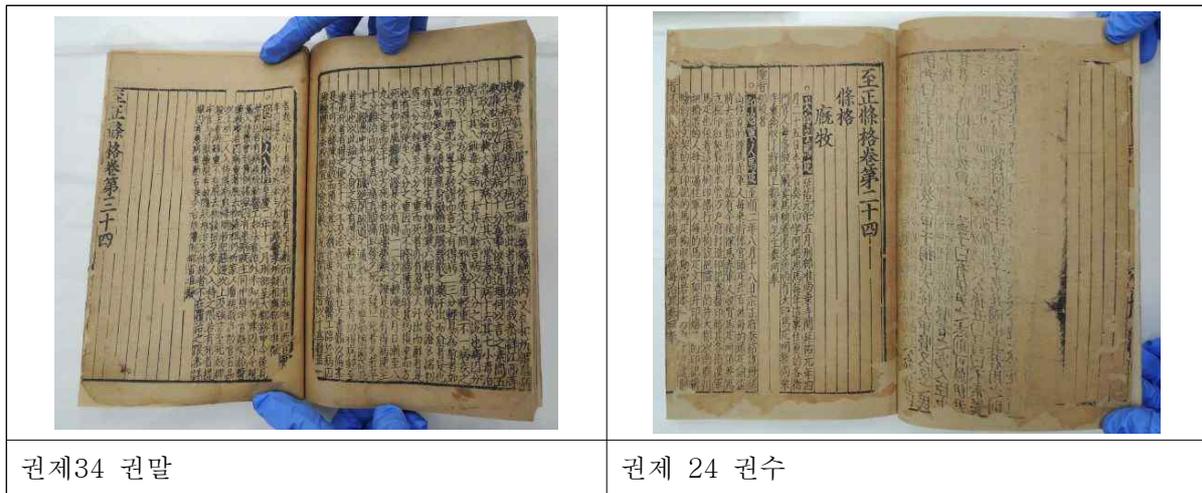
조선왕조실록의 여러 기록을 통하여 15세기 말까지도 모든 율령의 적용에서 『지정조격』을 상고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423년 원간본을 토대로 50부가 인쇄되었고, 1434년에는 인쇄된 책을 문신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대명률(大明律)』 뿐만이 아니라 『당률소의(唐律疏義)』나 『지정조격』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실을 보여준다.

조사본 『지정조격』은 원간본 4책 가운데 잔본 2책이다. 조사본 가운데 1책은 단례(斷例)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1권 위금(衛禁)으로부터 제12권 구고(廐庫) 가운데 철과(鐵課)까지 남아 있고 이하는 결락되었다. 단례 부분은 앞부분 목록을 통하여 제1권 위금(衛禁), 제2권~제6권 직제(職制), 제7권~제8권 호혼(戶婚), 제9권~제12권 구고(廐庫), 제13권 천흥(擅興), 제14권~제19권 도적(盜賊), 제20권~제22권 투송(鬪訟), 제23권~제24권 사위(詐僞), 제25권~제27권 잡율(雜律), 제28권 포망(捕亡), 제30권 단옥(斷獄) 등 11문(門)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어 현존하는 것은 衛禁, 職制, 戶婚에 대한 내용과 廐庫 4편 가운데 3편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사본 가운데 다른 1책은 조격(條格)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23권 창고(倉庫)로부터 제34권 옥관(獄官)까지 12권만이 남아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23권 창고(倉庫), 제24권 구목(廐牧), 제25권~제26권 전령(田令), 제27권 부역(賦役), 제28권 관

시(關市), 제29권 포망(捕亡), 제30권 상령(賞令), 제31권 의약(醫藥), 제32권 가령(假寧), 제33권~제34권 옥관(獄官) 까지의 10문(門)만이 남아 있다. 조각 부분은 목차가 확인되지 않아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2책의 구성을 감안한다면 전체 40권에서 50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본은 죽지(竹紙)를 사용했으며, 판식과 글자 모양은 전형적인 원대의 민간방각본으로 판단된다. 두 책 모두 선장(線裝)으로 중국식의 四針眼 장본이며 표지는 개장한 것이다. 표지에는 ‘至正條格’이란 표제와 함께 책에 수록된 내용을 세필로 적어 놓았다. 책의 크기는 24.0×15.6cm, 반곽 19.1×12.8cm 내외이다. 행자수는 반엽 19행~20행의 26자~28자 구성을 갖고 있다. 권수제와 권미제는 2행에 걸쳐 큰 글씨로 ‘至正條格 卷第○’의 형식으로 하였고, 판심제는 ‘斷例○’ 및 ‘條格○’을 기본으로 하였다. 판식을 보면 광곽은 좌우쌍변(左右雙邊)에 유계(有界)이며 어미는 상하세흑구(上下細黑口)에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의 형식이다.

한편 표지 이면에는 중국 당(唐)의 문인이었던 저광희(儲光羲, 707~763 추정)가 지은 「長安道」란 시가 필사되어 있다. 즉 “西行一千里 暝色生寒樹 暗聞歌吹聲 如是長安道”이다.



한편 『지정조격-단례』의 목록과 『지정조격-조격』의 제23권 권두에 주문방인의 ‘鬲河任氏’와 백문장방인의 ‘性夫’란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본래 책이 발견된 양동(良洞)마을의 경주손씨종가(慶州孫氏宗家)는 선초에 사헌부 감찰로 입신한 손등(孫登)의 후손가이다. 손등의 아들인 손사성(孫士晟, 1396~1477)은 세종 5년인 142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 박사로 재직하였다. 그는 주로 외교문서인 이문(吏文)을 전담하였던 관리로 평가된다. 손사성의 장자인 손욱(孫旭)의 후손은 영천에 터전을 마련하였고, 차자 손소(孫昭, 1433~1484)의 후손들은 본향인 경주로 돌아와 양동에 정착하였다.

책에 보이는 ‘서하임씨(西河任氏)’와 ‘성부(性夫)’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서하(西河)’는 ‘풍천(豐川)’의 옛이름으로서 고려 충숙왕대 삼사판사를 역임하였던 임자송(任子松)과 그의 후손으로서 세종대 우찬성을 지낸 임원준(任元濬, 1423~1500)과 그의 아들 임사홍(任士洪; ?~1506)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로 소장 가문의 손사성과 손소 부자는 임원준 부자와 친교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책에서 모두 대두(擡頭)의 형식이 확인된다. ‘단례’에서는 성지(聖旨), 황제(皇帝), 상위(上位), 누조(累朝), 조서(詔書) 등에서 1자 대두하고 있고, ‘조격’에서는 2자 내지는 1자 대두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 문헌자료

- 김문경, 「원간본 『至正條格』에 대한 기초적 고찰」,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 김인호, 「고려의 元律 수용과 高麗律의 변화」, 『고려시대 형법과 형정』, 국사편찬위원회, 2002.
- 김호동, 「『至正條格』의 편찬과 원말의 정치」,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 朴秉濠, 「麗末鮮初, 元의 刑事法, 특히 『至正條格』의 影響」, 대한민국학술원 학술세미나, 2013.
- 安承俊, 「至正條格의 所藏 및 保存 經위에 대한 考察」,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延正悅, 「고려와 至正條格에 관한 일 연구」, 『한성대학교논문집』 18-1, 1994.
이개석, 「元朝中期 法典編纂 研究와 『至正條格』의 發見」, 『東洋史學研究』 83, 東洋史學會, 2003.

이개석, 「『至正條格』의 편찬과 법제사상의 의의」, 『至正條格:校註篇』, 휴머니스트, 2007.

張帆, 「重現于世的元代法律典籍:殘本《至正條格》」, 『文史知識』 320, 2008.2期.

정금식, 「지정조격과 세종의 국가경영」, 『法律文化研究』 6, 2010.

趙 晶, 「至正條格 研究 管窺」, 『法律文化研究』 6, 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지정조격』 (교주본·영인본), 2007.

○ 지정사례

지정된 사례는 없음.



○ 현 상

『지정조격』은 條格과 斷例로 각 2책, 총 4책으로 구성되었다. 본 신청본은 斷例와 條格 각 1책씩 2책만 남아 있으며, 條格의 일부가 훼손되었다.

○ 내용 및 특징

원나라 법전인 『지정조격』은 고려와 조선의 법제에 큰 영향을 미친 법전이지만 원나라가 멸망한 후 한중 양국에서 모두 주목하지 않게 되어 현재 중국에는 책의 형태로 전하는 것이 없다.

청대에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에 이미 이 책은 중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永樂大典』의 『至正條格』 조격 23卷을 참고하여 목록을 수록하였다고 전한다. 1983년에서 1984년 사이에 內蒙古文物考古所 등이 진행한 額濟納旗黑城遺址(어지나기 흑성 유적) 발굴 작업에서 宣紙와 麻紙로 된 『지정조격』 낱장 8매가 발견되었을 뿐이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본서는 비록 2권의 낙질이긴 하지만 條格과 斷例 각 1권이 있어 전체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법전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 중국 측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곳에서 영인본도 간행하였다.

○ 문헌자료

宋國華, 『元代法制變遷研究: 以『通制條格』和『至正條格』爲比較的考察』, 北京: 知識產權出版社, 2017. 311面.

劉曉, 「元代非皇帝怯薛輪值的日次問題-兼談『元典章』與『至正條格』的一則怯薛輪值

史料」, 『隋唐遼宋金元史論叢』 第一, 2011.

○ 기 타

이 책은 경주 양동마을 경주손씨종가에 소장되어 있던 책으로 200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사에서 발견되었다. 斷例 제1권 권수 하단에 ‘鬲河任氏(서하임씨)’와 ‘性夫(성부)’라는 소장인이 있다.



○ 현 상

『至正條格』은 원나라 순제 지정 6(1346)년에 완성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고려의 법령은 몽고의 고려 침입이후 100년 이상 시행되지 못하였고, 원의 법률인 『至正條格』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원의 세력이 몰려간 후이지만 『至正條格』은 조선의 법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명에서는 이민족의 법률체계를 버리고 『大明律』을 제정하였고, 조선도 『大明律』의 영향을 많이 받은 『經國大典』을 기본법전으로 제정하였다. 이로서 『至正條格』은 현재 중국이나 몽골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지 않는 逸書가 되었다. 약 600년이 지난 2002년 경주 江東面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서 원간본 『至正條格』 잔본 2책이 발견된 것이다.

<서지사항>

至正條格 / 順帝(元) 命編.

木版本. [順帝 至正 6(1346)]

2冊. 四周單邊. 半郭 19.1 x 12.8 cm. 有界. 19-20行26-28字.

黑口,上下下向黑魚尾 ; 24.0 × 15.6 cm.

藏書印 : 鬲河任氏, 性夫.

○ 내용 및 특징

『至正條格』은 원나라 순제 지정 6(1346)년에 완성한 원나라 최후의 법전이다. 원은 2차례 법전을 편찬하였다. 1차는 영종 지치 3(1323)년에 반포한 『大元通制』인데, 그 내용은 制詔 94조 · 條格 1,151조 · 斷例 717조 · 別類 577조, 모두 2,539조이다. 이 가운데 條格 653조만 전래되는데, 흔히 『通制條格』이라 한다. 2차는 순제 지정 5(1345)년 완성한 至正通制라 할 수 있는데, 條格과 斷例 부분만 발견되면서

일반적으로 『至正條格』이라 한다. 그 내용은 制詔 150조·條格 1,700조·斷例 1,059조, 모두 2,909조이다. 制詔는 3복본을 제작하여, 聖覽用은 宣文閣에 비치하고, 2복본은 中書와 國史院에 수장하였다. 條格과 斷例는 判각하여 다음해 지정 6(1346)년 반포하였다.

순제는 지정 28(1368)년 명나라의 주원장에게 밀려 大都를 버리고 만리장성 북쪽 몽고 초원지대 上都로 패주했다. 上都로 돌아간 이후의 원나라를 北元(1368-1635)이라 부른다. 원의 뒤를 이어 중원을 호령한 明은 한족의 법과 제도로 정비했으므로, 至正通制 즉 『至正條格』은 더 이상 중국에서는 용도가 없게 되어 산일되었다.

청대에 四庫全書를 편찬할 때 『永樂大全』에서 『至正條格』의 條格 23권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四庫全書』에는 存目에만 수록하였으므로 다시 산일되었다. 이후 蒙古族 출신으로 雲南師範大學 歷史系 교수를 지낸 方齡貴(1918-2011)가 內蒙古 額濟納旗 達來呼布鎮의 카라코토[黑(水)城]에서 잔편을 발견했을 뿐이다.

대체로 『至正條格』의 斷例는 唐과 金의 律에 해당하고, 條格은 唐과 金의 劄에 해당된다. 원대의 법률체계는 篇目과 순서에 있어서는 唐律 및 金律과 완전히 일치된다. 그러나 조문의 구체적 표현과 형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至正條格』은 구체적인 判例와 指劄을 모두 모아 편찬한 것이지만, 공문 원본을 수록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축약해 요지만 남기고 지엽은 삭제한 것이다. 원대 공문서를 망라하여 권질이 가장 방대한 『元典章』에 수록된 공문은 비교적 원본을 전재한 형태이다. 『元典章』과 『至正條格』 두 법전에 수록된 문서를 비교하면 상략의 차이가 분명하다. 관부에서 법령을 망라해 편성한 『通制條格』과 『至正條格』은 대체로 비슷한데, 생략된 곳이 많다.

2002년 경주 江東面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서 원간본 『至正條格』 잔본 2책이 발견되었다. 확인된 부분은 條格 12권 374조·斷例 13권 426조·모두 800조이며, 전체의 22%만 남은 것이다. 일반 법률인 條格과 형사법인 斷例로 각각 2책씩 전질 4책이 완질이지만, 斷例와 條格 각 1책씩 2책만 발견되었다. 條格의 일부는 훼손되었다.

2007년 8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교주와 연구를 첨가해 영인본을 편찬하였다. 아울러 본문에 점교와 동시에 관련자료, 조문연대색인, 『通制條格』과 『至正條格』의 조문 대조 3종의 부록을 추가하였다.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는 선초에 사헌부 감찰로 입신한 孫登의 후손가이다. 孫登의 아들인 孫士晟(1396-1477)이 문과에 합격하여 兵曹參議를 지내면서 가문의 기반은 더욱 견고해졌다. 손사성의 장자 孫旭 계열은 적자 혈손은 없었지만 영천에 터전을 마련하였고, 차자 孫昭(1433-1484)의 후손들은 본향인 경주로 돌아와

양동에 정착하였다. 손소 계열은 양동에 입향한 15세기 이후 현재까지 약 500여년 세거하고 있다.

조사 대상본의 장정은 중국식의 四針眼 장본이다. 면지에는 儲光羲가 지은 「長安道」란 시가 필사되어 있다. 즉 西行一千里 暝色生寒樹 暗聞歌吹聲 如是長安路이다.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서 발견되었으나, 鬲河任氏와 性夫란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두 집안의 장서가 서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金文京, 元刊本 至正條格에 대한 기초적 考察. 414-430.

安承俊, 至正條格의 所藏 및 保存 경위에 대한 考察. 431-445.

張帆, 重現于世的元代法律典籍 ; 殘本 《至正條格》 文史知識 320 (2008.2期) 31-38.

延正悅, 고려와 至正條格에 관한 일 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8-1 (1994) 51-74.

趙晶, 至正條格 研究 管窺. 法律文化研究 6 (2010) 404-417.

한국학중앙연구원, 至正條格 校註本. (서울: 휴머니스트, 2007)

○ 기 타

慶州 江東面 良洞마을의 慶州孫氏宗家에 전승되어온 서책이다.

○ 지정사례

지정된 사례는 없음.

[참고]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중 외국문화재 지정 현황

※ 관련 근거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국보·보물 지정기준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사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수량	제작국	소재지	지정일자	비고
국보	제193호	경주 98호 남분 유리병 및 잔	일괄	페르 시아	국립중앙 박물관	1978.12.07	단독
보물	제393호	전등사 철종	1구	중국	전등사	1963.09.02 해방 전후 반입 추정	단독
보물	제568-2호	윤봉길 유품-중국화폐	10점	중국	윤봉길의사 기념관	1972.08.16	일괄
보물	제624호	황남대총 북분 유리잔	1점	서유럽	국립중앙 박물관	1978.12.07	단독
보물	제635호	경주 계림로 보검	1병	중앙 아시아	국립경주 박물관	1978.12.07	단독
보물	제669-2호	정기룡유물-신패	1개	중국	상주박물관	1980.08.23	일괄
보물	제904호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1개	그리스	국립중앙 박물관	1987.03.07	단독
보물	제1376호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1매	중국	송광사	2003.06.26	단독
보물	제1470호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	20매	중국	불갑사	2006.04.28	단독
보물	제1580호	서울 수국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6점	중국	수국사	2008.12.22	일괄
합계		10건	42점				

3.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壯勇營 本營圖形 一括)

가. 심의사항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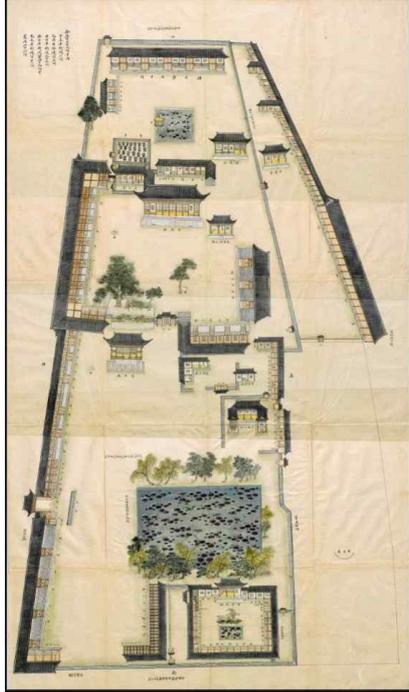
-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부터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6.12.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2.4./2.17.)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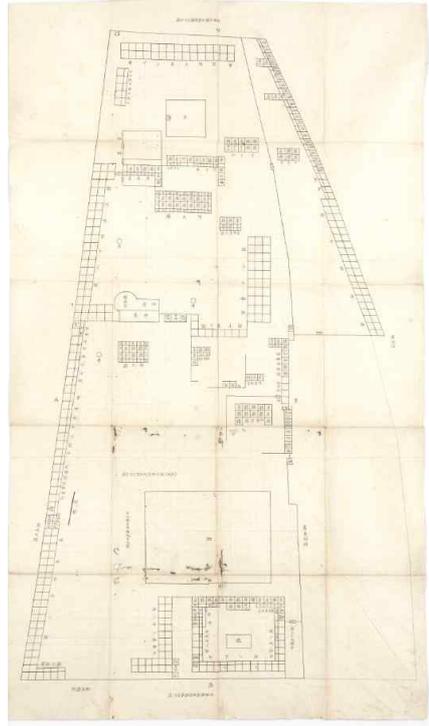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壯勇營 本營圖形 一括)
- 수 량 : 1건 3점(도형 기미본 1점, 정간 기미본 1점, 정간 신유본 1점)

연번	상세명칭	조성연대	전체크기 (cm) *펼침면	표지크기 (cm)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1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도형기미본 (圖形 己未本)	1799년 (정조23)	195.5×112.5	39.7×28.5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2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정간 기미본 (井間 己未)	1799년 (정조23)	193.5×111.1	38.6×28.7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3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 정간 신유본 (井間 辛酉)	1801년 (순조1)	192.7×124.0	40.7×31.5	국 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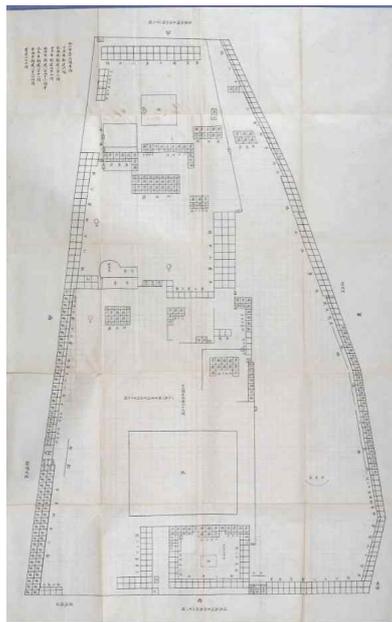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필사본
- 형 식 : 절첩(折帖), 채색계화(彩色界畫) 및 간가도(間架圖)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기미본(179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기미본(1799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신유본(180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本營圖形』은 정조대에 이현대로 변에 위치했던 장용영營舍의 전반적인 상황을 표현하여 正祖에게 보고하고, 계속되는 영사의 변화를 기록하여 관리하기 위해 작성된 御覽用 기록화다.

『本營圖形』은 과학적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던 시기 축적과 지형지세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와 거의 유사한 대지의 형태를 표현했으며, 채색도와 간가도(間架圖)를 한 벌로 작성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건축적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후대에 확장된 영사를 다시 그려 장용영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현전하는 정조대 이전 건축기록화는 간가도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순조대부터는 의뢰에 건물채색도가 실리기도 하고, 간가도 또는 반차도와 건물의 입체적 형태를 그린 도형이 함께 실리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간가도와 채색도가 함께 갖추어진 건축도형으로 책에 실리지 않은 것은 현전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 『本營圖形』이라는 의미다.

3건의 『本營圖形』은 장용영 변화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조선 건축기록화의 중요한 변곡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다. 보존상태도 양호하며 관리도 잘되어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본영도형』 3건을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로 지정하여 그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문화유산으로 남길 것을 제안한다.

○(지정 가치 있음)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정확한 축적에 기초한 평면도를 통해 상세한 건물의 배치를 도해하였고, 정교한 필치로 건축물을 묘사하여 당시 장용영을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로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장용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및 세부 건물의 배치와 기능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용영 본영도형 일괄>은 정간 구획의 대형 평면도와 이와 합치하는 채색 건물도가 함께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로서 건축사적, 회화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장용영의 모습을 화려하고 상세하게 그림으로 재현했으며, 건물의 세부와 연못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예술적 가치 또한 뛰어나다.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기미년의 두 『본영도형』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대상을 그린 도형으로, 활용 용도에 따라 도법에 차이를 두어 일반인(왕 혹은 관리)에 대한 보고용은 채색을 하고 입면의 모습을 상세히 그렸고, 실제 건물 조영에 종사하는 기술자와 관리자들의 관점에서 기호화된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두 도형은 상호 보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조선후기 관아건축의 상세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미년과 신유년의 『본영도형』 井間本은 건축물의 증축이 이루어진 서로 다른 시기에 각각 동일한 도법(間架圖)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관영건축물의 조영과정과 유지 및 관리방식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본영도형』 己未本은 채색이 되었을 뿐 아니라 井間 己未本과 같은 축척으로 그려졌다는 점이 기존의 다른 부감도법으로 그린 채색 건축계화들과의 차이점이다. 기록화 외에 순수하게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 부감도법 혹은 투시도법의 조선후기 건축도들은 건물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정한 축척이나 원근법을 일관되게 반영하지 않았다. 『본영도형』은 건물의 간격과 주칸, 전체 건물군의 외곽, 연못의 크기 등을 간가도와 일치되게 그렸다. 즉 개별 건물은 부감도법과 투시도법이 혼용되어 있으나 전체 건물군을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고 균일한 크기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는 개별 건물의 형상 뿐 아니라 특히 건물간의 거리까지 실제 치수를 반영해서 제작했다는 의미이며, 건물간의 관계만 표현된 다른 부감도법의 건축도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이다. 실제 치수를 반영했으므로 마당과 건물의 크기를 사실적인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외에 상세한 입면의 표현은 이보다 후대에 그려진 「경우궁도」나 「동궐도」 못지 않게 사실적이고 자세하며, 관아를 대상으로 한 『숙천제야도』의 관아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입면구성의 건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영도형』 己未本에 묘사된 건물들은 정조년간 수원화성에서 시험했던 벽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벽체를 구성한 사실을 보여주며, 창고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입면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조선후기 관아건축 뿐 아니라 지금은 대부분 소실된 궁궐 부속 건물의 입면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기미년과 신유년의 井間本은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구조와 평면을 표현한 間架圖로 건물군을 하나의 도면에 담고자 할 때 유리한 표현방식이다. 매우 간략하지만 배치도, 평면도, 구조도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본영도형』에서는 특히 건물내 글자의 방향에 따라 건물의 정면성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고 있다. 글씨의 방향으로 정면을 나타내는 것은 입면전개식 부감도의 기호화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훗날 후대에 제작되는 「북궐도형」과 「동궐도형」과 같은 간가도에서는 지켜지는 원칙이나 다른 간가도는 일관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본영도형』 井間本에 기록된 내용 중 다른 도형사료의 해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것은 도형 중간쯤 빈 곳에 ‘八尺爲一間’이라 적혀있는 내용이다. 격자 1칸의 길이가 8자 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기존의 다른 간가도의 축척 해석에 좋은 근거가 된다. 격자 1칸의 실제 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간가도를 실제 치수와 확인한 결과 추론된 8자가 조선후기 건축에서 기본적인 모듈체계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조선시대 건축도 중에서 감상용 혹은 기록용, 어람용은 소수남아 있으며 이 경우는 채색이 되어 회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실제 건축생산과 관리 등 실무적인 용도로 제작한 간가도는 그 수량이 많지 않고 대부분 보존상태가 좋지 않으며, 제작연대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본영도형』 井間 2점은 각기 제작 시기와 대상, 목적이 분명하여 신뢰도가 높은 자료이다.

또한 넓은 범위의 부정형 대지를 대상으로 다수의 건물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일관된 시점으로 원칙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신청된 도형의 지정 명칭은 표제에 적힌 이름을 따르되, ‘본영’은 다른 모든 군영에도 해당되는 보통명사이므로 앞에 ‘장용영’을 붙여 ‘장용영 본영도형’이라 하여 도형이 표현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고 각각 다른 3점은 표제 아래에 붙은 ‘己未’, ‘井間 己未’, ‘井間 辛酉’를 부기하여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본영도형』과 같은 건축도는 건축사분야의 중요한 사료이며 회화나 지도의 범주가 아닌 건축도 혹은 기술도로 분류하여 해당 도형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영도형』은 18세기 건축도 작성의 다양한 시도를 반영하고, 그 실용적인 활용을 확인시켜 주는 사료이다. 보고용으로 쓰인 채색 입면부감도와 실무용으로 쓰인 간가도가 함께 짝을 이루어 제작되었다는 점, 보존상태가 양호하다는 점, 작도와 표기방식에 원칙과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1칸의 크기를 표기하여 다는 자료의 해석에 중요한 지표가 되어 건축사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장용영 본영도형」은 1799년과 1801년으로 제작연대가 명확하고, 조선시대의 도면 제작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측량과 작도의 방법으로 제작되었지만 근대적인 측량 기술과 도면 제작기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정확한 축척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 건축 기술도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

도 한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방어시설인 장용영의 건물 구성을 알 수 있는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자료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장용영 본영도형」과 유사한 건축도 중에서 「동궐도(東闕圖)」(1801-1834)가 국보 제249호로 지정되어 있고, 「서궐도안(西闕圖案)」(1831년 중건 이전)이 보물 제1534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궐도」와 「서궐도안」은 궁궐을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지만 궁궐의 정확한 배치를 표현하는 기술도라기보다는 회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이다. 「장용영 본영도형」은 회화적 가치는 다소 낮을 수 있지만, 도성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의 중요 시설에 대한 건축 기술도로서 「동궐도」와 「서궐도안」보다도 이른 시기에 제작 방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전통적인 기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기술의 도입 이후에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정확한 축척을 구현하였다. 또한 제작연대가 명확하여 다른 유물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도성도(都城圖)」(18세기 후반, 보물 제1560호),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1864년, 보물 제850호), 「동여도(東輿圖)」(19세기 중반, 보물 제1358호),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19세기초, 보물 제1583호), 「해서지도(海西地圖)」(1745-1756, 보물 제1584호) 등 1800년을 전후로 제작된 지리 기술도인 지도가 보물로 지정된 사례는 많으나, 건축 기술도는 알려진 유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다. 지도와 비교하여 건축 도면이 갖는 문화사적 가치가 적지 않고, 건축과 측량에 대한 기술사적 의의를 확인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특별한 유물이므로 보물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현재까지 알려진 『本營圖形』은 3건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건, 고려대

학교 박물관에 1건이 소장되어 있다.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本營圖形』 2건은 모두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관된 것으로 기미년(1799)에 제작된 건은 채색도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장번호는 K2-4366이다. 신유년(1801)에 제작된 건은 평면도로 분류되어 있으며, 소장번호는 K2-4365로 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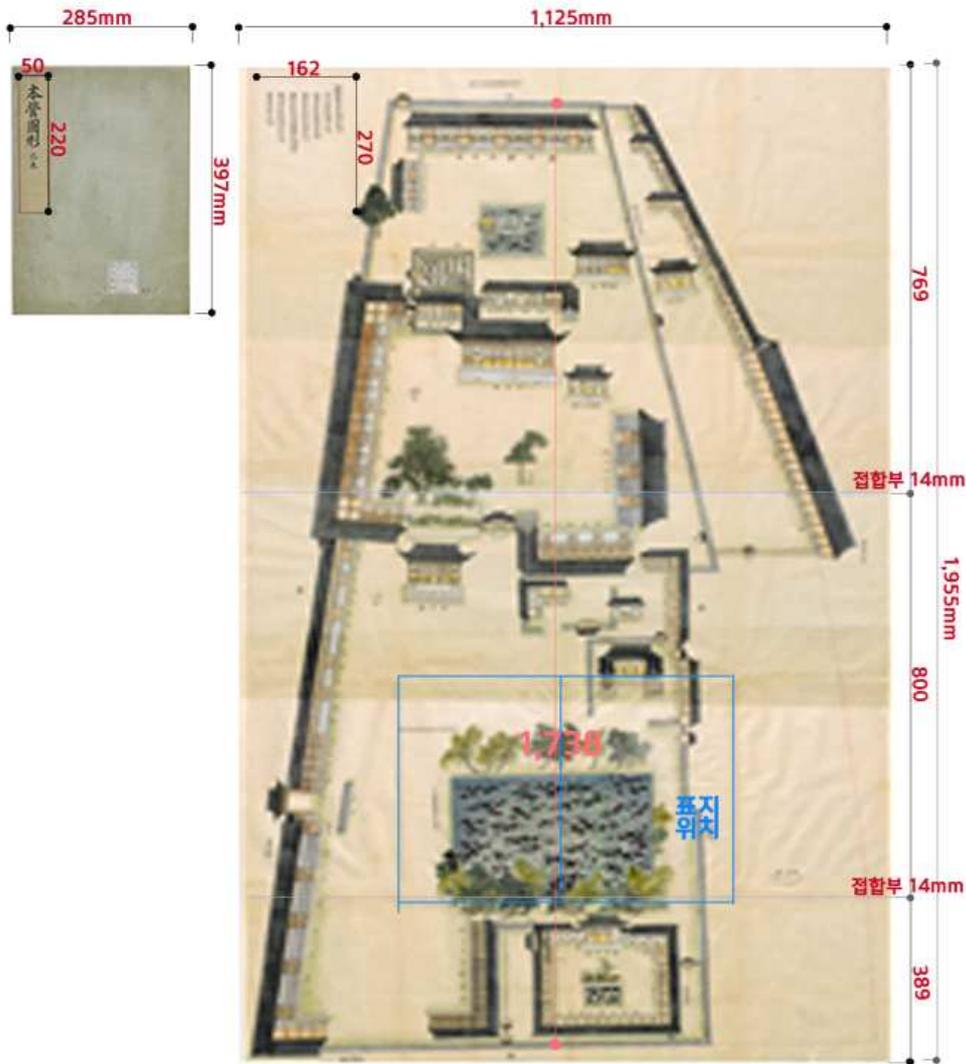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본영도형』은 장서각에 소장된 1799년 채색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도안(圖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분류번호는 1626이다. 2009년까지는 유물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채여서 관리가 소홀하여 종이 먹는 등 훼손정도가 심하였으나, 2009년 장서각 자료와 함께 연구되면서 정체성이 확인되었다. 이후 보존처리하여 2011년 <경복궁배치도> 와 함께 전시되기도 하였다.

각 도형의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3건의 『본영도형』은 제작연대+채색도 ‘井間’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각기 다음 표와 같이 지칭하기로 하겠다.

己未 『本營圖形』	己未井間 『本營圖形』	辛酉井間 『本營圖形』

(1) 己未 『本營圖形』

己未 『본영도형』(K2-4366)은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채색도로 구분되어 있다. 한 변이 1125mm인 저지(楮紙) 3장을 길이 1,955mm가 되도록 이어 붙인 후, 초본에 따라 칼로 작은 구멍을 내어 건물의 위치를 표시한 후, 밑그림을 그리고 채색한 것이다. 좌측 상단에는 시기별로 증축된 건물의 규모를 적은 별지가 붙어있다. 큰 종이에 그려진 도형은 보관하기 편리하도록 397×286mm의 크기로 접어서 옥색능화지를 양면에 붙여 표지로 삼았다. 표지의 내공(內拱, 현재의 책등)은 홍색천을 사용하였는데, 홍색내공은 도형의 접힌 부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줄 뿐만 아니라, 두께가 얇은 『본영도형』을 여러 서책 사이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준다. 표침은 백색 비단에 표제를 쓰고 홍협(紅挾)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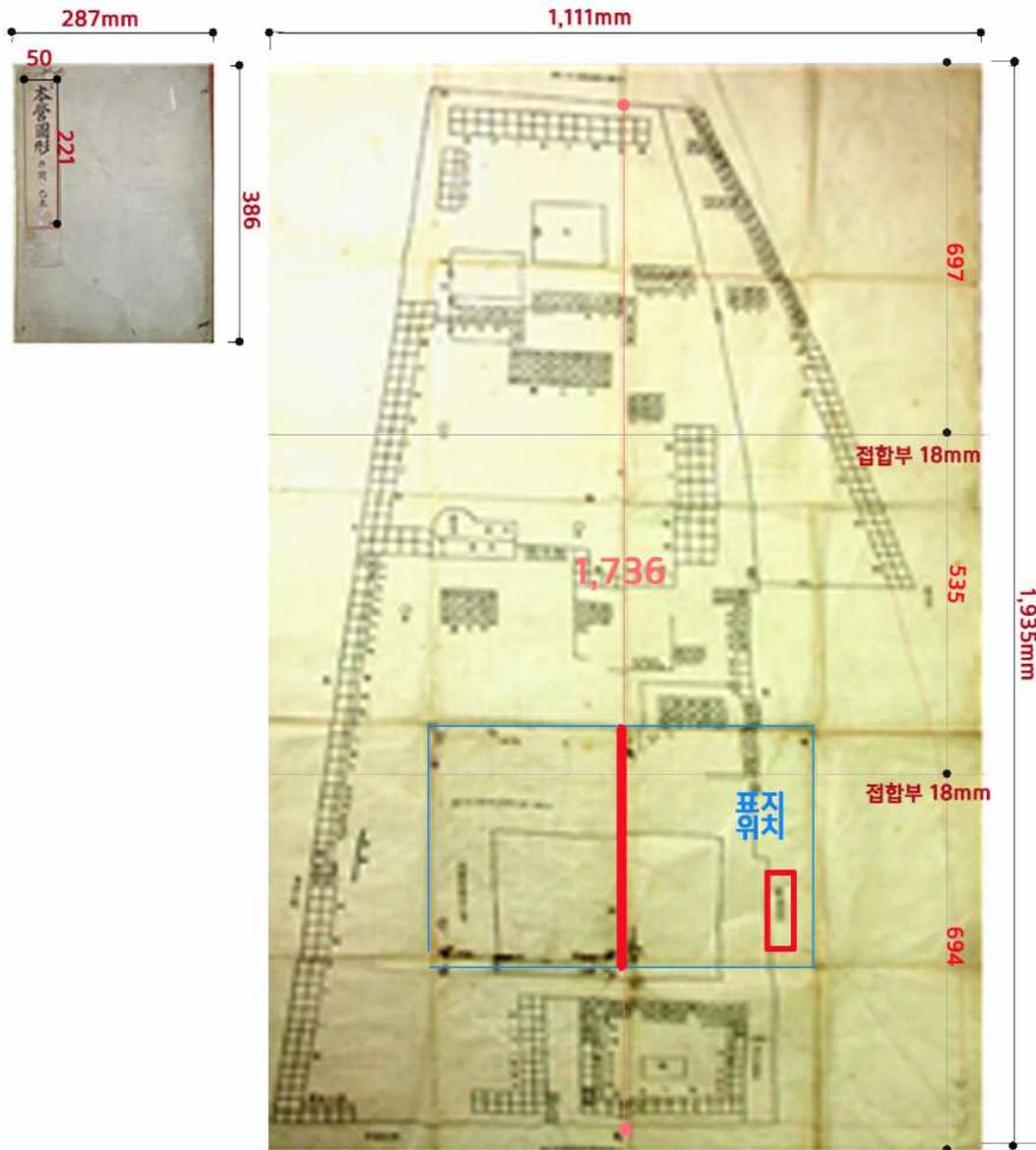
(2) 己未井間 『本營圖形』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己未井間 『본영도형』(분류번호:1626)은 圖案으로 분류되어있다.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했으나 보존처리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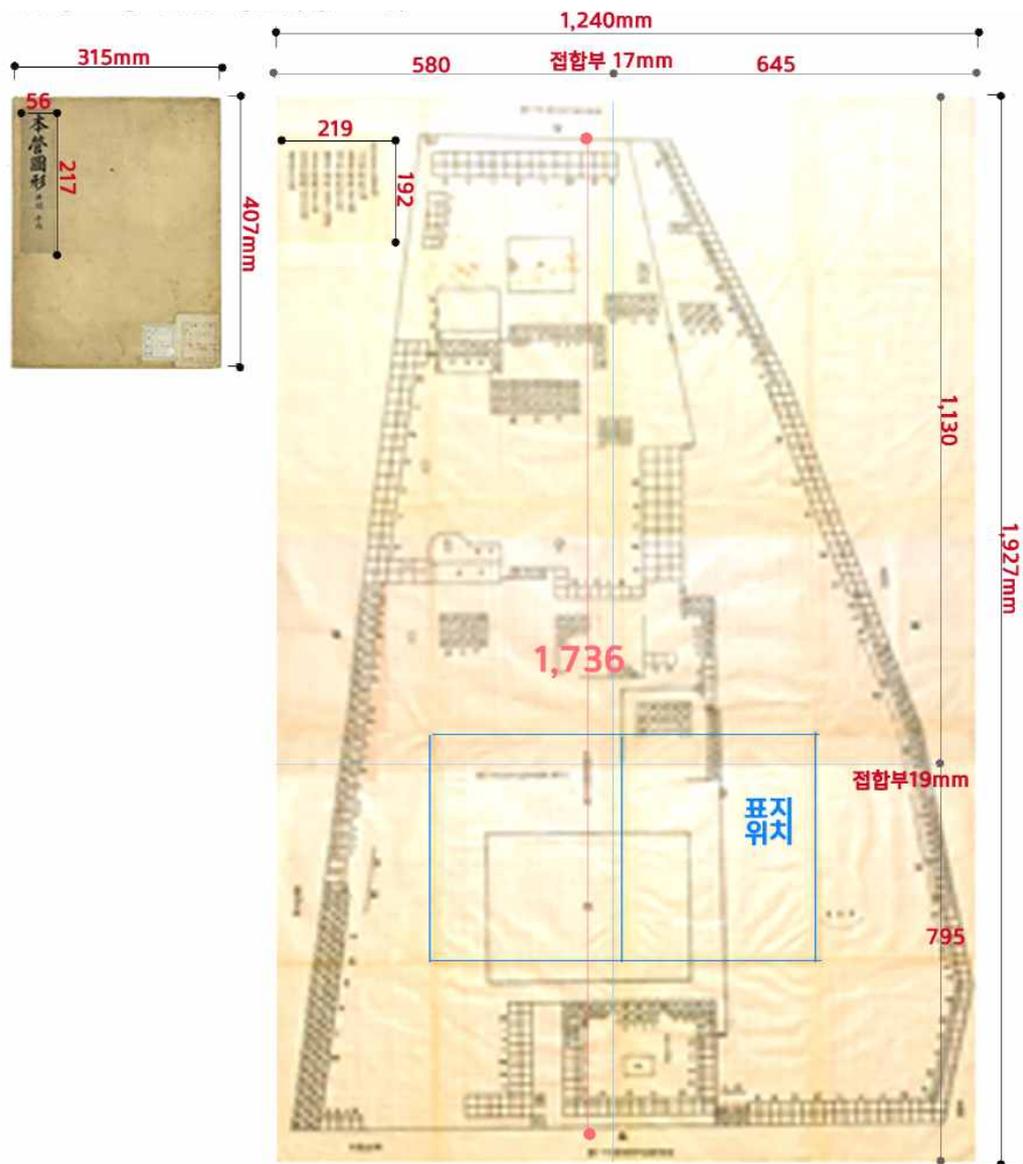
장서각 소장 己未 『본영도형』과 마찬가지로 1,111mm 저지 3장을 1,935mm가 되도록 이어 붙여 제작하였다. 도형의 전체크기는 1,935×1,111mm로 장서각의 己未 『본영도형』에 비하여 폭과 너비가 각 1cm정도 작은 편이나, 접은 상태의 크기는 386×287mm로 거의 같다. 己未井間 『본영도형』과 己未 『본영도형』은 크기뿐만 아니라 옥색능화문 표지, 홍색천 내공(현재 훼손), 백색 비단과 홍협으로 이루어진 표침, 표침의 크기, 도형 내부에 표현되어진 공간의 규모와 명칭 및 서체 등이 모두 같아 己未년간에 한 벌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다만 장서각의 己未 『본영도형』과 달리 건물의 위치는 바늘로 구멍을 낸 다음 먹 칼로 선을 그어 표현했다.



(3) 辛酉井間 『本營圖形』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또 하나의 도형 辛酉井間 『본영도형』(K2-4365)은 현대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평면도로 분류되어 있다. 1,927×1,240mm가 되도록 4장의 저지를 이어 붙여 도형을 그리고 407×315mm의 크기로 접은 다음 백색 능화지로 표지를 만들었다. 기미년본과 달리 표지의 내공은 흰색천으로 하였으며 표침의 재료는 흰색 비단을 사용하다. 그리는 기법은 고려대 박물관의 己未井間 『본영도형』과 동일하지만, 건물의 증축과정을 별지로 적어 붙인 것은 己未 『본영도형』과 같다.



○내용 및 특징

(1) 장용영의 내영을 그린 『本營圖形』

세 종류의 『본영도형』의 명문 가운데 건물의 성격과 그 위치를 비정하기 위하여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는 梨峴大路, 梨峴橋渠, 東部, 蓮池洞, 蓮池洞川邊 등이 있다. 이들을 근거로 조선시대의 지도들을 살펴 본 결과(표 2 참조), 『본영도형』에 표기되어 있는 이현대리가 종묘의 동편에 위치한 창경궁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도에 따르면 이현대리의 동편에는 시기별로 다른 관서들이 있었지만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장용영과 훈련도감의 동별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1900년 이전 지도에 기록된 이현대로 좌우측 시설물

지도종류	제작년대	이현대로 서편	이현대로	이현대로 동편	출간본 출처
都城三軍門分界之圖	1750년대	御營廳	黃參橋	東部	<허> 25쪽
都城圖	1750년대	御營廳	黃參儀橋	於義宮/ 東部	<허> 27쪽
漢陽圖	1760년대	御營	參判橋	梨峴宮/ 東部	<역> 10쪽
漢陽都圖	1770년대	御營廳	梨峴, 黃參橋	宣惠東倉	<허> 41쪽
漢京全圖	1777년경	.	黃參橋	東部	<허> 49쪽
漢陽全圖	1780년대	御營廳	梨峴, 黃參橋	壯勇廳/ 東部	<역> 13쪽
漢城全圖	1780년대	御營廳	梨峴, 黃參橋	壯勇廳/ 東部	<허> 45쪽
都城地圖	1780년대	御營廳	梨峴, 黃參橋	壯勇廳/ 東部	<허> 50쪽
都城大地圖	18세기 後	御營廳	梨峴, 黃橋	?	<역> 14쪽
都城長安圖形圖	18세기 中	御營廳	黃橋	壯勇廳/ 東部	<허> 36쪽
城市全圖	1789년	御營廳	梨峴, 黃參橋	壯勇廳/ 東部	<허> 52쪽
首善全圖	1840년대	御營	梨峴, 黃橋	東營/ 東部	<허> 61쪽
漢城圖(대동여지도첩)	1861	御營	梨峴, 黃橋	東部	<허> 65쪽
都城圖	1860년대	.	梨峴, 黃橋	東部	<허> 69쪽
首善總圖	19세기 中	御營	梨峴	訓東營/ 東倉/ 東部	<허> 71쪽
朝鮮京城圖	19세기 中	御營	.	訓東營/ 東倉/ 東部	<허> 75쪽
슈선전도	1892년	어영	배고개, 황교	동영/동부	<허> 81쪽
Map of Seoul	1900년	.	黃橋	東部	<허> 79쪽

*각 지도는 『정도600년 서울지도』(허영환 저, 범우사, 1994)과 『서울지도』(서울역사박물관편, 서울역사박물관유물관리과, 2006)에 실린 것을 참조하였다. 표에서 출간본 출처는 편의상 허영환의 것을 <허>, 서울역사박물관의 것을 <역>으로 표기하였다.

壯勇營과 訓練都監 東別營은 모두 군영이지만 훈련도감의 경우 본영은 明哲坊에 있고, 19세기 중엽에 이현대로 변에 동별영을 둔 것이어서 이곳을 일컬어 본영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반해, 장용영은 한성부에 內營(本營)을 설치하고 수원에 外營을 두었으므로 이곳에 본영이 있었던 군영은 장용영이라 볼 수 있다. 즉, 『本營圖形』은 연화방 이현대로변에 창건한 장용영 내영의 영사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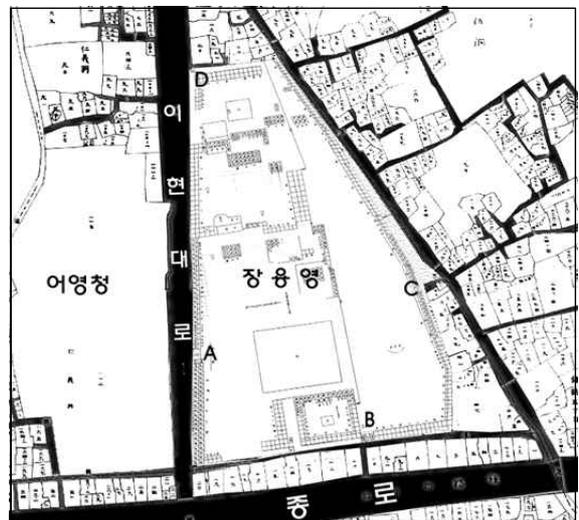
장용영은 정조대에 창설된 군영으로, 그 전신은 1785년(정조 9)에 설립된 국왕 호위전담부대였던 壯勇衛이다. 이후 壯勇廳을 거쳐 1788년(정조 12)년에 장용영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1793년(정조 17) 内外營制가 성립되기 전까지 정조의 호위를 담당하며 군제개혁의 중심역할을 했지만, 정조가 승하한 후 1802년(순조 2)에 혁파되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장용영의 역사는 매우 짧다. 1788~1802년, 대략 14년간 존재했던 군영으로, 장용영의 존치기간은 『본영도형』의 제작년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己未年과 辛酉年 두 해의 干支를 장용영이 있었던 기간과 맞추어 헤아려 보면, 기미년은 1799년이고 신해년은 1801년이다. 즉, 『본영도형』은 18세기 말의 기법으로 제작된 도형이며, 짧은 시기 엄청난 변화를 겪은 장용영의 썩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과학적 측량없이 대지의 형태를 유사하게 그린다.

장용영이 자리한 대지는 그 형태가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삼각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지의 동쪽경계에는 창경궁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蓮池洞川)가 흐르고 있고, 남쪽에는 구거(溝渠)가 종로변 시전과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주변의 지세 때문에 장용영의 대문은 남쪽을 향하지 못하고 서쪽 이현대로를 향해 만들어졌다.



1929년에 제작된 지적도에 辛酉井間 『本營圖形』을 겹쳐 올림 (도로는 검은색으로 칠하였고, 장용영내에 A,B,C,D가 적힌 곳은 외부로 통하는 문의 위치)

현전하는 대부분의 간가도들은 실제 대지형태와 상관없이 정방형이나 장방형에 그 공간을 모두 그려 넣어 실제 공간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本營圖形』은 현대의 지도와 겹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한 대지형태를 그렸다. 이는 지형지세에 대한 높은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제작기법과 축척

① 己未 『本營圖形』

도형의 작성은 模本을 대고, 건물의 간격과 위치를 표기한 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실제와 똑같은 땅의 형태대로 도형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도형의 표면에 칼로 표시한 구멍은 있으나, 도형의 배경에 건물 간격의 기준이 되는 격자가 그려져 있지 않은 점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도형의 우측 아래쪽에는 붉은 선으로 대지의 경계를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己未井間 『本營圖形』의 그것과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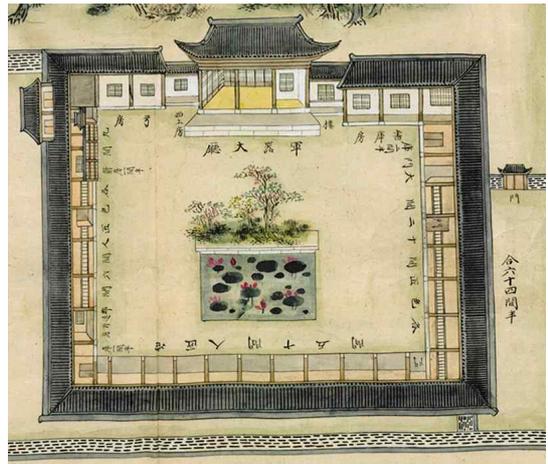


그림 2. 己未 『本營圖形』중 軍器大廳부분 가운데 마당을 중심으로 건물들이 바깥으로 넓혀 그린 (사방전도묘법)기법을 보여준다.

도형에 표현된 건물 및 갖은 시설물은 그 건축적 구조 및 지붕형태, 재료들을 알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건물 아래쪽에는 해당 공간의 용도가 한자로 명기되어 있다. 도형의 축척은 가로변이 1/140, 세로변이 1/150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과학적 측량기법이나 도구가 없는 시대에 그린 것으로는 이는 허용할 만한 수준의 오차다. 축척은 다른 두 도형도 동일하다.

건물들은 영역의 중심을 보면서 바깥으로 누운 四方顛倒描法²⁾으로 그려져 있어 건물 깊숙한 곳까지의 공간구성, 창호의 형태 등, 건축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사방전도묘법은 건물의 주출입이 이루어지는 정면들을 밖으로 넘어뜨려 그렸기 때문에 그 특성상, 문이 닫혀있는 건물이나 모서리에 위치한 곳의 내부공간은 표현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건축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현대건축의 평면도와 같이 작성된 또 다른 도면이 요구되는데, 다음으로 언급될 간가도 형식으로 그려진 두 종류의 『本營圖形』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己未 『本營圖形』에는 앞서 언급한 건물의 용도를 적은 명문 외에도 지명이나 땅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글들이 기록되어 있다.

2) '四方顛倒描法'은 안휘준이 『옛 궁궐 그림』(대원사, 1997, 32~33쪽)에서 제안한 용어이다. 그는 '麟坪大君房全圖'와 같이 기록화 중에서 북쪽 한 방향으로만 넘어뜨리지 않고 동서방향으로도 넘어뜨린 그림을 正面俯瞰構圖 중에서도 그 모양이 꽃이 핀 것과 같기 때문에 '開花式描法' 또는 '四方顛倒描法'이라 부르는 것이 어떻까하고 제안했다. 송인호는 그의 연구 「四方顛倒描法 研究 - 宿踐諸衙圖를 중심으로 -」, 『건축역사연구』 (제11권 3호, 2002, 105~120쪽)에서 안휘준의 제안을 수용하여 조선시대 건축그림을 분석하였고, 四方顛倒描法이 殿閣과 외부공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묘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 이러한 표현 방법은 정면의 시지각적 체험을 종합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깊이감과 풍부함을 표현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하였다. 필자도 안휘준과 송인호의 의견에 동의하여 '四方顛倒描法'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였다.

② 己未井間 『本營圖形』

己未井間 『本營圖形』은 己未 『本營圖形』과 달리 간가도 형식으로 그려졌다. 그 제작과정을 도형에 남아있는 흔적들로 추정해볼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 첫 번째, 바늘로 격자 간격(1.8cm)과 건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 두 번째, 땅의 외곽선을 그린다.
- 세 번째, 그려진 땅의 외곽선 안쪽에만 붉은 먹선으로 격자를 그린다.
- 네 번째, 격자 위에 먹칼을 이용해 柱間을 격자 1間으로 하여 배치를 그린다.
- 다섯 번째, 해당 공간의 명칭과 실의 용도를 적는다.

위와 같은 절차는 본영이 위치한 곳의 땅의 형태가 북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그대로 살리고 안쪽에만 격자를 그려 넣었다는 것은 『본영도형』이 이미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실측하여 제작된 模本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서각 소장 己未 『본영도형』에도 모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본영도형』이 제작된 시기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대지의 외곽을 그려냈지만,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아직 입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 보면 대문을 써넣은 부분의 외곽선이 마름모꼴 형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도형의 곳곳에서 보이는데, 이는 대지의 최외곽에 위치한 건물을 그릴 때 縱軸의 격자는 대지의 외곽선을 따르고, 橫軸線은 기존의 격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축공간이 네모서리가 직각인 사각형인 점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림 3과 같이 격자를 대지의 외곽선에 따라 보정한 다음 그려졌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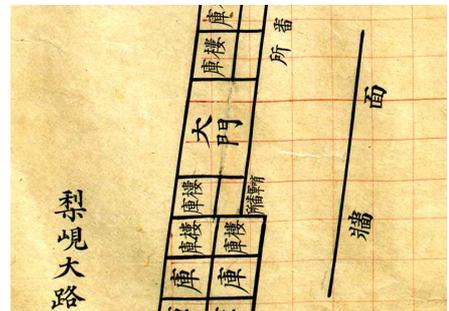


그림 3. 辛酉井間 『本營圖形』 부분
己未井間 『本營圖形』은 아니지만, 도형 안쪽에만 격자를 그린 것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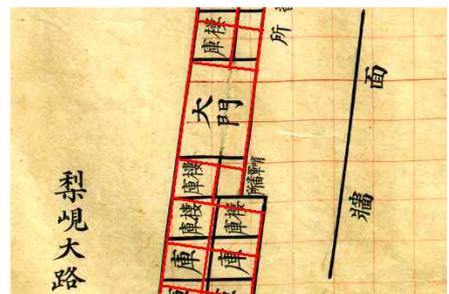


그림 4. 辛酉井間 『本營圖形』 부분
격자보정 예(필자작성) 대체적으로 공간은 모서리가 직각이 되는 사각형을 이루므로 그에 맞게 본영도형의 격자를 보정하면 위와 같이 된다.

③ 辛酉井間 『本營圖形』

도형의 제작기법은 己未井間 『本營圖形』과 같다. 다만, 己未井間 『本營圖形』에 비하여 동남쪽에 건물이 많이 늘어나 공간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의 용도가 바뀐 것도 있다.

상단에 별지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미년에 제작된 것과 같은 채색도는 작성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정조에 대한 보고와 변화과정 기록을 위해 제작한 『本營圖形』

이혜원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경복궁배치도』의 제작시기와 그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³⁾ 궁궐 및 국가의 공사에 있어서 도면은 공사의 내용 지시, 공사 시작 전에 건물의 위치나 규모 결정, 이후의 변화를 추가하여 수정, 공사가 끝난 후에 건물의 배치나 특정장소의 형상을 보고하기 위해 그려졌음을 문헌의 해석을 통해 밝혔다.

장용영의 營舍를 그린 『本營圖形』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작연대가 다른 두 종류가 존재한다. 기미년(1799)에 작성된 『本營圖形』에 비해 신유년(1801)에 만들어진 『本營圖形』에는 동남쪽이 더 확장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두 도형을 비교하면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용도로 표기되어 있는 공간도 찾아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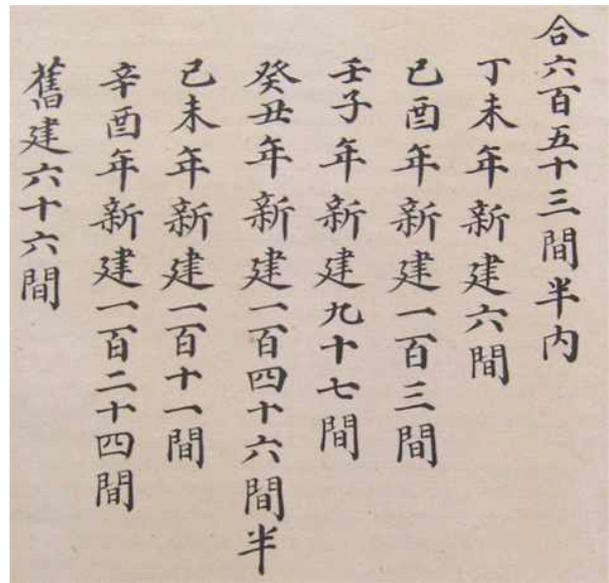


그림 1. 辛酉井間 『本營圖形』의 주기

증축 내용에 관한 부분은 도형의 상단부에 별지에 적은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1801년의 장용영 규모는 모두 653間半으로 그 안에는 원래 터에 있었던

건물 66間을 기본으로, 丁未年(1787)에 6間, 己酉年(1789)에 103間, 壬子年(1792)에 97間, 癸丑年(1793)에 146間半, 己未年(1799)에 111間, 辛酉年(1801)에 124間을 각각 증축하여 확장해갔음을 적고 있다. 주기는 己未 『본영도형』에도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신유년의 확장부분을 제외하고 전체규모가 532間半임이 적혀 있다.

앞서와 같은 내용은 이혜원의 연구에서와 같이, 『본영도형』의 제작도 장용영 영사의 증축 내용을 표현하여, 왕에게 보고하고 장용영의 단계별 변화과정을 기록하려고 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장용영은 정조의 야심찬 계획 속에서 창설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營舍의 창건 및 확장 또한 그의 큰 관심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이유가 여러 종류의 『본영도형』이 제작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간가도 형태가 아닌 채색도 己未 『본영도형』이 작성된 것은, 위의 내용을

3) 이혜원,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경복궁배치도』의 제작시기와 사료적 가치에 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17권 4호(2008), 43~64쪽.

보다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간가도 형태의 己未井間 『본영도형』과 입체적으로 건물을 표현하여 채색한 己未 『본영도형』을 한 벌로 제작했다는 것은, 그것을 보는 사람에 대한 배려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현대건축에서도 건물을 짓기 전에 공사를 위한 평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기호화된 도면을 그리지만, 건물의 조감도나 엑소노메트릭과 같은 입체도를 그려 보다 시각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곤 한다. 己未 『본영도형』의 제작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 3건의 『本營圖形』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장용영 본영 공간의 변화

공간구성	출처	『壯勇營大節目』廳舍條 (1793~99년)	己未『本營圖形』 己未井間『本營圖形』 (1799년)	辛酉井間『本營圖形』 (1801년)
內大廳		24	24	24
外大廳		12	12	12
東大廳		6	6	6
軍器大廳		8.5	8	8
射亭		6	6	6
六隅亭		1	1	1
堂上將官直所		13.5	10 14	12(馬廐포함)
哨官直所		10	16 (司書牌房3/哨官廳・ 將軍廳12/문)	16 (司書牌房12/ 哨官牌房3/문)
志敷官廳		16	18	19
別武士廳		17	5	5
書牌番所		8	11(敎鍊官廳+哨書牌房)	8(哨官廳)
哨軍番所		23	6	6
帳幕軍番所		2	4	4
鄉軍入接處		48.5	48.5	46.5(馬廐,虛포함)
軍器書庫番所		4.5	4.5	4.5
弓矢人間		10	10(版牆有)	10(版牆有)
工匠間(各色匠人間)		35	35	35
庫直番所		4	10(庫直房)	10(庫直房)
庫舍	東邊米庫	30	30	30

공간구성	출처	『壯勇營大節目』廳舍條 (1793~99년)	己未『本營圖形』 己未井間『本營圖形』 (1799년)	辛酉井間『本營圖形』 (1801년)
	東行閣米庫	.	40(東行閣庫舍)	40
	西行閣米庫	6	.	.
	南邊米庫및虛間	42	42+6	48
	西行閣樓上庫	.	48	48
	南邊錢木布樓上庫	10(上木下錢)	10	10
	軍器庫(樓上庫)	30	30(鉛丸, 鳥銃, 私庫)	30
	弓子庫(弓子點火庫)	7.5	7.5	7.5
	鐵庫	3	.	.
	北行閣帳幕庫	15	13.5(西行閣帳幕庫)	13.5(西行閣帳幕庫)
	火車庫	32	32	32
	別下庫	1.5	.	3(庫間)
	別將庫	1.5	.	.
	三司庫	3(각1)	10.5(左右司)	10.5(左右司)
	禁火庫	1	1	.
	吹鼓手庫	1.5	1.5(大廳直私庫)	1.5(槍劍庫)
	鄉軍雜物庫및虛間	.	.	31
	東行閣各色軍物庫	.	.	38
	軍器私庫	.	4	4
	軍器色庫	.	.	63
	拘留間	3	3	3
	門	13.5	16	20
	실제 규모의 합	436	530	666
	기록상의 총규모	446	513.5	653.5

○ 문헌자료

『本營圖形』己未,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4366).

『本營圖形』井間己未,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本營圖形』井間辛酉,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4365).

『壯勇營故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368).

『壯勇營大節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369).

『總衛營事例』,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378).

『訓局總要』,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406).

『華城城役儀軌』

『京城府管內地籍目錄』, 昭和 2年(1927) 영인본, 大林出版社, 서울, 1982.

『京城府壹筆每地形明細書』, 昭和 4년(1929).

『京城便覽』, 弘文社, 昭和 4년(1929).

『承政院日記』

『日省錄』

『朝鮮王朝實錄』

『東亞日報』

1912년 작성 서울 지적원도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경기대 이상구 재작도)

서울歷史博物館 編,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유물관리과, 2006.

이 찬, 『서울의 옛 地圖』, 서울시립대학교부설서울학연구소, 1995.

허영환, 『정도600년 서울지도』, 범우사, 서울, 1994.

○ 기 타

- 장서각에 소장된 2건은 모두 1981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이관된 것이다.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건의 소장경위에 관해서 박물관에 문의한 바, 1958년에 도서관의 고문서류 분류되어 있다가 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그 이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이전 연혁에 관해서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1905~1946) 도서관시절 입수, 관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도서관 소장목록 원부가 소실되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현 상

-기미본의 경우 첩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커다란 도형을 세로 방향으로 오등분, 가로 방향으로 사등분이 되도록 접은 후에, 능화문이 찍힌 옅은 옥색의 종이를 앞표지와 뒷표지를 붙인 접포장(摺鋪裝) 형식이다. 앞뒤 표지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붉은색 천을 붙여 마모를 방지했다. 앞표지에는 붉은 색의 가는 띠를 두르고 흰색 천을 붙인 제침이 부착되어 있는데 “本營圖形 己未”라고 목서를 적었다. 표지의 위치는 도형을 펼쳤을 때 아래에서 두 번째 단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뒷면이다. 도형의 왼쪽 위편에는 네모난 종이를 붙이고 아래와 같은 주기를 적었다.

合五百三十二間半內

丁末年新建六間

己酉年新建一百三間

壬子年新建九十七間

癸丑年新建一百四十九間半

己未年新建一百十一間

舊建六十六間

이는 증축의 연혁을 목서로 기록한 것이다. 현재 먼지 등으로 다소 오염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전체 도형은 가로로 긴 종이 세 장을 붙였는데 위에서부터 세로 76.9cm, 80cm, 38.9cm 정도로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뒷면에는 거친 종이로 배접을 하였다. 정확한 작도를 위한 바늘구멍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기미정간본의 경우 기미본과 마찬가지로 접포장 형식의 첩이었으나 소장처에서 근래 표장하면서 앞표지를 떼어내고 뒷면 전체에 새로 배접을 한 후, 앞표지를 다시 붙여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하도록 했다. 현재 앞표지만 남아 있는데 기미본과 마찬가지로 능화관 옥색 종이이며, 붉은 색의 가는 띠를 두르고 흰색 천을 붙인 제첩에는 “本營圖形 井間 己未”라고 적혀있다. 표장 후에도 원래 위치에 해당하는 뒷면에 다시 붙여 놓았다. 표지에 작은 충식의 흔적이 있다. 뒷표지는 없어졌는데 붙었던 부분에는 일부 결실된 흔적이 남아 있다. 전체 도형은 상태는 양호하며, 가로로 긴 종이 세 장을 붙였는데 위에서부터 세로 69.7cm, 53.5cm, 69.4cm 정도로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주선으로 격자를 긋고 먹선으로 건물의 위치를 도해했다. 건물과 문 등 건축물에는 이름을 목서로 적었으며, 정확한 작도를 위한 바늘구멍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신유정간본 역시 첩의 외양이지만 커다란 도형을 세로 방향으로 오등분, 가로 방향으로 사등분이 되도록 접은 후에, 능화문이 찍힌 옅은 황색의 종이로 앞표지와 뒷표지를 붙인 접포장(摺鋪裝) 형식이다. 앞뒤 표지가 연결되는 부분에는 갈색 천을 붙여 마모를 방지했다. 앞표지에는 흰색 천을 붙인 제첩이 부착되어 있는데 “本營圖形 井間 辛酉”라고 목서를 적었다. 표지의 위치는 도형을 펼쳤을 때 아래에서 두 번째 단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뒷면이다. 도형의 왼쪽 위편에는 네모난 종이를 붙이고 아래와 같이 주기를 적었다.

合六百五十三間半內

丁未年新建六間

己酉年新建一百三間

壬子年新建九十七間

癸丑年新建一百四十六間半

己未年新建一百十一間

辛酉年新建一百二十四間

舊建六十六間

이는 증축의 연혁을 목서로 기록한 것인데, 계축년의 증축 규모가 기미본의 수치와는 다르다. 그런데도 두 기록에서 개별 증축분의 총 합계는 정확하기에 기미본의 수치가 착오였을 수도 있다. 현재 먼지 등으로 다소 오염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전체 도형은 종이 네 장을 붙였는데 크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뒷면에는 거친 종이로 배접을 하였다. 정확한 작도를 위한 바늘구멍이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주선으로 격자를 긋고 먹선으로 건물의 위치를 도해했다.

○ 내용 및 특징 : 기미본의 회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서술

- 정조는 국왕의 호위부대에 해당하는 장용영을 1793년에 설치하고 그 군영을 종묘와 홍인지문 사이의 蓮花坊 梨峴에 자리 잡도록 했다. 이곳은 광해군의 잠저로 梨峴宮이라고 불렸으며 인조대 이후 주인이 여러차례 바뀌었으며 숙종대에는 훗날 영조가 되는 延祜君의 거처였다.
- 기미본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俯瞰視를 적용하여 장용영에 있었던 건물, 담장, 문, 정자, 蓮池, 우물 등 다양한 건축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묘사했다. 건물과 담장은 마치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누워있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는 기록을 위한 건축물 도해나 지도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다. 즉 화면 밖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통일된 시점으로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보다는 화면 속에서 바라보는 다시점, 이동시점을 통해 개별 경물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이다.
- 기미본은 회화적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 개별 건물에는 원근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입체적 공간감을 표현했고, 도면에는 없었던 나무를 많이 그려 넣었으며 우물의 경우에도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으로 입체감 있게 그렸다. 또한 세부를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갈색, 황색, 백색 등을 적재적소에 사용했으며 특히 모든 건물의 기단부 주위에는 옅은 녹색을 설채하여 전체적으로 현장감을 더해 주었다.
- 회화적 표현이 두드러지는 나무의 경우 줄기, 가지, 잎 등의 자연스러운 묘사와 화사한 색채에서 전문 화가의 숙련된 솜씨가 잘 드러난다. 특히 蓮池의 경우 연잎의 크기, 모양 등에 변화를 주고 푸른 물을 일부러 얼룩덜룩하게 칠하여 사실적인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다. 장용영을 蓮府라고도 했는데 이는 이 지역의 행정구역이 蓮花坊이었으며 연지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만큼 연지의 표현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흥미롭게도 연지에는 당시 화가의 지문이 여러 개 남아 있기도 하다.
- 기미본은 부감시를 취하면서 건축물을 평면도 방식으로 정확하게 채색으로 묘사

한 그림으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크다. 이전의 사례들은 의궤 같은 목판본 책에 포함된 작은 도해이거나 필사본 화첩의 소략한 기록화 정도이다. 기미본은 크기 뿐 아니라 뛰어난 수준의 회화적 표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버금가는 것으로는 <위암선생 등청도>(국립중앙박물관), <문묘향사배열도>(성균관대박물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확한 축척에 기초한 그림은 아니다.

- 규모와 수준에서 기미본과 비견되는 건물도로는 1824년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궁도> 정도이다. 그러나 <경우궁도>는 서양화법을 수용한 평행사선 부감법으로 그린 것이다. 즉 정간 구획을 따르는 間架圖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평행사선 부감법은 훨씬 더 실감나는 구도를 구현하기 때문에 <동궐도>처럼 장대한 건축물을 표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 기미본이 당시 널리 사용되던 평행사선 부감법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보수적인 부감시를 따른 이유는 기미정간본과의 밀접한 관련에서 설명할 수 있다. 진찬도의 경우에도 평행사선 부감법 보다는 부감시를 선호했는데, 회화적 효과 보다는 기록성이 더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미본 역시 기미정간본과 한 별을 이루어 제작됨으로서 장용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우선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간가도와 이를 기초로 한 건물도라는 희소한 사례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기미본을 제외하고는 궁궐, 관아의 간가도와 일치하는 채색 건물도는 알려진 사례가 없으며, 특히 대형 간가도식 평면도와 회화식 건물도가 한 별로 남아있는 것으로는 유일하다.

○ 참고문헌

- 정정남, 「壯勇營의 漢城府內 立地와 營舍의 建築的 特性」, 『장서각』 21(2009), 39-75.
 이왕무, 「『本營圖形』을 통한 조선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21(2009), 5-38.
 김경미,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경우궁도景祐宮圖’에 관한 연구」, 『문화재』, 44권 1호(2011) 196-221.

○ 기 타

소장경위 : 정간신유본에는 宣禧宮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종이표가 부착되어 있다. 기미본과 정간신유본은 1981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으로 이관되었다. 정간기미본은 정확한 입수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고려대학교의 도서관에서 박물관으로 1958년에 이관되었다.

<참고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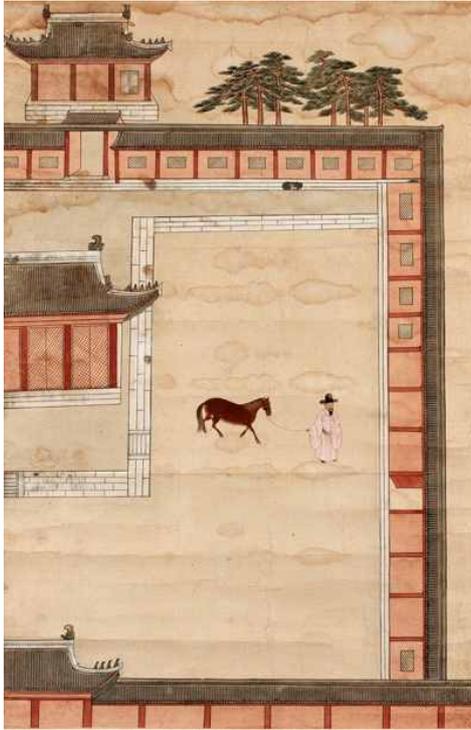


그림 38. <위암선생등청도>
111x72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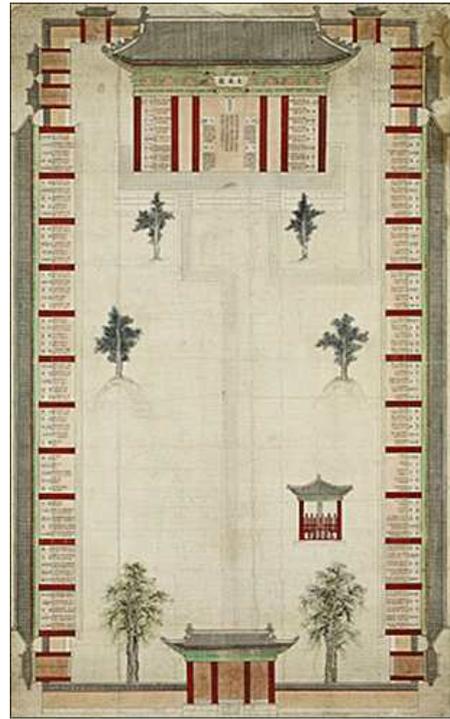


그림 39. <문묘향사배열도>
128x78.8cm, 성균관대박물관

□

○ 형 식 : 접포장(摺鋪裝), 채색 계화 및 간가도

세 점의 도형은 건물군의 영역이 모두 들어 갈 수 있도록 종이를 이어 붙여 큰 대지를 만들고, 같은 축척으로 조선 정조년간 설치된 장용영 내영의 배치를 그린 건축도이다. '己未'라고 간지가 적힌 도형 2점은 건물의 입면도가 보이도록 배치한 부감도법의 채색도와 평면구조를 보여주는 間架圖가 짝을 이루고, '辛酉'라고 간지가 적힌 도형은 간가도만 1점이다.

세로 방향은 5번 접고, 가로방향은 4번 접어 뒷면에 종이를 붙여 표지로 삼았다. 기미년의 두 도형은 백능화문 옥색 표지의 좌측 상단에 붉은색 띠를 대고 다시 종이를 붙여 '本營圖形'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표제 아래에 작은 글씨로 간지를 적었고, 간가도에는 표제 아래에 '井間'이라고 적고 그 아래에 간지를 적었다.

신유년 도형의 장황은 기미본과 같으나 표지의 종이색이 다르고 표제부의 붉은색 띠를 대지 않았다.

기미본에 비하여 신유본은 동남쪽 부분에 행각이 추가되어 있어 건물을 증축한 것을 알 수 있다. 기미본의 채색도와 신유본의 좌측 상단에 1787년부터 증축되는 내용을 별도의 종이에 적어 붙여 놓았다.

○ **조성연대** : ‘기미’본 2점 - 1799년(정조23), ‘辛酉’본 1점 - 1801년(순조 1)

도형의 표제에 ‘己未’와 ‘辛酉’라는 간지가 적혀 있어서 제작 시기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도형의 표현대상인 장용영이 설치된 정조년간 중에서 ‘己未’년은 1799년 이고, 도형내에 표기된 증축내용이 ‘기미’본에는 “己未年 新建 一百一十間”까지, ‘신유’본에는 기미년의 신건기록 뒤에 “辛酉年 新建 一百二十四間”이 첨가되어 있어 ‘辛酉’년은 1801년임을 알 수 있다.

○ 현 상

1) 『본영도형』의 내용

『본영도형』은 현재의 종로4가 인의동 일대에 정조년간에 설치된 장용영의 내영營業를 그린 건축도이다. 도형의 표제에는 ‘본영도형’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나 도형의 좌측(서쪽)길에 ‘梨峴大路’라 적혀있는 것을 단서로 표현 대상이 장용영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이왕무, 「<本營圖形>을 통한 조선 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제21집, 2009.4. 정정남, 「壯勇營의 漢城府內 立地와 營業의 건축적 특성-<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21집, 2009.4.)

장용영은 1787년 이현궁 터에 자리 잡았다. 『본영도형』己未本과 井間 辛酉本의 좌측 상단에 증축한 해와 칸수가 적혀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장용영 설치당시 이현궁의 기존 건물은 66칸으로 여기에 새로 6칸을 추가했다. 이어 5차례의 증축을 거쳐 1801년에는 총 653칸 반의 규모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영도형』3점은 동일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건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3점의 도형을 종합하여 장용영 내영의 건물 구성을 살펴 볼 수 있다. 도형으로 파악된 장용영 내영은 크게 4영역으로 나뉜다. 상급 관료들의 공간인 내대청, 하급 실무자의 공간인 외대청영역, 군기제작을 담당하는 장인들의 군기대청 영역이 행각과 담장으로 구분되고 동측으로 좁고 긴 대지에 창고와 군역자들의 입점처소가 마련되었다. 기미본에는 창고의 남쪽은 공지로 담장이 없이 대지 경계선만 그려져 있다. 辛酉本에는 이곳에 鄉軍과 都軍의 처소와 창고가 대지 외곽선을 따라 증축되었다. 남북으로 긴 마당은 貫革基라 적혀 있어 활터로 쓰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활터에 면한 향군과 도군의 入接處 정면에는 담장을 두어 동선을 통제하고 시야를 가리도록 했다.

서측 이현대로에서 주진입이 이루어져서 외대청 마당에 들어서고, 그 동쪽에 敎鍊官廳과 知穀官廳이 담장을 둘러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외대청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바깥쪽으로 퇴칸을 둘렀으며 기단이 낮고, 석주를 높이 올려 창경궁 숭문당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내대청과 외대청 사이에는 석단을 쌓고 은행목을 심었다.

내대청은 정면 7칸, 측면 2칸에 바깥쪽으로 4면 모두 퇴칸을 들렀다. 좌, 우협칸만 온돌방이며 중앙의 5칸은 대청으로 구성되었다. 내대청 남쪽에 종사관 대청이 있고, 북쪽에는 司書牌房, 堂上所, 庫直房이 있고, 각각 마루와 방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내대청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내대청 남동쪽의 米庫이다. 평면상의 주칸 간격도 상당히 넓고, 입면상 기둥이 노출되지 않은 벽돌조 건물이다. 내대청 주변의 행각은 중층의 누상고로 이루어져서 각종 軍器와 쌀을 보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대지의 남쪽에 치우쳐서 口자형의 행각안에 군기대청이 있으며 행각에는 각색장인과 冶匠의 작업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장용영 營舍내에서 기능이 다른 영역이므로 독립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건물 뿐 아니라 조경과 관련된 내용도 있다. 채색된 『본영도형』기미본에는 내대청과 외대청, 군기대청 등 주요 공간에는 각각 규모가 다른 연못을 조성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었으며 내대청의 연못에는 草亭을 두었다.

위에서 『본영도형』3가지 도형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조선후기 군영의 공간 구분과 각 공간의 주요건물과 부속건물의 규모 및 형태, 실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또한 『본영도형』의 외곽에 명기된 도로와 지명, 그리고 대문의 위치와 방향으로 주변대지와와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2) 『본영도형』의 제작 방법과 축척 비교

조선시대에 제작된 건축도는 현대건축에서의 ‘도면’과는 그 명칭과 도법, 공간에 대한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일반인이 건물을 알기 쉽도록 여러각도의 시점을 하나의 건물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와함께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를 단순하게 기호화하여 건축생산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이용하기 위한 보다 기술적인 도형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건축도는 종류에 관계없이 圖, 圖形, 圖式 등으로 통칭되었다.

『본영도형』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장용영이라는 대상에 대해 제작된 건축도이다. 3점의 도형은 종이 크기에 차이는 있으나 건물외곽의 크기는 거의 같아서 같은 축척으로 작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건물이 있는 영역의 크기만 보면 남-북 폭은 채색도가 2mm 더 크고 정간의 두 도형은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 겹쳐보아 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본영도형』己未本과 井間 己未本을 겹치면 정간 간가도의 정면 기둥열이 채색도의 입면 기둥 하단에서 대부분 일치한다. 기둥 간격도 내대청 남쪽의 米庫와 樓上庫를 제외하고는 거의 간가도와 일치하고 있다. 담장의 위치나 동남쪽 모서리 공터부분의 붉은 대지경계선이 각도와 위치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간가도를 아래에 깔고 그린 것은 아니지만 채색도의 기둥간격과 건물간 위치 등은 간가도에 따라 축척을 맞추어 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각기 제작시기가 다른 간가도인 『본영도형』井間 己未本과 井間 辛酉本을 겹쳐 보면(좌측 하단과 상단 모서리 일치 기준) 井間 己未本의 서쪽 행각이 살짝 안으로 휘었으며 내부의 건물들 위치가 동쪽으로 약 1/4칸~반칸 정도 치우쳐 있다. 辛酉本은 남동쪽으로 군인처소와 창고가 증축된 부분이 추가되어 종이의 크기도 정간 기미본 보다 약 13cm 크다.

외곽선의 각도와 담장의 위치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 경우도 앞선 己未本의 두 도형과 마찬가지로 앞의 도형을 아래에 깔고 그린 것이 아니고 정간에 맞추어 필사한 것이 두 도형사이의 오차는 정간의 간격이 필사된 것에 따른 오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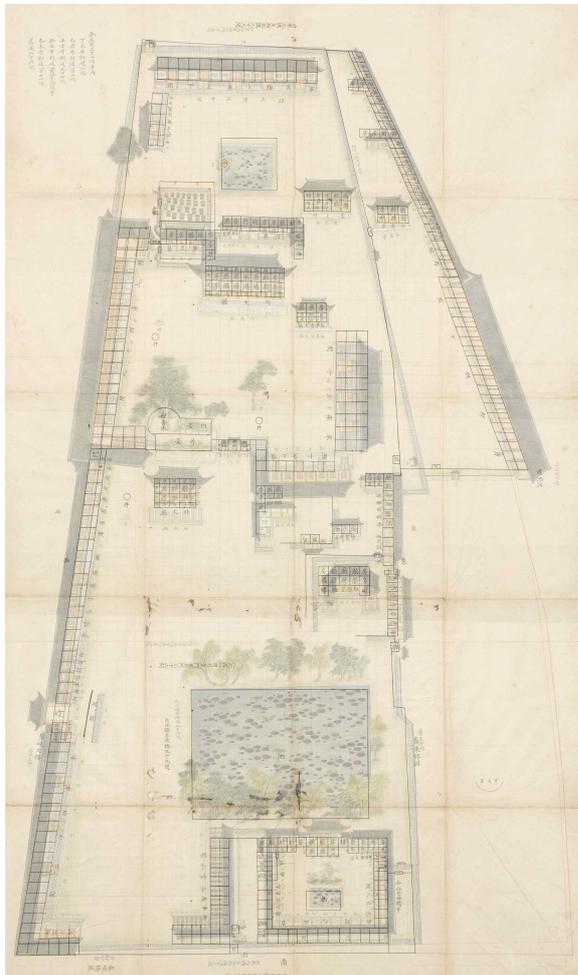


그림 40] 『본영도형』己未+井間 己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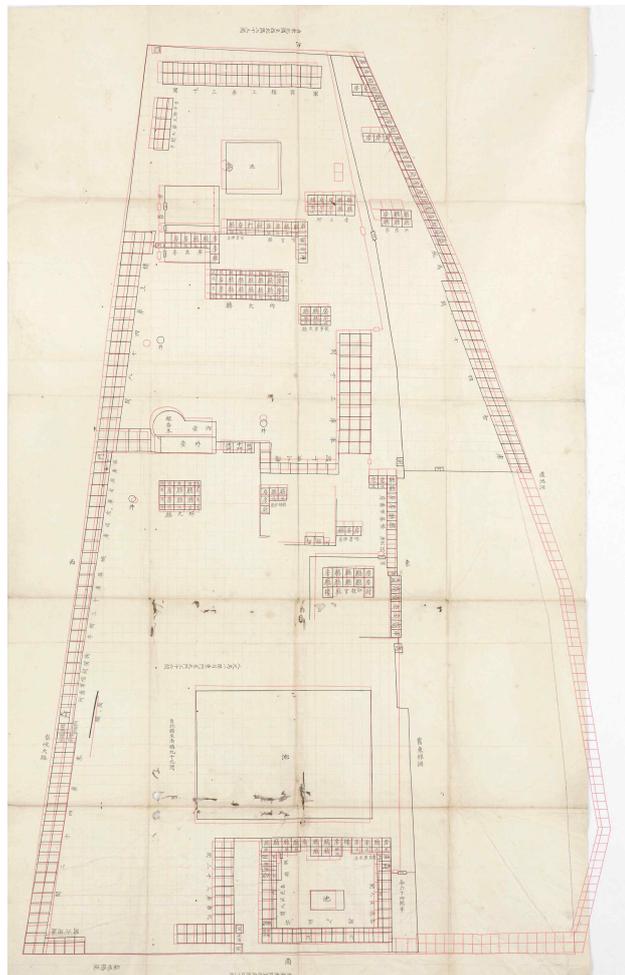


그림 41] 『본영도형』井間 己未(검정색)+井間 辛酉(붉은색)

표1] 도형에서 건물 외곽의 크기와 격자간격

도형	북측변길이(mm)	남측변길이(mm)	남-북 길이(mm)	격자 간격(mm)
『本營圖形』己未*	422	1,050	1,738	-
『本營圖形』井間 己未	417	1,045	1,736	17,5~18
『本營圖形』井間 辛酉	415	1,054	1,736	17,5~18

*입면도로 표현된 지붕 상단까지 측정 했으므로 다른 두 도형과 차이가 있다.

건축도는 실제의 큰 대지와 건물을 일정한 비례를 가지고 축소하여 종이에 그리는데, 그 축소 비율을 나타낸 것이 井間本の 붉은색 격자선이다. 『본영도형』정간본은 둘 다 대지 경계선 안쪽에만 격자선을 그렸다.

가로방향, 세로방향을 격자간격을 각각 조사한 결과 己未本과 辛酉本 정간의 간격이 같으며, 세로방향은 17.5mm, 가로방향은 상단은 17.6mm, 하단은 17.7~18mm였다. 정간은 필사한 것이므로 오차가 조금씩 있어 전체 길이를 칸의 수로 나눈 평균값을 구했다. 축척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외대청 마당 중간쯤에 ‘八尺爲一間’이라 적혀 있는데 격자 1칸이 8자라는 의미이다. 정조년간의 1자는 수원화성의 화서문에서는 308mm, 낙남헌은 310mm로 용척을 산정하고 있어서 이를 대입해 보면 『본영도형』井間本の 축척은 약 1/140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1) 『본영도형』己未

장용영 건물군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본 俯瞰圖法으로 그린 채색 도형이다. 사용자가 이동하면서 보는 시점에 따라 각각의 정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 진입방향에 따라 입면을 배치하였으며 대문 및 중문이 누워있는 방향은 진입동선 방향에서 정면을 그리는 방식을 취했다.

『본영도형』己未本은 『본영도형』井間 己未本을 바탕으로 어람용이나 보고용으로 장용영의 건물과 공간을 쉽게 이해 하도록 제작된 것이며 두 도형은 건축정보 전달에 있어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건물전체는 俯瞰視로, 세부적으로 전면에 창호나 벽이 없이 안쪽까지 보이는 경우는 투시도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영역내의 중심건물인 내대청과 외대청, 군기대청 등은 정면 상하이동 시점의 투시도법이 적용된데 반하여 외곽을 형성하는 행각과 부속 건물들은 입면을 표현하되, 내부까지 보이는 경우는 투상도법으로 표현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식은 한 장의 그림으로 건물의 외부형태를 충실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건물의 아래쪽에는 건물의 기능에 따른 명칭을 적었으며 외행각의 남, 북 바깥

쪽에는 각 변의 길이가 間으로 적혀 있고, 동쪽에는 ‘蓮池洞川邊’, 서쪽에는 ‘梨峴大路’, ‘舊東部洞’이라 적혀 있는데 18세기 중반의 도성지도와 일치하고 있다.

건물의 입면은 기단, 초석과 디딤석, 방과 마루의 창호형태, 벽체의 재료(전돌, 판벽 등)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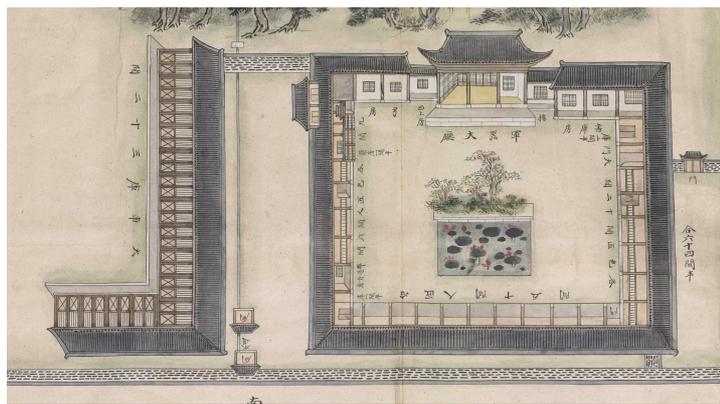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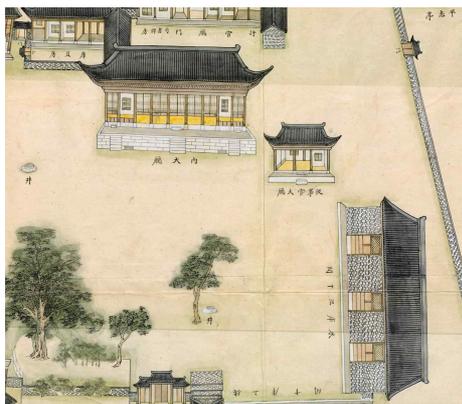


그림 42] 『본영도형』井間 己未本の 내대청영역 그림 43] 『본영도형』井間 己未本の 군기청영역

『본영도형』은 전통적인 정면부감도법을 사용하였지만 기존의 관아도에서 건물군의 외곽을 방형의 틀속에 맞추어 그린 점과 다르게, 넓은 영역을 도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지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반영한 점이 그 이전의 부감도법의 관아도와 다른 점이다. 또한 건물 내부를 깊이감 있게 투시하여 표현하고, 재료와 창호의 형태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이후에 제작되는 서양화법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시각인 평행사선 부감법으로 그려지는 「화성행궁전도」와 「동궐도」로 이어졌다고 본다.

궁궐과 관아의 건축물을 주 대상으로 그린 부감도법의 채색도형은 그 실존 사례가 극히 적고 문헌의 기록도 드물다. 1555년(명종 10) 명종의 명령으로 ‘漢陽宮闕圖’를 병풍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유일하다(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획과 <동궐도>의 건축표현」, 『동궐』, 2012).

영조년간의 제도정비와 지도제작은 정조년간 영건의궐에 도설이 수록되는 근간이 되었으며, 18세기에는 꾸준히 기술도와 건축도의 작성이 시도되었다.

정조년간 화성 건설과정에서 풍부한 도형을 제작하게 되는데 화성행궁도와 화성전도는 목판으로 인쇄되어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되었고 혜경궁 홍씨를 위해 제작된 『뎡니의궤』(1797)에 행궁과 화성의 전도, 성곽의 주요건물들의 채색도형이 수록되어 있다. 이 도형은 평행사선부감법으로 그려진 것으로 1828년경 제작된 「동궐도」와 같은 도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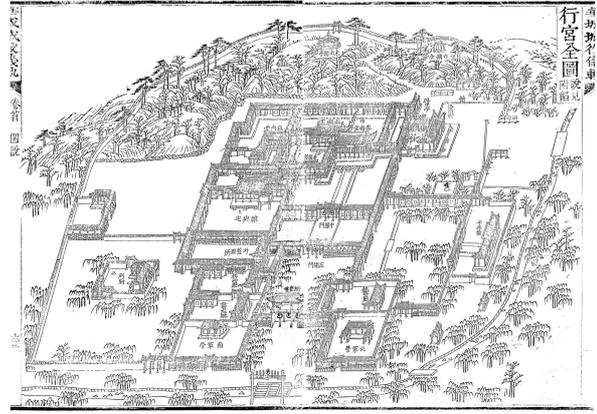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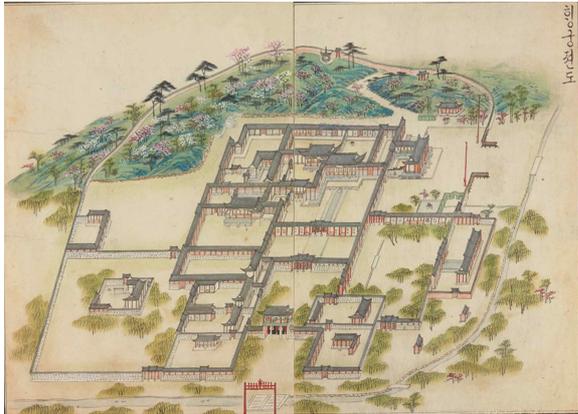


그림 44] 화성행궁전도(행궁전도, 『덩니의례』, 1797, 프랑스 대학언어문명도서관)

그림 45] 화성행궁전도 (행궁전도, 『화성성역의례』)

건축도 중에서 유일하게 문화재로 지정된 「동궐도」(2,730×5,840mm, 고려대학교박물관, 2,740×5,782mm, 동아대학교박물관, 국보 제249호)는 창덕궁과 창경궁, 후원을 하나의 화면에 그린 것으로 접어서 보관하는 화첩형태로 제작되었다. 제작 시기는 1828년에서 183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화적인 가치도 높지만 조선후기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일관성 있는 도법으로 구현하고,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 궁궐건축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2개의 본이 남아 있으며 접어서 책자형태(457×363mm)로 보관하는데, 총 16책으로 구성되었다. 보관과 열람이 쉬운 책자형태로 볼 때 감상용 보다는 실용적인 활용을 위한 도형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서궐도안」(1,290×3,970mm, 고려대학교박물관)은 경희궁을 그린 것으로 「동궐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도법도 같다. 종이에 먹으로만 그렸으며 채색이 되어 있지 않다. 「동궐도」와 같은 채색도를 그리기 위한 밑그림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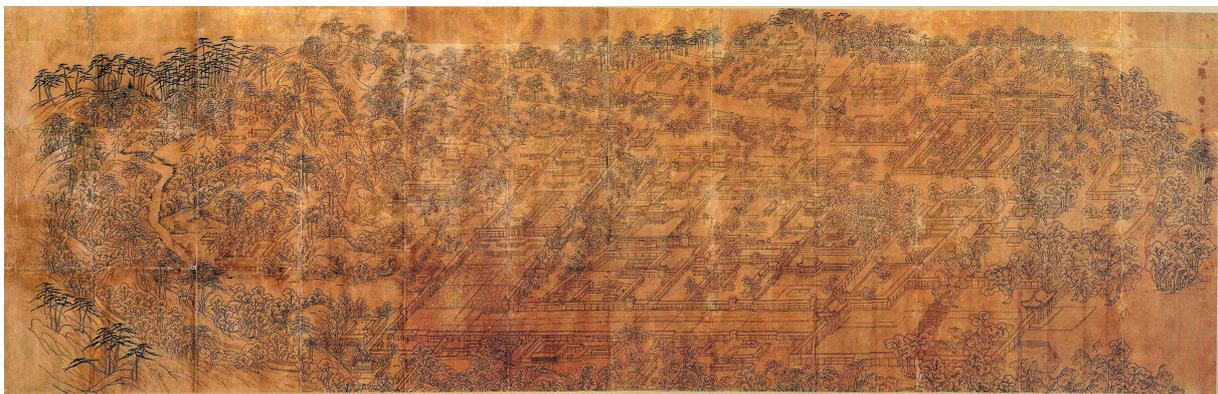


그림 46. 「서궐도안」(19세기 전반, 고려대학교박물관)



그림 47] 「동궐도」(1828~1830년, 고려대학교박물관, 국보 제 249호)

관아를 그린 부감시의 도형은 주로 官署誌에 수록된 배치도이다. 18세기 중반부터 제도를 정비하는 일환으로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관서의 연혁과 조직,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수록하여 후일 참고할 자료로 삼기 위해 관서지를 편찬하였다. 관서의 도형이 수록된 것은 『태상지(太常志)』(1766년, 봉상시), 『탁지지(度支志)』(1788년, 호조), 『태학지(太學志)』(1785, 성균관), 『추관지(秋官志)』(1788년, 형조) 이다.

관서지의 관아 도형은 채색을 하지 않았으며, 지붕을 위에서 내려다 본 俯瞰視의 정면도를 그렸으며 주요건물에서 입면의 창호를 묘사했다. 세로방향의 건물은 지붕만 그렸으며, 전면에 창호가 없는 대청이나 헛간(虛間), 문은 각 칸마다 시점을 이동하면서 투시도법으로 그려서 건물 내부의 깊이감을 표현하고 문을 통한 진입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주로 18세기 중반에서 후반에 제작된 관서지의 배치도는 개별 건물에 대한 묘사가 이루어지면서도 도법에 일관성이 없고 여러 방향의 시점과 표현방식이 혼재되어 있다.

영조 42년(1766)에 간행된 『태상지』의 봉상시 배치도는 각각의 건물이 마당을 중심으로 정면이 보이도록 눕혀져 있어서 개별 건물의 형태를 최대한 보여주고자 한 점에서 『본영도형』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러나 일부 건물은 지붕만 보이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 『탁지지』의 「본아전도」(1788년)를 보면 방형으로 한정된 형태에 행각과 건물을 배치하였다. 개별 건물의 지붕은 입면이고 기단부와 내부 바닥은 투시도법으로 표현되었으며 연못은 등각투상법으로 표현하는 등 하나의 그림에 다양한 시점이 반영되어 있다.

관서지의 관아 배치도는 전문화된 건축도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18세기 후반에 다양한 도법으로 건축물을 표현하려는 시도를 읽을 수 있다. 『본영도형』은

관서지에 수록된 관아도의 도법을 계승하면서도 보다 전문화된 건축도다운 묘사와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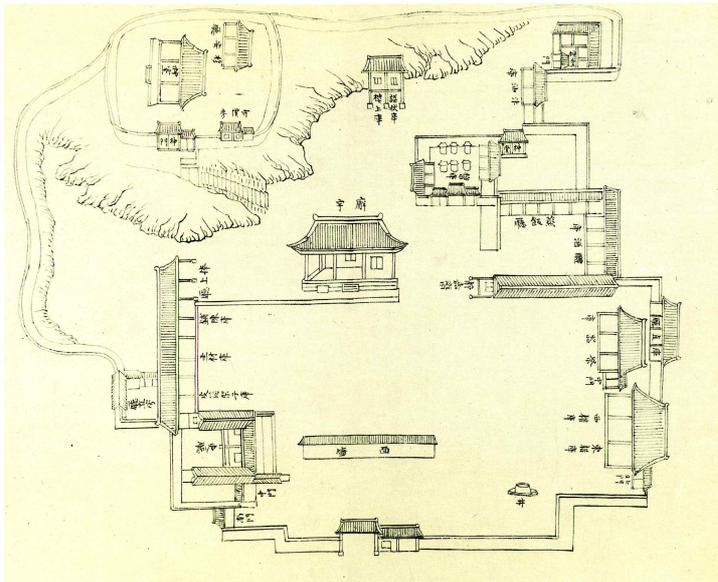


그림 48] 봉상시 배치와 건물들(1766, 『태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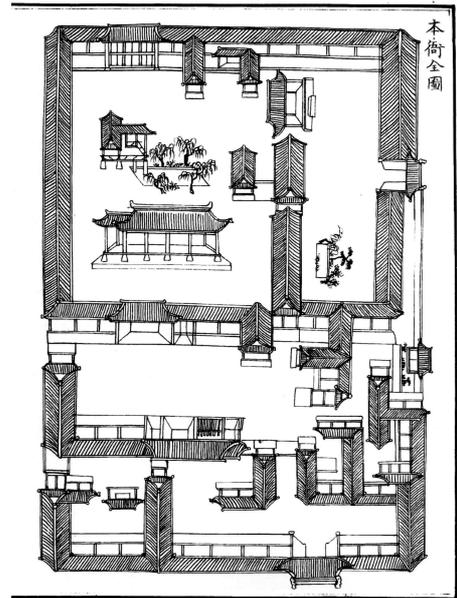


그림 49] 호조(1788, 『탁지지』)

이외에 19세기의 문신 한필교(1807~1878)가 자신이 봉직한 읍치와 관아를 그려 화첩으로 꾸민 『宿踐諸衙圖』(하버드-엔칭도서관)에 수록된 관아도가 있다. 기록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작년대가 확실하고 8개소의 관아의 건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비교적 일관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숙천제아도』의 관아도들은 「동궐도」와 같은 평행사선부감법이 아닌 『본영도형』과 같은 입면전개형 부감법과 부분적으로는 등각투상법, 투시도법 등이 혼용되어 있어서 『본영도형』의 도법이 19세기 중반까지도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조를 그린 도형은 1839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탁지지』에 수록된 「본아전도」와 도법과 묘사방법까지 똑같은데 여기에 추가로 지붕 위쪽에 건물의 명칭을 적었다. 『宿踐諸衙圖』의 관아도는 건물의 사실적 묘사에 더하여 건물명칭과 규모 등을 해당건물 아래나 위에 적어 놓는 점이 『본영도형』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선혜청은 1861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영도형』과 같이 대지가 사다리꼴로 한쪽 변이 좁아지는 형상이다. 건물의 묘사는 수록된 다른 도형에 비하여 간략하지만 도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본영도형』과 같으며 칸수와 명칭을 빠짐없이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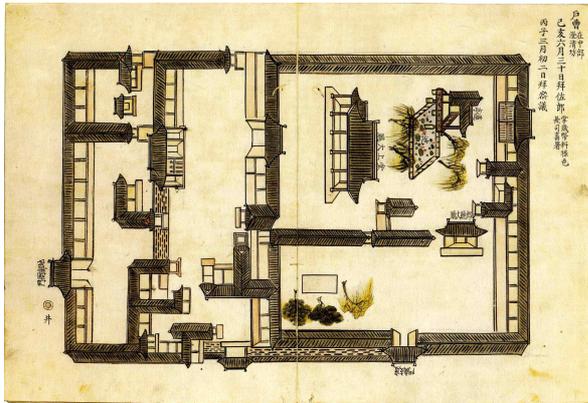


그림 50] 『숙천제아도』의 호조(18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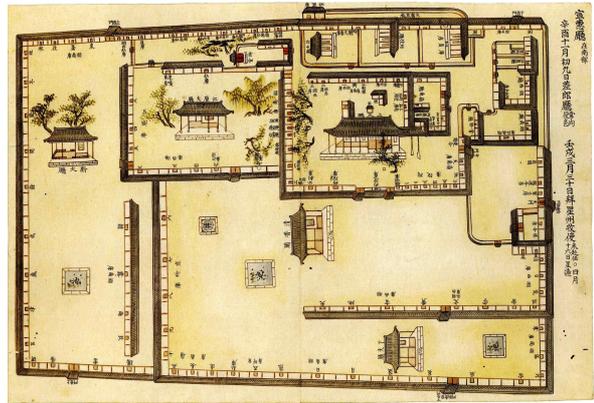


그림 51] 『숙천제아도』의 선혜청(1861년)

2) 『본영도형』井間 己未本과 辛酉本

2점의 『본영도형』井間本은 축척을 가진 간가도이다. 間架는 조선시대에 건물의 구조와 규모를 지칭하는 의미로 『세종실록』에서부터 그 용례가 보인다. 일찌감치 간가도형식의 도형이 제작되어 문헌에 수록되기도 했지만 ‘간가도’라는 명칭으로 문헌에 수록된 도형은 『(정조 건릉)산릉도감의궤』(1800)의 ‘재실간가도’가 처음이다.

문서에 첨부용으로 그려진 간가도는 정간을 그리지 않아 축척을 알 수 없고 다만 대상의 평면 구성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본영도형』井間本은 격자선을 바탕으로 제작된 도형을 간가도 중에서도 ‘정간’으로 지칭 하는 사례이다. 『본영도형』井間本의 간가도는 지도제작과 같은 방식으로 먹선 혹은 주선으로 격자선을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의 기둥과 架構를 평면에 단선으로 도식화해서 그린 도형이다. 간가도에는 구조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으나 쉽게는 평면도로 인식된다. 건물의 주 칸 안에는 실의 구성을 적어 넣기도 하고 건물의 명칭나 용도를 아래쪽에 적은 형식이 일반적이다.

간가도의 각 칸에 房, 廳, 廚, 庫, 虛와 같은 실의 형태를 적어 넣는데, 글씨를 건물의 정면 방향으로 적어서 기존의 입면전개형부감도법을 근간으로 점차 도식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문의 표현에서 두드러지는데 18세기의 간가도에 협문이나 대문 등 입면을 높혀 그리기도 했으며 이것이 점차 도식화된 형태로 바뀌었다.

정간을 바탕으로 그린 간가도는 건축도에 축척개념이 부여된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간가도 중에서 『본영도형』이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다.

『본영도형』은 간가도 중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표지를 갖추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사례이다. 현전하는 대부분의 간가도는 낱장으로 표지나 장황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제작 주체나 년도가 알려져 있지 않고, 원 소장처 조차 불분명한 것이 대부분이다. 건축물의 생산과 관리를 위한 실무로 활용하기 위해 정간 간가도를 제작하기 때문이고 그러한 용도로 제작된 간가도는 공사가 완료되

거나 그 기능을 다하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정간 간가도는 궁궐, 궁가, 민가에 관한 것들이 남아 있으며 관아를 그린 것은 남아 있지 않다. 궁가의 간가도는 18세기의 것이 남아 있으나 정간을 그리지 않은 것이고, 정간을 바탕으로 삼아 그린 것은 『본영도형』을 시작으로 대부분 19세기 이후의 것이 남아 있다.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 안쪽에만 정간을 그린 것은 『본영도형』만의 특징인데, 이후의 정간 간가도는 종이 전체에 정간을 그렸다.

궁궐 관련 간가도는 수량이 적다. 궁궐 전체의 배치를 한 장에 그린 것과 주요 전각을 중심으로 한 영역만 그린 것, 두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세기 초에 제작된 경복궁을 그린 「북궐도형」과 창덕궁 및 창경궁과 후원을 그린 「동궐도형」이 있다. 이 도형들은 정간 1칸의 크기가 11.4mm이고(약 1/200), 궁궐의 규모가 크므로 전체 도형의 크기는 『본영도형』보다 3배 가량 크다.

현재 전하는 궁궐의 간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표2] 궁궐 간가도

도형	도형 크기 (세로×가로,mm)	격자 간격/ (mm)	제작시기	소장처
본영도형-정간 기미	1,935×1,111	17.7	1799년	고려대학교박물관
본영도형-정간 신유	1,927×1,240	17.7	1801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창경궁)통화전도형	967×808	없음	1805년 전후	국립문화재연구소
창덕궁도형	(미확인)	없음	1834년 이후	국립고궁박물관
경복궁대궐도형	671×520	20.1	?~1865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교티전도형	393×530	없음	1865~1895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통화당도형	410×613	14.2	1865년경	국립문화재연구소
(창덕궁)낙선재도형	571×627	11.7	1863~1864년	국립문화재연구소
나인초소도형	825×715	없음	19세기말	국립문화재연구소
경복궁배치도	4,070×2,650	11.7	1888~1890	고려대학교박물관
경복궁후원도	2,340×2,020			
북궐도형	4,425×2,760	11.4	1905~1907	규장각
	4,320×2,800			국립문화재연구소
북궐후원도	2,350×2,840	11.4	1905~1907	규장각
	2,310×2,820			국립문화재연구소
동궐도형	5,932×3,384	11.4	1905~1907	규장각
	5,900×3,44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본영도형』이외의 도형들은 모두 해당 전각의 존치시기를 토대로 제작연대를 추정한 것이다.

궁궐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많은 건물이 모여 있는 매우 복잡한 건축군이므로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궁궐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임진왜란 후 경복궁 복구를 위해 계획하면서 건물터를 살피고,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 지을 건물의 도형을 그리는데, 궁궐의 일을 잘 아는 사람, 화원, 그리고 목수가 참여하도록 한다. 이렇게 그린 도형은 왕이 검토하고 수정해 나갔다(『선조실록』 선조 39년(1606) 6월 17일(갑인)).

고종대에는 궁궐의 도형을 여러 본 제작하여 왕과 해당 부서에도 각각 비치하고 있었으며, 궁궐의 수리 및 영건에 활용하고 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승정원일기』, 고종 11년(1874) 5월 12일).

『본영도형』 제작 직후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창경궁)「통화전도형」은 1805년 혜경궁 홍씨의 혼궁으로 사용하면서 크게 수리를 한 전각이다. 그 수리시 사용한 도형으로 추정되는데, 바탕에 정간 없이 그려졌지만 8자 짜리 행각 1칸이 24mm로 그려져서 축척을 가늠할 수 있다. 담장이 단선으로 된 점, 판장에 단선으로 그리고 글자를 넣은 점 등은 『본영도형』과 같은 표현방식이지만 門을 凸자 형태로 표기해서 문이 보다 더 기호형태로 변한 모습이다.

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창덕궁도형」은 창덕궁 내전일곽이 화재로부터 복구된 1834년경으로 추정되는데 앞의 (창경궁)「통화전도형」처럼 정간을 그리지 않고 담장은 3개의 선이고, 판장은 단선으로 그렸다. 석축의 표현방식이나 담장, 일각문의 표현은 입면전개도에서 도식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19세기 중반경으로 추정되는 창덕궁의 전각 수리시, 경복궁의 중건시 해당 전각만을 그린 것들이 소수 있는데 이 도형들은 20세기 초에 그려진 「북궐도형」, 「동궐도형」과 그 형식이 같고 도형내에 문자로 표기되는 내용에 가감이 있다. 담장은 복선으로 통일되고 일각문은 복선의 凸자 형태로 일정하게 통일 되었다.



그림 52] 「동궐도」의 창경궁 통화전 일곽



그림 53] 「동궐도」의 창덕궁 대조전 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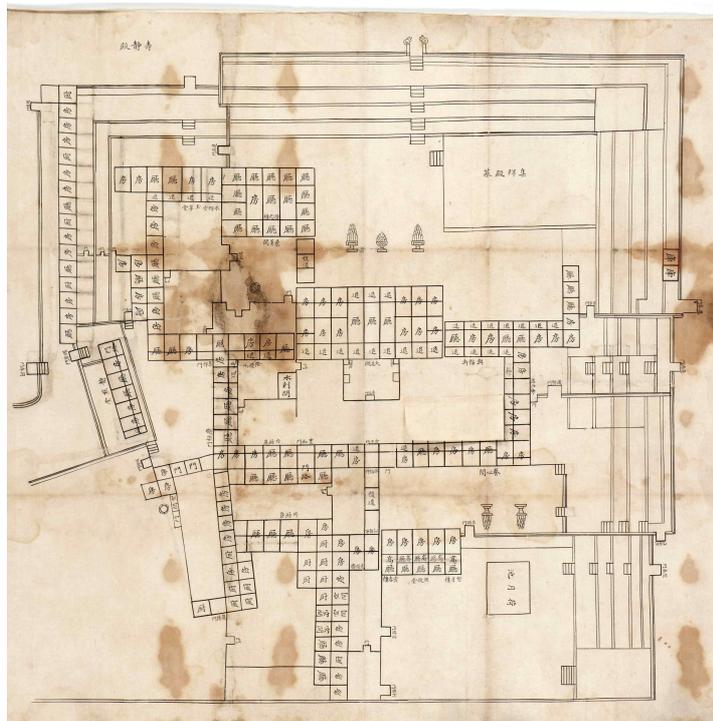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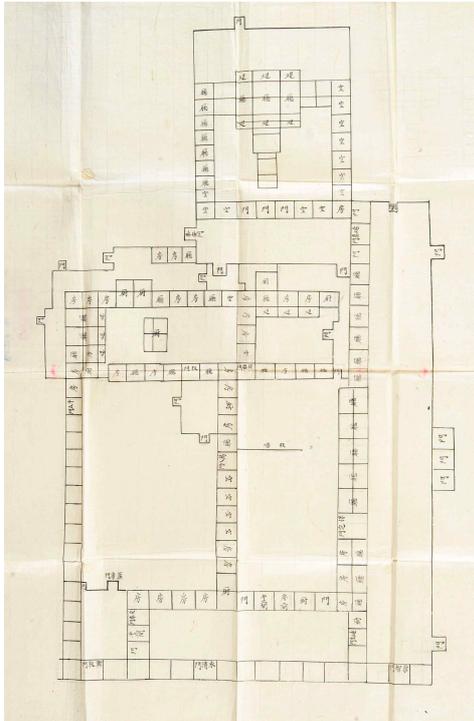


그림 54] (창경궁)「통화전도형」(국립문화재연구소) 그림 55] 「창덕궁도형」(국립고궁박물관)

1887년경 경복궁의 전각 배치를 그린 「경복궁배치도」(고려대학교박물관)는 「북궐도형」과 형식이나 크기가 거의 같다. 이 도형을 통해 궁궐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전체배치도를 반복적으로 제작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궁궐 뿐 아니라 관아의 경우도 『본영도형』과 같이 증축과정에 따라 도형을 제작하였을 것이다. 「경복궁배치도」는 도형의 명칭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소장처에서 명명한 것으로 현대적인 도면개념의 명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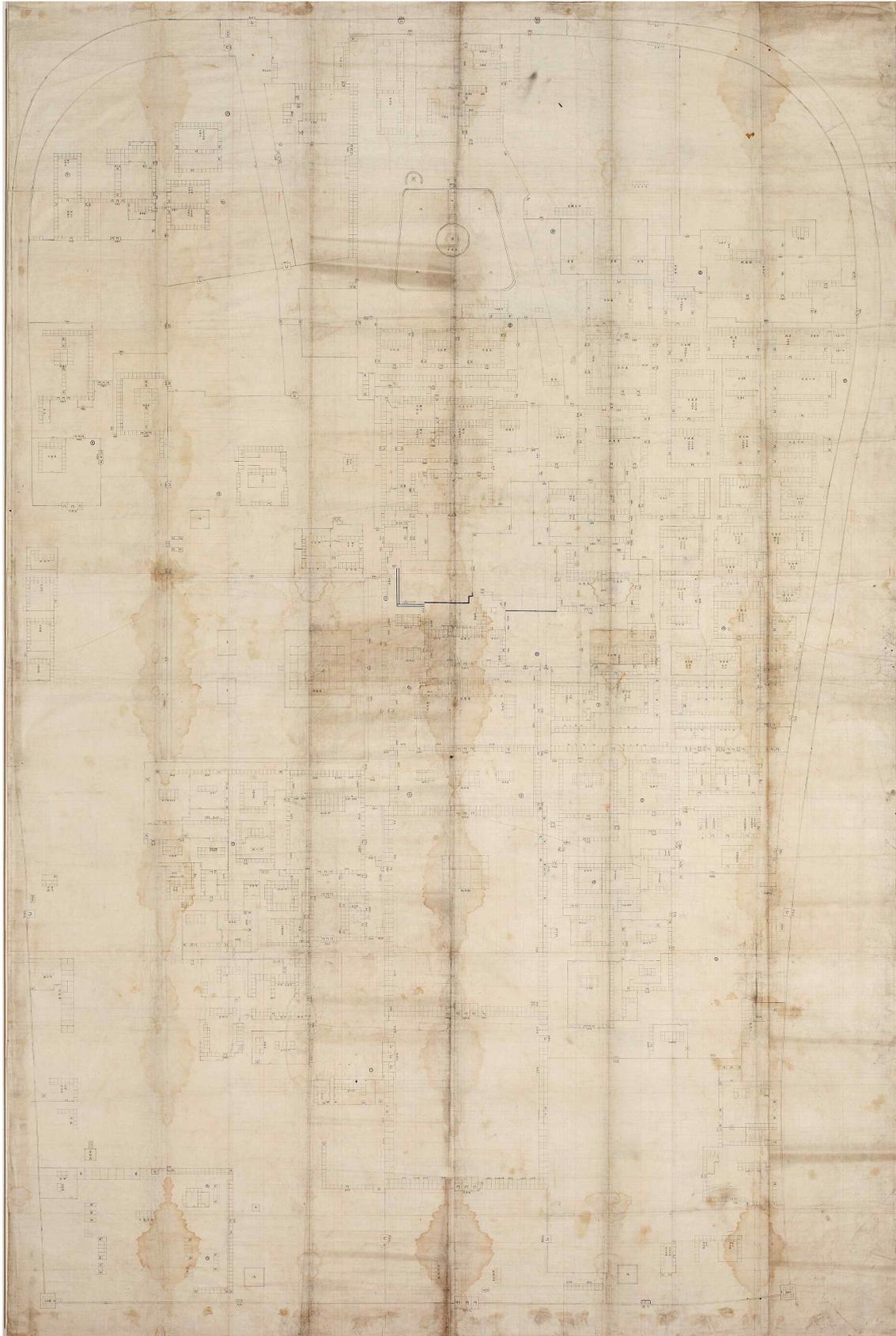


그림 56] 「경복궁배치도」(고려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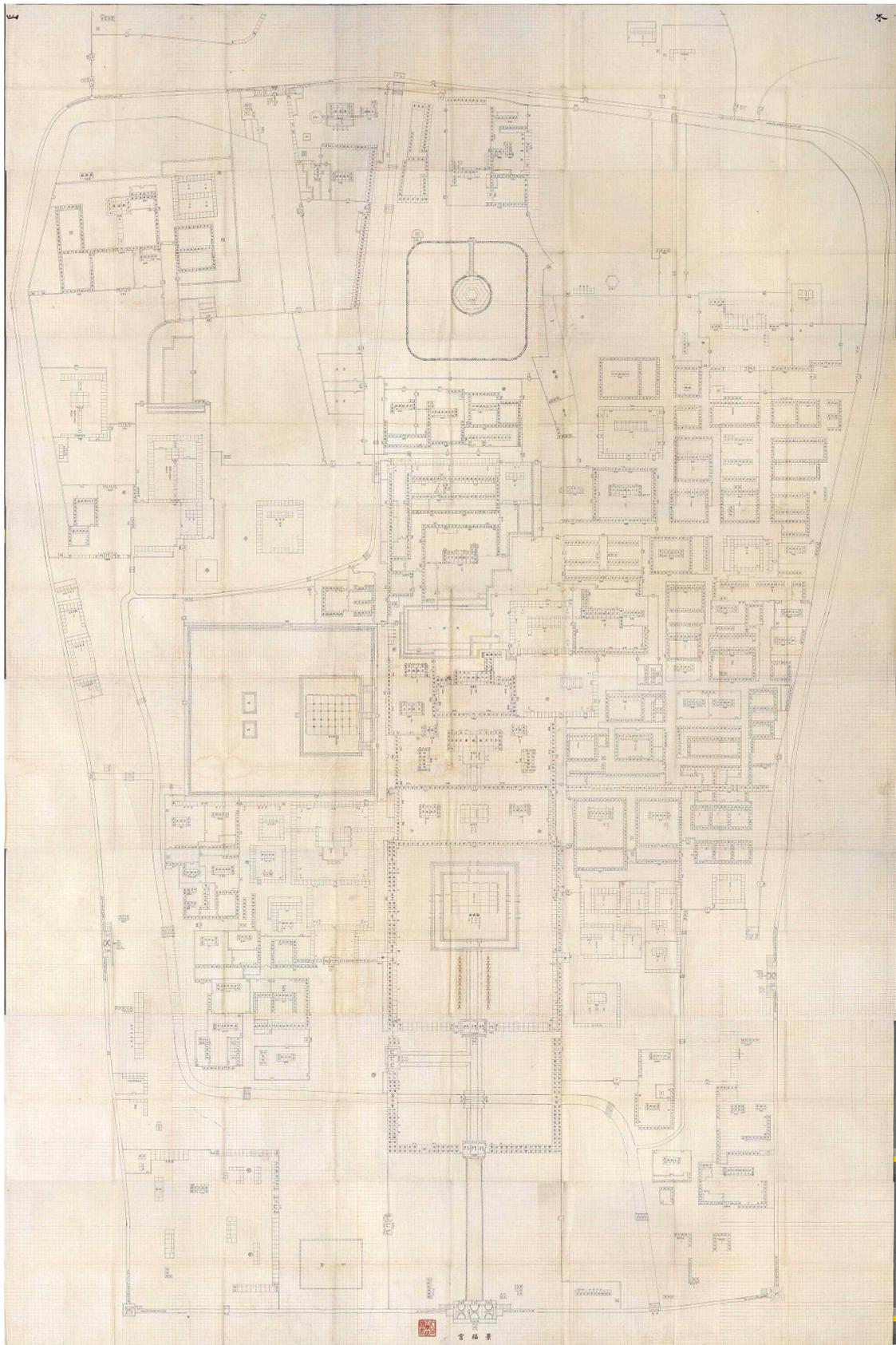


그림 57] 「북궐도형」(규장각한국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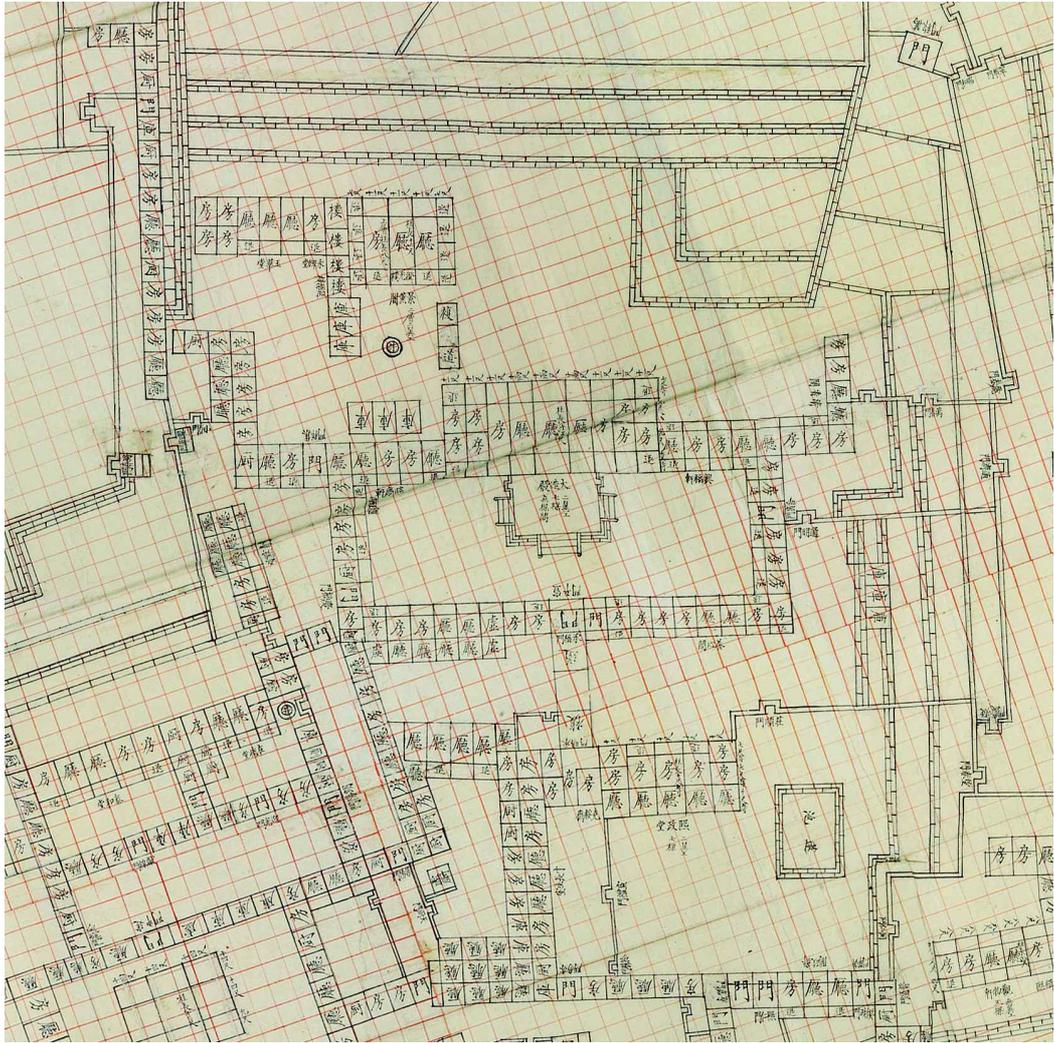


그림 58] 「동궐도형」(규장각한국학연구소)

마지막으로 20세기 초에 제작된 「북궐도형」과 「동궐도형」은 「경복궁배치도」와 같은 형태이나 석축이나 월대, 어로 등 건물 이외의 부분에 대한 표기가 추가되었고, 주요 전각에는 공포형식과 건물의 구조를 적고, 주간의 尺數를 적어 넣어 이전보다 더욱 풍부한 건축정보를 담고 있다.

정간을 바탕으로 그린 『본영도형』의 정간도는 그 이전에는 이러한 사례가 남아 있지 않고, 대지의 안쪽에만 정간을 그린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도형에 정간을 사용하기 시작한 초기의 것으로 사료된다.

18세기 다양한 건축도형의 시도와 함께 현장기술자에 의한 간략한 형태의 도형은 상급관리자, 기획자와의 소통을 고려하여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도식화 과정을 거쳤다. 여기에 『본영도형』이 제작되는 18세기 말에는 축척이 부여된 정간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19세기 동안 경복궁 중건 등의 궁궐건축 조영과정에서 제작된 도형들은 건축정보 전달이라는 체계를 갖추었고, 간가도는 정간을 바탕으로 축

척을 가지는 것이 전제되었다. 20세기초에 제작된 「북궐도형」과 「동궐도형」과 같이 수많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찬 경복궁과 창덕궁, 창경궁의 전체 배치와 개별 건물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본영도형』은 이와 같은 건축도의 발전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료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3) 『본영도형』의 특징

『본영도형』은 정조년간 이현대로의 동쪽(인의동)에 위치했던 장용영 내영의 건축물의 면모와 배치를 그린 건축도이다. 총 3점의 접포장 형태로 표제는 『본영도형(本營圖形)』이고, 그 아래 각각 간지(己未, 辛酉)와 간가도에 한해서 정간(井間)이라 적혀 있다.

도형의 형식은 건물의 입면이 보이도록 눕혀 그린 채색 입면전개형 부감도법의 배치도와 적색 격자선에 평면구성을 일정한 축적으로 그린 간가도(間架圖)가 1조를 이루는 건축도이다.

입면전개형 부감도법의 배치도는 행사기록화 등에 그려진 건축내용과 다르게 건축물 자체의 형태적인 정보를 전체 건물군과 함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영도형』은 도형의 실제 활용기능에 적합하도록 일관성 있고 정교하게 표현하였다.

같은 대상에 대해 1799년, 1801년 두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시기에 따른 건축물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고, 조선시대 건축도의 발전과정과 제작 방법 및 활용사례를 보여주는 사료이다.

동서남북의 방위가 적혀 있는 점, 대지의 형상을 반영하여 축척을 가지고 작도된 점이 근대적인 건축기술도의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헌자료

『壯勇營大節目』,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K2-3369)

廳舍條에 본영의 전체 규모를 446칸이라 하고 각 건물들의 명칭과 칸수가 적혀 있다. 『본영도형』(기미)의 513칸 반 보다 적어서 그 이전 시기의 장용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기 타

소장경위 : 1981년 문화재청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된 자료

○ 참고문헌

- 문화재관리국, 『동궐도』, 1991.
- 裴祐晟, 「正祖年間 武班軍營大將과 軍營政策」, 『한국사론』 24, 서울대, 1991
- 김왕직·김홍식, 「조선시대 건축배치도의 도법과 사상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98.6.
- 이혜원,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경복궁배치도>의 제작시기와 史料價値에 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008.8.
- 이왕무, 「<本營圖形>을 통한 조선 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제21집, 2009.4.
- 정정남, 「壯勇營의 漢城府內 立地와 營舍의 건축적 특성-<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서각』 제21집, 2009.4.
- 김선주 외, 『숙천제아도』, 민속원, 2012.
- 박정혜, 「19세기 궁궐 계획과 <동궐도>의 건축표현」, 『동궐』, 2012.
- 송인호, 「四方顛倒描法 연구-〈宿踐諸衙圖〉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2013.
- 이혜원, 「조선시대 건축도의 전개와 특성」, 『동아시아 건축도면의 역사와 특징』, 수원화성박물관 학술총서 5, 2014.



○ 형 식

“장용영 본영도형”은 전통적인 기술도의 한 분야로서 건축도이고, 표기 방식으로는 축척도, 표현 방식으로는 간가도와 채색도의 형식을 보여준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장용영 본영도형”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작된 기술도(技術圖)로서, 국가시설의 배치, 규모, 용도, 연혁 등을 기록한 건축도(建築圖)이다.

근대적인 측량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의 건축도는 회화나 약도와 같이 실물의 크기를 일정한 비율로 축소한 축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는 형태와 비율에서 비교적 큰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이 “장용영 본영도형”은 근대적인 측량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확한 축척을 갖고 있어 전통적인 방식의 측량을 통해 표기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의 축척도(縮尺圖) 형식을 갖추고 있다.

3매의 건축도 중에서 표지에 ‘정간(井間)’이라고 표기된 두 매는 건축물의 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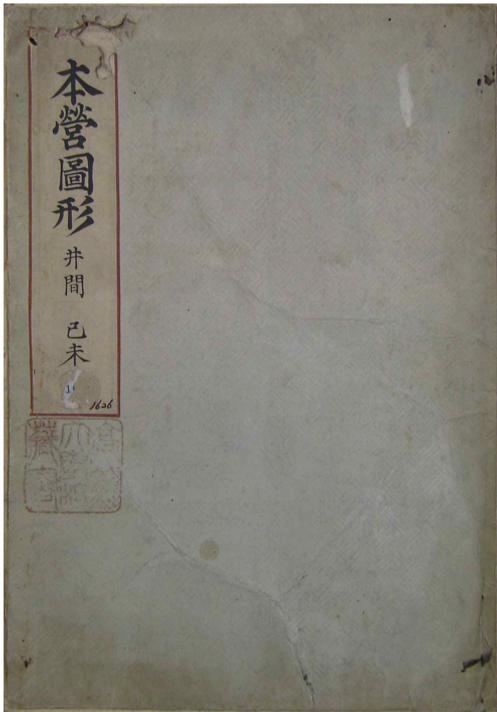
위치를 표기하여 칸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간가도(間架圖)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정간(井間)’은 바둑판 모양의 칸살을 의미하여 제작 당시에 간가도의 표현 방식을 ‘정간’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건축도는 간가도로 제작된 건축도를 밑그림으로 하여 건물의 입면과 조경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채색도의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건물의 입면은 몇 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넘어뜨려 그린 ‘사방경사묘법(四方顛倒描法)’으로 표현되어 있다.

○ **조성연대** : 1799년(己未), 1801년(辛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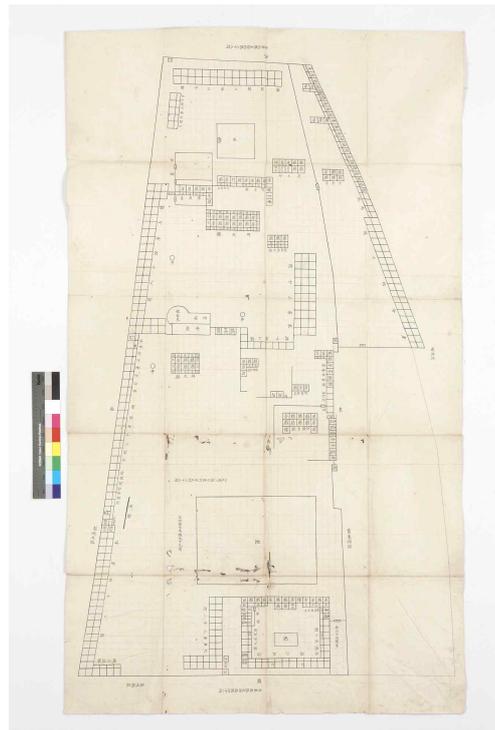
세 건축도의 표지에는 ‘본영도형(本營圖形)’이라는 표제와 함께 ‘기미(己未)’와 ‘신유(辛酉)’의 간지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 건축도가 표현하는 종묘 동남쪽의 부지에 ‘본영’이라는 군사시설이 위치한 것은 정정남, 이왕무 등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1788년부터 1802년까지 존재한 장용영(壯勇營)이고, 따라서 기미(己未)는 1799년, 신유(辛酉)는 1801년으로 볼 수 있다.

○ **현 상**

1)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 표지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 배치도

두 장을 이어붙인 1,111mm * 1,935mm 크기의 종이에 간가도 형식으로 장용영 본영을 그린 건축 배치도이다. 가로로 4번 세로로 5번 접어 보관되고 뒷면에는 “본영도형 정간 기미(本營圖形 井間 己未)”라는 표제가 적혀 있다.

배치도의 사방으로 동, 서, 남, 북의 방위가 표기되어 있으며, 전통적인 위치 표현 방법인 동서남북에 면하고 있는 도로, 토지 소유주, 지명 등을 기록하는 사표(四標)가 북쪽을 제외한 동쪽, 서쪽, 남쪽에 표기되어 있다. 동쪽에는 연지동(蓮池洞)과 구동부동(舊東部洞), 서쪽에는 이현대로(梨峴大路), 남쪽에는 이현교거(梨峴橋渠)가 기록되어 있다. 북쪽과 남쪽에는 대지의 길이가 각각 自東北隅至西北隅二十三間 自東南隅至西南隅四十一間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용영 본영 대지의 규모는 군기대청(軍器大廳) 북쪽의 연못 좌상귀에 八尺爲一間 自東門至大門三十六間 自北牆至南牆九十九間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용영 본영의 동남쪽 담장 밖은 붉은 실선으로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에서 장용영 본영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표기된다.

배치도는 검은색 실선으로 구획을 구분하고 건물은 격자의 칸으로 표기하였다. 장용영 본영의 내부는 동남쪽 담장 밖의 실선과 같은 붉은색으로 격자를 그렸는데, 간격이 일정하지는 않다. 칸 내부에는 房, 廳, 退, 門, 廚, 樓, 庫, 厠, 馬廄, 虛間 등의 용도가 표기되어 있고, 건물 밖에는 건물명과 칸수의 규모가 표기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남북으로 긴 사다리꼴 형태의 필지이고, 남쪽의 외대청(外大廳)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 북쪽의 내대청(內大廳) 영역과 평지정(平志亭) 영역 등 세 영역이 담장과 건물로 구분된다.

외대청 영역의 서쪽 행각에는 대문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 장용영 본영의 주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반대편 동쪽의 동문이 부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에 큰 연못이 있고, 그 북서쪽으로 본건물인 12칸 규모의 외대청이 위치하고 있다. 중앙 연못 남쪽에는 口자 형태의 장인들이 사용하는 건물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작은 연못이 위치하고 있다. 연못 북쪽에는 교련관청(敎鍊官廳)과 지곡관청(知穀官廳)이 위치하고 있다. 내대청 영역의 중앙에는 장용영 본영의 중심 건물인 24칸의 내대청이 위치하고 있고, 전면에 넓은 마당과 주변에 여러 부속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대청의 북쪽에는 연못과 창고가 위치한다. 내대청 영역의 동쪽 담 너머에는 남북으로 긴 행각으로 외부와 경계를 이루고 내부에는 6칸의 평지정이 위치하고 있다.

2)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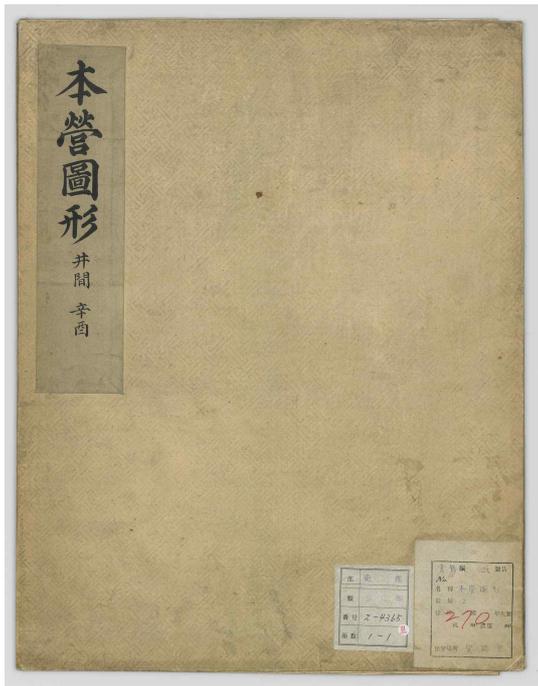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 배치도

세 장을 이어붙인 1,125mm * 1,955mm 크기의 종이에 사방경사묘법으로 장용영의 본영을 채색하여 그린 건축 배치도이다. 가로로 4번 세로로 5번 접어 보관되고 뒷면 중앙에는 “본영도형 기미(本營圖形 己未)”라는 표제가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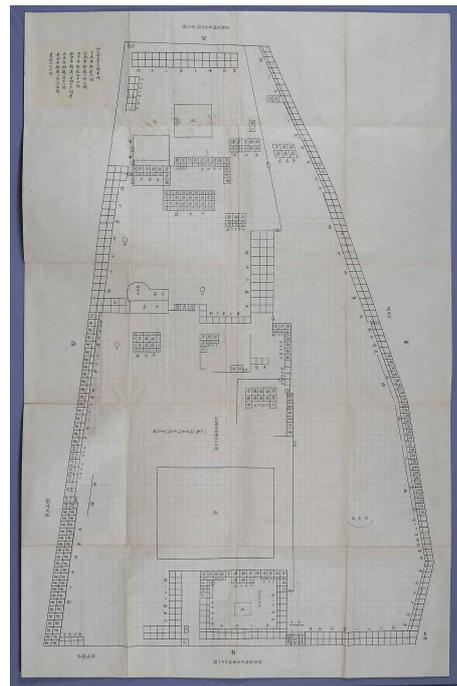
좌측 상단에는 “합五百三十二間半內 丁未年新建六間 乙酉年新建一百三間 壬子年新建九十七間 癸丑年新建一百四十九間半 己未年新建一百一十一間 舊建六十六間”의 장용영 본영의 증축 현황이 연도별로 기록되어 있다. 본래 66칸 건물이었는데, 정미년(1787)에 6칸, 을유년(1789)에 103칸, 임자년(1792)에 97칸, 계축년(1793)에 149.5칸, 기미년(1799)에 111칸을 증축하여, 현재(1799) 함께 532.5칸 규모라는 정보를 알려준다. 배치도는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과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간가도 형식이 아닌 사방경사묘법으로 건물의 외관과 나무, 연못 등을 그리고 채색하여 나타내고 있다. 격자도 그려져 있지 않지만, 위치와 크기가 거의 동일하여 이 도면 아래에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을 놓고 배치를 그린 후에 채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용영 본영 영역 밖의 동남쪽 공터를 붉은색으로 표기한 것은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과 동일하다.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에서 칸 안에 기록한 房, 廳, 退, 門, 廚, 樓, 庫, 厠, 馬廄, 虛間 등의 정보는 그림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바닥과 벽체를 표현하고 있으며, 건물명과 규모의 표기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동쪽 사표가 연지동이 아닌 연지동천변(蓮池洞川邊)으로 기록

되어 있고, 동남쪽 외부 공간에 과녁대(貫革基), 평지정 영역에 鄉軍入接所四十四間, 외대청 영역 연못 남쪽의 口자형 건물에 군기대청(軍器大廳) 등이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과는 달리 기록되어 있어 추가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 표지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 배치도

네 장을 이어붙인 1,240mm * 1,927mm 크기의 종이에 간가도 형식으로 장용영 본영을 그린 건축 배치도이다. 가로로 4번 세로로 5번 접어 보관되고 뒷면에는 “본영도형 정간 신유(本營圖形 井間 辛酉)”라는 표제가 적혀 있다.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과 마찬가지로 좌측 상단에는 장용영 본영의 증축 현황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合六百五十三間半內 丁未年新建六間 乙酉年新建一百三間 壬子年新建九十七間 癸丑年新建一百四十六間半 己未年新建一百一十一間 辛酉年新建一百二十四間 舊建六十六間” 본래 66칸 건물이었는데, 정미년(1787)에 6칸, 을유년(1789)에 103칸, 임자년(1792)에 97칸, 계축년(1793)에 146.5칸, 기미년(1799)에 111칸, 신유년(1801)에 124칸을 증축하여, 현재(1799) 합계 653.5칸 규모라는 정보를 알려준다.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에 비해 신유년(1801)의 124칸이 추가되었고, 계축년(1793)의 149.5칸은 146.5칸으로 수정되었다.

배치도에서 2년 전에 제작된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과 다른 점은 장용영 본영 동남쪽에 붉은색으로 대지를 표기했던 과녁대(貫革基)가 위치한 지역을 장용영 본영 내부로 편입하고, 편입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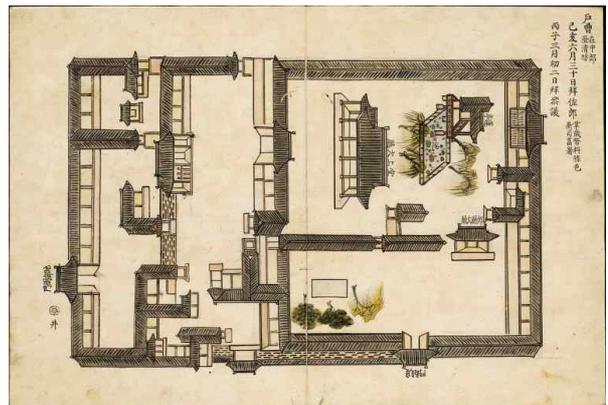
새로운 대지 경계에 행각을 신축하여 기존의 행각과 연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평지정(平志亭) 영역의 남쪽 담과 문을 철거하고, 평지정 영역과 과녁대 영역을 남북으로 긴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에 표기된 동문은 장용영 본영 내부의 문이 되었고 신축된 동쪽 행각에 새로운 문을 설치하였으며, 군기대청(軍器大廳) 남동쪽 밖으로 기존의 서쪽에 위치한 대문 외에 추가로 남쪽으로 향하는 대문을 설치하였다.

○ 내용 및 특징

1) 「장용영 본영도형」의 제작 과정

「장용영 본영도형」은 건축 기술도로서, 정조 시대의 군사시설인 장용영의 배치를 측량하여 건축도면으로 제작한 것이다. 도면이 제작된 1799년과 1801년의 측량 방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측량에 의한 건물 정보를 도면으로 제작한 방법에 대해서는 정정남의 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 대지의 외곽선을 먼저 그린 후에 대지의 안쪽에 붉은 먹선으로 일정한 격자를 그리고, 이 격자를 건물 한 칸의 기본 단위로 하여 건물의 배치를 그려나가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장용영 본영도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격자와 칸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근대 시대에 그려진 대부분의 건축 도면에서 대지는 직사각형으로 표현되고 건물은 직각으로 배치된다. 근대적인 측량도와는 달리 전근대의 건축 도면은 건물의 규모를 칸으로 셈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를 갖고 있었고, 주변 대지와와의 경계선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가로와 세로의 축척, 건물의 외곽선, 건물 사이의 거리, 대지의 모양 등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격자에 맞추어 배치하고 모든 칸을 같은 모양과 크기로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숙천제아도(宿踐諸衙圖)』의 「호조(戶曹)」 (1839)

런데 「장용영 본영도형」은 대지의 모양을 상당히 정확하게 다각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칸이 붉은색으로 표기한 격자와 일치하지 않는다. 상당히 정확한 측량에 따라 정확히 표현하였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기준이 되는 격자와는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장용영 본영도형」은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측량하고 제작하였지만, 이전 시기의 건축도면과 달리 실제의 축척과 형태를 그려내고자 시도한 건축 도면이다.

「장용영 본영도형」의 세 건축도면은 간가도와 채색도의 표현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1799년과 1801년의 제작 시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지와 건물의 축척은 거의 일치한다. 세 도면은 같은 모본을 두고 제작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세 도면이 순차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이 측량에 의해 1799년의 현황을 그린 것이고,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채색도)」은 이를 바탕으로 건물의 외관과 조경을 그려 넣어 그림으로 표현한 도면이다. 이후 1801년에는 「장용영 본영도형(기미년 간가도)」에 증축이 된 상황을 추가하고 수정하여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제작 과정은 장용영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전근대 시기에 국가적 중요 시설에 대한 건축 도면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되고 관리되어 왔을 것이라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

2) 건축 도면의 축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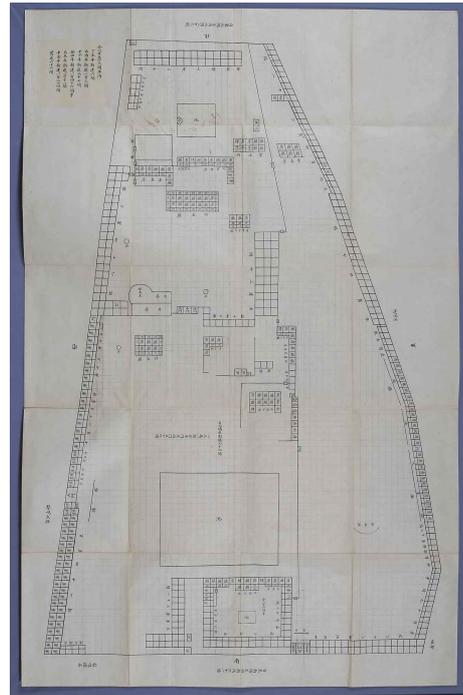
장용영 본영은 장용영이 폐지된 이후, 훈련도감 동영을 거쳐 러일전쟁 시기에는 일본주차군 51연대가 사용하였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친위대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7년 군대해산 이후 대한제국 군부의 부동산을 통감부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통감부는 군부의 부동산을 다양한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했다. 장용영 본영 부지는 이러한 경위로 1909년 『주본(奏本)』 문서에 등장한다. 본래 있었던 51연대 부지 건물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측량을 하고 1/300 축척의 배치도를 작성한 문건이 존재한다.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같은 부지를 표현하였고, 51연대의 부지 건물은 장용영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된다.

1908년부터 1910년 경에 『주본(奏本)』에는 「51연대 부지 평면도」와 같이 국가의 주요 시설에 대한 측량도가 다수 첨부되어 있다. 이 시기는 이미 근대적인 측량술과 도면 작도법이 일반화되어 다수의 측량학교와 민간의 측량회사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면의 정확도는 충분하다 할 수 있고 현재의 지도에서 필지의 위치를 비교해 보아도 거의 차이가 없이 신뢰할 만하다. 「51연대 부지 평면도」를 통해 장용영 부지의 북변 길이가 약 56.55m, 장용영 부지의 남북 길이가 약 240.18m로 확인되었다. 이 길이를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같은 위치의 축척을 계산해 보면, 동서 방향의 축척이 1/136.3, 남북 방향의 축척이 1/138.4 정도가 산출된다.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이 거의 일치하여 상당히 정확한 축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에 표기된 “八尺爲一間”을 근거로 한 척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동서 방향으로 30.73cm, 남북 방향으로 30.33cm로 산출된다. 영조 26년(1750)의 영조척(營造尺)이 31.22cm로 추정되고 개항 이후 일본에서 도입된 곡척이 30.30cm인 것과 비교하면, 1800년 경

영조척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주본(奏本)』의 1909년 문서에 첨부된 「51연대 부지 평면도」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 배치도」

○ 문헌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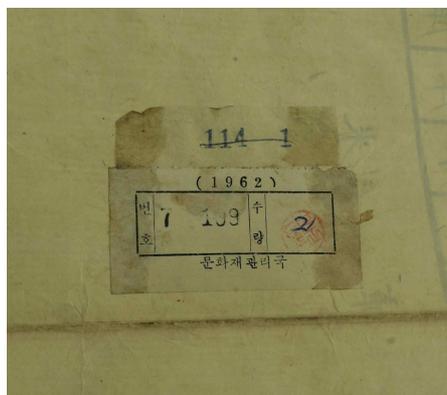
『장용영대절목(壯勇營大節目)』 (1791-1802)

○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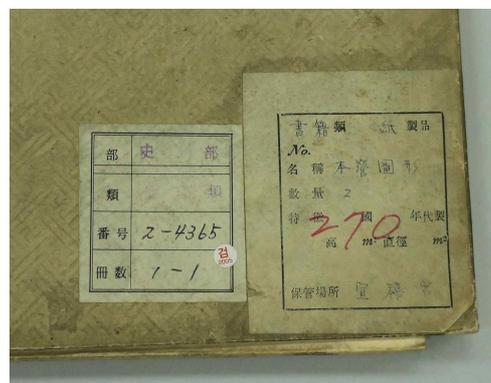
「장용영 본영도형」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2점,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1점이 소장되어 있으나, 조선왕조의 수도 한성을 방어하는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로서 장용영 또는 장용영의 상급기관에서 3점을 함께 작성하고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용영 본영도형」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경위를 시대를 거슬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978년에 설립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을 이어 오고 있으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1981년 문화재관리국 장서각사무소에서 관리해 온 자료 중에서 “지정 자료와 궁궐문화재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이관하여 장서각에 소장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이왕직에서 관리하거나 생산한 자료들로서, 해방 이후 구왕궁사무청과 구황실재산사무총국을 거쳐 문화재관리국으로 전해졌다.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뒷면에 붙어 있는 부표는 1962년 문화재관리국이 설립되면서 이관받은 자료에 일괄로 붙인 관리 표식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이왕직은 대한제국 시기에 조선 왕실 관련 사무를 담당했던 궁내부의 자료를 이어받아 관리하고 있었고, 대한제국 시기에 왕실 관련

자료를 궁내부의 규장각에서 취합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표지에 붙어 있는 부표에는 보관장소가 ‘선희궁(宣禧宮)’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대한제국 시기 궁내부의 재산 및 물품 관리처로서 궁방 중 하나인 선희궁에 「장용영 본영도형」이 소장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표는 물품의 종류, 규격, 소장처 등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또는 이왕직, 대한제국 시기의 궁내부 등에서 이관받은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궁내부의 주요한 재정관리처로 기능하고 있었던 선희궁에서 소장한 「장용영 본영도형」이 1908년 황실재산정리에 따라 궁내부의 제실재산정리국 또는 규장각으로 이관되고, 이후 조선총독부와 이왕직 등으로 다시 이관되는 과정에서 부표가 부착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던 자료가 국립문화재연구소를 거쳐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심궁도형」 등에도 같은 형식으로 남아 있다.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문화재관리국 관리 부표



「장용영 본영도형(신유년 간가도)」의 이왕직(추정) 관리 부표



「세심궁도형」(국립고궁박물관 소장)의 문화재관리국 및 이왕직(추정) 관리 부표

따라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장용영 본영도형」은 중간에 다른 경로로 구입 또는 이관된 자료가 아니라면 대한제국의 궁내부로부터 이어져 온 자료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장용영은 정조의 왕권 강화와 신변 보호를 위해 설치된 친위군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장용영이 폐지된 이후 이 위치는 훈련도감 동영을 거쳐 친위대가 사용하였다. 친위대는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조선보병대와 조선기병대로 구성되어 황실을 근위하는 군사조직으로서, 당시 궁내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경호 시설이었다. 장용영 이후 장용영 터는 조선 왕실과 수도 한성의 방어를 위한 중요 시설로서 왕실에서 관리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장용영 본영도형」은 제작된 이후 왕실에서 시설 관리의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장용영 본영도형에 대해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958년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박물관으로 이관되었다는 것이 가장 앞선 기록이고, 한국전쟁 시기의 도서관 소장목록이 소실되어 정확한 소장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보성전문학교(1905~1946) 도서관에서 입수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이왕직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선 왕실의 기록물이 민간의 보성전문학교로 전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된 「장용영 본영도형」 2점과 함께 이왕직에서 미군정기의 구황실사무국으로 전해졌지만 한국전쟁의 혼란기에 경위를 알 수는 없는 사정으로 민간에 흘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박흥수, 「이조 척도에 관한 연구」, 『대동문화연구』 4, 1967
- 이규철,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근대이행기 왕실 건축도면의 내용과 특징」,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 이왕무, 「『본영도형』을 통한 조선후기 장용영의 모습」, 『장서각』 21, 2009
- 전봉희·이규철·서영희, 『한국 근대 도면의 원점-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근대 측량도와 건축도 1861~1910』,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 정정남, 「장용영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징-『본영도형』의 분석을 중심으로」, 『장서각』 21, 2009.

4.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

가. 심의사항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12.22.)를 실시하였음.
- 위 사안에 대해 2015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6.22.~'15.7.21.)하였으나, 예고기간 중 지정명칭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 2015년 제4차 회의(8.13.)에서 심의하였고 명칭관련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관계전문가 조사 및 의견수렴('20.5.28.)을 거쳐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재부의함.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경주박물관)
- 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일정로 186, 국립경주박물관
- 수 량: 3구
- 규 격: ① 본존 전체높이 163.0cm, 상높이 154.0cm, 어깨 폭 61.5cm, 광배폭 64.0×63.0cm
② 우협시 상높이 105.0cm, 어깨폭 32.0cm, 광배폭 36.5cm
③ 좌협시 상높이 98.0cm, 어깨폭 31.0cm, 광배폭 37.0cm
- 재 질: 화강석
- 제작연대: 644년(선덕여왕 13) 경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7세기 전반 신라의 사회종교적 상황이 불상을 통하여 잘 드러나 있으며, 예술적 완성도가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삼존상은 흔히 신라인의 불교 세계관을 풀어놓은 경주 남산의 造像活動史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경주 남산의 조상활동은 王都에서 가장 근접한 북쪽에서부터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어 나가 그야말로 웅장한 불국토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삼존상은 경주남산의 불상 중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불곡 감실 불상” 등과 더불어 신라 불국토 개막의 첫머리에 놓이는 귀중한 불상이다.

이 석조미륵여래삼존 중 본존은 1925년 경상북도 경주사 산 24-1 석실 안에서 출토되었다. 발견된 곳은 장창곡에서 불곡으로 넘어가는 북쪽 능선에 위치하며,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남산 정밀학술보고서에 장창곡 제10사지로 명명되어 있다. 장창곡이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총독부에 발간한 『경주남산의 불적』(1940년) 등에 등장한다. 장창곡은 남산신성 창고지 부근에서 계곡이 시작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藏田谷이라고도 한다. 장창곡으로 흐르는 개울은 해목령에서 시작하여 서북쪽으로 흘러오는 큰곡의 여울과 남산신성 장창지에서 서쪽으로 흘러오는 개울이 傳 일성왕릉 부근에서 합쳐

저 나정과 장창곡 제3사지(傳 창림사지) 사이의 금광못을 지나 형산강인 기린내로 흘러간다.

지정예고 기간 중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명칭(미륵)과 발견 장소(삼화령)의 명칭에 대한 이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2015년도 동산분과 소위원회를 통해 검토하였으나 출토지를 삼화령 또는 장창곡으로 할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재논의 하였다. 논의 결과 본존불의 존명은 미륵으로, 발견 장소에서 대해서는 확실한 사지명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한 삼화령으로 명명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삼존상이 위치했던 계곡 명을 따르기로 하였다.

삼존상은 마애불이 아닌 환조로 조성된 보기 드문 삼국 시대 삼존상이자 예술적으로 뛰어나다. 본존불은 의좌세로 표현되어 이 당시 유행한 미륵신앙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등 한국조각사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조각품으로 출토지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더라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경주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은 신라 7세기 전반 불교조각을 대표하는 뛰어난 불상으로 한국조각사연구에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로 판단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명칭관련 종합의견

□ 존상명칭 검토

일제강점기 경주 남산 장창곡 정상부근 석실에서 반출되어 경주박물관으로 이안된 것임. 삼존상 중 의좌세를 취한 본존은 미륵여래의 도상적 특징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통설임. 따라서 존명은 미륵여래삼존상이 적합함.

□ 출토지에 대한 검토

이 삼존상은 『三國遺事』 卷第2 紀異 第2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조와 同冊 卷第3 塔像 第4 “生義寺石彌勒”조와 결부시켜 釋生義가 三花嶺上에 봉안한 미륵세

존으로 추정하여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아직 까지 불상이 출토된 곳에 대한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지정명칭으로 부여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지정명칭에 대한 종합의견

경주 남산소재 문화재 지정 명칭 기준에 따라 불상이 소재했던 골짜기(장창곡) 명과 본존의 존상 명칭을 넣어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長倉谷 石造彌勒如來三尊像)”으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주 남산 장창곡과 불상의 원 위치(『慶州 南山 II』,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5, p.103.)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내용 및 특징

- 신라 7세기 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존불이다.
- 주존불의 출토지는 남산 장창곡이며, 두 협시보살은 내남면의 민가에서 박물관으로 옮겨져 삼존불로 재설정되었다.
- 삼국유사의 ‘생의사석미륵’, ‘충담사’조에 근거하여 삼화령미륵불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지는 않다.
- 6세기 말 7세기 초인 北周와 隋 시대에 중국 서북부 장안 지역에서 성행한 조각양식과 관련이 있다.
- 의좌식의 미륵불과 입상의 양 협시보살로 이루어진 삼국시대의 유일한 삼존 불상으로, 삼국시대 성행한 미륵(하생)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문화재 명칭에 삼화령과 장창곡 가운데 무엇을 넣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 조사내용

이 삼존상은 1925년 4월에 원위치로 추정되는 경주 남산 북봉의 石室에서 본존불을 먼저 경주박물관으로 이안하고, 그 후 얼마 안 되어서 인근 탐동의 민가에서 보관하고 있던 협시보살상 2구를 압수하여 박물관으로 이안하였다고 한다. 원래 이 삼존상은 남산의 북봉(北峯)부근 삼국시대말로 추정되는 고분들과 나란히 남북으로 자리 잡은 석실 안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한다. 인근 마을 사람들은 이 석실을 두고 부채등(佛背)이라 불렀다. 일찍이 일본 학자들은 이 삼존상이 놓인 石室이 고분과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 원래부터 고분에 매납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도굴되어 노출된 고분 안에 인근 폐사지에 있던 석불을 이안하여 신앙하였다고 하는 이른바 고분설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의 불상을 고분에 피장자와 함께 매납하는 법식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림 73.삼화령 석조 미륵여래의 발견당시 그림 74.1980년대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의 이안 모습(『황수영 전집』1 한국의 불상에서 전제) 후 모습(『다시 보는 경주와 박물관』(1998)에서 전제)

비록 본존불과 협시상이 따로 수습되었지만, 원래 이 삼존상은 석실의 奧壁에 근접하여 중앙에 본존불을 두고 그 좌우에 상대하여 보살상이 직립한 삼존형식으로 조성된 것이다. 석실의 내부 천장은 장대석으로 짜고, 정면에 해당하는 남쪽에는 문을 두었으며, 석실 내외부에 와편이 잔존해 있었으므로, 애당초 충주 미륵대원 석굴과 같이 삼존불을 봉안하기 위해 구축한 석굴사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삼존상은 일찍이 故황수영 박사님에 의해 『三國遺事』 “생의사석미륵”와 “경덕왕 충담사 표현대덕” 조에 등장하는 삼화령 미륵세존이라는 탁견이 발표된 바 있고, 이후 학계의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선 이 불상의 조성 근거가 되는 『삼국유사』 권제3 탑상 제4 “生義寺石彌勒”條와 같은 책 권제2 紀異 제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 의하면,

선덕왕 때에 중(僧) 생의는 항상 도중사(道中寺)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꿈에 한 중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매어 표를 해놓게 하고는 산 남쪽 골짜기에 와서 말한다.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이것을 파내다가 고개 위에 편하게 묻어주소.” 꿈에서 깨자 그는 친구와 함께 표를 놓은 곳을 찾아 그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니 거기에서 석미륵이 나왔으므로 삼화령(三花嶺)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왕 13년 갑진(甲辰)에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뒤에 절 이름을 생의라고 했다. 지금은 잘못 전해져서 성의사(性義寺)라고 한다. 충담사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달여서 공양한 것이 바로 이 부처다.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生義寺石彌勒

당나라에서 德經 등을 보내니 대왕이 예를 갖추어 이것을 받았다.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에 五嶽과 三山神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대궐 뜰에서 왕을 모셨다. 3월 3일 왕이 歸正門樓 위에 나가서 좌우 신하들에게 일렀다. “누가 길거리에서 威儀 있는 중을 한 사람 데려올 수 있겠느냐?” 이때 마침 威儀 있고 깨끗한 高僧 하나가 길에서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었다. 좌우 신하들이 이

중을 왕에게로 데리고 오니 왕이 “내가 말하는 威儀있는 승려가 아니다”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다시 중 한사람 있는데 衲衣를 입고 櫻筒(혹은 삼태기를 등에 졌다고 했다)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왕이 보고 기뻐하여 樓 위로 영접했다. 통 속을 보니 茶具가 들어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대체 누구요?” “小僧은 忠談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오는 길어요?” “소승은 3월3일과 9월 9일에는 차를 달여서 남산 삼화령의 彌勒世尊께 드리는데, 지금도 드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그 차를 한 잔 나누어 주겠는가” 스님이 이내 차를 달여 드리니 차 맛이 이상하였고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겼다. “내가 일찍이 들으니 스님이 耆婆郎을 찬미한 사뉘가 그 뜻이 무척 고상하다고 하니 그말이 과연 옳은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安民歌를 지어주소.” 忠談은 이내 왕의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王은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王師로 봉하매 忠談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安民歌는 이러하다……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위의 기록에 의하면, 도중사 중 생의가 꿈을 꾸 내용을 바탕으로 석미륵상을 발굴하여 삼화령 위에 봉안하고, 선덕여왕 13년 갑진(644년)에 미륵불을 안치한 곳에 생의사를 세웠다고 하며, 충담사가 重三重九節에 차를 달여서 공양했던 불상이라고 附記하고 있다. 부기한 내용은 같은 책 기이편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서 다시 확인되는데, 忠談이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공양하고 오는 길에 景德王을 安民歌를 지어 올리는 에피소드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生義가 남산 북봉에서 발굴하여 안치한 삼화령 석미륵과 충담이 차를 다려 공양을 올린 석미륵이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기록을 통해, 삼화령 미륵불상은 북봉에서 발굴하여 삼화령 상에 안치한 불상이므로, 고정불변의 마애불상이 아니라 이동이 가능한 圓刻像이 분명하며, 석미륵과 미륵세존이라는 존명에서 돌로만든 여래형 미륵상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발견된 불상 중 嶺上에 안치한 고신라 시대의 돌로 만든 원각상은 이像밖에 없고, 본존상이 중국 북위부터 비롯되어 6세기 후반의 북제·주를 거쳐 미륵도상으로 정착되었던 倚坐勢를 취하고 있어 기록상 등장하는 彌勒의 尊名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석불을 봉안한 삼화령이라는 지명과 관련하여, “三花”는 『三國遺事』 卷5 感通 7 融天師 慧星歌條에서 “第五 居烈郎, 第六 實處郎, 第七 寶同郎” 등을 “三花之徒”라 일컫고 있는데서 三花嶺의 “三花”도 花郎의 무리와 관련있는 명칭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故 황수영박사는 미륵삼존 앞에 형성되어 있는 고분이 삼국 말에 조성된 화랑의 묘로 추정하고, 나아가 이 미륵삼존상은 이들을 추모하고, 죽지랑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다시 화랑으로 化生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성된 석굴로 보았다.

신라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화랑으로 화생하기를 염원하면서 미륵상을 망자의 무덤 앞에 조성한 사례를 죽지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 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생각하여 우대하였다. 이 시기 제작된 미륵상들이 대체로 아직 성장기에 있는 미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이러한 미학적 상징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그런즉, 이 삼화령 미륵삼존상은 어린 아이의 모습처럼 천진하게 표현되었고, 오래전부터 이 삼존상을 “애기부처”라고 사랑스럽게 불려온 까닭도 그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론적으로 이 삼존상이 남산의 북봉의 고분과 더불어 남북으로 나란히 조성된 석실에서 발견된 점, 본존상이 취한 자세가 미륵의 도상적 특징인 의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 어린 화랑을 미륵의 화신이라고 칭하여 미륵상을 마치 어린아이 같이 표현한 점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三國遺事』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三花嶺 彌勒世尊”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본존불상은 타원형의 연화대좌 두 다리를 딛고, 덩치 큰 사람이 웅색한 의좌에 엉거주춤 앉은 모습이다. 전면에서 보면 의자의 형태는 확인되지 않으나, 뒷면에는 의자의 앉는 자리와 다리가 Ⅱ형으로 투박하게 모각되어 있다. 머리와 한 돌로 제작된 둥근 광배에는 연화문을 조식하여 무늬가 없는 험시보살상과 차이를 두었다. 머리는 소발로 처리하였고, 정수리에는 낮고 작은 원반모양의 육계를 표현하였다. 귀불은 길게 어깨까지 늘어졌으며 열쇠구멍 형태의 耳孔을 뚫었으며, 귓볼에도 타원형의 구멍을 모각하였다. 耳孔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국보 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행인형으로 돌출한 눈두덩 사이로 반가한 눈매를 그윽하게 표현하였고, 동그란 얼굴은 통통하게 살이 올라 귀여운 인상을 준다. 불의는 양어깨를 덮은 통견식이며, 신체의 윤곽을 따라 두텁지 않게 걸쳐 입었으며, 주름은 도드라진 가는 융기선 주름으로 처리된, 이른바 紐狀衣紋이다. 이러한 주름은 경주 배리 석조여래삼존입상이나 익산 연동리 석조여래좌상, 군위 석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7세기 전·후반기로 추정되는 고식의 石佛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 불상 역시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슴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경사지게 내의를 입었으며, 군의를 묶은 띠 매듭은 뱃단처럼 마름모꼴 형태이다.



그림 75.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전경



그림 76. 본존불 정면



그림 77. 본존불 배면

이외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점은 倚坐한 오른쪽 무릎의 소용돌이 주름(渦券紋)과 가슴의 “卍”字를 양각한 것이다. 소용돌이 주름은 북위 말의 불상에서 시원적인 모습이 보이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북주·수대이며, 이곳의 주름도 북주나 수대 불상의 그것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가슴의 “卍”字는 중국 동·서위 시대에 번역된 『無量義經』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이 경전에서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형상을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 가슴의 卍字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손은 크고 듬직한데,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손목을 꺾어 손바닥이 보이도록 하고 반주먹을 쥐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별도의 지물을 꽂았을 것으로 보인다.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팔뚝으로 넘겨진 옷깃을 잡고 있다.



그림 78. 우협시보살상



그림 79. 좌협시보살상

좌우 협시보살상은 頭光을 佛身을 한 돌로 만들었고 대좌는 본존불 대좌를 토대로 새로 조성한 것이다. 보름달 같은 둥근 광배는 머리에 보다 약간 크며, 본존불과 달리 문양을 새겨 넣지 않았다. 두 보살상은 3면에 둥근 꽃 장식을 세우고, 이를 굽은 띠로 연결한 보관을 썼다. 머리의 윗부분은 신라식 관모를 쓴 듯 산 모양으로 봉긋하게 솟아 있어 특징이 있다. 행인형으로 돌출한 눈 사이에는 반개한 눈을 길게 새겨 넣었고, 삼각형의 오뚝한 콧날은 파손되었다. 작고 도톰한 입가에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한가득 머금었고, 목에는 둥근 메달이 부착된 두터운 목걸이를 착용하였고, 손목에도 굽은 링 모양의 팔찌를 착용하였다. 불신에는 양어깨를 덮어 내린 천의자락은 2단으로 걸쳤는데, 한 자락은 복부를 가로질러 팔뚝으로 넘겼고, 다른 한 자락은 무릎을 가로질러 팔뚝으로 넘겼다. 작은 체구에 2단으로 걸쳐 무겁게 보이기도 하지만, 신체와 잘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허리춤에는 치마의 단을 ㄴ형으로 주름 잡아 멋을 내었다.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천의와 치마 등에 가는 융기선 주름을 사용하였다.

좌협시 보살상은 통통하고 양증맞은 오른손으로 짧은 줄기의 연꽃을 잡았고 왼손으로는 송편모양의 荷葉을 받쳐 들었다. 우협시 보살상은 왼손으로 엄지와 검지를 리듬을 타듯 맞대었으며 오른손으로 반으로 접은 荷葉을 들고 있다. 자세는 한쪽 다리에 무게중심을 두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굴곡을 강조한 三屈姿勢를 보이는데, 아직 엉덩이와 무릎 등 삼굴 자세의 박자가 미미한 초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협시 보살상은 본존불상의 엄숙함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큰 머리, 좁은 어깨, 짧고 통통한 팔다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로 인하여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삼국시대 미륵여래의 협시 보살상의 도상이나 존명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 이후 대표상보살과 법화림 보살로 정립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삼존상의 본존은 의자에 앉은 의좌상이다. 의좌상은 인도에서 기원하여 초기에는 王 내지 神像으로 조성되다가 미륵과 결합하여 교각미륵보살상에서 의좌미륵보살상, 다시 의좌미륵불로 발전 정착했으며, 중국에서는 北魏대부터 비롯되어 6세기 후반의 北齊·周기를 거쳐 수·당대에 크게 유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삼화령 미륵불상을 비롯하여 포항 고석사 마애불, 보은 법주사 마애불, 그리고 소형의 금동불상 몇 점이 전할 뿐 매우 드문 도상이다. 특히 양식적으로 아기같이 큰 상체에 짧은 하체와 통통한 양감을 담고 있는데, 이는 중국 북주에서 수대에 걸쳐 유행한 양식적 경향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 삼존상은 선덕여왕 13년(644년)에 도중사의 생의스님이 경주 남산 북봉에서 발굴하여 삼화령 상에 봉안한 미륵상이자 경덕왕때 충담사가 重三重九節에 차를 공양했던 저명한 삼화령 미륵세존으로 비정(比定)됨에 따라, 정확한 하한연대를 알 수 있는 고신라 불교조각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신라시대에는 왕실과 귀족의 뛰어난 자제화랑을 미륵의 화신으로 여겨 미륵상을 많이 조성하였는데, 이 불상은 역사적인 기록과 실물자료가 꼭 일치하는 사례로 그 가치를 높여준다. 물론 미륵여래삼존을 통해 新羅화된 미륵신앙의 핵심적 단면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거니와 고신라 불상으로서 유일하게 644년 무렵에 도중사의 生義스님의 현몽에 의해 조성하였다는 조성연기와 조성시기, 조성 이후 충담사에 의해 현다공양 등 이 불상에 담겨 있는 일련의 신앙행위를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불상이 갖는 한국 불교조각사상에서의 비중과 위치는 막중 막대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삼화령(또는 생의사)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추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삼존상은 불의와 천의, 그리고 치마 등에 시문된 유상의문과 협시보살상에서 三屈의 자세 등에서 새로운 조각양식이 반영되고 있고, 북위 이래 미륵불의 도상으로 확립된 의좌상의 이른 시기의 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좌상은 포항 고석사 마애불, 보은 법주사 마애불, 그리고 소형의 금동불상 등 통일신라 이후의 불상에서 몇 점 확인되지만, 이 상이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시원적 양식이고, 규모면에서도 큰 국내 유일의 圓刻 彌勒倚坐像이라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이 미륵여래삼존상은 신라조각사나 신라불교사에서 차지하는 조각사적·불교사적 위치와 비중은 대단히 높고 무거운 불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삼존상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 참고자료

一然, 『三國遺事』 李民樹譯, 乙酉文化社, 1990

黃壽永, 「慶州 南山 長倉谷에서 옮겨진 三尊石像」, 『史學會誌』 7, 연세대학교, 1964(동저, 『黃壽永全集』 1 한국의 불상 상, 혜안, 1998)

黃壽永, 「新羅南山三花嶺彌勒世尊」, 『金載元博士回甲記念論叢』, 乙酉文化社, 1969(동저, 『韓國의 佛像』, 문예출판사, 1989)

黃富慶, 「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三尊佛像의 研究」,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문명대, 「돈황 410굴 수대 미륵삼존불의상(倚像)과 삼화령미륵삼존불의상의 연구」, 『강좌미술사』 42,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4.

○ 관련문헌

『三國遺事』 卷第三 塔像 第四 生義寺石彌勒

善德王時, 釋生義常住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既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德經等. 大王備禮受之.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歸正門樓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所謂榮僧也. 退之. 更有一僧. 被衲衣. 負櫻筒(一作荷簣).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樓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南山三花嶺彌勒世尊. 今茲既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讚耆婆郎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然. 王曰. 然則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不受. 安民歌曰.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 尸知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朕生以支所音物生 此盼喰惡支治良羅 此地盼捨遣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 支知古如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國惡太平恨音叱如……

『三國遺事』 卷第二 紀異 第二 孝昭王代 竹旨郎

…初述宗公爲朔州都督使. 將歸理所. 時三韓兵亂. 以騎兵三千護送之. 行至竹旨嶺. 有

一居士，平理其嶺路。公見之歎美。居士亦善公之威勢赫甚。相感於心。公赴州里。隔一朔。夢見居士入于房中。室家同夢。警怪尤甚。翌日使人問其居士安否。人曰。居士死有日矣。使來還告。其死與夢同日矣。公曰。殆居士誕於吾家爾。更發卒修葬於嶺上北峯。造石彌勒一軀，安於塚前。妻氏自夢之日有娠。既誕，因名竹旨。壯而出仕。與庾信公爲副帥。統三韓。眞德，太宗，文武，神文，四代爲冢宰。安定厥邦。



○ 현 상



도 1. 삼화령미륵여래삼존상의 본존불의상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남산 장창곡(長倉谷)의 한 석실(石室)에서 옮겨와 현재 국립 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석조삼존불상이다. 본존상의 얼굴(도 1)은 원만하고 자비로운 상호(相好)를 보이는데 눈부분이 앞으로 돌출된 형태이며 코끝이 훼손되었고 귀가 매우 길어서 어깨까지 닿을 듯하다. 소발(素髮) 머리위에는 육계(肉髻)가 낮게 새겨져 있으며 둥근 원형의 광배에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다. 몸에는 가사(袈裟)를 걸쳤는데, 그 주름이 양어깨 위에 양각되었다. 넓게 U자형으로 열린 가슴에는 내의가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며 내의를 묶은 2줄의 띠에서 올라오는 매듭이 허리 근처에 새겨졌다. 수인을 보면, 오른손은

무릎 위에 올려 시무외인을 결하고 있는데 손가락 끝부분이 훼손되었고 왼손으로는 가사 자락을 쥐고 있다. 다리를 덮은 가사의 옷주름은 층단의 주름을 이루며 무릎부분에는 나선형을 이루고, 두 발을 디딘 바닥의 일부가 훼손되어 왼쪽 엄지 발가락이 결실된 상태이다. 정면에 비해 뒷면은 조각이 없이 편평하게 치석이 되었으며 방형의 의자가 표현되어 있다.

향좌측의 협시보살입상(도 2)은 본존상과 마찬가지로 광배와 불신(佛身)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의 두광에는 아무런 조식(彫飾) 없는데, 테두리 군데군데에 훼손된 곳이 있다. 머리에는 중앙과 좌, 우에 꽃이 달린 삼화보관(三花寶冠)을 쓰고 코와 입술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얼굴표정은 온화하고 자비롭다. 귀는 길어서 어깨 위까지 늘어서고 목부분이 절단되어 이어붙인 흔적이 보인다. 목에는 넓은 띠모양의 목걸이를 걸었는데, 중앙에 둥근 구슬로 장식되었다. 왼손은 어깨 높이로 올려 지물(持物)을 들고 있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둥글게 말린 경권(經卷)처럼 보인다. 오른손은 배 위에 대어 엄지와 검지를 맞댄 수인을 결하고



도 2. 좌협시보살입상의 상체 부분



도 3. 우협시보살입상의 상체 부분

있는데 손가락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어깨에 쇼올처럼 걸친 천의(天衣)는 바닥까지 닿는데 배와 다리위로 2단을 이루며 늘어졌고 뒷면은 밋밋하다. 윗단을 밖으로 접어입은 치마(裙) 자락이 오메가(Ω) 형태의 옷주름을 이루고 있다.

향우측의 협시보살입상(도 3)은 반대편 보살상과 여러 점에서 유사한데 크기가 약간 작다. 불신과 광배가 일석(一石)인데, 원형의 광배의 상단이 훼손되었고, 머리에는 삼화보관을 썼으며, 귀가 길어 어깨위로 늘어졌다. 얼굴은 뺨이 통통한 아기와 같은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짓고, 코끝부분이 깨진 상태이다. 목에 걸고 있는 메달이 달린 띠 모양의 목걸이는 향좌측 보살상의 목걸이에 비해 짧으며, 어깨에 걸친 천의는 배와 다리위에 두 개의 단을 이루며 늘어졌고, 치마는 윗단을 밖으로 접어 입었다. 오른손으로는 짧은 줄기가 달린 연꽃봉오리를 들고 왼손으로는 대합조개처럼 생긴 둥근 지물(持物)을 받쳐 들었다. 자세는 왼쪽다리를 앞으로 하고 왼발을 아래로 딛었으며 오른발을 살짝 들어 움직임을 나타내었는데,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내민 향좌측 보살상과 반대의 자세이고, 배는 볼록 나와 신체의 양감을 표현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은 아래의 『삼국유사(三國遺事)』의 기사를 기초로 선덕여왕 13년(644)에 창건된 생의사(生義寺)의 석조미륵상으로 생각되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의 승려 생의(生義)는 도중사(道中寺)에 머물렀는데, 어느날 꿈에 한 승려가 그를 데리고 남산(南山)으로 올라가 풀을 묶어 표시하게 하고 산의 남쪽 골짜기로 와서 말하길,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은 나를 파내어 고개 위에 안치하기를 바랍니다.”하므로 그곳에 이르러 땅을 파보니 석미륵(石彌勒)이 있었다고 한다. 생의는 이 상을 삼화령(三花嶺) 위에 모셨다가 선덕왕 13년 갑진(644년)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후에 생의사(生義寺)라고 하였다.[지금은 잘못 전해져 성의사(性義寺)라 한다. 충담사(忠談師)가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서 바치는 부처님이 바로 이 부처님이다)(「善德王時 釋生義 常住道中寺 夢有僧引上南山而行 令結草爲標 至山之南洞 謂曰 我埋此處 請師出安嶺上 既覺 與友人尋所標 至其洞掘地 有石彌勒出 置於三花嶺上 善德王十三年甲辰歲 創寺而居 後名生義寺[今訛言性義寺 忠談師每歲重三重九 烹茶獻供者 是此尊也]」).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본존상은 의자에 앉은 의좌상(倚坐像)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의좌상이다. 이와 같은 의좌상은 중국에서 남북조시대 이래 크게 유행하였는데, 대부분은 ‘미륵불’인 경우가 많다. 또한 삼화령 미륵삼존상의 어린아이의 몸 같은 4등신 정도의 단구형(短軀形) 신체비례를 보이는 불·보살상은 중국에서 제·주(齊周)시대부터 수대(隋代)에 걸쳐 유행하였다(도 4, 5). 이와 같은 단구형의 불상들은 7세기초에 신라에 전래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주 배동(拜洞) 석조삼존불입상이나 경주 인왕동 석불좌상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좌우 협시보살상에서 보이는 이른바 ‘2단 천의형식’과 삼화보관의 형태이다. 2단 천의형식과 삼화보관이 결합된 양식은 경주 선도산 석조삼존불상의 우협시보살입상과 영월출토 금동보살입상 등에서 나타나며, 중국에서는 수대에서 초당(初唐) 조각에서 유행하였으므로 그 영향이 신라조각에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좌우협시보살상에서 조심스럽게 보이는 신체 움직임의 표현 역시 초당(初唐) 양식의 전래를 암시한다. 이와 같은 양식적 특징에서 판단해 볼 때, 삼화령 미륵여래삼존상의 제작시기는 7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삼국유사』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도 4. 석조보살입상, 北周 566년, 東京 書道博物館



도 5. 석조미륵보살삼존의상, 북주 573년, 감숙성박물관

○ 참고논저

『三國遺事』卷3 塔像 第4 「生義寺石彌勒」條; 同書 卷 1 奇異 第2 「忠談師」條.
黃壽永, 「慶州 三花嶺 彌勒世尊」, 『김재원박사 회갑기념논총』, (乙西文化社, 1969); (『한국불상의 연구』, 삼화출판사, 1973 및 『황수영전집』 1권, 혜안, 1998, 에 재수록)

金理那, 「三國時代の 佛像」, 『韓國美術史의 現況』, 예경, 1992.

黃富敬, 「慶州 南山 三花嶺 石造三尊佛像 研究」, 흥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최성은, 「신라 불교조각의 대중관계」, 『新羅美術의 對外交渉』, 예경, 2000.

朱秀浣, 「新羅에 있어서 北齊·周 彫刻樣式의 展開에 관한 一考察」, 『강좌미술사』, 2002.



국립경주박물관



수신 문화재청장(유형문화재과장)
(경유)

제목 지정예고 국가지정문화재(보물)의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

1.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3715호(2015.6.17.) 관련입니다.
2. 우리 관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이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 요청서를 송부하오니 문화재 지정에 앞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 적: 적합한 문화재이름 부여

나. 대 상 품: 우리 관 전시품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삼존상(慶州 南山 三花 嶺 石造彌加來三尊像)>

다. 요청내용: 불임 참조

불임: 문화재이름 재검토 요청서 1부, 끝.

국립경주박물관장



<붙임 1>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품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서 >

내 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지정예고품(보물)의 문화재명칭 재검토 요청

목 적: 적합한 문화재명칭 부여

요 청 품:

-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慶州 南山 三花領 石造彌勒如來三尊像)

요청부분: 한글 명칭 및 한자 명칭

요청내용

부분	변경 검토 요청 내용	내 용
명칭	(원 안) 경주 남산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상 ↓ (수정 요청 안) 1안) 경주 남산 장창골 출토 석조미륵삼존불좌상 2안) 경주 남산 장창골 출토 석조삼존불상	1. "삼화령"이라는 지명은 장창골을 삼화령으로 추정 한 것이므로, 2차적 해석이 되는 명칭임. 따라서 출토지인 장창골(곡)으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 2. "미륵"이라는 존명은 해당 불상의 도상적 특징 (자세)에 기초하여 사용되어 온 것이나, 현재 존명 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 황 고려 필요 3. '제작자: 生義'는 사실과 다르므로 삭제 또는 '발견자: 生義'로 수정 필요

5.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7.9.2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2.27./’20.5.14.~5.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
- 소재지 : ① 불보살상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원당암
② 복장유물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정보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복장유물 8건 23점
- 규 격 : ① 아미타여래 상 높이 72.5cm, 무릎 폭 61.0cm, 전체높이 89.5cm
② 관음보살(좌) 상높이 95.3cm, 전체높이 106.3cm
③ 지장보살(우) 상높이 91.8cm, 전체높이 102.8cm
- 재 질 : 목조, 동, 종이, 견
- 형 식 : 삼존상
- 조성연대 : 조선 15세기

○ 제 작 자 : 초창(미상), 중수화원(法岑, 法宗, 敬天, 清湛, 智日)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마여래삼존상



아미타여래좌상의 후령통

○ 복장유물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1	불상복장기문 	1694년	종이	38.6x177.3	1	*1694년(숙종20) 7월 17일에 處徽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으로 '佛法僧寶'가 새겨진 인장이 일곱 군데 찍혀있다.
2	원문 	1694년	종이	39.9x61.1	1	*용인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이다.
3	후령통 	15세기	동	높이 8.8 입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몸통은 원통형이며, 표면에 방주가 쓰여 있다. 후혈에는 오방천이 두텁게 둘러져 있다.
	양면원경 	15세기	동	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오보병을 안립하고 마지막에 이를 덮은 양면원경이다.
	사리호 	15세기	수정		1	*등근 수정에 흠을 파고 나무로 봉하였다. 황색비단보자기에 쌓여 있음
	은제팔엽연봉 	15세기	동	전체높이 1.0 최대폭 1.4	1	*연봉을 팔엽연꽃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며, 연꽃과 연봉은 따로 제작하였다.
	무공심주 	15세기	수정	지름 1.8	1	*오보병의 중앙에 놓여 있는 구슬모양의 무공심주이다.
	오보병 	15세기	견	높이 11.5 지름 8.6	1	*청-적-백-흑-황색 비단으로 오보병을 마련하고 다시 이를 오방색으로 감싸 오보병을 안립하였다.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3	직물편 	15세기	견	① 백색 무문사 5.3x5.3 ② 홍색 문사(3점) 9 x 3.2, 2.5x21, 11x2.5 ③ 황색 주 42.4x3.4	5	*후령통 바닥에 접혀 있던 직물편으로, 황색 1점, 백색 1점, 홍색 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보협다라니 	15세기	견(絲)	20x2.7	1	*絲로 만든 것이며 후령통과 황초폭자 사이에 접혀 발견되었다. 금니로 소보협다라니를 적었다.
	황초폭자 	15세기	견	25x25	1	*후령통을 감싼 황초폭자로, 표면 네 면과 후령통이 놓이는 밑면에는 오방색으로 오륜중자를 적었다.
4	사리호 	15세기	수정동	전체높이 2.5, 지름3.4	1	별도로 직은단보에 싸여 있던 사리호로, 6엽의 연꽃대좌와 둥근 수정제 몸통, 국화꽃 모양으로 타출한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織銀緞褙 	15세기	견	5.5x5.2	1	*사리호를 싸던 보자기
	靑綠色紋綾褙 	조선	견	12.1x13.5	1	네 모퉁이에 분홍색 비단실로 장식하였다.
	靑色紬褙 	조선	견	17.4x14.5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청색주로 만든 보자기이다. 보자기 안에는 청록색문능보자기-직은보자기-6엽사리호의 순서로 납입되어 있었다.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5	靑綠色花紋綾褌 	15세기	견	28x28.2	1	*겹보자기이며 모란과 국화가 시문되어 있다.
6	운보문단주머니 雲褌紋緞囊 	1	견	15.5x21.8	1	*청록색문능보자기에 싸여있던 주머니로 겹은 5매 3비 縹子織 또는 朱子織으로 그름과 寶紋을 표현한 운보문단이다. 주머니의 안감은 黃色紬로 했는데, 입구에 1.8cm 너비로 주황색주를 덧대고 그 안에 주머니 끈을 끼워 넣었다.
7	朱黃色雲龍紋織金주머니 	15세기	견	6.6x13.3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주머니의 겹은 구름과 용무늬를 편금사로 나타낸 운룡문직금주머니이다. 주머니의 입구에는 약1.5cm 너비의 초록색 소화문직금능을 덧대었다. 직금으로 짠 최고급 주머니이다.
8	北靑色無紋주머니 	15세기	견	8.5x12.2	1	*운룡문직금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겹은 3매 능직으로 직조한 무문능으로 하고 안감은 황색주를 사용하여 만든 주머니이다. 주머니 끈은 주황색 三線으로 역 125cm의 끈을 반으로 접어서 2줄로 끼워 넣었다.
계	8건 23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1.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일부 보수된 흔적이 남아 있으나 대좌까지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조선시대 15세기 후반 작이라는 점에서 희소성이 있음.
2.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정확한 조성 연대를 특정할 수 없고 1694년에 어느 부분이 중수되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도상 구성 방식, 신체 비례, 세부적인 특징들이 15세기 후반의 불상과 보살상의 조형과 많이 닮아서 조성 연대 설정에 참고가 됨

3.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의 조형적인 특징은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왕실발원 불좌상들과 유사하여 왕실의 후원을 받아 학조대사가 해인사와 원당암(봉서사)을 중창하면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은제 후령통이 1490년에 봉안된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은제 후령통과 닮아서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 줌
4.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조선시대 전기에 조성된 불삼존상으로는 드문 예로서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 조형적·도상적으로도 시대성을 반영하는 대표작임.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서 지정되어 보호될 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됨
5. 다만 복장유물 중 경전류 자체만으로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불삼존상과 대좌들, 조성발원문, 후령통 등과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지정 가치 있음)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고려 전통양식을 바탕으로 명대 티베트양식이 혼합된 15세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삼존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고, 원래의 봉안처인 해인사 원당암에 그대로 소재하고 있으며, 작품의 예술성도 뛰어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해인사 원당암 삼존상은 설법인의 아미타불, 化佛寶冠을 쓴 관음보살, 민머리의 지장보살로 정확한 아미타삼존도상을 구현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아미타삼존과 달리 고려 후기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아미타삼존 도상으로 조선 후기까지 지속된다. 다만, 고려 후기의 아미타삼존은 기록이나 불화를 통해 확인될 뿐 조각으로 남은 예는 거의 없다. 조선 전기도 탑내 봉안되는 소형 금동불상 외 규모를 갖춰 주불전에 봉안된 사례는 강진 무위사 극락전 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금산 신안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상일 정도로 그 수가 적다.

삼존상의 양복련이 맞붙은 연화대좌는 명대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어서 당시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엿 볼 수 있는 요소이며, 너풀거리며 드리워진 목깃 주름과 왼쪽 팔꿈치의 ‘오’모양의 주름, 불상의 무릎 위에서 힘차게 솟구친 주름, 관음보살의 감각적인 천의와 조백의 표현, 북스럽게 살이 오른 양감과 크고 몽툰한 콧날, 암전히 다문 입술 사이로 고요함이 넘쳐나는 상호표현, 과장되지 않은 양감과 부피감 등 뛰어난 조형미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 1466년),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82호, 1458년) 등 15세기 중·후반

왕실 발원 불상들과 예술적 맥락이 닿아 있다.

관음보살의 보관은 고려시대 못지않은 조선 전기 금속 공예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앞쪽 판은 꽃모양으로 디자인한 두 개의 금속판을 겹쳐 제작하였고, 뒤쪽 판은 여의두형으로 멋을 내어 앞판과 연결하였다. 표면은 타출기법과 투각기법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연꽃과 넝쿨무늬를 아름답게 연출하였다. 여기에 더해 化佛, 鳳凰, 火焰 등을 덧붙여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보관을 만들었다. 이러한 보관은 고려 중·후기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보관처럼 앞선 시대의 전통과 기법을 계승한 것으로, 조선 초기 보관으로서는 드문 예이다.

이 아미타여래삼존상은 불상에서 드러나는 양식과 함께 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복장형식을 통해 볼 때, 이 삼존상은 1490년 전후한 시기 왕실의 지원으로 진행된 해인사의 중창불사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1488년부터 1490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해인사에 대한 중창불사가 일단락되고, 원당암(1495년 중창) 등으로 중창 불사가 확대되어 나간 것으로 이해된다. 아미타여래삼존상은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을 중수했던 왕실관련 주체들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역사적 자료이다.

삼존상은 고려 후기부터 본격화된 아미타여래와 관음, 지장보살로 구성된 아미타삼존 도상을 보여주며, 조선 초(15세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어 조선 초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또한 삼존상은 제작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원래의 봉안 장소를 벗어나지 않고, 제작 당시의 모습 그대로 신앙, 보존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된다. 따라서 발견된 복장유물을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에 봉안된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아미타불좌상을 중심으로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이 좌우에서 협시하고 있음
- 목조아미타불좌상의 크기가 고르지 못한 나발들과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손,

목조관음보살입상의 보관 장식 일부분(봉황 장식 등) 등은 다시 후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1983년, 개금을 위하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을 개봉하였고, 2017년, 다시 개금 불사할 때 지금의 복장유물을 조사, 확인함
-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는 조선시대 1694년에 작성된 [불상복장기문(佛像腹藏記文)], [원문(願文)], 복장유물, 1983년의 [개금불사원문]이 발견되었음. 목조관음보살입상과 목조지장보살입상에도 X-ray 촬영을 통하여 복장유물(후령통과 경전류)이 있는 것이 확인됨
- [불상복장기문]에 의하면, 1694년에 해인사의 승려 승열(崇悅), 종안(宗眼) 등이 모연하여 불상과 보살상 중수를 주도하였는데, 증사(證師, 증명證明)로 탁근(卓根), 지전(持殿)으로 일원(一元)이 역할을 맡았으며, 법잠(法岑), 법종(法宗), 경천(敬天), 청담(淸湛), 지일(智日) 등의 조각승이 중수 작업을 한 것을 알 수 있음
- [불상복장기문]에 절 이름을 “願堂(원당)”으로 기록하고 있어서 17세기 후반에 이곳을 지금과 같이 원당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음
- [원문]은 [불상복장기문]에 동일 인물로 보이는 융인(融印)이라는 승려 이름이 확인되어 1694년에 함께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미타삼존의 가피로 서방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확인됨. 다만 여기서는 실제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과 달리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으로 기록되어 있음.
-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유물로는 은제 후령통, 은제 팔엽연봉오리, 은제 양면원경, 수정사리기, 무공심주, 다수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성불수구다라니경(隨求成就陀羅尼經)』(고려 1375년, 수진본(袖珍本)) 등이 있음.
- 『대방광불화엄경』(고려시대 간행본)은 진본(晉本) 23권(황색 표지에 묵서 경명(經名)의 경전 11권, 감색 표지에 금니 경명의 경전 12권)과 정원본(貞元本) 5권(황색 표지 묵서 경명 3권, 감색 표지 금니 경명 2권)이 있음

○ 내용 및 특징

1. 목조아미타불좌상

- 목조아미타불좌상은 통견 방식(혹은 변형 편단우견)으로 법의를 입고 설법인을 결한 채 연좌대좌 위에서 가부좌하고 있음
- 즉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손바닥을 앞을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을 배 앞에서 살짝 들어올려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댄
- 연좌대좌는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형식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임
- 불상은 턱이 둥근 장방형의 얼굴에 큼직큼직한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으며, 육계

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머리 형태에 반원형의 커다란 중앙(중간) 계주, 크기가 다른 나발들로 구성되어 있음

- 불상은 왼쪽 어깨 부근의 법의 자락이 삼각형으로 뒤집어지고(경상북도 영주 흑석사 黑石寺 목조아미타불좌상(1458년)과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불좌상(1466년)) 양쪽 무릎 위에서 살짝 들려 있는 법의 주름(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상, 15세기 후반) 등 세부적인 특징 외에 조형적인 면에서 조선시대 15세기 후반에 왕실에서 발원된 불상들과 많이 닮았음

2. 목조관음보살입상

- 목조관음보살입상은 따로 제작한 화려한 보관을 착용하고 천의와 치마를 입은 채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같은 형식의 연화대좌 위에 서 있는 천의형 보살상임. 보관을 장식하고 있는 장엄의 일부와 관대는 후보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보살상은 오른손을 어깨까지 들어올려 엄지와 중지를 맞대었으며, 왼손은 왼다리의 무릎까지 내려서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음
- 보살상의 얼굴은 본존과 많이 닮아 같은 조각승의 솜씨로 추정됨
- 보살상은 지장보살상과 같은 형식의 귀걸이와 팔찌, 가슴 치레 장식을 하고 있으며, 몸을 덮고 있는 영락 장식은 천의에 가려진 채 흘러내려 끝부분이 살짝 드러남
-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같이 왼쪽 어깨 부근의 천의 자락이 삼각형으로 뒤집어져 있음
- 보살상은 몇 겹의 천의로 감겨 있으며, 배 앞에서 크게 U자를 두 번 그리며 흘러내리고 있음
- 보살상의 천의와 군의는 몸의 굴곡과 자세에 따라 유기적이며 입체적으로 표현됨
- 군의는 목조지장보살상과 같이 매우 짧아 발목이 드러나 있으며, 발가락도 유난히 긴 것이 특징임. 보살상은 지장보살상과 같이 상체가 하체에 비해 긴 15세기 후반의 보살상의 신체 비례를 보여 줌

3. 목조지장보살입상

- 목조지장보살입상은 민머리에 통건 방식으로 법의를 입고 연화대좌 위에 서 있음
- 오른손을 내려뜨려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을 배 앞에 두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함. 왼손 손바닥에는 원래 보주가 올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지장보살상은 귀걸이와 가슴의 영락(치레) 장식 등을 하고 있는데, 대의에 의해 가려진 채 흘러내려 끝부분이 밖으로 나옴
- 관음보살상과 같이 상체가 하체에 비해 다소 긴 듯한 조형으로, 조선시대 15세기 후반의 보살상의 특징을 보여 줌
- 관음보살상과 같이 군의 자락이 짧아 발목이 드러나 있음
- 보살상의 얼굴은 아미타불상과 관음보살상과는 달리 개성이 뚜렷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 지장보살상의 조형에서 벗어난 조선시대 특징을 보여주는 것임

4. 전체적인 특징

-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은 고려시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지장보살(대세지보살이 아닌)의 도상 구성을 계승하고 있는 예임. 이러한 도상 구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조선시대 15세기 후반과 그 후에 몇 번에 걸쳐 보수된 적이 있는 전라남도 강진 무위사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을 들 수 있음
-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의 불좌상과 보살입상의 형식은 조선시대 전기까지 많이 보임.
- 아미타불좌상의 위엄있는 얼굴 표정(관음보살상도 동일)과 안정된 자세에서 고려말의 조형을 15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계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아미타불상과 관음보살상의 왼쪽 어깨 부근에 표현된 삼각형의 법의 자락과 아미타불상의 양 무릎 위에 살짝 접혀 올라간 법의 주름 등은 15세기 후반 불상에서 많이 보이는 특징임
- 상체가 하체에 비해 긴 듯한 보살상의 신체 비례는 15세기부터 17세기 초까지 보이는 특징임
- 목조아미타불삼존상을 중수한 조각승 중 법잡은 1701년에 흥천사興天寺 목조관음보살삼존상(원소장처 전라북도 임실군 사자산 적조암)을 조성하기도 함
- 불상 조성 당시에 납입한 것으로 보이는 은제 후령통은 그 형식이 다른 사찰의 불상에서는 보이지 않고 1490년 학조(學祖)대사가 왕실 후원을 받아 해인사 법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에 납입했던 은제후령통과 매우 유사하여 목조아미타불삼존상도 조선시대 15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을 높여 줌
- 학조대사는 1458년에 해인사 대장경을 인출하였고, 1485년부터 이듬해까지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을 받아 해인사를 중창하였으며, 1489년부터 1490년까지 법보전의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개금 중수도 주도하였음. 또한 봉서사(원당암)에서 『목우자수심결(牧牛子修心訣)』(1499년), 『선종유심결(禪宗唯心訣)』(1500년), 『고봉화상선요(高峰和尚禪要)』(1501년) 등을 간행하는 등 원당암의 불사에도 깊이 관여함. 이 때 원당암 보광전 목조아미타불삼존상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 『성불수구다라니경』의 변상도에 보이는 삼신불상三身佛像과 마리지천摩利支天道상은 고려말 삼신불 구성과 마리지천 신앙을 알려 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됨
- X-ray 사진에서 확인되는 목조관음보살입상과 목조지장보살입상의 복장 유물 중에서 족자형 사경의 사경축 금속 장식은 지금까지 일본 긴잔지(金山寺) 소장의 고려 사경인 『불설대길상다라니경(佛說大吉祥陀羅尼經)』(1324년 추정)에서만 확인되고 있음

[사진]



1.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2. 목조아미타불삼존상



3. 목조아미타불좌상



4. 목조관음보살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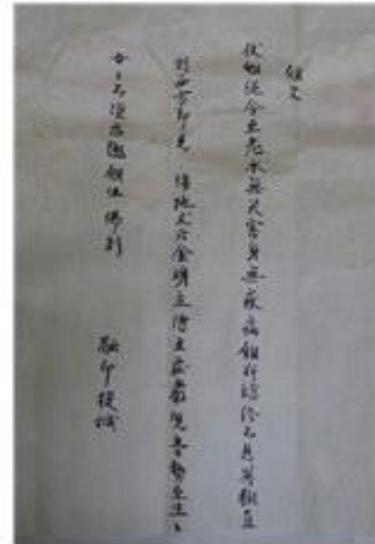
5. 목조지장보살입상



6. 복창유물 일괄



7. 불상복장기문



8. 원문



9. 성불수구다라니경

□

○ 현 상

- 좌상의 아미타여래상과 입상의 관음보살, 지장보살로 구성된 삼존불상이다.
- 세 존상은 모두 조선 초기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 불상 양식을 갖고 있다.
- 아미타여래상의 복장으로부터 중수발원문(불상복장기문, 1694년), 원문(1694년 추정), 개금발원문(1983년), 후령통(15-6세기), 「성불수구대다라니」(1375년), 그리고 절첩본 화엄경(28권, 고려 말 또는 조선 초 간행 추정)이 발견되었다.

○ 내용 및 특징

- 원당암 삼존상은 아미타여래를 주존으로 하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상이다.
- 아미타여래상은 하반신 쪽에 비하여 상반신이 길며, 얼굴과 손발에는 비교적 양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 옷은 두꺼워 내부의 불신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결가부좌한 오른발의 발가락이 노출되어 있으며, 머리에 정상계주가 없고 중앙계주만 표현되어 있다. 옷은 승기지와 함께 변형편단우견식의 대의를 착용하였는데, 승기지 상단에는 옷을 묶은 끈의 매듭이 나타나 있으며. 왼쪽 어깨 아래에는 끝이 동그랗게 말린 요모양 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 관음보살과 지장보살은 신체에 비해 두부가 커서 단신형의 체형을 보이며, 얼굴, 가슴, 손 등에 양감이 드러나 있다. 주존처럼 옷은 모두 두꺼워 신체가 옷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지장보살은 균의, 승기지, 부견의, 그리고 변형편단우견식의 대의를 착용하고 있어 부견의를 제외하면 주존상과 동일한 복제를 보이고 있으나, 관음보살은 균의와 천의, 그리고 낙액(조백)을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두 상과 구별된다. 지장보살이 착용한 승기지는 상단이 평행을 이루고 별도의 끈으로 묶고 매듭을 지은 모습이 주존상과 동일하다. 관음상과 지장상 모두 胸飾과 腰飾 등 영락과 완전을 착용하고 있다.
- 대세지보살 대신 지장보살이 협시한 아미타삼존상은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삼존상(1280년 개금),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금동아미타삼존불좌상(1429년) 등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성행하였다.
- 또한 원당암 삼존상과 같이 주존이 좌상이고 좌우 협시상이 입상인 삼존상은 개심사상(13세기)이나 평양역사박물관상(15세기) 등처럼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에 성행하였으나, 안동 서악사 목조아미타삼존상(1567년)이나 여주 신륵사 소조아미타삼존불좌상(1610년)처럼 17세기 초반까지도 제작되었던 방식이다.
- 삼존상에는 고려 후기 이래의 전통적인 요소들과 함께 조선 초기에 새로이 명으로부터 유입된 티베트적인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다.
- 주존상의 노출된 발가락, 왼쪽 어깨 아래의 옷주름, 승기지 상단의 매듭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15세기 불상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다.
- 아미타여래 두부에 정상계주가 없이 중앙계주만 있는 점, 오른손을 올리고 왼손은 내려 설법인같은 수인을 취한 점, 두 보살 모두 하반신을 비롯한 전신에 영락장식이 표현된 점 등은 전통적인 요소이며, 삼존상에 공통하는 仰蓮과 伏蓮이 연접된 연화대좌형 대좌는 티베트적인 요소이다.
- 전반적으로 고려 후기의 전통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 있으며, 부분적으로 티베트적인 요소가 혼입된 조선 초기 15세기 후반 또는 16세기 초반의 불상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①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重修發願文」⁴⁾ 白紙墨書, 1694년 7월 17일, 38.3×177.0cm

佛像腹藏記文

按古記願堂迺新羅三十九哀莊大王踐祚三年即唐貞元十八年親幸于此勅海印也奉爲烈祖文聖大王追冥福之所戢建也殿有三聖像虎踞盤龍上以無量壽爲主千葉寶蓮中以觀勢爲左右盖悠一時之所共造而惜其無年號之欠哉吁自貞元以來幾見風雲之變態金泥剝落未免龜坼⁵⁾之痕遠而微之近以非矣寺僧崇悅宗眼獻金以重修璨然神像儼然踞座遠之嚴 〃 近之慈 〃 此豈非福國祐世之像耶古人所謂今人之功政在於前人之前矣然則悅眼之功嵬乎大哉結緣芳銜開列于后乃爲頌祝

以此勝功 佛光遍照 三千大千 天上人間 邦基地久 聖壽天長 先亡父母
皆往西方 親見彌陀 同蒙記光 七趣三途 俱惺歇狂 亦願現今 化緣結緣 生獲五福 當證法王 此岸彼岸 互爲主伴
康熙三十三年甲戌七月十七日翫月沙彌處徽謹誌

證師卓根

持殿一元

僧統尙軒	施主秩			
前僧統胤一	戒允比丘		供養人	
冲惠	崔厚京	曹太吉	道玄	就眼
信佳	信祐比丘	嚴弼伊	文悟	三綱 衍一
天機	金彥生	趙武生	雪湜	就信
思一	吳大海	普益比丘	別瘞	
大禪師惠能	金斗義	李行間	特靈	
曇華	孫金伊	金談沙里		
尙能	朴一祥	柳一龍		
處徽	金伍尙	金從萬		
執綱融印	畫員秩	孫忞立		
前執綱曇絢	法岑			
善寬	法宗			
老德元海	敬天			
釋惠	清湛			
雪清	智日			
楚巖	坩宗			
允海	衛賢			

4) 순천 송광사 古鏡 석문.

5) 원문은 坼. 坼의 오기 추정.

戒允 怡察
 性岑
 祖坦
 震惠
 杜瓊
 竺玄
 能箕
 思悅
 信謙
 懷⁶⁾演
 澤善
 真一
 得性
 聖勒
 處益
 得心
 智还
 戒暎
 聖學
 法薰
 熙遠
 冲衍
 機眼
 衛澄
 敏湖
 衛閑

化主 崇悅
 宗眼

②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願文」⁷⁾ 白紙墨書, 1694년 7월 17일, 40.0×60.0cm
 願文

伏願從今至老永無災害身無疾病願我臨終不見異類直
 到西方卽見 彌陀丈六金軀立侍立莊嚴觀音勢至生
 世 〃 不墮惡趣願生佛刹 融印投誠

③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坐像 改金發願文」⁸⁾ 白紙墨書, 1983년 10월 24일,
 23.3×62.8cm

改金發願文
 海印叢林

6) 원문은 卍+衣.

7) 순천 송광사 古鏡 석문.

8) 순천 송광사 古鏡 석문.

方丈 退翁 性徹
 十四庵子
 山中大衆 五百名
 願堂庵大衆名單
 證明 慧菴 性觀
 比丘 哲雨
 々 能度
 沙彌 大悟
 々 宗徹
 々 宗悟
 院主 正默
 金魚 全漲祐
 々 鄭万五
 々 田都成
 負木 田永棟
 供司 鄭大願華
 禪院大衆
 々 金大願性
 々 李普陀行
 々 盧金剛心
 々 李大慈行
 施主秩
 許용 李중만 박영달
 丁水月華 임정각 구태희
 曹無碍性 申智郁 김태영
 許普賢性 박영곤
 金仕龍 (陰)
 仏紀二五二七年十月二十四日 願堂庵



○ 조사내용

해인사 원당암은 해인사 산내암자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암자로, 원래 順應大師가 鳳棲寺라고 이름하고 주석한데서 비롯한다. 경내에는 통일신라 후기의 다층 석탑과 석등이 남아 있다.

해인사 원당암의 주불전인 보광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는 삼존불상이다. 구성은 좌상의 아미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측에 입상의 관음과 대세지보살로 삼존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삼존상은 2017년 불상의 개금을 위해 본존 아미타불상 1구에

한해 복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견된 복장유물은 중수발원문과 불상의 제작시기 판단에 중요한 후령통과 경전류들이 발견되었고, 아쉽게도 제작시기를 알려주는 조성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발견된 후령통은 해인사 범보전과 대적광전 비로자나불상에서 발견된 후령통의 형식과 복장물목이 거의 같은 모습이어서 이 삼존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도움을 준다. 참고로 해인사의 두 구의 비로자나불상의 후령통은 1490년 학조대사의 주도와 왕실의 지원으로 불상을重修하면서 조성 납입한 것이다. 1894년 원당암의 중창시 樑間에서 발견된 옛 상량기(弘治八季 乙卯 五月 日 重創. 化主 海印寺重創 燈谷和尚 前斷俗寺住持 信文禪師)에도 1495년 燈谷(법명 學祖)和尚(1432-1514)과 信文禪師에 의해 사찰이 중창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무렵 아미타여래삼존상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 1.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조선시대(15세기)

복장에서 발견된 중수와 관련된 발원문은 세 종류이다. 두 종류는 1694년에 불상을 중수하면서 기록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1983년에 불상을 개금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1694년에 기록된 것은 <불상복장기문>과 <원문>이다. <불상복장기문>에는 신라 애장왕 3년 해인사 창건 때 文聖大王(839-857)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원당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아미타불과 관음 대세지보살이 쇠락하여 승려 宗悅과 宗眼이 모연하여 불상을 중수하였다는 내용과 法岑, 法宗, 敬天, 淸湛, 智日 등 중수화원의 명단을 수록하였다. 중수화원으로 참여한 법잠은 1701년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상을 조성한 조각승이며, 법종은 지리산 감로사 수도성전암 목조보살좌상과 전주 삼경사 목조보살상을 제작하였다. <원문>은 “임종시 서방정

토에서 아미타불의 장육금신과 관음, 세지 양 보살을 친견하고 불국토에 머무르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며, 발원 주체는 融仁이다. 용인은 1694년의 불상복장기문에도 등장하여 이 원문이 1694년에 함께 납입된 원문임을 알 수 있다. 1983년 개금중수에는 해인총림 方丈 性徹, 證明 慧庵, 哲雨스님 등과 金魚 全漲祐, 鄭萬五, 田都成이 참여하였다.

삼존상은 모두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다. 본존의 대좌는 본존이 앉아 있는 자리를 본뜬 삼각형이며, 좌우협시는 둥근 대좌이다. 이와 같은 대좌의 형식은 원·명대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대좌의 전형이다. 나발은 굽고 크며 중앙계주도 크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1514년 改造된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보물 제1637년)의 머리모양과 비교된다. 나발의 단은 발제선에서 중앙계주까지 3단이며, 정상계주는 표현되지 않았다. 양 미간의 중앙에는 백호를 박았으며, 얼굴은 가름하며 부푼 눈두덩 사이로 드러낸 눈매는 고요히 선정에 잠긴 모습이며, 오뚝하고 뭉툭한 콧날이 특징이며, 암전히 다문 입술에는 法悅의 미소를 담았다. 이륜은 둥글게 표현하였고 귓불은 둔중하게 표현되었다. 귀孔은 8자 모양으로 깊게 봤는데, 흑석사 아미타불여래좌상이나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조선 전기 불상의 귀 표현과 유사하다. 착의형식은 오른쪽 어깨를 슬쩍 걸친 변형 편단우견이며, 옷 주름은 힘과 탄력이 넘치고 억양이 깊어 입체적이다. 특히 왼쪽 팔꿈치에 형성된 ‘Ω’주름이고, 너풀거리며 접힌 못 깃 주름과 어깨 측면 파상으로 흘러내린 두 가닥의 주름, 무릎 위쪽에서 솟구치듯 날을 세운 옷 주름, 무릎 좌우로 속도감 있게 펼쳐진 주름 등은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58년, 국보 제282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1466년, 국보 제221호),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66~1474년, 보물 제1615년), 천주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482년, 국립대구박물관) 등과 시대 양식을 공유한다.

본존불의 가슴은 근육이 발달하지 않았으나, 조선 후기 불상과 달리 상당히 부피감이 강조된 양감을 바탕으로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몸매를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여말 선초 원·명대 라마불교 영향으로 등장하는 허리가 잘록하고 젓가슴이 발달한 불상계보의 영향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도 2. 우협시 지장보살



도 3. 본존 아미타여래



도 4. 좌협시 관음보살

좌협시 관음보살은 화불이 표현된 보관을 썼다. 귀에는 꽃모양의 귀고리를, 팔에는 2줄의 띠형 팔찌를, 목에는 세 줄로 늘어진 영락을 착용하였다. 허벅지에도 늘어진 영락장식이 부착되었다. 보관은 두 개의 꽃모양의 판을 겹쳐 만들었다. 보관의 아래 면은 연화넝쿨무늬를 타출하였고, 윗면은 S자형으로 펼쳐진 역동적인 당초문을 세밀하게 투각하였다. 보관의 大輪에는 별도로 만든 입체적인 연꽃과 화염문을 부착하였고, 표면에도 마주보는 봉황과 화염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보관의 정면에 안치된 화불은 불꽃이 표현된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두 손은 소매에 넣어 합장 또는拱手印처럼 표현하였다. 소홀하기 쉬운 작은 곳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빈틈없이 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 3. 관음보살의 보관



도 4. 관음보살의 발

보살의 머리는 뿔이 낮은 삼릉형의 보개를 만들었으며,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뿔아 어깨 위에서 3개의 고리를 만든 뒤 다시 세 가닥으로 드리웠다. 이곳에서 확인

되는 보계는 고려 후기 보살상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지만, 크기도 작아졌고 형태도 단순해졌다. 이마는 좁은 편이며 양미간에는 작은 수정제 백호를 박았다. 얼굴은 살이 도톰하게 올랐고,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복스러운 콧날이 특징이다. 佛身에는 매우 세련된 天衣와 條帛, 裙衣를 걸쳤다. 양 어깨를 덮고 속도감 있게 흘러내린 天衣는 오른쪽 허리춤에서 교차하여 양 팔뚝을 걸쳐 좌우로 길게 뻗어 내렸다. 비스듬히 걸친 條帛은 가슴 중앙에서 T자형으로 교차하여 마무리하였다. 군의는 허리춤에서 멋스럽게 뒤집었고, 이를 다시 긴 끈으로 나비 매듭지어 묶고 그 자락을 길게 드리웠다. 발목 부근까지 흘러내린 옷자락은 너풀너풀 율동적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손짓은 엄지와 중지를 리듬 타듯 당듯 말듯 감각적으로 처리하였다. 자세는 한쪽 무릎의 힘을 슬쩍 뺀 三曲의 자세인데,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 발가락의 미세한 율동감마저도 놓치지 않았다.

관음보살상은 하체가 다소 짧은 단구적인 신체 비례와 섬세하고 감각적인 천의, 화려한 보관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양식과 표현감각은 전반적으로 의숙공주가 발원한 1466년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의 조각 전통을 따르고 있고, 15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아대 석당박물관 건칠대세지보살상과 남원 실상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등과도 비교할 수 있다.

우협시 지장보살의 머리는 민머리이며, 왼손은 가슴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왼손은 허리춤에 내려 엄지와 중지를 닿을 듯 말 듯 표현하였다. 귀에는 화형의 귀고리를, 목에는 관음보살의 것과 같은 세 줄로 늘어진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가사는 두 장의 대의를 입은 이중착의형식이다. 가슴에는 군의를 가는 띠로 매듭지어 묶었다. 옷 주름은 관음보살의 율동적인 것에 비해 차분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었다. 단구적인 비례, 이중으로 걸친 착의형식과 간결한 옷 주름 등은 서산 개심사 목조지장보살입상 등 15세기 작품들과 친연성이 확인된다.

원당암 아미타여래삼존상은 제작당시의 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상과 후령통의 양식을 통해 1490년을 전후한 시기 해인사에 진행된 대대적인 중창불사 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과 영주 흑석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왕실에서 발원하여 조성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원당암 불상도 왕실불사와 관련 있는 조각가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복장유물(목록참조)

아미타불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제작당시의 복장 후령통, 주머니를 찢던 보자

기 등의 직물류, 그리고 1694년의 <불상복장기문>, <원문>, 1983년 <개금불사질>, 그리고 많은 불경류이다.

후령통은 동에 수은아말감기법으로 도금하였으며, 후혈에는 오방색천으로 두텁게 감았다. 후령통의 몸통에는 四方呪를 적었다. 후령통의 내부에는 오방색천을 감싸 오색사로 묶어 오보병을 안립하고, 그 위에 사리호, 무공심주, 팔엽연화 등을 두고 양면원경을 덮어 마감한 형식이다. 후혈에는 오방색천을 감았다. 후령통의 저면에는 소보협인다라니를 두고 마지막으로 오륜종자를 적은 황초폭자로 싸고 근봉지대를 돌려 마감하였다.

크기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후령통의 형태, 제작기법, 물목, 안립 형식 등은 1490년 중수 때 납입된 해인사 법보전과 대적광전 두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것과 거의 같다. 아마도 1490년을 전후한 시기 조선 왕실의 대대적인 지원과 발원으로 해인사의 중창이 마무리되고, 이어 1495년 진행된 원당암 중창(1495년) 때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3겹의 보자기로 싸여있던 또 다른 사리호 1점이 더 발견되었고, 靑綠色花紋綾褌, 雲寶紋緞囊, 朱黃色雲龍紋織金綾褌, 北青色無紋稜囊 함께 발견되었다. 한편 오방색천을 감아 원통형처럼 만들어 복장에 납입한 경우는 수국사 아미타여래좌상에서도 확인된다. 수국사 아미타불상은 고려 후기 제작 이래 홍치22년(1389년)과 가정41년(1562년)에 각각 중수되는데, 해인사 불상과 가까운 1392년 중수 때 납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해인사 대적광전·법보전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보고서』, 법보종찰 해인사·문화재청, 2008
손영문, 「해인사 법보전 및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의 연구」, 『미술사학연구』 270, 2011.
정은우,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연구」, 『원당』, 해인사정보박물관, 2017.
『願堂-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해인사정보박물관, 2017.

<복장유물 목록>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1	불상복장기문 	1694년	종이	38.6x177.3	1	*1694년(숙종20) 7월 17일에 處徽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으로 '佛法僧寶'가 새겨진 인장이 일곱 군데 찍혀있다.
2	원문 	1694년	종이	39.9x61.1	1	*용인스님이 찬한 백지묵서 중수발원문이다.
3	후령통 	15세기	동	높이 8.8 입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몸통은 원통형이며, 표면에 방주가 쓰여 있다. 후혈에는 오방천이 두텁게 둘러져 있다.
	양면원경 	15세기	동	지름 3.3	1	*수은아말감도금 *오보병을 안립하고 마지막에 이를 덮은 양면원경이다.
	사리호 	15세기	수정		1	*둥근 수정에 흠을 파고 나무로 봉하였다. 황색비단보자기에 쌓여 있음
	은제팔엽연봉 	15세기	동	전체높이 1.0 최대폭 1.4	1	*연봉을 팔엽연꽃이 감싸고 있는 형태이며, 연꽃과 연봉은 따로 제작하였다.
	무공심주 	15세기	수정	지름 1.8	1	*오보병의 중앙에 놓여 있는 구슬모양의 무공심주이다.
	오보병 	15세기	견	높이 11.5 지름 8.6	1	*청-적-백-흑-황색 비단으로 오보병을 마련하고 다시 이를 오방색으로 감싸 오보병을 안립하였다.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3	직물편 	15세기	견	① 백 색 무 문 사 5.3x5.3 ② 홍 색 문 사 (3 점) 9 x 3 . 2 , 2.5x21, 11x2.5 ③ 황 색 주 42.4x3.4	5	*후령통 바닥에 접혀 있던 직물편 으로, 황색 1점, 백색 1점, 홍색 3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보협다라니 	15세기	견 (絲)	20x2.7	1	*絲로 만든 것이며 후령통과 황초 폭자 사이에 접혀 발견되었다. 금니 로 소보협다라니를 적었다.
	황 초 폭 자 	15세기	견	25x25	1	*후령통을 감싼 황초폭자로, 표면 네 면과 후령통이 놓이는 밑면에는 오방색으로 오륜종자를 적었다.
4	사리호 	15세기	수정 동	전체높이 2.5, 지 름3.4	1	별도로 직은단보에 싸여 있던 사리 호로, 6엽의 연꽃대좌와 둥근 수정 제 몸통, 국화꽃 모양으로 타출한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織銀緞褙 	15세기	견	5.5x5.2	1	*사리호를 싣던 보자기
	靑綠色紋綾褙 	조선	견	12.1x13.5	1	네 모퉁이에 분홍색 비단실로 장식 하였다.
	靑色紬褙 	조선	견	17.4x14.5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청 색주로 만든 보자기이다. 보자기 안 에는 청록색문능보자기-직은보자기 -6엽사리호의 순서로 납입되어 있 었다.

연번	명칭	연대	재질	크기(cm)	수량	비고
5	靑綠色花紋綾褌 	15세기	견	28x28.2	1	*겹보자기이며 모란과 국화가 시문되어 있다.
6	운보문단주머니 雲襖紋緞囊 	1	견	15.5x21.8	1	*청록색문능보자기에 싸여있던 주머니로 겹은 5매 3비 縐子織 또는 朱子織으로 그림과 寶紋을 표현한 운보문단이다. 주머니의 안감은 黃色紬로 했는데, 입구에 1.8cm 너비로 주황색주를 덧대고 그 안에 주머니 끈을 끼워 넣었다.
7	朱黃色雲龍紋織金주머니 	15세기	견	6.6x13.3	1	*운보문단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주머니의 겹은 구름과 용무늬를 편금사로 나타낸 운용문직금주머니이다. 주머니의 입구에는 약1.5cm 너비의 초록색 소화문직금능을 덧대었다. 직금으로 짠 최고급 주머니이다.
8	北靑色無紋주머니 	15세기	견	8.5x12.2	1	*운룡문직금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주머니이다. 겹은 3매 능직으로 직조한 무문능으로 하고 안감은 황색주를 사용하여 만든 주머니이다. 주머니 끈은 주황색 三線으로 역 125cm의 끈을 반으로 접어서 2줄로 끼워 넣었다.
계	8건 23점					

<참고> 해인사 원당암 목조관음·지장보살입상 X-ray 사진



6.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
大方廣佛華嚴經 晉本)

가. 심의사항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7.9.2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2.27./’20.5.14.~5.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복장전적 중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별도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 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대방광불화엄경 진본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大方廣佛華嚴經 晉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해인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성보박물관
- 수 량 : 23첩 *목록 참조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절첩(折帖)
- 조성연대 : 고려 13세기 중엽 판각, 조선 14세기 말~15세기 초 인출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대방광불화엄경 진본 목록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격(cm)	비고
0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69.2	표지 : 진한 감색 표제 : 금니(晉)
0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43.1	
0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970.0	
0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996.2	
05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970.0	
06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108.6	표지 : 연한 감색 표제 : 금니(晉)
07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91.2	
08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62.6	
09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110.9	
10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9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1,060.4	
1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1,014.2	표지 : 황색 표제 : 묵서(晉) 권26 : 표제 찢자 누락
1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964.0	
1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1,084.4	
1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1,062.6	
15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1,036.4	
16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7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1,108.6	
17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0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8×939.8	
18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1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7×962.0	
19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84.0	
20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5×1,152.0	
21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2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86.0	
22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5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5×1,205.0	
23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8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1,104.4	
소계	23권 23첩					



그림 137.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대방광불화엄경 진본

라. 조사자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지정 가치 -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국보 제206호 합천 해인사 고려목관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삼아 후대 3종류(진한·연한 검색표지와 황색표지)로 인출·장정한 후쇄본으로, 제24장의 1장이 누락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개별 권의 장차가 모두 인출되어 있다. 전체적인 보존 현상도 상당히 양호하다. 다만 인출정보가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진본 23권 23첩은 표제의 표기방식과 장정형태 등에서 14~15세기 경에 인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진한 검색 표지는 본문 글자의 마모도 등에서 연한 검색 표지와 황색 표지보다 이른 시기에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의 진본 23권 23첩은 14~15세기 당대 해인사의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그리고 국보 제206호 고려목판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보존장소·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의 진본 23권 23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근거 기준 -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23권 23첩과 동일한 불교기록유산은 현재까지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8(보물 제1192호) 등 전체 2건 정도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965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에도 2건 정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23권 23첩은 인출 당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의 보존 장소·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인출불사 당시 해인사의 불교 사상적 경향이나 출판인쇄역량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은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과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 및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수진본)으로, 2017년 8월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의 개금불사를 준비할 때 본존불의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이다. 이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은 표지의 색이 진한 감색과 연한 감색 및 황색 계통으로 3종류로 표지와 표제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인다.

현재 해인사 정보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권의 경우는 표지의 훼손과 본문의 습기 흔적 및 특정 장차의 누락(『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3의 제24장) 현상 등이 보이거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서지사항>

01.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069.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4cm/ 1절면 31.1×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五 二卜/ 晉五 三/ 晉五 五卜/ 晉五 十九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각 수 : 혜도(惠刀 : 제1장 등)/ 혜(惠 : 제10·13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5장 21행의 彼자 마모도에서 진본 권5는 진한 감색 표지가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되었으며, 황색 표지와 연한 감색 표지는 이후 인출.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02.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6(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1043.1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6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六 二/ 晉六 四卜/ 晉第六 十七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각 수 : 천(天 : 제21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16장의 상하단변 마모도에서 진한 감색이 황색 표지보다 선명한 상태이며,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03.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1(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970.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

高) 22.8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二十一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각 수 : 定(定 : 제14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04.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2(진한 검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996.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1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二十二 二卜/ 晉二十二 十六/ 晉二十二 音二(제21장)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각 수 : 이(耳 : 제16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21장(음의 2)의 글자 𠄎자 마모도에서 황색 표지보다 선명한 상태이며,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05.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7(진한 검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970.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7cm/ 1절면 31.1×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二十七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七

각 수 : 명단(明端 : 제3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06.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3(연한 검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108.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5cm/ 1절면 31.1×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三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
 각 수 : 천(天 : 제2장 등)/ 혜도(惠刀 : 제4장 등)/ 돈일(敦一 : 제9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
 특이사항 : 원판의 제24장(음의)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
 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07.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4(연한 검색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091.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
 (欄高) 22.7cm/ 1절면 31.1×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四 二/晉四 八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각 수 : 돈일(敦一 : 제1장 등)/ 혜(惠)·돈일(敦一 : 제10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4·9장 등의 경우에는 본 인출본이 현존 원판보다 마모 정도에서 양호한 상
 태이며, 제4장의 인출상태는 황색 표지보다도 상대적으로 선명하면서 두 인
 출의 선후 관계가 불분명한 상태. 그리고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
 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08.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연한 검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1062.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
 (欄高) 22.2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五 二卜/ 晉五 三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각 수 : 혜(惠 : 제10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09.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7(연한 검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110.9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1×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七 二十三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각 수 : 정(定 : 제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1장의 하란 마모 정도에서 연한 감색 표지가 황색 표지보다 양호한 상태이며,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10.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9(연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1060.4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1×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九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九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九 四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九

각 수 : 천(天 : 제4장 등)/ 천규(天佳 : 제8장)/ 천규(天圭 : 제1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앞표지 일부 마모되어 있으며,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제13장의 장차는 판수제의 제일 하단에 위치하며, 제8장의 각수 천가(天佳)는 천규를 이자체로 표기한 사례

11.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1(연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1014.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6cm/ 1절면 31.0×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一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각 수 : 정(定 : 제5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12.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6(연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964.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3cm/ 1절면 31.0×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六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각 수 : 문(文 : 제14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

13.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4(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7×1084.4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0cm/ 1절면 31.7×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四 二/晉四 八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각 수 : 돈일(敦一 : 제1장 등)/ 혜(惠)·돈일(敦一 : 제10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제4·9·13·20장 등의 경우에는 본 인출본이 현존 원판보다 마모 정도에서 양호한 상태이며,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14.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7×1062.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6cm/ 1절면 31.7×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五 二卜/ 晉五 三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

각 수 : 혜(惠 : 제10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15.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6(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8×1036.4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5cm/ 1절면 31.8×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2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六 二/ 晉六 四卜/ 晉第六 十七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각 수 : 천(天 : 제21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16.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7(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8×1108.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2cm/ 1절면 31.8×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七 二十三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七

각 수 : 정(定 : 제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17.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0(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8×939.8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1cm/ 1절면 31.8×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 二卜/ 晉二十 音義二(제20장)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

각 수 : 돈일(敦一 : 제2장 등)/ 이(耳 : 제19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18.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1(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7×962.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7×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一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一

각 수 : 정(定 : 제5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의 經자가 황색 표지의 經자와 차이를 보이며,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19.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2(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984.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5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1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二 二卜/ 晉二十二 十六/ 晉二十二 音二(제21장)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二

각 수 : 이(耳 : 제16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20.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5(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5×1152.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7cm/ 1절면 31.5×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4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판 수 제 : 晉二十五 二/ 晉二十五 六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五

각 수 : 이(耳 : 제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21.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26(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986.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0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二十六 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六

각 수 : 문(文 : 제14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되어 있으며, 진(晉)자가 누락된 상태

22.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5(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5×1205.0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2cm/ 1절면 31.5×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5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五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五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五十五 二/ 晉五十五 五卜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五

각 수 : 문(文 : 제2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23.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진본) 권58(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1104.4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3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23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八 晉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八

한역정보 : 東晉天竺三藏佛馱跋陀羅 譯

관 수 제 : 晉五十八 十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十八

각 수 : 了(了 : 제20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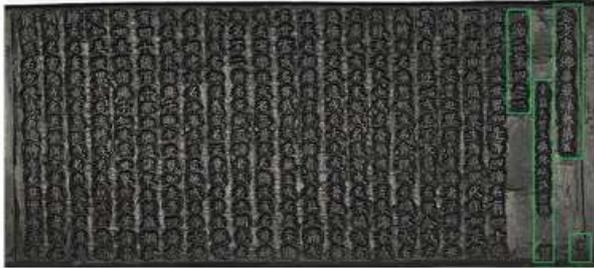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은 각각 다른 3종류의 표지로 장정되어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 가운데 진한 감색 표지는 권5·6·21·22·27 등 5첩으로, 표제가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표시된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대방광불화엄경권제오(大方廣佛華嚴經卷第五)’라 필사되어 있으며, 금사란 아래 ‘진(晉)’자가 금니로 표기되어 있다. 연한 감색의 표지는 권3·4·5·7·9·21·26 등 7첩으로, 표제가 진한 감색과 동일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으면서 개법장진언부호의 형태와 함께 표제의 서체 및 표제 가운데 ‘제(第)’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황색 표지는 권4·5·6·7·20·21·22·25·26·55·58 등 11첩으로, 표제가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대방광불화엄경권제사(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 : 권21의 경우는 표제 經자를 經자로 묵서) 진(晉 : 권26의 경우만 째자 누락)’이라 묵서되어 있으므로, 진한·연한 감색 표지와 각각 표제의 서체와 글자 형태 및 개법장진언부호의 형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23권 23첩은 진한 감색 표지와 연한 감색 표지 및 황색 표지가 각각의 특정 시기에 인출·장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조사대상 23권 23첩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은 현재 국보 제206호로 지정되어 있는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을 찍어 만든 인출본이다. 해인사 고려목판(국보 제206호)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의 해당 경판은 상하단변(해인사 고려목판은 사주단변)의 형태, 본문의 행자수와 글자 형태·위치, 권수제·권미제·판수제의 형식과 글자 형태 및 위치, 각수의 이름·위치, 그리고 개별권의 구성체계 등이 조사대상의 23권 23첩 인출본과 서로 일치한다. 더구나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제1장의 인출본 3종류(진한·연한 감색 및 황색 표지) 경우

는 국보 제206호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에 새겨진 권수제·한역정보·품제·각수(惠刀)의 형식과 위치도 동일하므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찍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국보 제206호)



진한 검색 표지(01)



연한 검색 표지(08)



황색 표지(1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제1장의 현존 원판과 원당암 인출본 사례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은 13세기 중엽 경에 조성되었다.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은 판식과 글자 형태 등이 1244~1245(고종 32)년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에 조성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 60권과 거의 동일(함차·간행정보의 표기 여부에서만 차이)하며, 특히 해당 경판을 직접 판각한 각수(惠·惠刀·定·耳·敦一·天主·天佳·明端·了 등)도 13세기 중엽의 활동 인물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4, 제1·10장 등에 찍혀있으면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의 해당 경판을 직접 판각한 각수 돈일(敦一)은 1238년(고종 25) 고려국대장도감에서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권6(芥합) 제37~40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해인사 고려목판의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9, 제12장 및 권27, 제3장 등을 각각 직접 만든 각수 천규(天主·天佳) 및 명단(明端)도 1238년 고려국대장도감에서 『방광반야바라밀경(放光般若波羅蜜經 : 국보 제32호 해인사대장경판)』 권20(重합), 제14·15장 및 『마하반야바라밀경(摩訶般若波羅蜜經)』 권11(薑합) 제29~40장 등을 판각하는 등,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은 13세기 중엽 활동한 각수들이 판각한 경판이다.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23권 23첩은 인출발문이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해당 경판이 13세기 중엽 경에 판각·조성되었으며, 해당 인출본의 일부에서 상하단변·글자의 마모 현상과 함께 경판의 균열 현상 등이 보이므로,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23권 23첩은 13세기 중엽 이후 특정한 시기에 찍은 후쇄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인출본에서는 표제 부분에 15세기까지 확인되는 개법장진언부호가 확인되므로, 인출시기를 15세기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23권 23첩은 장정형태와 표제형식 등이 14~15세기 인출본에서 상당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23권 23첩은 14~15세기 인출·장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대 해인사의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그리고 국보 제206호 고려목판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보존장소·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방광불화엄경』 진본의 3종류 인출본 가운데 진한 감색 표지가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장정되었다.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제5장의 제21행 16자에 양각된 피(彼)자의 사례에서는 진한 감색 표지의 경우가 마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해인사 고려목판(국보 제206호)에 포함된 해당 원판과 연한 감색표지 및 황색 표지의 경우에서 획의 일부가 훼손·탈락 현상을 보이므로, 진한 감색 표지의 인출본이 가장 이른 시기에 인출·장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연한 감색 표지와 황색 표지의 경우는 인출의 선후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 문헌자료

해인사정보박물관,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願堂』, 2017.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지정사례

보물 제1192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38(1994년 01월 지정 절첩본)

보물 제1017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5, 주본 권38, 정원본 권2·38(1989년 08월 지정 : 주본 권38은 국보 제206호와 차이)

보물 제959—2—6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0(1988년 11월 지정 절첩본 보물 제965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에 포함)

보물 제959—2—7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53(1988년 11월 지정 절첩본 보물 제965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전적에 포함 : 진한 감색 표지)



導師降衆魔 勇健莫能勝 愛語離衆怖 無上慈悲法
 內得甚深智 能害諸煩惱 一念見一切 彼自在示現
 能擊正法鼓 聲震十方國 今得無上道 自覺法如是
 不壞無量境 能遊無數刹 不取一切有 彼自在如佛

導師降衆魔 勇健莫能勝 愛語離衆怖 無上慈悲法
 內得甚深智 能害諸煩惱 一念見一切 彼自在示現
 能擊正法鼓 聲震十方國 今得無上道 自覺法如是
 不壞無量境 能遊無數刹 不取一切有 彼自在如佛

導師降衆魔 勇健莫能勝 愛語離衆怖 無上慈悲法
 內得甚深智 能害諸煩惱 一念見一切 彼自在示現
 能擊正法鼓 聲震十方國 今得無上道 自覺法如是
 不壞無量境 能遊無數刹 不取一切有 彼自在如佛

고려목판(국보 제206호) 진한 감색 표지(01) 연한 감색 표지(08) 황색 표지(14)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 제5장 제21행의 현존 원판과 원당암 인출본 글자
 मामोदो 사례

7.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
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가. 심의사항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대방광불화엄경 정
원본’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7.9.2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2.27./’20.5.14.~5.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복장전적 중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별도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 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해인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성보박물관
- 수 량 : 5첩 *목록 참조
- 규 격 : 목록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절첩(折帖)
- 조성연대 : 고려 13세기 중엽 판각, 조선 14세기 말~15세기 초 인출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목록

순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판각시기 (인출시기)	규격(cm)	비고
1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850.6	표지 : 진한 감색 표제 : 금니(貞) 권6의 표제 짚은 貞의 오자
2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0×899.2	
3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12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939.9	표지 : 황색 표제 : 묵서(貞)
4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6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1×890.1	
5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8	목판본	1첩	13세기 중엽 (14~15세기)	31.6×865.9	
소계	5권 5첩					



그림 141.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라. 조사자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지정 가치 -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은 13세기 중엽 조성된 국보 제206호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삼아 후대 2종류(진한 검색표지와 황색표지)로 인출·장정한 후쇄본이며, 전체적으로는 개별 권의 장차가 모두 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체적인 보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 다만 인출정보가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대방광불화엄경』의 정원본 5권 5첩은 표제의 표기방식과 장정형태 등에서 14~15세기 경에 인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진한 검색 표지는 본문 글자의 마모도 등에서 황색표지보다 이른 시기에 인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의 정원본 5권 5첩은 14~15세기 당대 해인사의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그리고 국보 제206호 고려목판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보존장소·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의 정원본 5권 5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근거 기준 -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5권 5첩과 동일한 불교기록유산은 현재까지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20(보물 제1083호) 등 전체 4건 정도가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5권 5첩은 인출 당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의 보존 장소·상태를 진단할 수 있으며, 인출불사 당시 해인사의 불교사상적 경향이나 출판인쇄술의 실체·역량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록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동일 인출본과 역사·문화적인 보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은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과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 및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수진본)으로, 2017년 8월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의 개금불사를 준비할 때 본존불의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이다. 이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은 표지의 색이 진한 감색과 황색 계통의 2종류로 표지와 표제 등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며, 13세기 중엽 조성된 국보 제206호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삼아 후대 인출·장정한 후쇄본이다.

현재 해인사 정보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 권의 경우는 표지의 훼손과 본문의 습기 흔적 등이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서지사항>

1.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원본) 권6(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850.6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8cm/ 1절면 31.0×12.1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8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晉(眞의 오자)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판 수 제 : 貞元六 六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六

각 수 : 희(希 : 제6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되어 있으며, 표제의 진(晉)자는 정(眞)자의 오자로 정원본. 제18장의 판수제

는 생략된 상태

2.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 원본) 권32(진한 감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0×899.2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1cm/ 1절면 31.0×12.2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9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二 貞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二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관 수 제 : 貞元三十二 二/ 貞三十二 四/ 貞元三十二 音義一(제19장)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二

각 수 : 了(了 : 제4장 등)/ 溫(제8장 등)/ 희(希 : 11장)/ 인(仁 : 제17장)/ 원(元 : 제18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사주쌍변 형태의 금사란 가운데 개법장진언부호 아래에 금니로 필사되어 있으며, 표제의 방(方)자 일부는 훼손·마모된 상태

3.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 원본) 권12(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939.9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9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9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 貞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관 수 제 : 貞十二 十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二

각 수 : 인(仁 : 제10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4.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 원본) 권36(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1×890.1cm/ 무게(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2.2cm/ 1절면 31.1×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9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貞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관 수 제 : 貞元三十六 八/ 貞三十六 十/ 貞元三十六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六

각 수 : 기(己 : 제8장 등)/ 보(甫 : 제19장)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특이사항 : 각수 기(己)자는 사(巳)자로 표기되어 있으며, 제19장은 장차 십구(十九)가 누락된 상태.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5.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 정원본) 권38(황색 표지)

목판본(木板本 : 13세기 중엽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전체 31.6×865.9cm/ 무계(無界)/ 전곽 24행17자/ 주소자쌍행/ 난고(欄高) 23.2cm/ 1절면 31.6×12.0cm/ 1장 4절/ 1절 6행17자/ 전체 18장 연결

표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八 貞

권 수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八

한역정보 : 麗賓國三藏般若奉 詔譯

판 수 제 : 貞元三十八 三/ 貞三十八 四/ 貞三十八十二

권 미 제 : 大方廣佛華嚴經卷第三十八

각 수 : 인(仁 : 제2장 등)

구성체계 : 권수제—한역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음의

묵 서 : 天(뒷 표지의 아래 부분에 묵서)

특이사항 : 제1장의 상·하란 상태가 원판보다 양호한 상태이며, 제12장의 판수제는 권차와 장차를 연이어 판각.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의 아래 부분에 묵서

○ 내용 및 특징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첩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에 포함된 5권 5첩의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은 각각 다른 2종류의 표지로 장정되어 있다.



진한 감색표지(권6의 짧은 貞의 오자)

황색표지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의 앞표지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 가운데 진한 감색 표지는 권6·32 등 2첩으로, 표제의 글자형태·개법장진언부호 및 표기방식 등이 동일 복장전적에서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의 감색 표지 경우와 동일하며, 다만 금사란 아래 ‘진(晉)’자를 대신하여 ‘정(貞 : 권6의 표제 짚은 貞의 오자)’자로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권12·36·38 등 3권 3첩의 황색 표지 정원본도 표제의 글자형태·개법장진언부호 및 표기방식 등에서 황색 표지의 『대방광불화엄경(진본)』과 동일하며, 다만 ‘진(晉)’자 부분에 ‘정(貞)’자가 표기되어 있다. 때문에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5권 5첩의 진한 감색 표지와 황색 표지는 각각의 다른 특정 시기에 인출·장정되었으나, 동일 복장전적에서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진본)』의 진한 감색 표지 및 황색 표지와 각각 같은 시기에 인출·장정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5권 5첩의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은 현재 국보 제206호로 지정되어 있는 합천 해인사 고려목판 가운데 포함된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삼아 찍어 만든 인출본이다. 해인사 고려목판(국보 제206호)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의 해당 경판은 상하단변(해인사 고려목판은 사주단변)의 형태, 본문의 행자수와 글자 형태·위치, 권수제·권미제·판수제의 형식과 글자 형태 및 위치, 각수의 이름·위치, 개별 권의 구성체계 등이 조사대상의 인출본과 서로 일치한다. 더구나 조사대상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2, 제18장의 권미제 가운데 권차 삼십이(三十二)의 십(十)자가 마모된 상태(丨모양)와 제19장의 판수제 형태(音義一로 표기)·위치, 그리고 해당 권차·장차의 각수(希·了·濫·仁·元·己·甫) 등은 국보 제206호로 지정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에 새겨진 사례와 동일하므로, 해인사 고려목판의 해당 경판을 원천텍스트로 찍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2, 제18~19장 앞면(제18·19장의 판수제와 권미제 : 제19장은 장차를 音義一로 표기)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6, 제17~18장 뒷면(제17장 판수제와 제18장의 판수제 누락과 제18장 각수 希)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은 진본과 마찬가지로 13세기 중엽 경에 조성되었다.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은 판식과 글자 형태 등이 1244~1245(고종 32)년 고려국대장도감(高麗國大藏都監)에 조성된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40권과 거의 동일(함차·간행정보

의 표기 여부에서만 차이)하며, 특히 해당 경판을 직접 판각한 각수(希·了·濫·仁·元·己·甫)도 13세기 중엽의 활동 인물이다. 조사대상의 인출본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권32, 제4장 등에 찍혀있으면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의 해당 경판을 직접 판각한 각수 了(了)는 『대방광불화엄경(진본)』 권58 제20장 등을 판각한 각수와 동일 인물이므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은 진본과 마찬가지로 13세기 중엽 활동한 각수들이 판각한 경판이라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5권 5첩은 인출발문이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국보 제206호 해인사 고려목판에 포함된 해당 경판이 13세기 중엽 경에 판각·조성되었으며, 해당 인출본의 일부에서 상하단변·글자의 마모 현상과 함께 경판의 균열 현상 등이 보이므로,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5권 5첩은 13세기 중엽 이후 특정한 시기에 찍은 후쇄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인출본에서는 표제 부분에 15세기까지 확인되는 개법장진언부호가 확인되므로, 인출시기를 15세기 이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5권 5첩은 장정형태와 표제형식 등이 14~15세기 인출본에서 상당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5권 5첩은 동일 복장전적으로 발견된 진본과 마찬가지로 14~15세기 인출·장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대 해인사의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 그리고 국보 제206호 고려목판에 포함된 개별 경판의 보존장소·상태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도 진본과 마찬가지로 2종류 인출본 가운데 진한 감색 표지가 황색 표지보다 이른 시기에 인출·장정되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해인사정보박물관,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願堂』, 2017.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지정사례

보물 제1083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0(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91년 07월 지정 절첩본) 진한 감색과 유사

보물 제1146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24(1992년 12월 지정 절첩본)

보물 제1154호 대방광불화엄경 정원본 권31(1993년 4월 지정 절첩본)

보물 제1017호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15, 주본 권38, 정원본 권2·38(1989년 08월
지정 : 주본 권38은 국보 제206호와 차이)

8.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제다라니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諸陀羅尼)

가. 검토사항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제다라니’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7.9.27.)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8.2.27./’20.5.14.~5.1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복장전적 중 ‘제다라니’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별도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 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제다라니
(陝川 海印寺 願堂庵 木造阿彌陀如來三尊像 腹藏典籍-諸陀羅尼)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해인사정보박물관)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정보박물관
- 수 량 : 1권 1첩
- 규 격 : 7.1×466.4cm(1절면 7.1×4.8cm/ 欄高 6.5cm)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절첩(折帖)
- 조성연대 : 1375년(고려 우왕 원년) 판각, 조선 14세기 말~15세기 초 인출



그림 144.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제다라니(부분)



그림 145.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제다라니 변상도

라. 조사자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지정 가치 -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포함된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수진본)은 1375년(우왕 원년) 조성된 목판을 후대 찍은 불교기록유산이다. 전체적으로는 개별 권의 장차가 모두 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체적인 보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다. 다만 인출정보가 없으므로, 인출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서 『제다라니』 1권 1첩도 변상도와 글자의 마모 상태에서 1375년 이후 15세기 경 인출된 후쇄본일 개연성이 높다. 때문에 『제다라니』 1권 1첩은 15세기 당대 해인사의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문화의 실체와 역량을 진단하는 동시에, 우왕 당시 고려사회의 불교 사상적 경향 등을 추적하고, 해당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은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본으로서의 희소적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포함된 『제다라니』 1권 1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다라니 변상도는 1375년이라는 제작시기와 田成尺이라는 刻手, 불회상의 도상명칭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 이 시기 변상도 연구 및 고려불화 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특히 통상의 삼신불 형식과 달리 비로자나·석가·아미타로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삼신불로 구성되어 있어 이 시기 삼신불 인식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를 제공하고, 도상명칭이 분명한 마리지천변상도는 고려시대 마리지천 도상 연구에 귀중한 근거자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毘盧遮那三身佛會 장면이 마리지천을 추가함으로써 서로 상징성이 유사한 비로자나불과 마리지천과의 신앙적 연결 내지 결합을 시도하여 향후 연구할 가치가 크다. 제다라니경이 갖는 서지학적 중요성과 더불어 변상도 또한 고려 불교미술사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제다라니경은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근거 기준 -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 가운데 포함된 『제다라니』 1권 1첩과 동일한 불교기록유산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아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 『제다라니』 1권 1첩은 해당 원판을 복원하는 원천자료로서의 가치와 함께 현재까지 처음 발견된 희소적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 기록유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조사대상본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동일 인출본과 역사·문화적인 보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복장전적)

○ 현 상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29권 29첩은 『대방광불화엄경(진본)』 23권 23첩과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권 5첩 및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수진본)으로, 2017년 8월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의 개금불사를 준비할 때 본존불의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이다. 이 가운데 『제다라니(諸陀羅尼)』 1권 1첩은 수진본으로, 2017년 8월 원당암 목조아미타삼존불의 개금불사를 준비할 때 본존불의 목조아미타불좌상에서 발견된 복장전적이다.

현재 해인사 성보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으며, 일부의 경우는 본문의 습기 흔적 및 훼손 현상 등이 보이거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이다.

<서지사항>

목판본(木板本 : 1375년(우왕 원년) 판각, 후쇄본)

상하단변(上下單邊 : 변상도 四周雙邊)/ 전체 7.1×466.4cm/ 무계(無界)/ 전곽 63행12자/ 주 소자쌍행/ 난고(欄高) 6.5cm/ 1절면 7.1×4.8cm/ 1장 7절/ 1절 9행12자/ 전체 14장 연결/ 표지(황색 비단)/ 포갑(연녹색 비단)

권 수 제 : 成佛隨求大陀羅尼

판 수 제 : 第二丈(제2~10장)/ 十一丈(제11~14장)

권 미 제 : 없는 상태

각 수 : 田成尺刀(변상도 : 사주단변 형태 안에 양각)

간행정보

[원문]

甲寅(1374년)伊始于今乃成功德之[處]

所當[印]行過神咒[影]佛種猶萌

況持而信玄應[愈]明

太后難[老]

主上遐齡祥[疑]四[埜]慶洽

朝廷[秉]彝之暇咸悟無生廣資

恩有令出火院

洪武乙卯(1375년 : 우왕 원년)冬施主券[郎]將朴 免述

刊字 金允貴 李 仁烈

梵漢字書并校平[陽]朴 免

始全願

大匡券判內府事金 師幸

中隨喜雲霞蕩子釋 竟曰

終助緣

奉翊大夫開城尹朴 成亮

匡靖大夫判崇敬府事朴 元鏡(제14장)

구성 체계 : 변상도(佛會相 : 弥陀·毘盧·帝釋·釋迦·摩利支天) — 수□□송주(隨□□[誦]咒) — 박면지(朴免誌 : 甲寅秋朴免誌) — 개법장주(開法[藏]咒 : 주문 悉曇章) — 성불수구대다라니(成佛隨求大陀羅尼 : 주문 실담장—隨求陀羅尼心咒—실담장—隨求終 免書) — 관자재보살대비심대다라니(觀自在菩薩大悲心大陀羅尼 : 주문 실담장—大悲咒終朴免書) — 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 주문 실담장—尊勝終朴免[妥]夫書) — 대불정심능엄주(大佛頂心楞嚴咒 : 주문 실담장) — 구도불모총지(救度佛母捨持 : 주문 실담장) — 여래십호(如來十号 : 주문 실담장) — 오호다라니십주(五護陀羅尼心咒 : 주문 실담장) — 육자대명주(六字大明咒 : 주문 실담장) — 관자재보살여의륜주(觀自在菩薩如意輪咒 : 주문 실담장) — 삼신주(三身咒 : 주문 실담장) — 일체다라니모주(一切陀羅尼母咒 : 주문 실담장) — 칠구지불모성대준제주(七俱胝佛母聖大准提咒 : 주문 실담장) — 불공견삭주(不空羂索咒 : 주문 실담장) — 제불내영주(諸佛來迎咒 : 주문 실담장) — 관세음보살각수진언(觀世音菩薩各手眞言 : 관세음보살 四十二手咒 가운데 如意珠手咒 등 40수주를 한자주문 제목+실담장 주문내용으로 표기한 이후 各手終—[妥]夫書) — 관세음보살근본다라니(觀世音菩薩根本陀羅尼 : 주문 실담장—根本終—朴免[書]) — 안토지주(安土地咒 : 주문 실담장) — 대보누각주(大宝樓閣咒 : 주문 실담장) — 불정심관세음보살대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 : 주문 실담장) — 소만병주(消万病咒 : 주문 실담장) — 소재길상다라니(消災吉祥陀羅尼 : 주문 실담장) — 예적금강대신통다라니(穢跡金剛大神通陀羅尼 : 주문 실담장) — 문수멸죄진언(文殊滅罪眞言 : 주문 실담장) — 보현멸죄진언(普賢滅罪眞言 : 주문 실담장) — 관음멸죄진언(觀音滅罪眞言 : 주문 실담장) — 지장멸죄진언(地藏滅罪眞言 : 주문 실담장) — 과지옥진언(破地獄眞言 : 주문 실담장) — 마리지천다라니(摩利支天陀羅尼 : 不空三藏譯—주문 실담장+한자—주문 한자 해설—주문 실담장+한자) — 봉청마리지천주(奉請摩利支天咒 一名摩利支天身咒 : 주문 실담장+한자—주문 한자 해설) — 마리지보살최상심진언(摩利支菩薩最上心眞言 : 주문 실담장+한자—甲寅秋仲岩遁朴免[妥]夫誌) —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 : 한자 본문—주문 실담장+한자—心經終 免書) — 문수최상승무생계(文殊最上乘無生戒 : 한자 본문—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指空) — 대방광불화엄경심과지옥계(大方廣佛華嚴經心破地獄偈 : 계송 한자) — 대승묘법연화경심

계(大乘妙法蓮華經心偈 : 계송 한자)—금강반야바라밀경심계(金剛般若波羅蜜經心偈 : 계송 한자)—여래대열반경심계(如來大涅槃經心偈 : 계송 한자)—무량수불근본주(無量壽佛根本咒 : 주문 실담장)—지거불심파지옥주(智炬佛心破地獄咒 : 주문 실담장)—양기리에청복독해주(囊[麟]哩曳淸伏毒害咒 : 주문 실담장)—여인고난산수지차주즉이생(女人苦難產受持此咒即易生 : 주문 실담장)—제적난진언(除賊難眞言 : 주문 실담장)—안토자주(安土地咒 : 주문 실담장)—호신주(護身咒 : 주문 실담장)—일자정륜주(一字支輪咒 : 주문 실담장)—정법계주(淨法界咒 : 주문 실담장)—해백생원주(解百生冤咒 : 주문 실담장)—미타심중심주(彌陀心中心咒 : 주문 실담장)—보결주(補闕咒 : 주문 실담장)—부적(符籍 : 成正覺印 등 20종류의 부적)—원견미타주(願見彌陀咒 : 주문 실담장)—왕생정토주(往生淨土咒 : 주문 실담장)—보회향주(普迴向咒 : 주문 실담장)—제불·보살명호(諸佛·菩薩名號 : 명호 한자)—간행정보

목 서 : 長守(뒷 표지 목서)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의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에 포함된 『제다라니』 1권 1첩은 휴대용의 수진본(袖珍本)으로, 황색 비단의 표지에서 표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14장은 변상도부터 시작하여 여러 종류의 다라니·진언(眞言)을 이어진 다음, 간행정보로 마무리되어 있다. 첫머리에 있는 변상도는 불회상(佛會相)이라는 제목으로, 미타(彌陀 : 아미타불)·비로(毘盧 : 비로자나불)·제석(帝釋 : 제석천왕)·석가(釋迦 : 석가모니불)·마리지천(摩利支天) 등의 도상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권수제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성불수구대다라니(成佛隨求大陀羅尼)라는 한자 제목을 이어 주문 내용이 실담장(悉曇章 : 범어 문자의 자음·모음 표)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관자재보살대비심대다라니(觀自在菩薩大悲心大陀羅尼)·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대불정심능엄주(大佛頂心楞嚴咒) 등 수십 종류의 다라니·주(咒)·진언(眞言)이 한자 제목을 이어, 실담장이나 한자 또는 실담장·한자 병기의 주문 내용이 새겨져 있다. 보결주(補闕咒)의 다음에는 성정각인(成正覺印) 등 20종류의 부적(符籍)이 새겨져 있으며, 간행정보의 앞부분에는 제불(諸佛)·보살명호(菩薩名號)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다. 판수제는 제이장(第二丈)·십일장(十一丈)과 같이 표기되어 있으며, 변상도의 좌측 하단에는 사주단변 형태 안에 ‘진성적이 이 변상도를 조각하였다(田成尺刀)’라 새겨져 있다.

간행정보에는 이전 낭장을 역임한 박면(朴免)이 1375년(우왕 원년) 겨울 지은 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인출본의 원천텍스트로 삼은 원판은 1375년 겨울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간행정보에는 갑인년(1374) 인출본의 원판을 조성하는 불사를 시작하였으며, 조성목적과 함께 조성조직 등을 밝혀 두었다. 조성목적은 왕실

및 조정의 안녕 등을 기원하였다. 그리고 조성불사에서는 박면(朴免)이 시주와 함께 범자(梵字 : 실담장)·한자(漢字)의 필사 겸 교정 등을 맡았으며, 김윤귀(金允貴)·이인렬(李仁烈)이 간자(刊字 : 각수)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전(焄) 판내부사(判內府事) 김사행(金師幸), 승려지식인 각인(覺因), 개성윤(開城尹) 박성량(朴成亮), 판승경부사(判崇敬府事) 박원경(朴元鏡) 등도 함께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 인출본은 변상도와 함께 상하단변·글자 등에서 마모 현상이 보이므로, 1375년 이후 특정의 시기에 인출·조성된 후쇄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조사대상의 『제다라니』와 동일한 불교기록유산은 발견되지 않는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제다라니』 1권 1첩은 1374~1375년과 인출 당시 고려사회의 불교 사상적 경향과 함께 출판인쇄기술의 실체·역량 등을 진단하고, 해당 원판을 복원할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본은 아직까지 동일 기록유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문화재적 희소성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포갑 및 표지



변상도(佛會相)

제다라니(수진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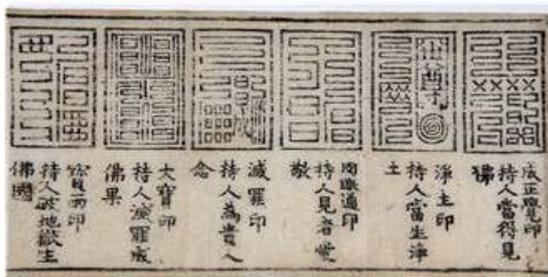


성불수구대다라니 제목

제다라니(수진본)



관자재보살대비심대다라니(제목) 및
수구(성불수구대다라니)종



부적



간행정보

제다라니(수진본)

○ 문헌자료

해인사성보박물관,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불 복장유물 특별전 願堂』, 2017.

남권희, 「고려시대 간행의 수진본 小字 총지진언집 연구」 『書誌學研究』 71, 한국
서지학회, 2017.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문화재검색

한국고전전적종합목록시스템(<https://www.nl.go.kr/korcis>)

○ 지정사례

지정 사례 없음

□ (제다라니 변상도)

해인사 원당암 아미타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제다라니경은 휴대용의 수진본의 경전으로 경전의 첫머리에 변상도가 그려져 있다. 변상도의 전면 크기는 세로 7.0cm x 가로 13.0cm이며, 세면으로 접혀 있다. 변상도의 테두리는 굵고 가는 선으로 이중의 변란을 둘렀지만, 변란 사이에는 아무런 문양을 넣지 않았다.

화면은 3구의 여래와 1구의 天人像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판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도상의 인출상태가 양호하지 않지만,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그림의 주제인 佛會相이라는 題名을 시작으로 각 모임의 주불의 상단에는 주불의 존명을 명기하여 도상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에는 毘盧, 좌측에는 ‘彌陀’, 우측에는 ‘釋迦’라는 존명이 표기되어 있고, 화면 최우측의 천인상 위에는 ‘摩利支天’이라는 존명이 쓰여 있다. 3불의 구성은 法身 비로자나와 化身 석가여래, 報身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형식이며, 이곳에서는 통상의 노사나불을 대신하여 아미타여래를 보신불로 등장시킨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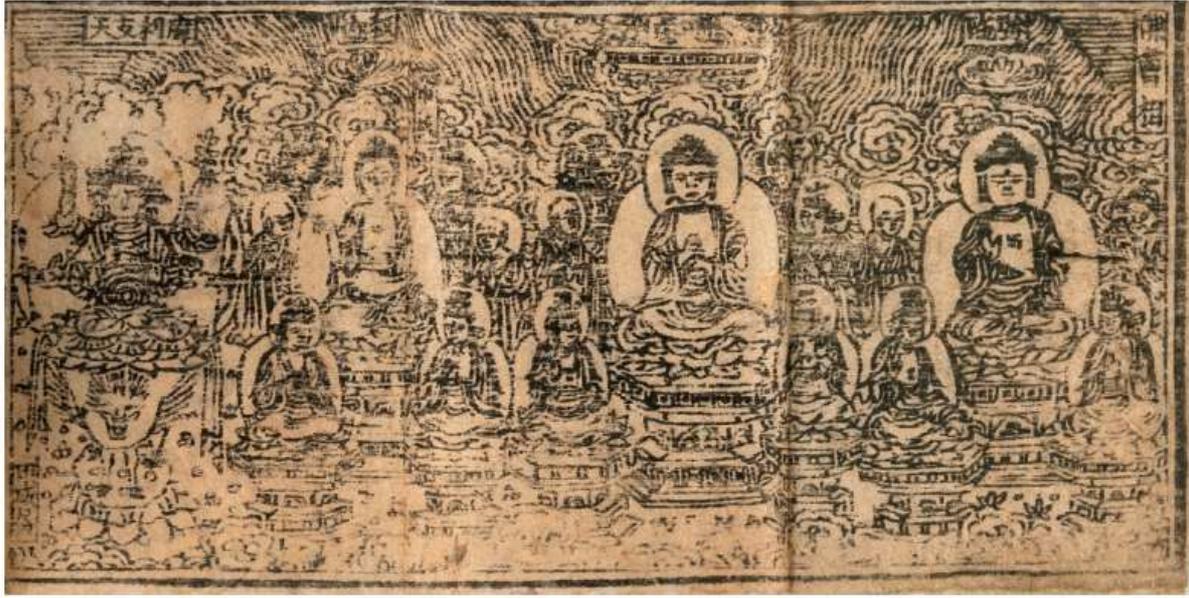
3구의 여래는 존격의 차이 없이 크기가 동일하며, 두광과 신광을 갖추고 다각삼단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아담한 신체 비례를 보이며 머리에는 봉긋하게 솟은 육계를 가졌으며 육계와 머리의 경계부에는 작고 동그란 중앙계주를 표현하였다. 비로자나불은 지권인을 결하였고, 아미타불은 구품인을, 석가여래는 오른손을 어깨 밖으로 들어 설법인을 결하였다. 석가여래의 수인의 삼성미술관 소장 석가삼존십육나한도(고려후기)의 손짓과 유사하다. 존상의 앞쪽에는 공히 2구의 협시보살상이 본존불과 같은 대좌 위에 앉아 있다. 협시보살상 외에도 비로자나불과 석가여래의 곁에는 4구의 존상이 에워싸고 있으며, 우측 상단 권속 측면에 ‘帝釋’이라는 존명을 써두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미타여래의 곁에는 2구의 권속이 배치되어 있다. 존상의 주변은 구름으로 처리하고 천공은 뻗어가는 瑞光으로 처리하였다. 화면의 최우측 하단에는 ‘田成尺 刀’라는 변상도를 새긴 사람의 인명을 적어놓았다. 불상은 비만하지도 늘씬하지도 않은 대체로 단아한 형태미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양식은 여말선초 시기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 특징을 공유한다.

마리지천은 인도의 민간에서 신앙되었던 天神으로 산스크리트어 Marīci를 音寫한 것으로서 摩利支, 末利支, 末里支라고 한다. 末利支天菩薩, 末利支提婆(Marici-deva)라고도 부르는데, 陽炎(아지랑이), 威光, 成光으로 한역되기도 한다. 日天의 권속으로 볼 수도 없고 불잡을 수도 없는 隱形의 몸을 가져 신통이 자재하므로 이 신에게 기도하면 모든 액난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며, 승리의 신으로

존중을 받았다고 한다.

마리지천은 두가지 모습으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천녀 또는 보살형의 모습으로 天扇을 잡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멧돼지를 타고 3面多臂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곳에 표현된 3면6비의 모습에 멧돼지를 타고 있는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도상의 전거는 天息災(?~1000)가 한역한 『佛說大摩利支菩薩經』을 典據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마리지천보살의 형상은 몸이 염부단금과 같고, 태양의 광명과도 같다. 머리위에 보탑을 올렸고 붉은색 천의를 입었으며, 팔찌, 귀걸이, 허리띠, 영락과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하였다. 8비3면 3안으로 광명이 빛난다. 입술은 曼度迦꽃과 같고, 머리위의 보탑 안에는 비로차나불이 있는데 無憂樹의 꽃장식을 쓰고 있다. 왼손에는 羂索, 활, 無憂樹가지, 실을 쥐고, 오른손에는 금강저와 바늘, 화살을 들었다...(중략)...멧돼지의 수레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 춤추는 듯하다...”라고 설하고 있고, 2권에는 짙은 황색, 적금색에 몸은 태양과 같이 빛나며 이마 위에 보탑을 받들고 靑衣를 입었으며 편단한 청의는 여러 가지로 장엄되었고 몸에는 팔이 여섯이며 三面三眼에 돼지를 타고 있으며 왼손에는 활과 無憂樹 가지 및 線, 오른손에는 金剛杵와 針, 화살을 가졌다고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리지천이 비로자나불삼신불 회상에 중요 존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두 존상이 모두 빛(태양)과 관련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마리지천의 보관에 빛(진리)을 상징하는 毗盧遮那佛을 봉안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시대 제작된 마리지천변상은 1216년 간기가 있는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에 卷首 변상으로 그려진 마리지천변상도 남아 있는데, 이곳에 표현된 마리지천은 3면6비에 멧돼지를 타고 있어 도상적 특징은 유사하지만 지물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각 작품도 현재 다섯 점 정도 알려져 있으며, 대체로 멧돼지를 타고 탑이 새겨진 보관을 쓰고 일면 육비의 도상적 특징을 보인다. 이렇듯 고려시대 유행한 마리지천은 천녀상의 도상은 찾기 어렵고 멧돼지를 타고 3면6비를 갖춘 도상이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 153 제다리경 권수 변상도



도 154 제다라니변상도 중 마리지천도



도 155 마리지천변상도, 1216년간, 장충식, 한국 불교판화의 연구(I), 불교학보19에서 재인용



도155 은제도금 마리지천상,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덕수4135(최성은, 고려시대 호지불마리지천상에 대한 고찰에서 재인용)



도156 은제도금 마리지천상, 고려, 국립중앙박물관(최성은, 고려시대 호지불 마리지천상에 대한 고찰에서 재인용)

○ 참고문헌

- 장충식, 「한국 불교판화의 연구(I)」, 『불교학보』 1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2
- 최성은, 「高麗時代 護持佛 摩利支天像에 대한 고찰」, 『불교연구』 29, 한국불교연구원, 2008
- 朴元植, 「高麗時代 護持佛 圖像 研究」, 충북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8

9.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및 腹藏遺物)

가. 심의사항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7.12.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4.29./5.1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5호(2002.1.10.)
- 명 칭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
- 소재지 : ① 불보살상 :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갑사
② 복장유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불상 3구, 보살상 4구, 복장유물 7건 263점
- 규 격 : 석가여래 높이 268.9cm, 약사여래 237cm, 아미타여래 246cm
보살상1(석가 좌측) 229cm, 보살상2(석가 우측) 227.5cm
보살상3(약사 좌측) 230cm, 보살상4(아미타 우측) 228cm
- 재 질 : 소조, 저지(楮紙)
- 조성연대 : 1617년(광해군 9)
- 제작자 : 幸思·德玄·天潭·熙淳·敬輪·心淨·應梅·性耑·性宗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 복장유물

연번	유물명	시기	재질	수량	크기(cm)
1	발원문	1617년	종이	1점	*1.2×37.8 *11매로 구성
2	후령통	조선시대	비단 외	1점	*지름 7.8, 높이 27
3	오보병	조선시대	비단·곡물	1점	*14.5×7.5 *검은색 비단에 곡식을 넣고 포장한 뒤 명주실을 감아 마감함.
4	비단편 및 목부재	조선시대	비단·나무	2점	*비단편 37.8×57.7 *비단편은 용과 용비늘 문양을 시문함 *목부재 길이 85.3
5	묘법연화경 권7	1567년	목판본	3매	*27.7×17.8
6	묘법연화경 권1,2,3,4,5,6	[1573년]	목판본	213매	41.7×50.2
7	다라니	조선시대	목판본	42매 (흑색33매, 주색9매))	*38.2×57.0
계	7건 263점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삼불사보살’이라는 특별한 구성의 가장 이른 사례!

갑사 불상은 우리나라 불상 가운데 사례가 드문 삼불, 사보살의 칠존 형식이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이른 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완전하게 남아있는 복장물!

2015년 보존 수리 과정 중 발견된 향우(尙右) 보살상의 복장물은 불상 복장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성 당시의 원형 그대로 빠짐없이 남아있어 갑사 대웅전 불상과 보살상의 내력, 복장 의례 물품, 후령통 형식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연구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 1617년 정확한 제작 시기!

복장발원문을 통해 1617년 정유재란 이후 갑사 복구 작업의 일환으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했음이 분명히 밝혀졌다.

■ 조각승 행사(幸思)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대표 작품!

지금까지 조각승 행사의 이름은 1648년 도장사 석가모니불좌상의 발원문에서 ‘師翁 幸思比丘’로 등장한 것이 유일한 예였다. 갑사 대웅전 불상은 조각승 행사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작품이다.

■ 큰 크기, 온전한 보존상태!

2미터가 넘는 큰 크기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게 잘 남아있으며, 취약한 보살상 보관에 이르기까지 1구를 제외하고는 온전히 잘 남아있다.

■ 2300여명의 동참 불사!

임진왜란이 끝나고 20여년이 지난 1617년, 2300여명의 시주자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대불사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조선시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중요한 학술 자료!

갑사 대웅전의 불상은 조선 전기 양식의 계보를 이으면서 조선 후기를 시작하는 양식으로 조각사 편년에 있어 중요한 불상이다. 특히 지금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던 행사가 수화승으로 작업한 유일한 작품으로, 차후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의 조각승 연구에 귀중한 시각 자료가 될 것이다.

공주 갑사의 소조석가여래삼존불상 및 사보살입상은 문자 자료를 잘 구비하고 있고, 작품의 완성도도 뛰어나며, 조각승 유파와 작품 양식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이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임란 후 집중적으로 조성된 대형 소조삼불상의 사례들 중에서 가장 이른 1617년에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특히 이 시기 조성된 삼불상은 비로자나삼신불상의 사례가 더 많은 가운데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조선 후기에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석가·아미타·약사 삼세불 조성의 선구적인 사례로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논산 쌍계사(1605), 공주 동학사(1606)에 이어 세 번째 현존하는 오래된 삼세불상의 사례이다. 그러나 협시보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대형소조불상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 유사한 시기에 조성된 대형소조불상들,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신불상(보물 제958호),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360호),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576호),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 제1752호),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보물 제1274호), 부여 무량사의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565호) 등은 모두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갑사 소조삼세불상 역시 학술적 가치가 큰 복장물이 발견되었는바, 표훈대덕 찬문이 있는 고려시대 <금강반야바라밀경>, 책자 형태로 조성된 독특한 발원문 등도 역시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로 판단되어 갑사 소조삼세불 역시 보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삼세불과 함께 4보살상은 봉안하는 법식을 통해 조선시대 불교도상학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상원사 문수동자상 발원문에는 당시 삼세불과 함께 석가·아미타의 협시보살인 문수·보현·아미타·지장보살로 4보살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재 갑사 삼세불은 보관에 화불이 있는 관음이나 두건 혹은 삭발한 모습의 지장보살이 보이지 않으므로 상원사와는 다른 4보살 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좌측 보살입상에서 ‘미륵’ 묵서명이 적외선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산전·응진전에 주로 봉안되는 석가삼존의 협시인 제화갈라·미륵보살, 그리고 대웅전의 석가삼존의 협시인 문수·보현보살의 조합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각각 법화와 화엄을 아우르는 삼존구성으로서 조선시대 불교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4. 조각양식적으로 불두가 실제 인체비례에 가깝게 작은 편이고, 불두의 안정감있는 역사다리꼴 윤곽, 섬세한 수인의 묘사, 유려한 옷주름 처리, 보살입상의 건칠로 조성한 섬세한 보관과 보석장엄 등은 조각승 행사가 조성한 작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조선전기의 조각양식과 조선후기 조각양식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술적 가

치를 겸하고 있다. 특히 공주 동학사 불상은 그가 각민을 도와 조성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같은 양식의 불상이 대형소조불상으로 조성될 때의 비례상의 차이점이나 기법상의 변화를 비교고찰할 수 있어 특히 주목된다.

5. 이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 더욱 널리 알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이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석가여래삼불·사보살 형식의 불상으로는 현존 최대작이자 최고작이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17세기 전반기 대형 불상에 널리 적용된 소조기법의 이른 사례이다. 따라서 갑사 불상은 조선 후기 삼불사보살상 도상 및 제작기법 연구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학술적 자료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17년이라는 분명한 제작시기, 幸思를 비롯한 분명한 조각주체, 조선 후기 최대인원의 시주자들이 참여하여 제작한 시대의 역작임을 알 수 있어, 이 시기 불상 연구의 기준 자료이다. 특히 수조각승 幸思는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釋俊, 元悟, 覺敏의 조각적 전통을 이어 받은 조각승으로 현존하는 최고 최대 작품이다. 역삼각형의 가름한 얼굴에 우뚝한 삼각형의 콧날에서 행사 작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고, 장대하고 늠름한 형태와 비례, 기백 넘치는 선묘에서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대형불상들과 시대적 특징을 공감하며 국난 극복과 불교 부흥의 시대적 열망과 의지를 담았다.

시주자들의 면면도 주목된다. 1630년대 금산사 중창불사를 주도한 守文大師를 비롯하여, 현진, 응원, 법령 등 당대의 조각승들이 시주자로 참여하여 불사를 지원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 조각승간의 교류와 협력관계 연구에도 유익하다. 뿐만 아니라 시주자로 조선 후기 최대 인원의 사부대중이 참여하고 있어 이 시기 불교사 연구에도 크게 기여할 작품이다.

불상은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복장유물은 불상조각에 생명력과 위신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성된 진신과 법신이다. 발견된 복장유물은(목록참조, 경전은 별도 지정시 제외) 중수 시 중첩 납입된 것 없이 제작 당시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괄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를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현 상

공주 갑사 대웅전 수미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3구의 불좌상과 4구의 보살입상이다. 모두 흙으로 조성한 소조상이다. 중앙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왼쪽(향우)에 약사불, 오른쪽(향좌)에 아미타불을 봉안했으며, 그 사이사이에 보살입상을 배치했다. 3구의 불좌상은 크기가 대체로 비슷하지만, 중앙 석가모니불상이 가장 커 268.9cm이며, 아미타불은 246cm, 약사불은 237cm이다. 4구의 보살입상은 보관을 포함해 228.9~233cm 정도의 크기이다. 내부에 여러 개의 나무로 기본 틀을 갖추고 2~4cm 정도 두께의 진흙을 바른 후, 그 위에는 삼베와 옷칠을 하고, 금을 입혀 마무리했다.



<1617년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 사진 편집 임영애)>

■ 불좌상 3구의 현상

불좌상 3구는 손 모양과 가사 형식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모습이다. 3구의 공통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육계는 머리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도록 표현했으며, 그 정상에는 정상계주를, 그 아래에는 반달모양의 중심계주를 두었다. 하관 너비보다 이마 너비가 더 넓은 역사다리꼴의 얼굴에 코와 입을 큼지막하게 표현하여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눈썹 사이의 백호는 작으며, 콧날이 오뚝하다. 삼도는 목이 아닌 가슴 쪽으로 내려 음각선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조선 후기 불상에서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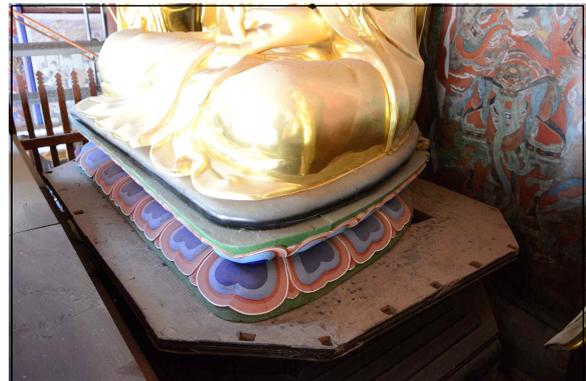
아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어깨가 넓고, 양 팔은 몸에 최대한 붙였다. 상체는 긴 편이며, 하체에 비해 상체를 크게 표현하여 불상이 장대하게 보이도록 했다. 이는 높은 불단 위에 봉안되어 있는 불상을 바라보는 예배자의 시점을 감안한 것이다. 결가부좌한 다리는 너비가 넓어 안정적이지만, 무릎의 높이는 낮다. 이처럼 무릎 높이를 낮게 한 예는 1614년 송림사상, 1633년 선운사 대웅전 소조삼불좌상, 1633년경 김제 귀신사 소조삼불좌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구 불좌상의 차이점은 손 모양과 가사의 형식이다. 손 모양은 3구의 불좌상이 모두 다르다. 중앙 석가여래는 왼손을 배 앞에 가로 두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댔으며, 오른손은 무릎 위에 얹어 항마촉지인의 손 모양을 취했다. 석가여래 왼쪽의 약사여래는 왼손을 위로, 오른손을 아래에 두었으며, 석가여래 오른쪽의 아미타여래는 손 위치를 대칭으로 표현했다. 약사여래이지만 약기(藥器) 없이 아미타불상과 대칭을 이루는 설법인을 취한 것도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한 삼불좌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가사는 모두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편단우견 형식이지만, 본존 석가여래와 좌우 협시불의 가사는 차이를 두었다. 즉, 중앙 본존상은 1장의 가사를 걸쳐 오른팔을 드러냈지만, 좌우 협시불은 1장이 아닌 2장의 가사를 걸쳐 오른팔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이 2장의 가사를 걸친 형식을 소위 ‘이중착의’라고 부른다. 조선 후기의 석가여래상은 항상 1장의 가사를 걸치고, 오른팔을 노출시켜 다른 존상과 차별화하려 하였다.



<불상 연화 대좌와 대좌 받침>



<불상 연화 대좌와 대좌 받침 상단>

나무로 만든 대좌와 대좌 받침은 전체 높이가 101~107cm이다. 불상과 보살상은 진흙으로 조성했지만, 대좌와 대좌 받침은 모두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 연화대좌는 양련과 복련이 맞붙어 있는 큼지막한 연화좌로 불좌상의 밑면과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조성했다. 연화대좌 아래에는 삼단으로 이뤄진 대좌 받침이 있다. 대좌 받침의 상단은 얇은 판으로, 중단은 장방형에 모서리를 죽인 팔각형이며, 네 면에는 안상을 투각했다. 상단에는 원래 난간 모양의 목재가 둘러져 있어 대좌를 감싸고 있었겠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목재를 꽃았던 흔적만 남아있다.

■ 보살입상 4구의 현상

4구의 보살상은 모두 정면을 바라보고 서있는 입상이다. 얼굴의 비례, 얼굴 모습, 가사 주름 등이 불상과 기본적으로 같아, 같은 조각가의 숨씨임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은 상투[寶髻]가 높으며, 이마 위로 보관을 씌울 수 있도록 층을 두었다. 귀 앞으로 한 가닥의 머리카락이 귓바퀴를 감아 어깨로 내려왔는데, 어깨 위에서 매듭을 지은 후 두 가닥의 머리카락이 팔뚝으로 구불구불 흘러내렸다. 보살상의 손 모양은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좌우 2구씩 서로 대칭으로 표현했다. 즉, 석가여래의 왼쪽에 위치한 2구의 보살입상은 왼손을 위로, 오른쪽에 위치한 2구의 보살입상은 오른손을 위로 했다. 4구 모두 양손으로 지물을 들었는데, 1구는 여의(如意)를, 3구는 연꽃가지를 쥐었다.

보살의(菩薩衣)는 일반적인 보살의 착의 형식인 천의가 아니라 불상과 동일한 가사를 걸쳤는데, 이는 조선시대 보살상의 보편적인 형식이다. 2장의 가사를 걸친 ‘이중착의’ 형식 역시 불좌상과 동일하다. 보살의 가사가 허리에서 무릎까지 길게 덮여 있어, 군(裙)은 무릎 아래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갑사 보살입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칠기법으로 제작한 화려한 보관이다. 아쉽게도 향좌측 끝의 보살입상 보관은 1930년 조각승 일섭(日燮)이 새로 조성한 것이지만, 나머지 3구의 보관은 1617년 보살상 조성 당시의 것이다. 건칠 보관은 넝쿨무늬, 연꽃, 화염보주, 봉황, 구름 무늬로 장식했으며, 좌우에는 바람에 날리는 관대(冠帶)를 표현했다. 보살상의 대좌는 불좌상과 마찬가지로 나무로 제작했다. 보살상의 대좌는 불상대좌와 재질은 같지만, 형식은 달라 양련의 연꽃대좌와 대좌 받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련 연꽃대좌는 세 줄의 연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 대좌 받침은 팔각형으로 모서리마다 다리를 조각했다.



■ 복장물 구성



2015년 5월 보존 수리 과정 중 향우 측 보살입상 1구의 복장 유물이 세상에 드러났다. 보살입상 바닥의 복장공은 가로×세로 22.3×15.4cm, 두께 6cm 크기의 봉합목으로 봉인되어 있었

다. 복장물은 모두 16건 265점이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발원문과 후령통, 오보병,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密經, 1388년)』



<보살상 복장유물>

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경전류, 다라니, 후령통 등이 납입되어 있었는데, 고려말-조선초에 간행한 전적류가 11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발원문은 11매의 종이를 엮은 책 형태로 18면에 걸쳐 기록하였는데, 2,334명의 시주자 이름을 적고 마지막 장에 제작 소임을 맡은 31명과 조성시기와 사찰명을 기록하였다. 발원문에 의하면, 공주 감사 대웅전의 조각은 1617년 조각승 행사(幸思)가 중심이 되어 8명의 조각승이 합심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의 발원문은 2334명의 시주자 명단을 일일이 기록하려다 보

니 18쪽에 빼곡히 이름을 적어 이를 책자로 꾸몄다. 임진왜란이 끝난 어려운 시기에 십시일반으로 2300여명의 시주자가 함께 힘을 모아 조성한 7구의 불상으로 많은 명단을 모두 기록하기 위해 발원문을 책자 형태로 만들었다는 점도 매우 특별하다. 감사 보살상의 후령통은 『법화경』(쌍계사본)에 싸여 발견되었다.

○ 내용 및 특징

■ 삼불사보살상의 독특한 구성



1617년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1639년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보물 제1378호)

1703년 구례 화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삼불사보살상 구성 비교 © 사진편집 임영애>

커다란 방형 수미단 위에 병렬로 7구의 불상과 보살상을 안치했다. 갑사 대웅전의 불상과 마찬가지로 삼불사보살로 구성되어 있는 예는 두 곳이 더 있다. 1639년 하동 쌍계사 대웅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보물 제1378호)와 1703년 화엄사 각황전의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이다. 모두 수미단 위에 삼불상은 좌상이고 사보살상은 입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갑사상은 남아있는 칠존불 가운데 가장 예이다. 쌍계사상과 화엄사상은 나무로 제작했지만, 갑사상은 7구 모두 재료가 흙이다.

조선 후기에는 하나의 공간에 3구의 불상을 봉안하는 삼불상 형식이 크게 유행했다. 불교교주인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현실의 수명장수를 위한 약사불, 그리고 사후 극락왕생을 위한 아미타불로 구성하는 형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공주 갑사 대웅전의 불상은 삼불상 형식에 사보살입상을 추가하는 특별한 구성을 지닌 가장 이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 1617년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승 행사(幸思)

복장발원문은 2300여명의 발원자 이름이 가득 적힌 여러 종이를 묶은 책자형태이다. 발원문 끝부분에 적힌 ‘萬曆四十五年丁巳十月日鷄龍山岬寺佛像畢造’ 목서(墨書)를 통해 불상의 조성연대가 1617년임이 밝혀졌다. 조각승은 행사(幸師)가 주관하여 덕현(德玄), 천담(天潭), 희순(熙淳), 경륜(敬倫), 심정(心淨), 응매(應梅), 성은(性崑), 성종(性宗)이 힘을 모았다. 이들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각민(覺敏), 해심(海心), 무염(無染), 응원(應元) 등과 활동하던 화승들이다. 갑사상의 조성에 갑사 출신 승려뿐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지역에서 활동한 조각승 집단과 승려들이 참여하고 있어 당시 갑사 불사의 규모와 사찰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조각승 행사가 수화승으로 불상을 제작한 예는 갑사 대웅전의 삼불사보살상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었다. 다만 수화승은 아니지만, 1648년에 조성된 도장사 석가모니불좌상의 발원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장사 발원문에는 ‘師翁 幸思比丘 養師 無染比丘 首畫員 海心比丘’라 적혀 있는데, 이 발원문은 행사와 17세기 조각승 무염(無染), 해심(海心)과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행사 화풍의 특징이 무엇이며, 도장사 불상에 행사가 얼마나 개입되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갑사 대웅전 불상은 조각승 행사가 수화승으로 제작한 지금까지 알려진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조각승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2300여명의 시주자 단합의 결과물!

갑사는 정유재란(1597-1598)으로 완전 소실된 이후 사찰의 대규모 복구사업을 진행했다.⁹⁾ 우선 1604년에 현재 대웅전 중건을 비롯하여 진해당 등을 중건했으며, 1617년 갑사상 역시 갑사 복구불사의 일환으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20여년이 지난 후에 제작한 불상이다. 이 후 1650년에는 괘불을 조성하고, 1654년경에 또 가람을 일신하기도 했다.

흙이라는 재료는 금동이나 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기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17세기 전반에는 장육불상과 같은 대형 불상을 조성하는데 널리 애용되었다. 물론 이전에도 소조불상이 조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 부석사 무량수전 소조불좌상을 비롯하여 조선 전기의 기림사 삼불좌상 등이 대표적인 소조불상이지만, 특히 조선 후기에 그 예가 많다. 갑사상은 이들 대형 소조불상의 전통을 이은 것인데, 소조상이지만 그 크기가 워낙 크고, 존상의 숫자도 많아 7구의 상을 조성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2300여명의 시주자가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2300여명의 불상 대시주자 가운데 비구니 묘충(妙聰)의 이름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 갑사 불상의 시주자 2300여명 가운데 360여명의 승려가 동참했는데, 비구니는 묘충, 혜금(惠今), 보월(寶月) 등 3명뿐이지만 발원문 서두에 비구보다 비구니를 먼저 비중 있게 기록한 점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이다.

■ 큰 크기, 온전한 보존상태!

갑사 대웅전의 불상과 보살상은 2미터가 넘는 커다란 크기의 상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곳 없이 온전하게 잘 남아있다. 특히 보살상의 보관은 보존에 취약하여 잃어버리거나 손상되기 쉬운데, 갑사 보살상은 4구 가운데 1구를 제외하고는 보관이 온전히 잘 남아있다.

보관은 그 재료가 특별한데, 모두 종이와 옷으로 만든 건칠보관이다. 보관을 건칠로 제작한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다. 건칠기법은 고려부터 조선전기까지만 제한적으로 유행했다. 옷칠이라는 재료 자체가 고가인데다가, 제작이 쉽지 않고, 제작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칠불 제작을 선호한 이유는 무게가 가벼워 이동이 용이하고, 열·물·벌레 등에 잘 견디며 내구성이 강하며,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갑사 보살상 3구의 보관은 17세기 전반이라는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보관을 고가의 건칠기법으로 조성했다는

9) 1799년에 편찬한 『범우고(梵宇攷)』, 1659년에 여주목사(驪州牧使) 이지천(李志賤)이 지은 『공주갑사사적비(公州岬寺事蹟碑)』에 의하면, 정유재란으로 갑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선조(宣祖) 37년(1604)에 대웅전(大雄殿)과 진해당(振海)을 중건하였고, 효종(孝宗) 5년(1654)에 가람을 개축하였다고 전한다.

점에서 매우 소중한 사례이다.

■ 뛰어난 조각 솜씨!

3구의 불좌상은 전체적으로 평면적이기는 하지만, 상체가 장대하며, 무릎 너비가 넓어 안정된 신체 비례를 보인다. 머리와 구분되지 않는 육계, 원통모양의 정상계주, 반달모양의 중심계주, 이마 너비가 넓은 역사다리모양의 얼굴형태, 커다란 코와 입, 넓은 인중, 크고 두툼한 손 등은 조선 후기 불상의 특징을 잘 갖추었다.

수조각승 행사가 주관한 작품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었다. 하지만, 갑사 불상을 통해 목조와 소조기법이 혼용된 제작기법, 유일한 건칠보관의 제작 등, 나무와 흙, 건칠 등 다양한 재료를 다룰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사 대웅전의 불상은 뛰어난 기량을 갖춘 조각가 행사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17세기 전반기 대표작품 가운데 하나이다.

○ 참고문헌

김광희, 「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연구」, 『미술사학연구』 300, 2018, pp. 167-195.

심주완,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칠존불상 연구」, 『불교문화연구』 2, 한국불교문화학회, 2003, pp. 227-247.



○ 현 상

현재 갑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으며, 대웅전은 정유재란 이후 1604년(선조 37)에 중건된 것이다. 대웅전은 현재 충남 유형문화재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불상의 규모 및 재질로 보아 이동이 불가능한 관계로 1617년 조성된 이후 현재까지 대웅전 건축과 함께 원래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대형소조불상으로서 그 사례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협시보살과 함께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2015년도에는 보수정비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약사여래불의 좌협시보살입상(불단향좌측 보살상)에 대한 감마레이 촬영 및 복장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소조삼세불의 조성연대(1617년, 萬曆45年) 및 제작자(幸思)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복장물의 납입 순서 및 납입 위치 등도 정밀하게 조사되었다.

원래 불상 각각이 협시보살을 두면 모두 6구가 있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4구만 축약적으로 구성된 것도 특이하다. 기초조사 당시 약사여래의 좌협시(불단 좌단

위치)의 보관 뒷면의 적외선 촬영에서 ‘미륵’ 묵서명이 확인되었다. 이 묵서가 언제 쓰여진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만약 처음부터 미륵보살로 조성된 것이라면 수기삼존에 의한 제화갈라·미륵보살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하는 삼세불이므로 석가모니의 협시보살인 문수·보현보살이 또한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네 보살은 문수, 보현, 제화갈라, 미륵보살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 4구의 보살상이 봉안된 간격도 주목된다. 네 보살을 등간격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라 중앙의 두 보살을 본존 석가모니에 더 가깝게 붙여서 배치했다. 즉, 중앙의 두 보살을 각각 석가와 아미타, 석가와 약사의 중간에 배치한 것이 아니라 모두 석가모니불좌상에 가깝게 배치했다. 이는 균등한 비중을 지닌 삼세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석가모니를 중심에 두고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불상 뒤편에는 화승 의겸(義謙)이 제작한 불회도가 각각 걸려 있었는데 이 역시 불상과 짝을 이루어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지만, 약사불회도가 도난당해 현재는 석가 및 아미타불회도만 전하며, 대웅전에는 원본 대신 프린트된 복제본이 걸려 있다. 사라진 약사불회도 대신 아미타불회도를 추가적으로 복제하여 약사불 뒤에 대신 걸어둔 상태이다. 이 불화들은 의겸 화사가 활동한 1700년대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상과 100년 가량의 연대차를 보이는 이유는 아마도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뒤에 벽화로 삼신불회도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갑사도 불상이 제작될 당시에는 벽화로 제작되었다가 법당을 중수하면서 후대에 탕화로 바꾼 것이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1. 대형소조불상 조성의 선구적 위상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은 그 규모와 양식의 독특함, 그리고 보살상과 조합을 이룬 봉안방식 등에서 주목을 받아왔으나 정확한 조성연대 및 작가 등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조사에서 1617년 조성임을 알게 되었다.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과 같은 대형의 불상들은 대체로 1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는데, 1617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대형 소조불로 주목되는 사례는 우선 양식적으로 기림사 대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연대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삼불좌상은 1719년 개금기에서 1564년에도 개금이 이루어졌던 기록이 확인되어 최소 1564년 이전에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대형소조불상 중에서 16세기에 조성된 유일한 사례이자,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이러한 대형소조불상이자 비로자나삼불상이 조성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임란 이전의 기림사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란 이후 17세기 전반에 집중되어 있다. 보은 법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1626년(인조 4), 김제 귀신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귀신사의 중창이 이루어졌던 1624년부터 중창불사의 마지막으로 영산전 존상들이 봉안된 1633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1633년, 완주 송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은 1641년(인조 19)에 조성되었다. 삼신 혹은 삼세불은 아니지만, 대형의 소조삼존불상으로서 부여 무량사의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은 1633년(인조 11), 김제 금산사 미륵전의 미륵장육삼존상은 1627년(인조 5)에 조성되었다. 금산사 미륵전의 존상은 본존불은 1934년 화재로 1938년 김복진이 새로 조성한 것이지만, 좌우협시보살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627년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 1620년대~1630년대에 대형소조불상이 특히 충청·전북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던 것은 매우 주목되는 조선시대 불교문화의 한 현상인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규명된 바가 없다. 다만 그러한 현상이 촉발된 것이 바로 1617년에 조성된 공주 갑사 소조삼세불임이 밝혀진 셈이어서, 그 원인규명에 있어 갑사의 역사적 위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대형소조불상은 기림사의 경우처럼 임란 이전에 이미 조성된 사례가 있고, 금산사의 경우도 자장율사가 조성한 청동미륵대불이 정유재란으로 소실되어 이후 새로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갑사에도 이전부터 대형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현재와 같은 대형소조불상을 완전히 새로이 조성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갑사는 원래 비로자나불을 봉안하는 대적전이 주불전이었을 것으로도 추정되기도 하는 바, 화엄십찰의 하나였던 갑사에서 비로자나불을 모셨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록 현재 대적전에는 1650년대 조성으로 추정되는 아미타불상이 봉안되어 있지만, 국보 제298호로 지정된 갑사 괘불탱(1650년작)은 비로자나삼신불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화엄종 사찰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화엄종의 비로자나불 대신 석가삼세불을 모신 대웅전은 임란 이후의 새로운 경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석가여래삼세불상 도상의 선구적 의미

갑사 소조삼세불상은 중앙 사바세계의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서방 아미타불, 동방 약사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삼세불 구성은 불교도상에서 널리 알려진 도상이지만, 막상 그 기원은 불분명하다.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는 주로 4방불, 혹은 4면불이 석주 형식으로 혹은 불탑의 부조로서 4면에 돌아가며 조성되었고, 간혹 칠불암처럼 사방+중앙의 개념으로 오방불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조선 전기에도 사불회도(국립중앙박물관), 육불회도(일본 西來寺, 오불+지장보살)의 전통

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세 불상이 삼불상 개념으로 일괄로 조성된 가장 이른 시기는 고려말 정도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천사 10층석탑의 <삼세불회> 장면을 들 수 있다.

한편 천은사에 전하는 고려말 제작으로 추정되는 금동불감은 불감 내부의 정면에 비로자나불회도, 그리고 좌우 측벽에 아미타·약사불회도를 타출했고, 불감 안에 별도로 비로자나·아미타·약사의 삼불을 봉안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본존비로자나불은 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도상은 기본적으로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의 도상과 직접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이한 경우로는 경주 왕룡사원 삼세불상의 경우는 원래부터 삼세불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1466년 조성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1579년에 석가·약사불을 추가로 조성하여 삼세불을 구성한 사례이다. 현존하지는 않지만 금산사 대적광전의 경우에는 원래 대웅대광명전으로 비로자나삼신불을 모시고 있었으나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뒤 1635년 재건하면서 극락전의 아미타불과 약사전의 약사불을 함께 봉안하여 5불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되기 전의 삼신불이 언제 조성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역시 여말선초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처럼 고려말~조선초부터 삼세불, 혹은 삼신불 도상이 이전의 사방불, 오방불을 대신하여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신·삼세불 신앙이 별도로 확립된 신앙인지, 사방·오방불 신앙의 축소된 신앙인지 알 수 없으나 점차 이전의 사방·오방불 대신 조선시대에는 삼신·삼세 도상이 주축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도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요~원나라 때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산서성 대동 화엄사의 경우 상원(上院)에는 금대의 5방불이 봉안된 반면 하원(下院) 박가교장전(薄伽教藏殿)에는 요나라 때의 삼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산서성 오대산 불광사(佛光寺) 대전의 주존도 삼불상인데, 건축은 당나라 때 건축이지만 불상은 금나라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도상들은 아마도 원간섭기에 접어들면서 고려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의 양식과 도상은 오히려 조선초기에 더욱 유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삼신·삼세불 도상 역시 고려 후기~말기에 등장은 했지만, 본격적인 유행은 조선시대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초기만 해도 불교경전, 불탑부조, 소형금동불감 등에 대한 자료만 남아있어 법당봉안용 주존불로서 삼신·삼세불의 현존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앞서 경주 왕룡사원 삼세불이 이른 예이지만 석가·약사불은 조성연대가 16세기로 내려오기 때문에 15세기 아미타불이 조성될 때는 삼세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격적인 법당주존으로서의 삼신·삼세불의 가장 오래된 현존사례는 현재

로서는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상으로 대표된다. 아마도 이러한 사례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은 사라졌지만 임란중 소실되었다는 금산사 대적광전의 비로자나삼신불, 그리고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발원문을 통해 기록만 남아있는 세조 연간의 삼세불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불상들은 기림사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란 때 소실되고, 1600년대 전반, 즉 17세기 전반에 복원된 예가 앞서 열거한 선운사, 귀신사, 무량사, 범주사, 송광사 등의 대형소조삼불상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갑사 소조삼불상은 연대적으로 1617년 조성되어 임란 후 조성된 대형소조삼불상으로는 연대가 가장 빠를 뿐 아니라, 기림사, 귀신사, 선운사, 범주사 등의 본존이 모두 비로자나불인 반면에 본존이 향마촉지인 석가모니불인 삼불상으로서도 현존하는 예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이른 예에 해당한다.

1650년대 이후에는 비단 대형의 소조불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범당 봉안용 규모의 목조불상으로 삼세불이 대거 조성되기 시작했다. 대형소조불상에서는 비로자나를 중심으로 한 삼불상의 사례가 더 많았지만, 목조불상으로 조성된 경우는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삼세불상의 사례가 더 많다는 점에서 갑사 소조삼불상은 이후 조선의 범당 봉안 불상 도상의 주류로 자리잡은 석가모니·아미타·약사여래 삼세불의 선구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갑사 삼세불보다 빠른 삼세불의 현존사례로는 논산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상(1605년), 공주 동학사 대웅전 삼세불상(1606년)이 있으나, 동학사 삼세불은 갑사 삼세불을 조성한 조각승 행사(幸思)가 조각승은 아니었지만, 작업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갑사 삼세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특히 갑사 삼세불은 그 규모가 더 크고 구성면에서도 협시보살까지 모두 갖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다.

이처럼 갑사 삼세불상은 삼세불 뿐 아니라 협시보살이 함께 전하고 있어 조선 시대의 불교도상학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문헌적으로는 상원사 문수보살상의 복장발원문을 통해 석가·아미타·약사여래 삼세불의 협시로서 문수·보현·관음·지장보살을 조성했던 것이 확인된다. 문수·보현은 석가, 관음·지장은 아미타의 협시로서 약사불의 협시보살을 제외하고 4구의 보살을 봉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갑사 삼세불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첫째로는 보관에 화불을 지닌 관음보살이 없으므로, 관음보살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민머리, 혹은 두건을 쓴 지장보살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미타불의 협시인 관음보살을 생략해가면서 약사여래의 협시보살을 강조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좌측에 위치한 보살의 보관 뒤편에서 ‘미륵’ 묵서명이 확인됨에 따라 비록 그것이 언제 쓰여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보살 4구가 모두 석가모니의 협시로서 화엄에

의한 문수·보현보살, 법화에 의한 제화갈라·미륵보살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갑사가 대웅전에는 석가삼세불을 봉안하고, 또 별도로 괘불은 비로자나삼신불을 봉안한 사례를 통해서도 석가모니의 법화신앙과 비로자나의 화엄신앙을 두루 겸하고자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3. 조각의 양식적 특징과 예술적 가치

갑사 대웅전 소조삼세불상은 조각승 행사(幸思)가 수조각승이 되어 조성한 것이다. 행사는 원래 조각승 각민(覺敏)이 주도한 불사에서 동학사 목조삼세불상을 조성한 바가 있는데, 이는 논산 쌍계사 목조삼세불 다음으로 오래된 현존하는 조선 후기 목조삼세불상이다. 갑사 삼세불상은 동학사 삼세불상 도상의 계승이라 할만하다. 그러나 규모를 대형으로 확대하고 협시보살상까지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의 의의가 더욱 크다.

또한 현재 소실되었지만 순천 송광사 비로자나삼존상 역시 행사가 각민을 도와 제작에 참여한 사례였다. 갑사 소조삼세불은 행사가 최초로 수각승으로 주도한 사례인 셈인데, 그밖에는 기록을 그다지 남기지 않아 행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조각적 우수성으로 보아 그의 조각 전통은 조선 전기양식과 조선 후기양식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갑사 소조삼세불의 조각양식적 특징은 유사한 시기의 대형소조불상들, 즉 선운사나 귀신사상을 조성한 법해·무염, 법주사와 무량사상을 조성한 현진 등의 작품에 비해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기 보다는 단아·단정하면서 차분한 인상을 주고 있어 일종의 절제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불상들에서 자주 보이는 머리가 큰 비례라든가 때로 괴체적이고 풍만한 인상을 풍기는 것과 달리 갑사 소조삼세불은 비례면에서는 얼굴이 작은 편이어서 실제 인체의 비례에 비교적 충실한 편이며, 높은 상체를 통해서도 환칠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입상인 보살상의 경우는 특히나 날씬하면서 안정감을 주는 비례로 조성되었다.

전반적으로 불상은 수인, 보살상은 지물에 있어 변화를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일성 있는 질서와 균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불상의 가슴 아래로 내의가 접힌 부분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 흥미롭다. 아미타불은 옷자락이 마치 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부정형으로 표현되었고, 석가모니는 비스듬한 사선 형식으로, 그리고 약사여래는 부채꼴처럼 주름진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다.

한편 보살들의 보관은 건칠기법이 사용된 매우 정교한 형식인데, 금속제 꽃봉오리 안에 보석을 박아 원래는 매우 화려한 형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금속제 틀 안에 보석을 감입하여 장엄하는 보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의 고려시대 건칠보살상 보관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조선전기에 세종대왕의 아들 등 왕실이 참

여하여 수리가 이루어진 기록이 발견된 대구 과거사 건칠보살좌상 역시 보관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석을 감입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처럼 화려한 보관 장엄을 한 보살상은 드문 사례로서 주목된다.



○조사내용

갑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다포계 맞배지붕의 불전이다. 대웅전은 1604년에 중건되어 1654년과 1876년에 중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불전 내부에는 장방형의 크고 웅장한 수미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흙으로 조성한 삼불·사보살입상을 배치하였다. 후불벽면에는 1730년 의겸스님이 주도하여 그린 석가여래삼세불도(약사여래도는 도난)를 걸었고, 후불벽의 뒷면에는 1665년에 제작된 비로자나삼신괘불탱이 보관되어 있다.

웅장한 수미단 위에 봉안된 삼불상은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측에 약사여래, 우측에 아미타여래를 배치하였다. 보살상은 석가여래 좌우에 각1구, 약사여래 좌측에 1구, 아미타여래 우측에 1구를 배치하였다. 석가여래 앞은 높이는 268.9cm,, 약사여래는 237cm, 아미타여래는 246cm이며, 주존을 조금 더 크게 조성하였다.

삼불·사보살상은 2015년도에 보존처리와 개금불사가 있었고, 당시 방사선 촬영(γ -ray)을 통해 복장 상태가 가장 온전한 형태로 확인되는 약사여래불의 협시보살상(최 좌측보살상)에 대해 복장조사를 진행하자는 자문 의견에 따라 복장조사가 이루어졌다. 복장조사는 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하였다. 발견된 복장유물은 조성발원문을 비롯하여 후령통, 다라니, 전적, 직물편 등 다양한 복장유물이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은 萬曆 45年 丁巳 즉 1617년에 작성된 것인데, 불상 제작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불상 제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는 證明 法正, 畫員(彫刻僧) 幸思·德玄·天潭·熙淳·敬輪·心淨·應梅·性崑·性宗, 佛像大施主 比丘尼 妙聰, 上金大施主 朴興元, 腹莊(腹藏)大施主 趙德龍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 1,27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주자들이 이름을 올렸으며,¹⁰⁾ 여기에 화원 9명, 조연 3명, 숙두 4명, 반두 2명, 별좌 1명, 지전 2명, 중사 1명, 연화 5명, 간선 4명을 더하면 모두 1,301명에 달한다. 불상 제작과 관련된 용어로는 佛像, 上金, 面金, 材木, 腹藏, 裱希, 供養 등이 확인된다.

10) 兩주로 표기된 人名을 두 명으로 환산하면 20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도 419. 공주 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도 420. 석가여래좌상과 좌우협시

삼불상은 모두 팔각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 하였다. 팔각대좌의 족대는 獸足形이며, 족대 밑 부분은 마대를 부착하였고, 족대 사이에는 게 눈각을 세련되게 조각하였다. 중대 궁판에는 구름모양의 안상을 조각하였다. 상·하대의 받침대는 모두 4단으로 구성하였고, 하대목과 상대목에는 경첩을 모각하였다. 팔각대좌 위에는 양련과 복련으로 구성된 연화대좌를 두었다.



도 421. 약사여래좌상과 좌협시



도 422. 아미타불상과 우협시

삼불상의 불신은 여러 개의 나무를 접목해 윤곽을 만든 후 다시 흙을 올려 완성한 소조 불상이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듬직하고 당당한 형태적 특징을 보이며, 흙으로 표현한 주름은 활달한 모습을 띤다. 석가여래상은 변형편단우견에 항마촉지인을 걸하였으며, 좌우측 약사여래와 아미타여래는 이중착의로 법의를 걸쳤고, 수인은 오른손과 왼손의 방향을 달리 하여 서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삼존 모두 왼쪽 무릎에는 옷자락을 크로버 모양으로 처리하였다. 상호의 표현은 대체로 군살이 없는 역삼각형 얼굴에 우뚝 솟은 삼각형의 콧날이 특징이다. 귀는 이륜의 윗부분에 능을 주었고, 상하각 사이의 삼각와는 짧고 굴게 표현하였다. 佛身에는 대의를 두텁게 걸쳐 입었고, 노출된 육신은 차분하게 처리하였다. 대의의 옷주름은 굵고 힘 있는 선묘로 간결하고 시원하게 처리하였고, 주름 선의 깊이도 일정하다. 목깃과 군의자락은 너풀거리듯 처리하여 강직한 옷주름과 대비를 이루도록 하였다.

4구의 보살상은 모두 2단의 화형 보관을 착용하였다. 3구는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보관을 썼으며, 1구(아미타여래의 우협시)는 1930년 日變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보관의 형태는 꽃잎모양을 띠고 있으며, 2단 구조로 제작되었다. 1단은 보관의 主面을 이루고 있는 부분으로, 표면에는 연화당초문을 새겨 넣었다. 2단은 주면의 윗면을 장식한 것으로, 넝쿨무늬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별도로 제작한 화염문을 군데군데 부착하였고, 측면에는 쌍 S자형으로 나부끼는 관대를 달았다. 지물은 두 손으로 연꽃, 여의, 연꽃, 연꽃을 잡았다. 4구의 보살상은 모두 팔각연화대좌에 안치하였다. 대좌는 팔각받침대와 연화대좌로 구성되어 있다. 팔각 받침대는 족대 밑에는 마대를 돌려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족대와 족대 사이에는 게 눈각을 조각하였다. 연화대좌는 둥근 연육부에 날날의 연꽃을 제작하여 삼중으로 중첩하였다.

네 구의 보살상의 상호는 삼불상과 같으며, 머리카락은 닿아 올려 보계를 만들었고, 어깨

위로 드리운 머리카락은 2개의 둥근 고리를 형성하며 두 가닥으로 흘러내렸다. 목에는 세 줄로 길게 늘어진 목걸이를 착용하였다. 이러한 목걸이의 선구적인 예로 이후 다른 조각승으로도 파급되어 17세기 중엽까지 지속된다. 천의는 이중으로 걸쳐 입었고, 주름은 간결하고 요점적으로 처리하였다. 군의는 수평으로 처리하고 상단에는 띠 매듭의 표현이 없으나 무릎 사이로는 두 가닥의 띠 자락을 표현한 점과 앞치마처럼 흘러내린 천의에 두 세 가닥의 골 깊은 주름을 엇갈리게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주름은 1605년 원오가 제작한 익산 관음사 보살입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구의 보살상은보살상의 존명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대체로 석가여래의 좌우에는 문수·보현보살 또는 미륵과 제화갈라보살이 등장할 수 있으며, 약사여래의 좌측에는 일광보살이나 월광보살, 아미타불상의 우측에는 관음보살 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조성된 삼불사보살상을 살펴 보면, 1606년에 조성된 완주 위봉사 삼불사보살상은 협시보살로 문수·보현·관음·지장보살상이 등장하여 약사여래의 협시들이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39년에 제작된 하동 쌍계사 삼불사보살상은 석가·약사·아미타여래 삼불과 일광·월광보살, 관음·대세지보살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703년에 제작된 화엄사 각황전 삼불사보살상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도상명칭이 밝혀진 사례이다. 이곳에서는 석가·다보·아미타여래로 삼불을 구성하고, 석가여래의 좌우에 문수·보현보살을, 다보여래의 좌협시로 지적보살을, 아미타여래의 우협시로 관음보살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도상구성은 法華擧佛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갑사의 삼불은 17세기 유행한 석가·약사·아미타로 구성하여 시·공을 모두 아우르는 신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보살상은 아직까지 존명을 특정할 수 있는 존명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외선 촬영에서 약사여래의 좌측보살상의 보관의 안쪽과 석가여래의 좌측 보살상 보관의 안쪽에서 각각 “左補 彌勒”으로 추정되는 묵서명과 “觀” 또는 “提”로 불만한 묵서가 발견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사보살상의 존명을 확정할 만큼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묵서는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되지 않음)

이 보다 앞서 조성된 석가여래삼불·사보살상은 정확한 규칙없이 당시의 신앙적 상황에 따라 보살상이 선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옷 주름과 착의형식, 삼불사보살상의 도상과 배치형식은 17세기 전반기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고, 불륨이 약화된 역삼각형의 얼굴과 삼각형의 콧날에 있어서는 수조각승 행사의 조각적 경향이 담겨있다. 양 어깨에 걸쳐진 너풀거리며 뒤집은 목깃과 헛바닥처럼 늘어진 군의자락이 특색이 있다. 목깃은 1606년 覺敏의 보조 조각승으로 참여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에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군의자락은 1610년 원오가 제작한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원오와 각민은 석준과 소속의 조각승으로 판단되고, 행사 역시 이들의 조각유파에 속하는 조각승으로 갑사 불상 곳곳에서 선배 조각승들의 영향이 엿보인다.

수조각승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행장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러 곳에서 발견된 단편적인 자료들을 통해 볼 때 16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으로 판단된다. 그가 처음 조선후기 불교 조각계에 이름을 드러낸 1606년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상(수조각승 각민)이다. 이후 1614년 각민이 제작한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에는 두 번째 조각승으로 참여하여 솜씨를 발휘하였고, 3년 뒤 1617년에 진행된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사보살상 조성 때에는 수조각승이 되어 불사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조각적 역량이 무르익었음을 알 수 있다. 아쉽게도 1620-30년대 그의 작품이 확인되지 않으며, 1648년 해남도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의 畫員秩의 첫머리에 師翁 幸思 이어서 養師 無染과 首畫員 海心 순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는 17세기 중엽경 수화원으로 활약한 해심의 실질적인 조각계보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행사의 계보는 후일 무염과 해심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형성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그는 1648년 인균이 수조각승으로 제작한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좌상에서는 시주질에 명단을 올렸고, 역시 1655년 인균이 수조각승으로 췌가한 여수 흥국사 응진당 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 제작 때도 山中碩德秩 이름을 올려 후배 조각승을 후원하였다.

두·세번째 화원으로 이름을 올린 德玄과 天潭은 아직까지 활동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며, 네 번째 화원 熙淳은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首 각민) 제작에 보조(5위)로 참여하였고, 1656년 무염에 의해 제작된 완주 송광사 나한전 소조석가여래삼존 및 16나한상에는 여덟 번째 조각승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송광사 나한상은 조각승의 순위로 봤을 때 同名異人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敬倫은 해남 대흥사 대웅보전 석가여래삼불좌상(首 太顛, 7위)제작에 참여하였다. 여섯 번째 心淨은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1614년, 首 각민, 6위) 제작에 참여하였고,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24년, 首 應元, 3위)에도 참여하였다. 일곱 번째 應梅는 순천 송광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1614년, 首 覺敏, 7위)과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원 김제 금산사 대장전, 1650년, 首)을 제작하였다. 여덟 번째 性崑은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원 김제 금산사 대장전, 1650년, 首 應梅) 제작시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 복장유물

복장유물 조사대상 선정은 방사선 촬영과 육안조사를 토대로 복장 상태와 보존상태가 가장 온전한 약사여래의 좌협시 보살상 대해 복장유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복장유물 조사는 2015년 6월9일부터 2015년 6월10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발견된 복장유물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위탁보관 중이다. 일습으로 조성된 불상의 경우 복장 양상이 비슷하게 安立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나머지 불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장유물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즉 원래 모습 그대로 후대에 전할 필요성과 소조불상의 특성상 무리하게 조사할시 불상에 2차적인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복장유물은 발원문을 비

릇하여, 별도의 검은색 비단으로 싼 곡물과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1388년 필사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1352년), 『묘법연화경』,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1433년) 등과 같은 경전류, 인본다라니(주색, 흑색 2종류), 직물편 등이 다수 발견되었다.

발원문은 선장으로 제작된 것이며 총 11매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은 왕실삼전하의 축수를 시작으로 불상 시주의 대표자 명단을 이어서 나열하였다. 시주자 명단은 모두 1270명(兩主를 두 사람으로 계산하면 2000여명)에 이르며, 승속의 명단이 섞여있다. 발원문의 마지막장에 불상을 직접 조각한 화원들의 명단과 이 불사의 증명한 증명법사, 이 불사를 주관한 화사, 그리고 이 불상을 제작한 시기를 적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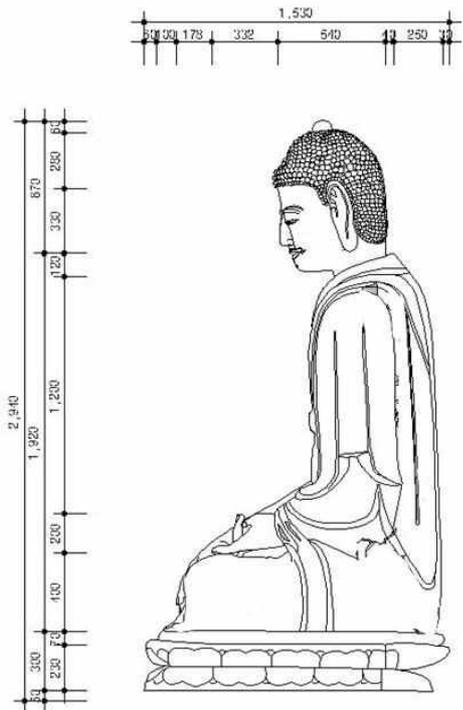
후령통은 황초폭자로 감싸고 후혈 윗부분에서 십자 형태로 묶어 마무리 지은 일반적인 형식이지만, 이를 다시 낱장의 경전으로 한 번 더 감싼 것이 특징이다. 황초폭자의 외면에는 오륜종자를 적었다. 이러한 후령통의 포장방식은 1606년 覺敏이 제작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의 후령통에서도 볼 수 있다. 후령통은 해포할 경우 재안립이 어렵기 때문에 출토 당시의 모습대로 존치하고 있다. 후령통 내 납입하지 못한 물품은 별도의 비단에 싸서 납입하였는데, 고려 후기의 불복장에서부터 조선 후기 복장에 이르기까지 다수 확인되는 바이다.

○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복장유물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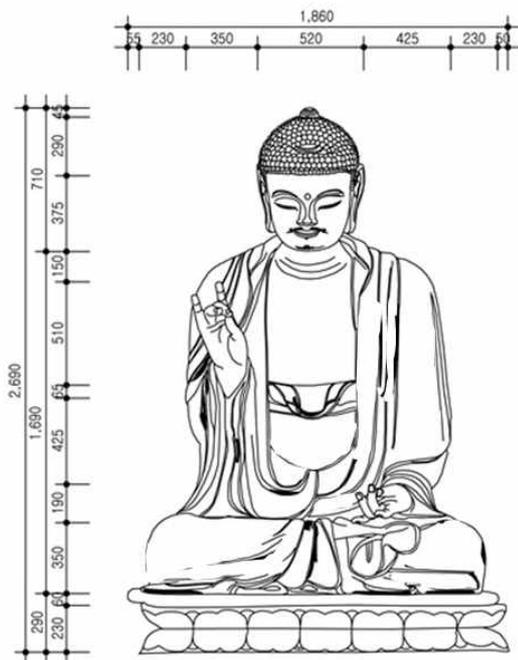
연번	유물명	시기	재질	수량	크기(cm)
1	발원문	1617년	종이	1점	*1.2×37.8 *11매로 구성
2	후령통	조선시대	비단 외	1점	*지름 7.8, 높이 27
3	오보병	조선시대	비단·곡물	1점	*14.5×7.5 *검은색 비단에 곡식을 넣고 포장한 뒤 명주실을 감아 마감함.
4	비단편 및 목부재	조선시대	비단·나무	2점	*비단편 37.8×57.7 *비단편은 용과 용비늘 문양을 시문함 *목부재 길이 85.3
5	묘법연화경 권7	1567년	목판본	3매	*27.7×17.8
6	묘법연화경 권1,2,3,4,5,6	[1573년]	목판본	213매	41.7×50.2
7	다라니	조선시대	목판본	42매 (흑색 33매, 주색 9매))	*38.2×57.0
계	7건 263점				



도 161. 석가여래 실측도(정면)



도 162. 석가여래 실측도(측면)



도 163. 아미타여래 실측도(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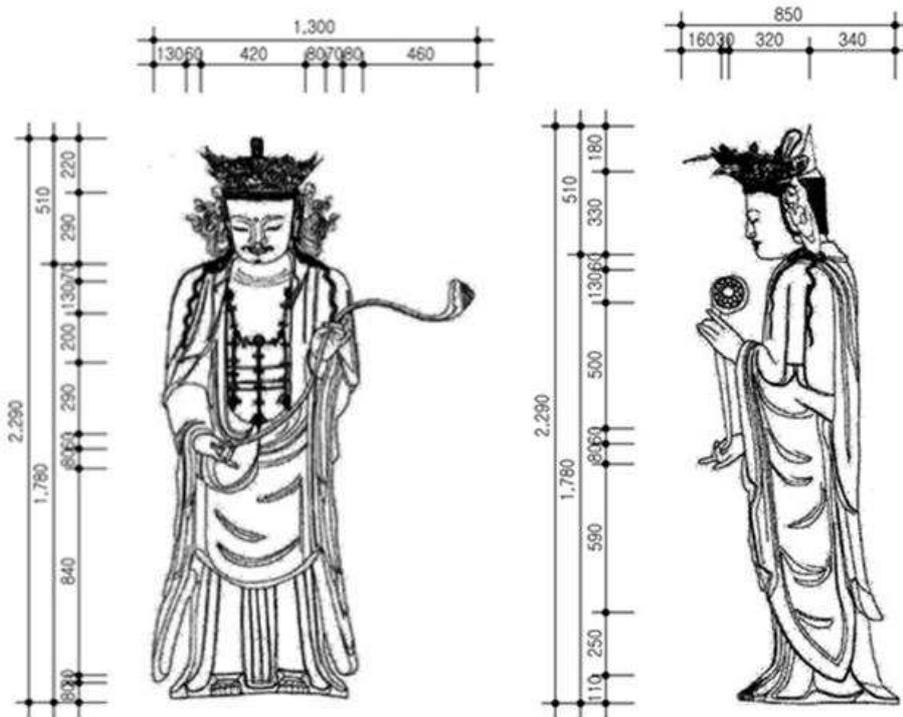


도 4. 아미타여래실측도(측면)



도 165. 약사여래 실측도(정면)

도 4. 약사여래 실측도(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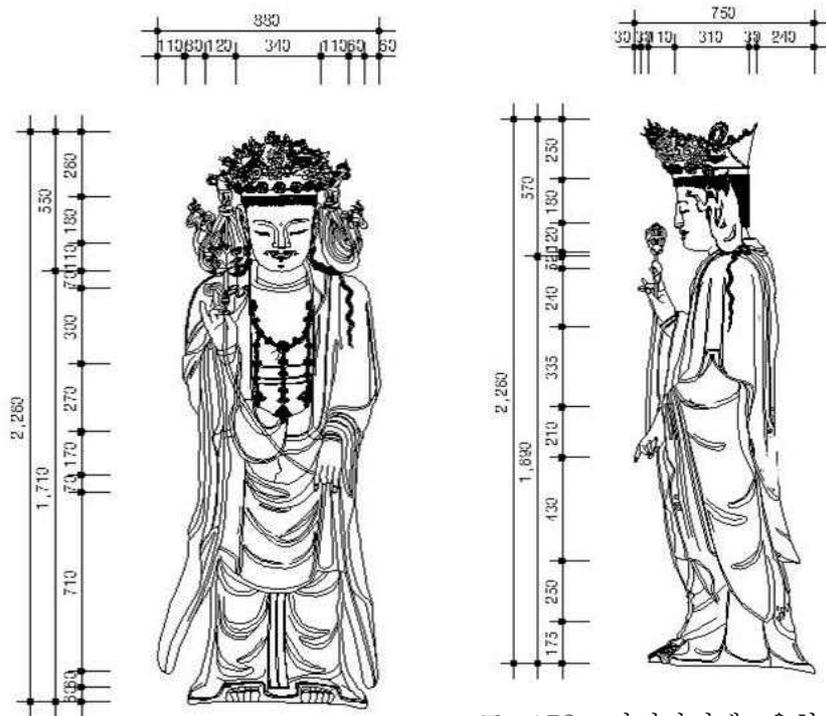


도 167. 석가여래 좌협시(정면도)

도 168 석가여래 좌협시(측면도)



도 169. 석가여래 우협시(정면도) 도 170. 석가여래 우협시(측면도)



도 171. 아미타여래 우협시(정면도)

도 172. 아미타여래 우협시(측면도)



도 173. 약사여래 좌협시(정면도)

도 174. 약사여래 좌협시(측면도)

1) 감사 대응전 소조보살입상 발원문¹¹⁾

(1A)

主上殿下壽萬歲」王妣殿下壽齊年」世子邸下壽千秋」佛像大施主比丘尼妙聰保
 俸」佛像大施主恩德保俸」上金大施主 朴與元兩主」施主 朴效敏兩主」腹莊施
 主 趙德龍兩主」施主 深元保俸」朴象宮保俸」比丘尼惠今」比丘尼寶月」

(1B)

韓元龍兩主」郭友諒兩主」郭銀星兩主」崔莫成兩主」面金施主李氏保俸」上金
 施主河元兩主」頓知保俸」金惠訓兩主」高彥沉兩主」朴有福兩主」腹莊施主金
 敬進兩主」金儀敬兩主」恠之保俸」朴自今兩主」恠男保俸」扶永兩主」崔禮兩
 主」愛敬兩主」¹¹⁾伊保俸」金命世兩主」

學雲比丘」寶正比丘」勝玄比丘」一淨比丘」上云比丘」印千比丘」天機比丘」
 勝正比丘」隱祐比丘」

崔儀忠兩主」金金伊兩主」鄭承吉兩主」辛真兩主」崔彗屎兩主」崔玉田兩主」
 崔得生兩主」得香保俸」高德男兩主」李希望兩主」朴壽命兩主」李淡金兩主」

11) (재)불교문화재연구소·이경주 연구원 석문, 송광사 古鏡 교감

性安比丘(지견)」雪俊比丘」宝安比丘」日旭比丘」天印比丘」信元比丘」德能比丘」戒信比丘」法令比丘¹²⁾」雪慧比丘」真淡比丘」

李者斤水两主」李莫孙两主」盧春鶴两主」滄介保倅」安壽京两主」李化京两主」金千夫两主」咸还福两主」孔元千两主」今还伊两主」幸摩两主」裴仁守两主」金吉成两主」李德良两主」筏成两主」韓己玆两主」忝秋两主」韓六男两主」崔有田两主」朴德伊两主」金亓孙两主」金凱同两主」裴應祥」裴戒生两主」

(2A)

鄭德男两主」𡇗德伊两主」鳳玄两主」永乃两主」韓盡浩」孔界信两主」李崇元两主」金世伊两主」徐吉公两主」咸於水两主」郭春京两主」韓敬立两主」孔原立两主」安貴希两主」洪春希两主」鄭世亦两主」韓氏保倅」洪默伊两主」於朋伊两主」崔大明两主」李忝介两主」

忝生保倅」柵¹³⁾應吉两主」命还两主」李仁伊两主」岩回伊两主」朴氏保倅」金連伊两主」李雲鶴两主」勝福伊两主」李花水两主」崔伊敏两主」詎介两主」朴南伊两主」裴京生两主」金金無赤两主」高應男两主」盧齡男两主」李千祐两主」禹應千两主」李冬志两主」芳仁旺两主」韓鼂男两主」許員鶴两主」今善非两主」

𡇗伊保倅」金金伊两主」朴難伊两主」金夢水两主」李水富两主」李元伊两主」忠實两主」鄭仁孙两主」道星两主」壽今两主」鄭德日两主」鄭吉伊两主」李餘男两主」粉介伊两主」李戒男两主」鄭氏保倅」柵福連两主」令海比丘」乙生保倅」元云水两主」金伊代两主」大德伊两主」吳春卜两主」揆代保倅」

𡇗知保倅」今壽两主」卒德两主」出玉两主」長补伊两主」金敬壽两主」於里介两主」

(2B)

佛像大施主黃敬成两主」佛像大施主李必伊两主」佛像大施主朴世福两主」供养大施主李孝礼两主」佛像大施主金彦希两主」佛像大施主丁夢順两主」供养大施主金龍伊两主」供养大施主林順億两主」上金大施主吳億只两主」上金大施主梁己男两主」上金大施主李禿仲两主」上金大施主朴今金两主」供养大施主尹世良两主」供养大施主彦今保倅」上金大施主愛礼保倅」上金施主趙彦京两主」上金

12)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1615년 首 태전, 4위),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22년, 首 현진, 5위)

13) 柵 : 權의 이체자. 柳의 이체자이기도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權으로만 사용례가 있고, 본문 중에는 柳가 별도로 사용 됨.

施主 衞介两主」面金施主 李千鶴两主」上金施主 業介两主」腹莊施主 金凱文两主」面金施主 風介两主」

上金大施主 朴今金两主」面金施主 林德筏两主」腹莊施主 壬莫失两主」上金施主 金衞致两主」面金施主 李笠孙两主」材木大施主」材木大施主」材木大施主 朴番伊两主」裏菴¹⁴⁾施主 羅士順两主」李京勝两主」李夏孙两主」車貴伊两主」金水伊两主」李衞金两主」李礼信两主」过仇日两主」全券民两主」趙彦同两主」宋文忠两主」菴德伊两主」安記福两主」金揆攝两主」愛雲两主」

韓今同两主」息伊两主」吳應立两主」金补唱两主」白祐孙两主」李者斤金两主」玉代保 倅」粉伊保 倅」柳日萬两主」金海水两主」汝玉伊保 倅」姜洪水两主」淳海保 倅」李氏保 倅」李氏保 倅」

(3A)

衞今保 倅」孔菴同两主」姜息补两主」羅弘伊两主」羅應春两主」宋誥同两主」春伊两主」夏古之两主」文億孙两主」李難守两主」白牛石两主」柳夏方两主」朴植伊两主」衞淳保 倅两主」永介保 倅两主」梁允梅两主」李白只两主」命春伊两主」泉春伊两主」日春伊两主」連代两主」內峯里两主」

戒淳比丘」敬和比丘」戒澄比丘」峯正比丘」三玄比丘」志成比丘」靈雲比丘」仲徽比丘」慧岩比丘」元信比丘」学廉比丘」依信比丘」印暹比丘」守文比丘」性日比丘」德倫比丘」雪仁比丘」智崇比丘」道文比丘」靈隱比丘¹⁵⁾」慧安比丘」印暉比丘」

正日比丘」正还比丘」汰岑比丘」性圭比丘」信祐比丘」靈禪比丘」太浩比丘」信浩比丘」信玄比丘」惠俊比丘」惠元比丘」真日比丘」印玄比丘」淨守比丘」楚雲比丘」双云比丘」日珠比丘」應元比丘¹⁶⁾」勝安比丘」法界比丘」戒照比丘」印和比丘」

普照比丘」並洽比丘」海岑比丘」勝悅比丘」雪岑比丘」文彦比丘」上允比丘」元惠比丘」敬和比丘」玄云比丘」正心比丘」思俊比丘」宗敏比丘」淡和比丘」

14) 菴：布의 오기.

15) 완주 송광사 대웅전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1641년, 수 청헌, 14위)

16) - 보은 법주사 팔상전 재건공사, 1605년, 緣化秩
- 김제 금산사 칠성각 독성상, 1615년, 2위(대전)
-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2위(현진)
-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아미타불, 1624년, 1위
- 순천 송광사 응진당 소조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24년, 1위(송광사사적기)
-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1위, 비파명문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1636년, 4위, 화엄사사적기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惠照比丘」一淳比丘」思允比丘」思淳比丘」奉鶴保倅」真守比丘」信日比丘」
惠安比丘」

(3B)

戒俊比丘」玉淳比丘」幸悅比丘」学淳比丘」仅玉比丘」敬淳比丘」卓令比丘」
天淳比丘」令日比丘」靈圭比丘¹⁷⁾」玄真比丘¹⁸⁾」唯正比丘」明隱比丘」仅能比
丘¹⁹⁾」宗印比丘」淡守比丘」学連比丘」天日比丘」德林两主」仁京两主」李世
同两主」滄德两主」

白晝現两主」高元同两主」福汗两主」补春两主」金億只两主」趙守口两主」德
知两主」金大必两主」金千上两主」李韶同两主」李吳立两主」金億万两主」九
月保倅」於里介保倅」守德伊两主」文今两主」朴夢补两主」李今春两主」李余
男两主」金泉孙两主」金日龍两主」莫終伊两主」黃德伊两主」

尹鶴伊两主」今伊保倅」崔奉益两主」崔奉还两主」萬福伊两主」李仁世两主」
玉真保倅」長夏屎两主」朴頓卜两主」欣春伊两主」石忠男两主」金得龍两主」
少玉保倅」永卜两主」富己伊两主」宋同伊两主」莫知两主」大春两主」孝男两
主」守今两主」林洒水两主」金香水两主」金命伊两主」

方齡同两主」李齡同两主」李應恪两主」朴何补两主」鄭自信两主」揆音德保
倅」金忠己两主」秋尹补两主」朴希億两主」金韶水两主」洪代保倅」姜加之里
两主」今德伊两主」朴忠卜两主」朴晝卜两主」愛春伊两主」朴韶同两主」宋上
月两主」種伊保倅」李龍尙两主」洪卜伊两主」惠德伊两主」姜鶴孙两主」

(4A)

林福男两主」齋今保倅」善伊保倅」姜万卜两主」少玉保倅」韓連水两主」粉代
保倅」元旺保倅」上巨非两主」延梅伊两主」夏非两主」梁伊间两主」梁齋尙两
主」石莫同两主」石吉伊两主」鄭男伊两主」福代保倅」李氏保倅」

17)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1위

18) - 장성 백양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07년, 1위

- 함양 상련대 목조보살좌상, 1612년, 1위, 上員

- 구례 천은사 목조관음세지보살좌상, 1614년, 1위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22, 1위

- 보은 법주사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1위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1위

- 창녕 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29년, 1위

-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1633년, 1위

- 적천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33년, 1위

- 성주 명적암 영남대 박물관소장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39년, 1위

19) - 함양 상련대 목조관음보살좌상, 1612년, 3위(현진), 次員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趙氏保倅」李氏保倅」李宝男兩主」李雲龍兩主」金彦己兩主」守慧比丘」學閑比丘」學連比丘」印千比丘」玉明比丘²⁰⁾」法還比丘」三梅比丘²¹⁾」法岑比丘」應明比丘」廣允比丘」宝明比丘」千水比丘」法正比丘」淡守比丘」印文比丘」貞敏比丘」應連比丘」祖軒比丘」信還比丘」尚淳比丘」智俊比丘」性宝比丘」元惠比丘」信贊比丘」佛仁比丘」覺惠比丘」罔珠比丘」仅悅比丘」守卓比丘」澄願比丘」明休比丘」戒允比丘」仲玄比丘」信日比丘」淡淨比丘」性明比丘²²⁾」勝暉比丘」靈機比丘」明允比丘」守日比丘」尚澄比丘」印浩比丘」惠唯比丘」垣熙比丘」仅敏比丘」懶默比丘²³⁾」印暹比丘」芳會比丘」戒林比丘」道日比丘」妙尚比丘」雲祐比丘」尚祐比丘」慧正比丘」熙安比丘」宗祐比丘」德均比丘」印宝比丘」法澄比丘」彦和比丘」生益比丘」性覺比丘²⁴⁾」

(4B)

1

談敏」敬熙」信悟」仅光」開元」浩徹」智勝」現真」法尚」伏仁」道均²⁵⁾」勝日²⁶⁾」惠云²⁷⁾」思彦」順梅」勝悅²⁸⁾」熙仁²⁹⁾」幸唱」尚叩」龍云」

-
- 20)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비로자나불좌상, 1622년, 4위(현진)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 21) - 보은 법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8위
 - 함양 법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 1664년, 前住持 雪梅, 化土
 - 함양 백운암 목조아미타불좌상, 1674년, 6위(성조)
- 22)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 고흥 능가사 목조약사불좌상, 1653년, 2위(희장)
- 23) -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삼신불좌상, 1636년경, 대화사(청헌)
 -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 1664년, 門弟
- 24) - 보은 법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9위(현진)
- 25) - 해남 도장사 목아미타불, 1648년, 10위(해심)
 - 전주 송광사 나한전 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3위(무염)
 - 고창 문수사 목지장시왕상, 1654년, 5위(해심)
 - 부여 무량사 삼전괘, 1654년, 화원3위(철학)
- 26) - 서울 동대문 지장암 대웅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治匠 2위(성욱, 현진), 勝一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2위(현진)
 - 경남 창령 관룡사 대웅전 목삼세불상, 1629년, 2위(현진)
 - 밀양 표충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34년추정, 1위
 - 전북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삼세불, 1635년, 2위(무염)
 - 경남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삼세불, 1639년, 2위(청헌) 勝日
 - 성주 명적암 영남대 박물관소장 목아미타불좌상, 1639년, 2위(현진)
 - 천은사수도암 목아미타불 및 대세지보살상, 1646년, 1위, 勝日.

2

印还」智先」惠會」性和」惠岑」太和」大俊」永俊」幸衍」三正」文彦³⁰⁾」法招」先覺」海允」浩云」宋默」德敏³¹⁾」洪真」汗梅」敬熙」敬先³²⁾」双俊」

3

處訓」雪崇」智安³³⁾」双招」敬和」守淨」仁俊」道訢」双默」碧雲」明印³⁴⁾」天然³⁵⁾」道闲」戒淳」幸和」尙祐」慧明」印浩」勝圭」三学」宝淨」

4

信軒」妙訓」道能」勝悟」善會」性澄」幸思³⁶⁾」法能」無善」特祐」崇悟」雲什」天敏³⁷⁾」淨明」太軒」忍修」道珠」天照」宝胤」法还」크梅³⁸⁾」

- 강진 정수사 목삼불상, 1648년, 1위
- 서울 봉은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1년, 1위(勝一)
- 무주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1위(勝一)
- 문경 김룡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8년, 1위(勝一)
- 서울 청룡사 명부전 석지장 및 시왕상, 1660, 1위, 원경북
- 칠곡 송림사 명부전 석삼장 및 시왕상, 1665년, 1위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68년, 1위(勝一)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보살좌상, 1688년, 1위(勝一)
- 김천 고방사 목아미타삼존불, 1670년, 1위(勝日)
- 27) - 부여 무량사 승정9년명동중, 1636년, 畫員3위(정우), 惠云
- 고흥 능가사 불상 발원문, 1639년, 11위(운혜)
- 28) - 고창 문수사 목조지장시왕상, 1654년, 8위(해심)
- 29) - 고흥 금담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51년, 3위(휴일)
- 30)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길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668년, 5위(승일)
- 김천 직지사 비로전 목조보살좌상, 1668년, 5위(승일)
- 31) - 고흥 금담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59년, 6위(삼인)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길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碑陰 通政
- 32) - 김천 직지사 강원 목조석가모니불좌상, 1648년, 4위(현윤)
- 구미 원각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49년, 9위(희장)
-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62년, 10위(혜회), 敬禪
- 33) -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48년, 4위(승일)
- 34) - 고흥 금담사 목아미타여래삼존불, 1651년, 9위(휴일)
- 35) -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 1628년, 10위(응원), 비파묵서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기
- 36) - 공주 동학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06년, 3위(각민)
- 순천 송광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1614년, 2위(각민)
- 해남 도장사 목아미타불, 1648년, 師翁(해심)
- 여수 흥국사 무사전 목조지장시왕상, 1648년, 시주(인균)
- 여수 흥국사 응진당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상, 山中碩德(인균)
- 37) - 대구 동화사 금당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1629년, 3위(현진)
- 창녕 관룡사 대웅전 목삼세불상, 1629년, 3위(현진)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기

5

彦和」永林」学軒³⁹⁾」惠真」天印」守日」信普」法淨⁴⁰⁾」太元⁴¹⁾」天鑑」永彦」
双林」海淳」正行」尙云」敏还」日見」妙叩」双淳」真淳」勝旭⁴²⁾」熙尙」

6

法雲」幸和」学倫」戒还」會海」性海」一雲⁴³⁾」悅性」無峯」印淡」惠明⁴⁴⁾」
印思」惠鑑」敏还」宗允」尙澄」**正玄⁴⁵⁾**」文徹」處仁⁴⁶⁾」海允」

(5A)

李京勝两主」李丕孙两主」車貴伊两主」李永伊两主」李忞金两主」全億成两
主」过仇日两主」全养民两主」趙彦同两主」宋文忠两主」菴德伊两主」安記福
两主」金揜攝两主」愛云保倅」李德伊两主」每香保倅」金唵福两主」崔岩安两
主」金連水两主」梁罷作两主」金大千⁴⁷⁾两主」
金焉官两主」金仅立两主」古銀里两主」金岩田两主」柳順伊两主」覺終伊两
主」姜一男两主」孔云伊两主」今福伊两主」金伊同两主」金忞世两主」金剋世

-
- 38) - 보은 법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8위
- 함양 법인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 보은 법주사 벽암대사비, 1664년, 前住持 雪梅, 化士
 - 39) - 해남 서동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1650년, 4위(운혜)
 - 40) -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소조삼존불좌상, 1634년, 大化士(법해)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기
 - 41) - 구례 친은사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 및 대세지보살상, 1646년, 3위(승일)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 42) - 곡성 도림사 보광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65년, 證師
 - 43) - 남원 선원사 소조지장시왕상 일부 존상 보결, 1645경, 2위(도색)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1650년, 시주질(응매), 一云
 - 44) - 충북 보은 법주사 대웅전 소조삼신불좌상, 1626년, 11위
- 전남 고흥 금탑사 목아미타삼존불, 1651년, 7위(휴일)
- 경남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57년, 영규, 시주질
 - 45) - 고흥 능가사 불상 발원문, 1639년, 證明, 碧川正玄
-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불좌상, 1648년, 大德 正玄
- 영광 불갑사 명부전 목조지장시왕상, 1654년, 尺 2위
- 순천 송광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62년, 3위(혜희, 특기되어 있음)
-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 1663년, 비음기
- 고흥 능가사 응진당 목조석가삼존 및 16나한상, 1685년, 大禪師創建主 正玄靈駕
- 고흥 능가사 홍양팔영산능가산사적비, 1690년, 大樓創主 碧川 正玄, 毘盧菴 創主 碧川正玄
- 고흥 능가사 범종, 1698년, 棚主先大師 正玄
 - 46) - 속초 신흥사 목아미타불 및 지장시왕, 1651년, 11위(무염)
- 고창 문수사 목지장시왕상, 1654년, 14위
-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목조관음보살좌상, 1655년, 20위(혜희)
 - 47) 大千 : 원문은 千大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两主」李春方两主」金應男两主」張昶仇之两主」張昶同两主」朴伊福两主」李
补男两主」愛石伊两主」趙大德两主」馮白伊两主」愛云保倅」韓彦春两主」
李𠄎金两主」李礼信两主」河貴伊两主」朴世安两主」懿德保倅」金懿山两主」
朴莫同两主」林雨深两主」李卜伊两主」文代保倅」安知安两主」金順男两主」
金介山两主」林忠石两主」李夢石两主」朴莫失两主」李難伊两主」金七山两
主」金命卜两主」朴貴闲两主」李石介两主」裴奉孙两主」李界两主」
孔介春两主」張厚失两主」朴萬世两主」張命卜两主」銀代保倅」李莫金两主」
金吾音金两主」柳俊風两主」春代保倅」𠄎德保倅」𠄎代保倅」順代保倅」莫介
保倅」貴接保倅」云非保倅」金安保倅」張七同两主」金浩两主」金彦珠两主」
林汗同两主」金金伊两主」金仁會两主」

(5B)

金命龍两主」文成立两主」文敬林两主」李莫金两主」李德水两主」蜜陽保倅」
昶春两主」士今保倅」金九立两主」𠄎代保倅」李每邑金两主」朴連伊两主」敬
代保倅」𠄎非两主」金懿金两主」張彦己两主」金京伊两主」李順香两主」𠄎金
两主」金同知两主」昶非保倅」
金長應两主」金玉千两主」李昶春两主」水介保倅」朴彦希两主」吉揆音石两
主」鄭彦風两主」李补壽两主」春水两主」朴今石两主」於里介两主」趙宝两
主」李懿山两主」李春風两主」李莫後两主」朴立春两主」莫今保倅」信希保
倅」龔今保倅」姜福壽两主」李非郎两主」
金與水两主」金億終两主」四月保倅」張大男两主」朴氏保倅」文宝巾两主」白
守两主」金春尙两主」高春补两主」金𠄎世两主」朴米伊两主」命春两主」金知
宝两主」李古音两主」金今守两主」李补男两主」𠄎德伊两主」朴春伊两主」里
代两主」智盈两主」崔彦男两主」安知立两主」
金希同两主」韓龔山两主」李𠄎尿两主」宋順中两主」張仁伊两主」李善伊两
主」鄭昶同两主」黃仁世两主」宋金伊两主」進代两主」張莫同两主」宋𠄎金两
主」龍德伊两主」姜允玄两主」吳過守两主」过世仁两主」李揆音同两主」金平
伊两主」屯代保倅」卜介保倅」金玉連两主」何奉斤两主」

(6A)

李笠生两主」懿真两主」芮者斤金两主」朴戒男两主」鄭朴伊两主」高𠄎金两
主」朴勝男两主」愛鳳伊两主」玉介保倅」朴仅男两主」朴夢补」鄭軍同两主」
金揆音石两主」金每仁两主」李昶守两主」李良守两主」𠄎非两主」分代保倅」
崔鶴連两主」難春伊两主」朴石男两主」

神夏屎兩主」世今保倅」洪士男兩主」金順元兩主」順介保倅」金貴閑兩主」孫貴千兩主」神命斤兩主」文尙男兩主」林莫同兩主」李春發兩主」李寂男兩主」母老介兩主」李揆音山兩主」金長水兩主」金莊伊兩主」金恠峯兩主」林貴連兩主」裴奉孫兩主」朴順伊兩主」裴天河兩主」信山仆兩主」丁齡卜兩主」金正男兩主」金應男兩主」朴異奉兩主」李蓉同兩主」朴石伊兩主」朴有連兩主」淨德伊兩主」金守難兩主」朴彥伊兩主」奉春伊兩主」金揆音世兩主」金順連兩主」李卜丁兩主」滄傑兩主」姜滄沙里兩」安哲水兩主」金男伊兩主」徐元孫兩主」李洪伊兩主」金氏愛禮兩」金馬大妣兩主」丁應吉兩主」洪京伊兩主」長夏金兩主」

金世柵兩主」金岩回兩主」朴補壽兩主」車莫同兩主」冬天及兩主」柳卜男兩主」德只保倅」長開面兩主」春月保倅」崔卜伊兩主」裴舜傑兩主」耄斤代保倅」李莫金兩主」李卜同兩主」高補山兩主」片豐注之兩主」李壽延兩主」朴投伊兩主」李世伊兩主」壽非兩主」禹敬臣兩主」李金剛兩主」

(6B)

朴成男兩主」金德孫兩主」萬非保倅」李今同兩主」金恠龍兩主」銀玉伊兩主」朴龍介兩主」林應水兩主」鄭卒同兩主」林卜伊兩主」趙德明兩主」鄭開春兩主」趙日難兩主」李億龍兩主」全代保倅」金春卜兩主」孔雲起兩主」李山伊兩主」金億萬兩主」李世同兩主」地敬男兩主」

金悟先兩主」丁貴介兩主」朴思仅兩主」滄德兩主」金彥世兩主」李惡金兩主」開春伊兩主」金順良兩主」玉伊保倅」朴滄同兩主」朴禾伊兩主」皮終卜兩主」李萬壽兩主」億輦保倅」車倫兩主」安山真兩主」𠵿伊兩主」黃順良兩主」金億只兩主」鄭開春兩主」金𠵿和兩主」金石孫兩主」禹難兩主」

李萬壽兩主」洪彥壽兩主」金銀閑兩主」柳石孫兩主」愛非保倅」朴永卜兩主」姜岩回兩主」俱永卜兩主」朴代保倅」粉德伊兩主」李夏屎兩主」鄭仅信兩主」順介保倅」金己生兩主」李敬秋兩主」金彥介兩主」」都長石兩主」卜代保倅」朴大倫兩主」金萬同兩主」長敏吳兩主」今伊兩主」金壽萬(方)」

自德兩主」崔允同兩主」悟乃保倅」銀介保倅」姜千非兩主」李漢德兩主」齡真介兩主」申孫伊兩主」永非兩主」李少兩主」連介兩主」池認金兩主」今德伊兩主」朴崑夏屎兩主」芳文玉兩主」李夢男兩主」金端仅兩主」朴許龍兩主」億非保倅」奉介保倅」莫春兩主」九月兩主」卒德兩主」

(7A)

六士願兩主」昌伊兩主」李希宗兩主」金卜千兩主」崔仅男兩主」鄭揆伊兩主」

香介两主」有德两主」毘屎两主」朴河申两主」德介两主」介今两主」金熙两主」朴忝世两主」李順介两主」朴水難两主」金水難两主」李齡金两主」李金伊两主」林德仁两主」林德金两主」朴还伊两主」
 丹風金两主」姜得芘里两主」姜必万两主」貴仁伊两主」金大卜两主」卜介保倅」鄭洪斤两主」趙先宗两主」申卜伊两主」長允希两主」姜数少两主」姜孟春两主」朴春伊两主」鄭應京两主」金齡补两主」金德龍两主」洪春失两主」吳春同两主」白業同两主」崔能世两主」梁德水两主」礼願两主」
 朴萬金两主」金貴男两主」崔成福两主」水難两主」莫介保倅」李靛山两主」李雄男两主」姜福伊两主」朴仁希两主」朴敬男两主」柵應文两主」林春筏两主」林大明两主」金德水两主」丁萬夫两主」丁應吉两主」金春龍两主」全連金两主」朴元信两主」李先會两主」尹夢石两主」宋丹秋两主」
 崔石两主」洪滄同两主」鄭汗水两主」屯^ㄱ代两主」秋世伊两主」李軍同两主」春林两主」李世進两主」鄭春伊两主」金盈卜两主」長春宝两主」过山伊两主」金應真两主」揆音莊两主」金玉同两主」金彦同两主」金老重两主」姜允宝两主」朴無里山两主」白芻屎两主」林永立两主」朴泉石两主」

(7B)

吳難水两主」朴芻金两主」能福伊两主」山石伊两主」朴真伊两主」白仁好两主」水德伊两主」長居士两主」金仁世两主」芻介两主」幸唯保倅」金莫山两主」金敬男两主」金大願两主」戒陽两主」芻非两主」金希水两主」崔得方两主」金己連两主」鄭鉄斤两主」徐應男两主」金^ㄱ石两主」
 趙大方两主」奴日男两主」齡石两主」大龍两主」金芻希两」金銀金两」丁允年两」洪龍两主」春德两主」金敬男两主」金安春两主」金水万两主」李^ㄱ同两主」尹應秋两主」朴水男两主」崔忝同两主」春石伊两主」忠介保倅」朴立伊两主」尹己信两主」滄德两主」億介两主」
 全連伊两主」朴仁水两主」高平石两主」李花伊两主」金世浩两主」崔仁世⁴⁸⁾两主」寒己水两主」崔應男两主」徐應吉两主」丁仁乃两主」丁進希两主」金失夢两主」金千水两主」金文世两主」朱云鶴两主」朴仅信两主」金旭两主」禾春伊两主」金齡福两主」曹忝同两主」金成連两主」吕仁孙两主」
 郭寒路两主」李無金两主」朴金伊两主」金連水两主」李古邑金两主」安難宗两主」洪己伊两主」己春伊两主」尙德伊两主」文孟希两主」文應真两主」朴億水两主」李士男两主」趙福明两主」崔進難两主」崔希补两主」崔齡卜两主」李忝男两主」金餘光两主」吳夢端两主」^ㄱ德两主」

48) 仁世 : 원문은 世仁이나 환치부호를 사용하여 수정

(8A)

黃終男兩主」 崧山兩主」 𠵿介兩主」 朱億卜兩主」 韓少男兩主」 朴小吉兩主」 金石文兩主」 金師願兩主」 裴水還兩主」 莫代保倅」 黃夏屎兩」 崔十五兩主」 金凱補兩主」 禹俊立兩主」 柳補伊兩主」 杲德伊兩主」 金靛音兩主」 多仲同兩主」 多銀卜兩主」 李紹孫兩主」

徐補世兩主」 粉伊保倅」 金失男兩主」 金信文兩主」 李彥世兩主」 朴西小兩主」 朴己山兩主」 朴𠵿世兩主」 莫今保倅」 萬非保倅」 李氏保倅」 黃仁卜兩主」 金應男兩主」 崔進伊兩主」 姜愛龍兩主」 李兪屎兩」 金德春兩」 羅淨水兩主」 李風連兩主」 金卜林兩主」 金大仁兩主」

李愛男兩主」 朴奉鶴兩主」 金連雨兩主」 朴壽萬兩主」 崔夏無金兩」 長水希兩主」 金銀生兩主」 黃春伊兩主」 柳敬春兩主」 長卜伊兩主」 李日男兩主」 李應伊兩主」 李莫孫兩主」 金石真兩主」 洪夢世兩主」 吳必伊兩主」 羅兪同兩主」 李夢伊兩主」 德成介兩主」 李洪金兩」 丁仲補兩」

李揆音卜兩主」 禹戒相兩主」 崔銀伊兩主」 白汗卜伊兩主」 車菴芝兩主」 金山伊兩主」 長安山兩主」 金尙同兩主」 金希江兩主」 朴補伊兩主」 姜彥水兩主」 李永春兩主」 柳永男兩主」 金士文兩主」 金貴孫兩主」 今種伊兩主」 壽代兩主」 金崧金兩主」 三月保倅」 姜應男兩主」 高欣同兩主」

(8B)

李後并兩主」 李種伊兩主」 金無金兩主」 金應竜兩主」 應男兩主」 安諒良兩主」 崔應卜兩主」 金尙傑兩主」 朴𠵿鶴兩主」 吳莫孫兩主」 全養民兩主」 鄭大水兩主」 韓石佛兩主」 姜莫同兩主」 貴介保倅」 金水孫兩主」 梁靛作兩主」 進德伊兩主」 順代兩主」 金岩回兩主」

金二同兩主」 金億連兩主」 朴滄同兩主」 李凱文兩主」 山代保倅」 愛奉保倅」 忠日保伏⁴⁹⁾」 李夢世兩主」 林江伊兩主」 朴甘音金兩」 金伊保倅」 𠵿連伊兩主」 韓鉄水兩主」 金厚男兩主」 崧金兩主」 香春保倅」 春玉保倅」 壽非保倅」 希非保倅」 林順應兩主」 金福唱兩主」

金知春兩主」 金二名兩主」 孫億孫兩主」 趙延伊兩主」 金守江兩主」 吳億補兩主」 分代保倅」 德水保倅」 金業伊兩主」 金今守兩主」 鄭九孫兩主」 李崧金兩主」 林彥相兩主」 林守仁兩主」 崔夢丁兩主」 漢代保倅」 金命兩主」 雪菴比丘」 性胤比丘」 戒尙比丘」 德祐比丘」 文彥比丘」

光雲比丘」 双淳比丘」 世照比丘」 印天比丘」 靈祐比丘」 天機比丘」 守文比丘」 戒信比丘」 印鑑比丘」 仅悅比丘」 仁俊比丘」 信能比丘」 省年比丘」 世風比丘」 弘惠比丘」 智海比丘」 勝旭比丘」 靈俊比丘」 大非保倅」 朴仁守兩主」

49) 伏：体的 오기

(9A)

法寬比丘」仅俊比丘」戒仅比丘」惠元比丘」处真比丘」道敬比丘」春梅保倅」
淨浩比丘」雪俊比丘」宝希比丘」淨淳比丘」法倫比丘」双日比丘」祖日比丘」
信裕比丘」金生伊」李得男」甘朴男」吳一連」
張命真两主」柸大英两主」韓有良两主」裴億男两主」崔仇之两主」春伊保倅」
山會保倅」法見比丘」信能比丘」日真比丘」勝思比丘」智和比丘」李先两主」
金_ㄱ补两主」金_ㄷ同两主」朴彦信两主」李_ㄷ屎两主」銀今保倅」金欣福两主」
南美信两主」鄭男伊两主」召里伊两主」金彦伊兩主」崔命石两主」韓_ㄷ孙两
主」黃成器两主」刘山卜两主」李海水两主」李凱文两主」徐元石两主」朴彦水
两主」莫介保倅」鄭勝吉两主」_ㄱ德两」鄭德元两主」曹玉山两主」金有成两
主」宋化保倅」
李_ㄷ音卜两主」趙旺方两主」徐彦水两主」姜春夫两主」愛重保倅」長巨孙两
主」彦介保倅」莫代保倅」金春养两」鄭延水两」彦今保倅」朴記伊两主」玉代
保倅」朴水吉两主」壽春两主」徐成旺两主」_ㄱ代两主」梅春两主」朴永卜两
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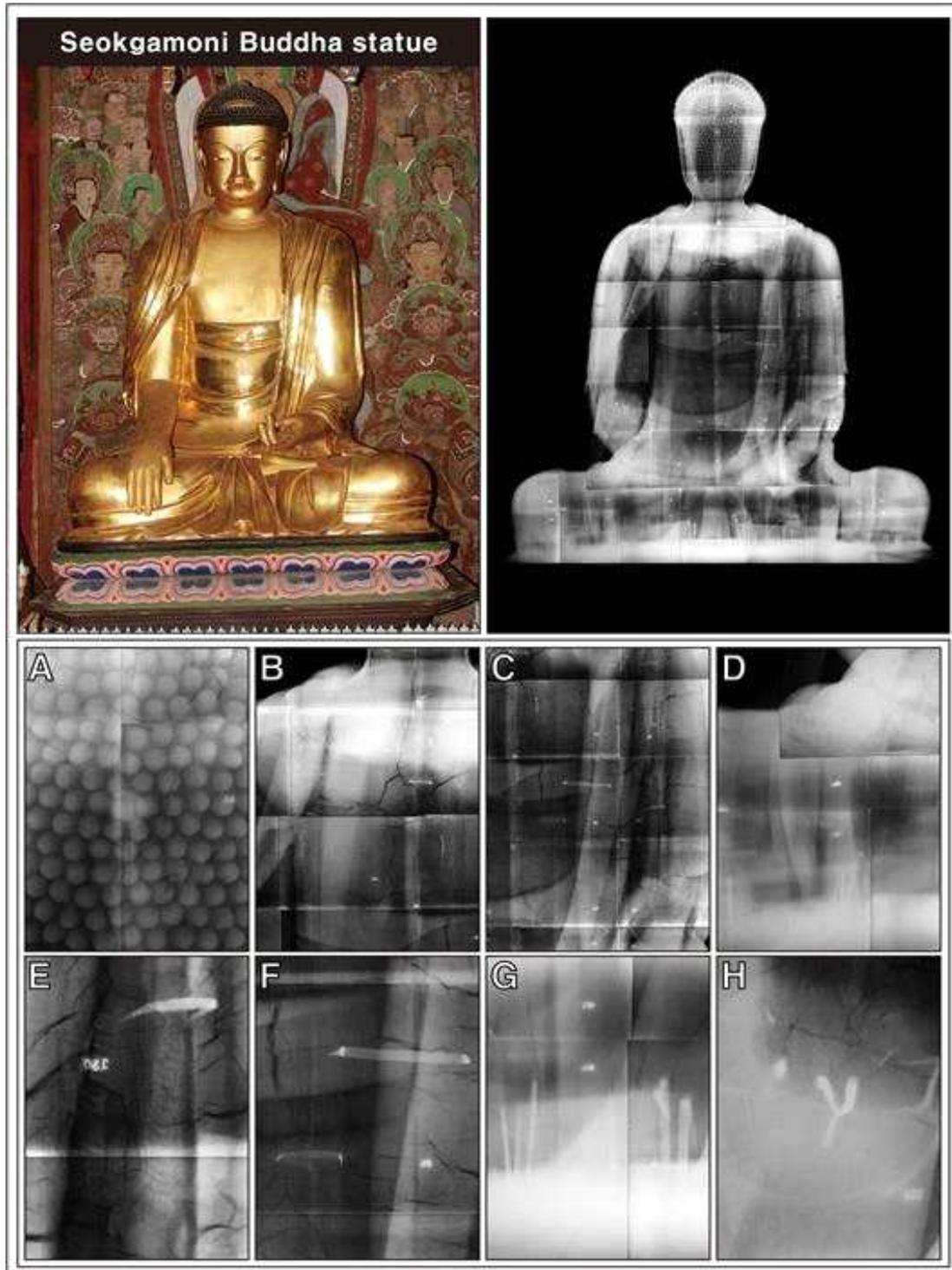
(9B)

畫負」幸思比丘」德玄比丘」天潭比丘」_ㄷ淳比丘」敬倫比丘」心淨比丘」應梅
比丘」性豈比丘」性宗比丘」助緣」仅甘比丘」真守比丘」云食比丘」熟頭」日
淨比丘」惟瓊比丘」慧敏比丘」法日比丘」飯頭」玉仁比丘」悵信比丘」別坐」
剋真比丘」持殿」暎會比丘」寶真比丘」證師」法正比丘」緣化」金彦京」全_ㄷ
福」智寬比丘」印垣比丘」雲敏比丘」幹善道人」玄印比丘」双翊比丘」德耳比
丘」幹善道人」性安比丘」萬歷四十五年丁巳⁵⁰⁾十月日雞龍山岬寺佛像畢造」

50) 萬歷四十五年丁巳：1617년. 歷은 曆의 오기.

<참고>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사보살입상 감마선 촬영사진⁵¹⁾
 가. 소조석가여래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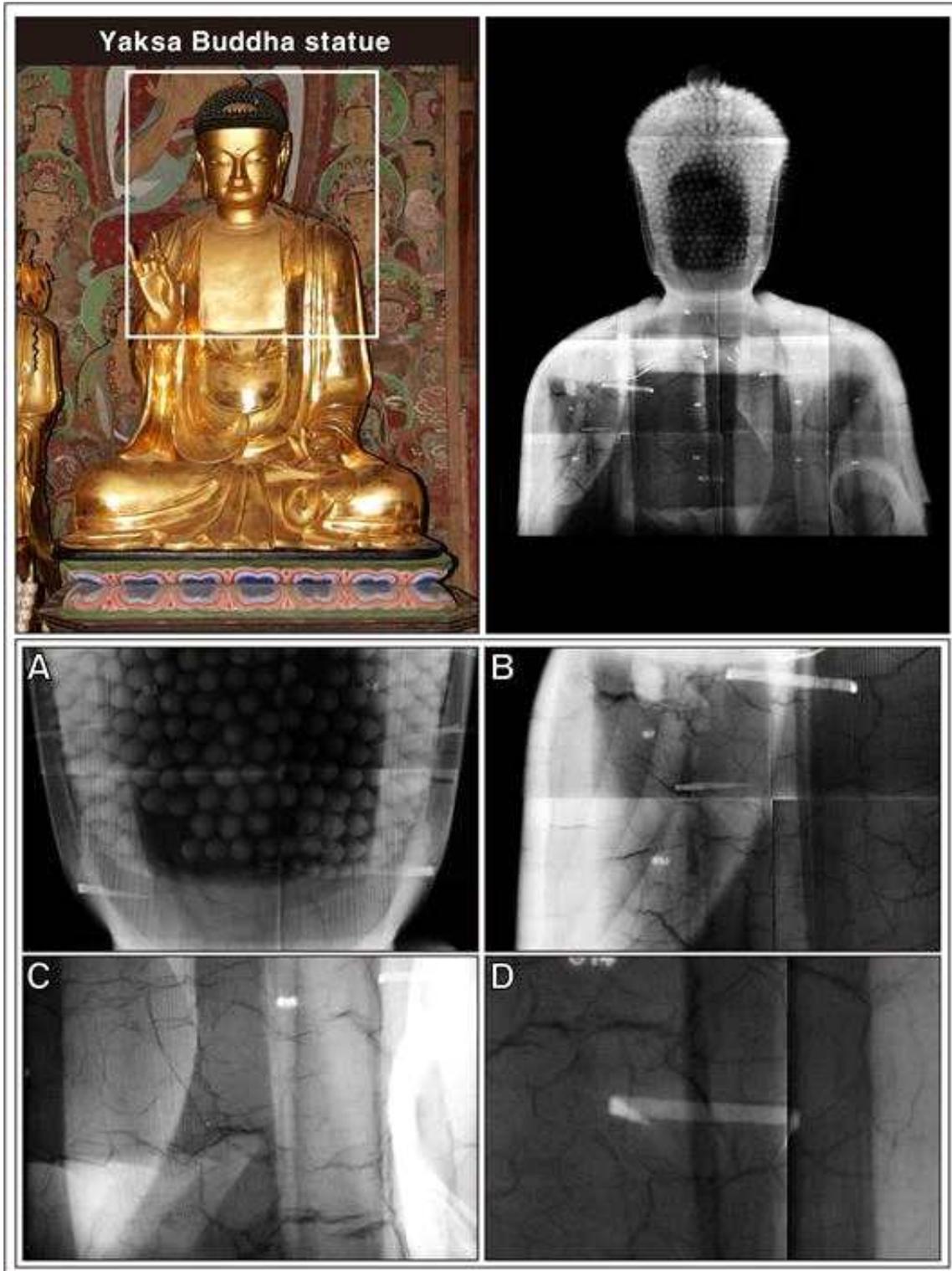
[사진 5-26] 소조석가여래좌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51) 본 감마선 촬영사진은 공주대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조사보고서 사진을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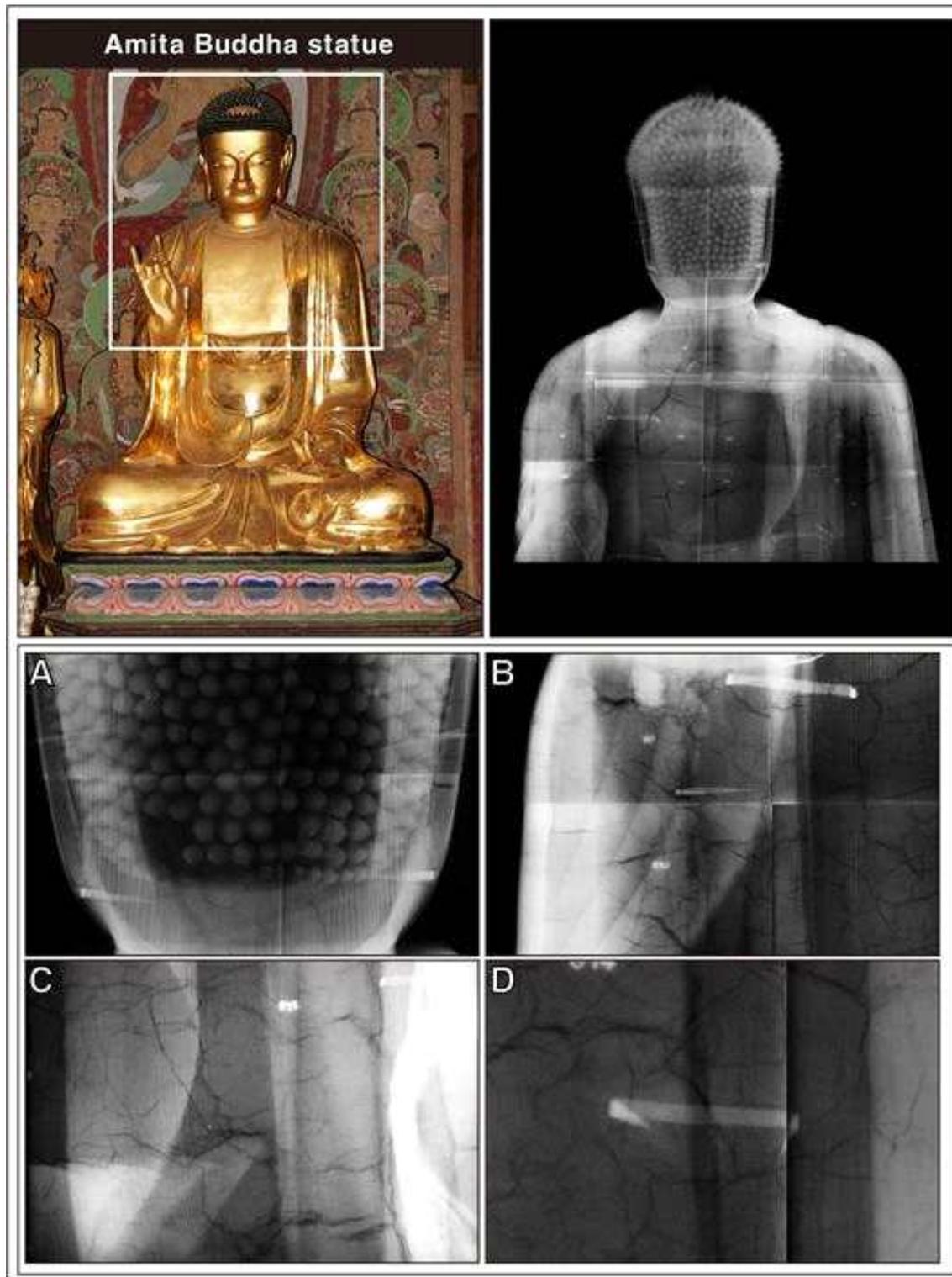
나. 소조약사여래좌상

[사진 5-27] 소조약사여래좌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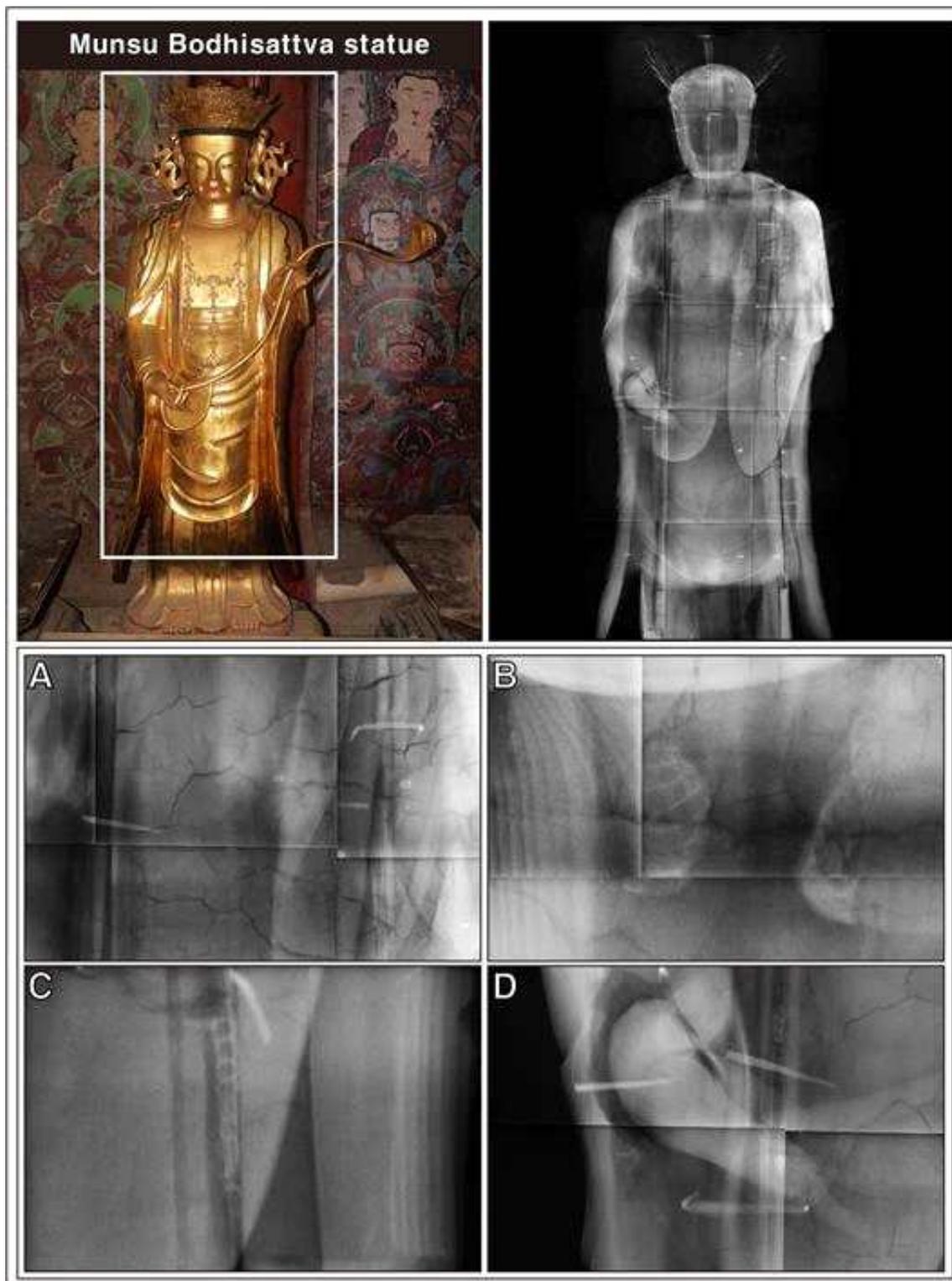
다. 소조아미타여래좌상

[사진5-28] 소조아미타여래좌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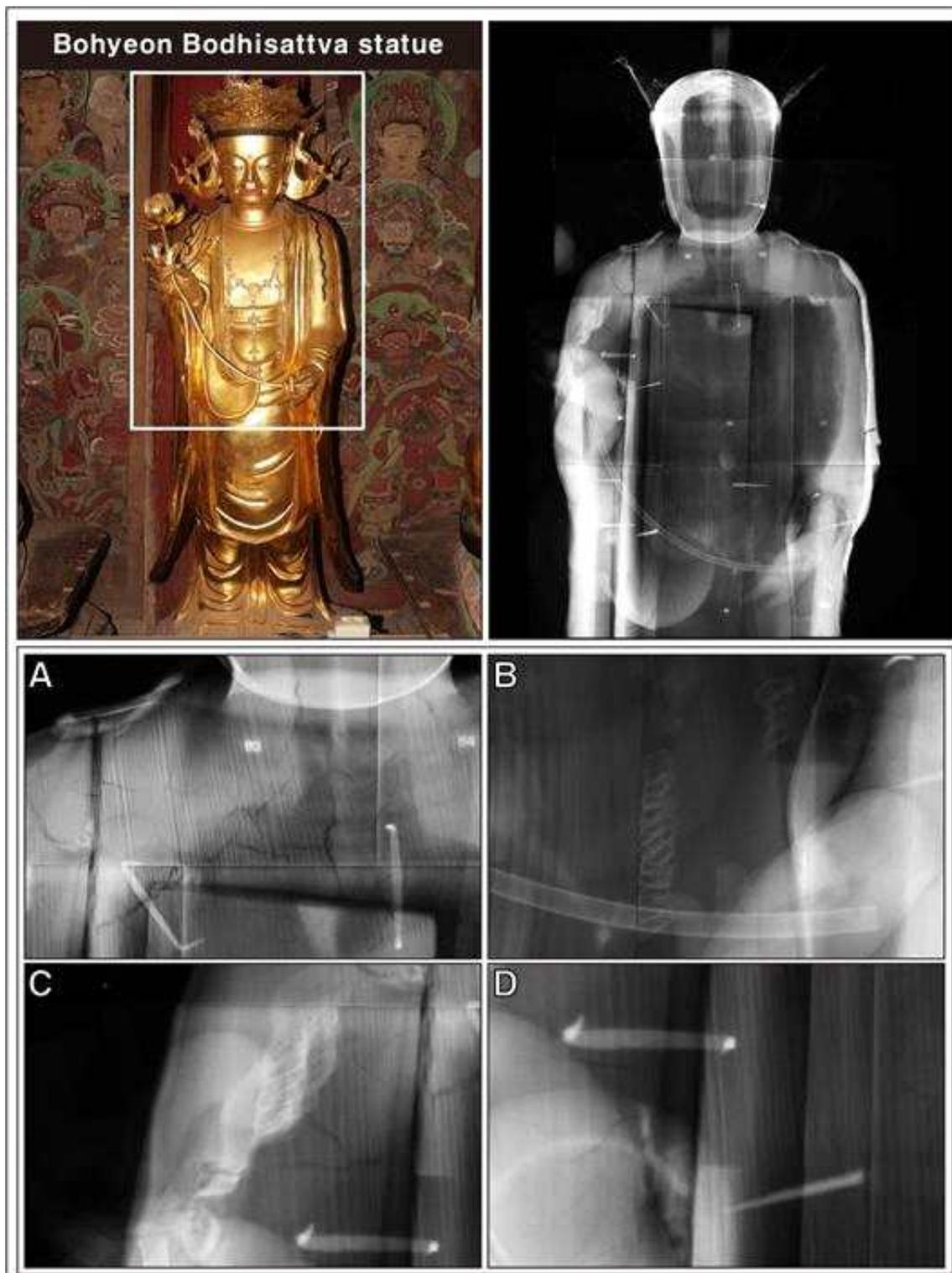
라. 소조문수보살입상

[사진 5-29] 소조문수보살입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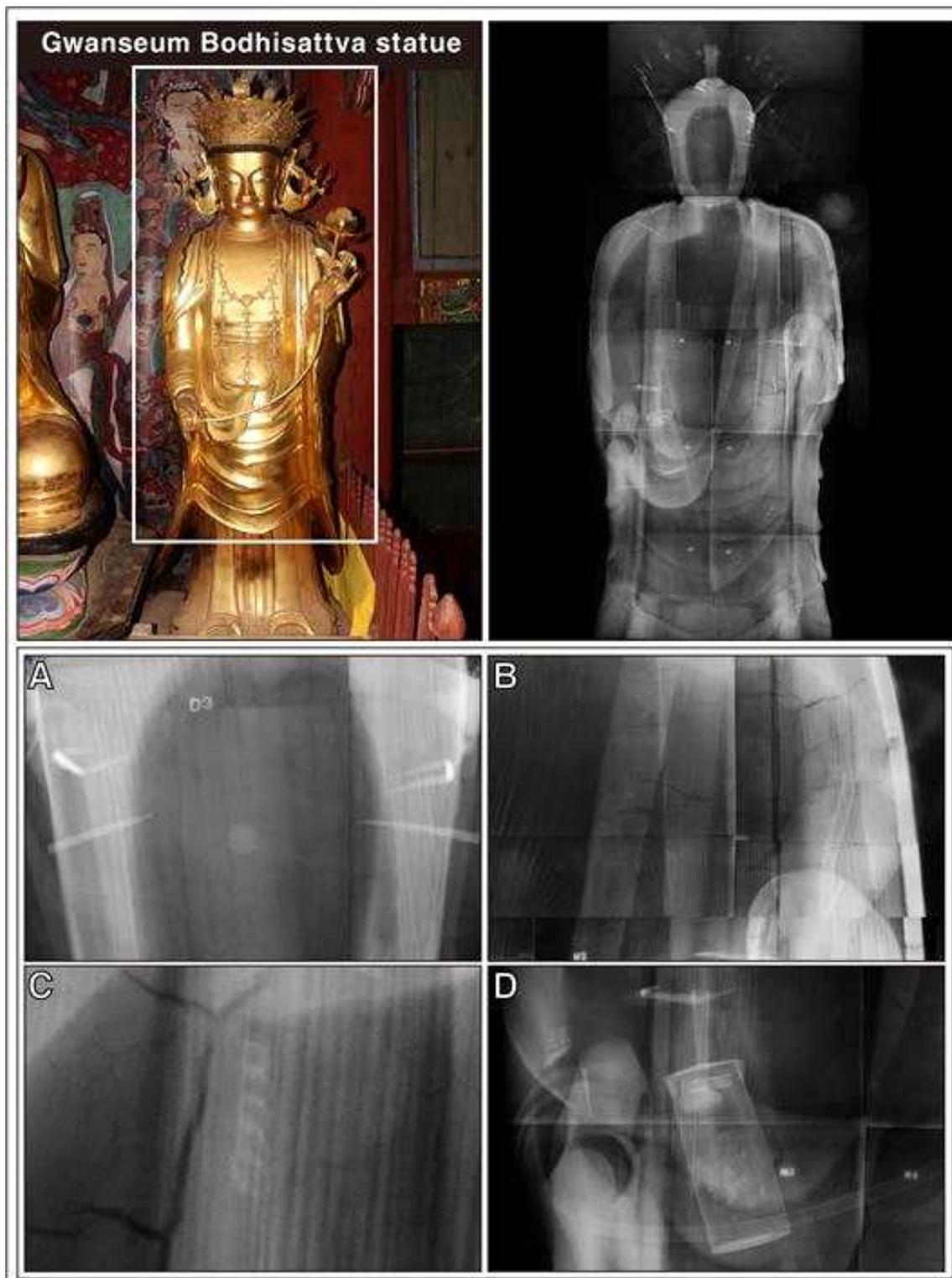
다. 소조보현보살입상

[사진 5-30] 소조보현보살입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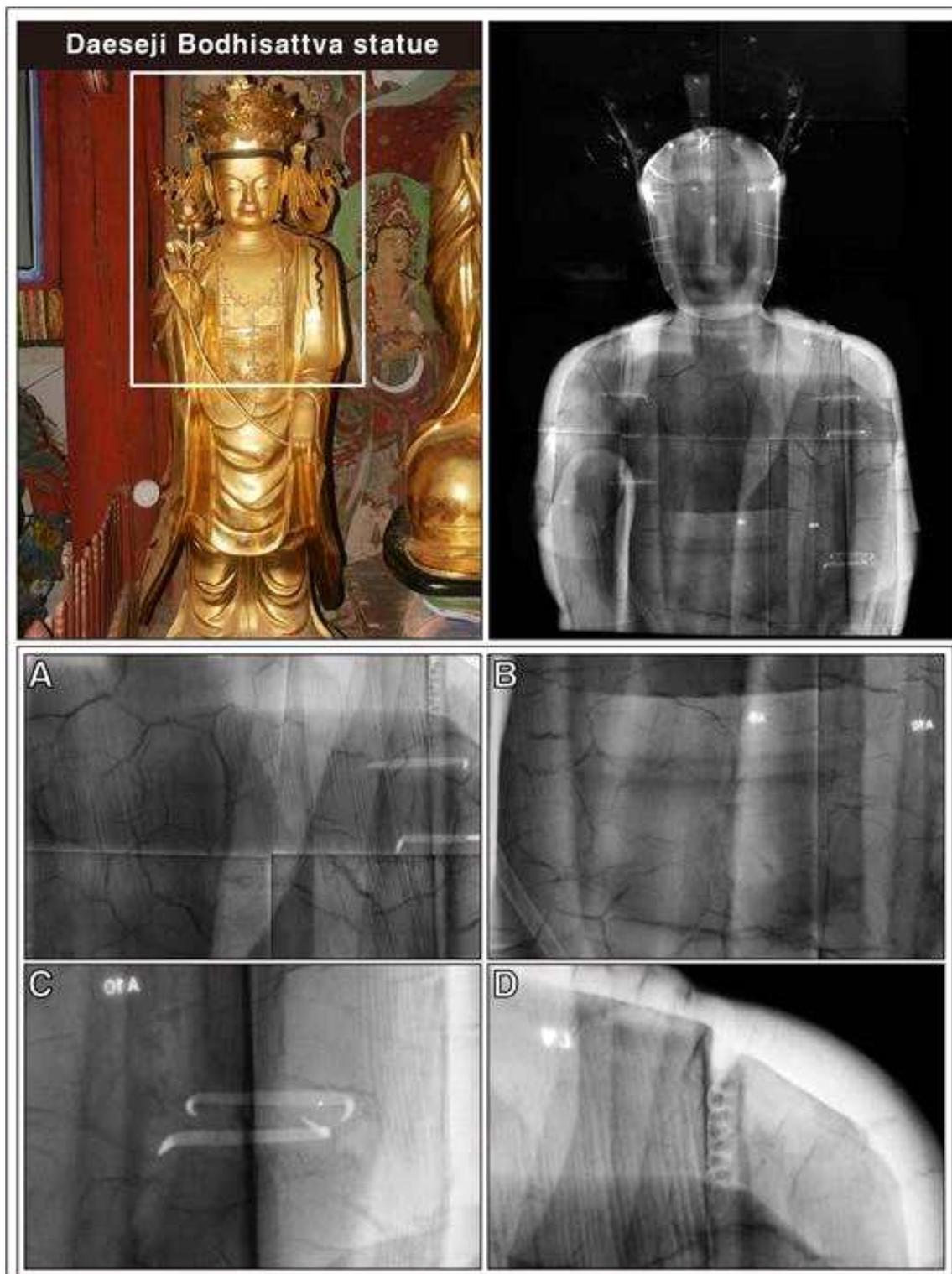
바. 소조미륵보살입상

[사진 5-31] 소조미륵보살입상의 감마선 촬영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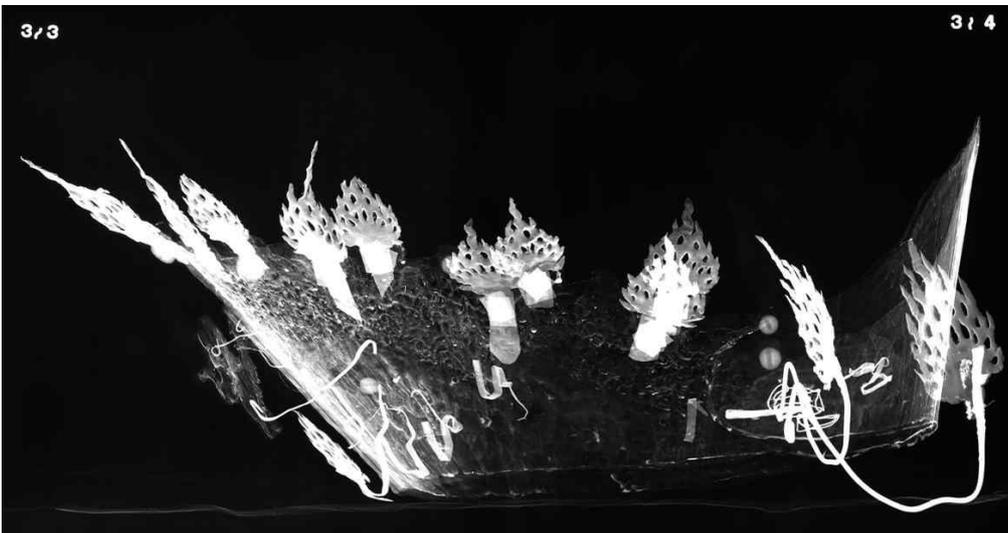
사. 소조제화갈라보살입상 (또는 소조관음보살입상)

[사진 5-32] 소조제화갈라보살입상 (또는 소조관음보살입상) 감마선 촬영사진



4. 기타 사진

[사진 5-33] 소조미륵보살입상 보관 사진과 X선 촬영사진



10.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腹藏典籍)

가. 심의사항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7.12.29.)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4.29./5.1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제3차 회의(’20.6.11)에서 복장전적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별도 지정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20.7.1.~8.1.)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5호(2002.1.10. 지정)
- 명 칭 :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公州 甲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四菩薩立像 腹藏典籍)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갑사(불교중앙박물관)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불교중앙박물관
- 수 량 : 8건 8점 *목록 참조
- 규 격 : 29.7×240.9cm 등 *목록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형 식 : 절첩(折帖), 선장(線裝)
- 조성연대 : 고려 말기~조선전기 필사·판각 및 인출

○ 공주 감사 소조관세음보살입상 복장전적 목록

연번	경전 이름	판종	수량	간행시기 (인출시기)	규격(cm)
1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	필사본	1첩	1388년	29.7×240.9
2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383년 (고려 말~조선 초)	26.9×16.8
3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5세기 중엽 이후]	28.5×17.8
4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405년]	27.3×16.7
5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92년]	36.5×21.8
6	묘법연화경 권4~5	목판본	1책	[1555년]	35.3×24.6
7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 업경 권6~10	목판본	1책	[1433년]	27.7×17.1
8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목판본	1책	1352년 (고려 말~조선 초)	34.1×17.3
계		8건 8점			



그림 374.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전적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지정 가치 -

공주 감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사보살입상의 복장전적은 감사 대웅전의 소조관세음보살입상에서 발견된 불교기록유산으로서 14세기 후기 고려사회에서 필사된 사경과 조성 목판 인출본이 3종류이며, 16세기 중엽 이전의 조선전기 조성 목판 인출본이 5종류이다. 고려본으로는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과 『묘법연화경』 권1~3 및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이며, 조선전기 조성 목판 인출본으로는 『묘법연화경』 4종류와 함께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업경』 권6~10 등이 있다.

이들 불교기록유산 가운데 1388년(우왕 14) 5월 필사된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은 우리나라에서 15세기 육부합경의 조성 과정을 학술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14세기 후기 우왕 당대의 불교와 왕실 및 부모에 대한 인식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원천정보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까지 고려후기 조성된 백지묵서의 경전으로 사경시기가 확인되는 사례가 3건 정도로 확인되는 등 제한적인 상태이므로, 기록유산의 희소성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묘법연화경』 권1~3도 1383년(우왕 9) 4월 평양 흥법산 백련암 조성 경관으로 판단되므로, 우왕 당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서의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교정분자비도량참법』 권8~10도 1352년(공민왕 원년) 10월 조성된 경관을 찍어 만든 선장본으로, 해당 경관의 조성시기를 밝힌 간행정보 등이 일부 남아 있는 등 공민왕 때 조성불사의 역사·문화적인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 기록유산으로는 ①15세기 중엽 이후 중각된 황진손 서체 계열의 판본 『묘법연화경』 권1~3, ②1405년(태종 5) 안심사(安心社)에서 간행된 성달생 서체 계열의 판본 『묘법연화경』 3~4, ③1491~1492년(성종 23) 무량사(無量寺)에서 번각한 초주갑인자본 계열의 판본 『묘법연화경』 권5~7, ④강희안 서체의 을해자를 1555년(명종 10) 광덕사(廣德寺)에서 번각한 판본 인출본으로 표지와 제첩을 진한 남색 비단과 주색 비단으로 장황하였으며 제첩의 표제에 개법장진언부호가 표기된 『묘법연화경』 권4~5, ⑤1433년(세종 15) 고산(高山)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성달생 서체의 판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등으로, 해당 경관의 판각 및 인출불사와 관련된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 그리고 장정 형식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서 일정한 가치를 지닌다. 더구나 공주 갑사 소조관세음보살입상의 조성 시기에 해당하는 1617년(광해군 9) 이전의 복장 봉안 경전 종류의 유형과 사상적 성격을 학술적으로 진단하는 상호보완적인 일괄 유물로서의 가치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소조관세음보살입상에서 발견된 8종의 복장전적을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근거 기준 -

조사대상의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관세음보살입상 복장전적 가운데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은 역사·문화적인 가치와 희소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국가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전체 내용의 상당 부분이 탈락되어 있어 완전한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미 지정된 14세기 후기 고려사회에

서 필사된 백지 묵서사경으로서 사경 정보(사성기)가 확인되며 완전한 장정 형태를 갖춘 국가기록유산들과 비교하여 완질성에서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1383년 판본의 『묘법연화경』 권1~3은 영본으로서 후쇄본으로 판단된다. 더욱 동일 판본을 인출한 보물 제960호와 보물 제793호·제1081호(권4~7은 1399년 보각경판 인출) 등은 완질본이며, 권1~3의 영본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로 지정되어 있어 비교가 된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은 권10 제28장의 간행 정보 가운데 전체 13행이 결락된 상태이다. 또한 보물 제875—1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보다 후쇄본으로 판단된다.

조선전기 조성 경판을 찍은 5종류도 동일 판본이나 동일 계열 판본의 인출본이 개별 권이나 복장전적의 형태로 국가기록유산(보물)·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등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 갑사 대웅전 소조관세음보살입상 복장전적 8종류는 해당 불상과 역사·문화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가치를 가지므로, 국가기록유산(보물)으로 일괄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하는 동시에 보존·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대상의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사보살입상의 복장전적은 갑사 대웅전의 협시보살 가운데 소조관세음보살입상의 복장유물에서 발견된 전적류 11건이다. 필사본은 1종으로 백지에 묵서한 『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白紙墨書金剛般若波羅蜜經 및 諸經)』이며, 그 외 10종은 모두 목판본으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이 7종,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印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 1종,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詳校正牟慈悲道場懺法)』

이 1종, 다라니가 1종이다.

2015년 6월 19일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복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불교중앙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조사 대상본의 절대 다수는 결장이나 영본(零本)이며, 특정 장차의 훼손 현상 등이 보인다. 그러면서 보존상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

복장 전적은 경전류가 9종이고, 의식류가 1종이며 다라니류가 1종이다. 그리고 간행 시기는 14세기 후반 고려사회에서 필사된 사경과 조성 목판으로 찍은 인출본이 3종류이며, 조선 초기부터 소조관세음보살입상의 복장 시기 1617년(광해군 9) 사이에 조성된 목판의 인출본이 8종류이다.

○ 내용 및 특징

조사대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사보살입상의 복장전적은 모두 11종으로 낱장으로 되어 있는 『묘법연화경』 권7(순번 05)과 『묘법연화경』 권1~6(순번 07) 및 『다라니』(순번 11)를 제외한,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순번 01)의 필사본 1건과 『묘법연화경』 권1~3(순번 02·03), 『묘법연화경』 권3~4(순번 04), 『묘법연화경』 권5~7(순번 06), 『묘법연화경』 권4~5(순번 08),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순번 09),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등 목판본 7건이 역사·문화적인 가치에서 주목된다.

01.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

필사본(筆寫本 : 1388년 5월 묵서)

절첩본(折帖本)/ 상하단변(上下單邊 : 상하 주사란)/ 무게(無界 : 유계 흔적 잔존)/ 전체 29.7×240.9cm/ 난고(欄高) 18.6cm/ 1절면 29.7×10.0cm/ 1장 8절/ 1절 6행17자/ 전체 4장 연결(제1장 1절면 및 제4장 1절면 이후 결락)

권 수 제 : 金剛般若波羅蜜經/ 一乘法界圖/ 表訓大德發願文

한역정보 : 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

권 미 제 :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사경정보(寫成記)

比丘峻菴 心坦 特爲

亡母李氏離苦海生極樂之願辦紙筆緣敬寫

金剛般若經阿彌陀經普賢行願品(普門品 : 소자 가필)法界圖發願

文兩面一百部欲廣其傳於千萬年永垂化緣

廻茲勝利上祝

聖壽萬世 伏願

亡母李氏速出三界隨念超生極樂國土面覩

彌陀如來得悟無生親受記別 次願

助緣施主及隨喜人兼我已身普泊法界有緣无

緣者各自災消罪滅福集壽延生生世世修般
 若智行普賢道速成滿果惟願
 十方三寶 證明斯願令得滿足
 洪武廿一年(1388년 : 우왕 14)五月初吉日誌

구성체계 : [금강경계청(金剛經啓請)—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안토지진언(安土地眞言)—보공양진언(普供養眞言)]—청팔금강(請八金剛)—청사보살(請四菩薩)—발원문(發願文)—운하범(云何梵)—권수제(金剛般若波羅蜜經)—한역정보—분과품—본문내용—[(是各世界…… : 如法受持分第十三)~(應化非眞分第三十二 : ……受奉行)—권미제(金剛般若波羅蜜經)—반야진언(般若眞言)—금강진언(金剛眞言)—보궐진언(補闕眞言)—권수제(阿彌陀經)—한역정보(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詔譯)—본문내용—권미제(阿彌陀經)—권수제(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한역정보(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본문내용(爾時無盡意……福不唐 : 34행17자 정도 탈락)]—권미제(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권수제(一乘法界圖)—본문내용—권수제(表訓大德發願文)—사경정보(寫成記)

특이사항 : 도침(搗砧)이 된 장지(壯紙 : 두꺼운 한지)의 양면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구성체계의 []부분이 결락된 상태. 사경정보 가운데 홍무(洪武)의 무(武)자가 무(武)자로 피휘.

이 사경은 1388년(우왕 14) 5월 승려 준암(峻菴) 심탄(心坦)의 발원으로 『금강반야바라밀경』·『불설아미타경』·『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일승법계도』 및 「표훈대덕발원문(表訓大德發願文)」 등 5종류의 경전·발원문을 도침(搗砧)된 장지(壯紙)의 양면에 필사·조성한 100부의 절첩본 가운데 1첩으로, 15세기 우리나라에서 육경합부의 조성·간행 과정을 진단할 수 있는 불교기록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경은 주사란(朱絲欄)이 표시된 장지의 양면에다가 1절면 6행17자씩 전형적인 사경체로 묵서되어 있다. 현존하는 4장 가운데 제1장이 7절면이고, 제2~3장이 각각 8절면이며 제4장이 1절면으로, 개별 장은 8절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존 절첩본의 앞면·뒷면에는 청팔금강(請八金剛)—청사보살(請四菩薩)—발원문(發願文)—운하범(云何梵)—권수제(金剛般若波羅蜜經)—한역정보—분과품—본문내용—권미제(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권수제(一乘法界圖)—본문내용—권수제(表訓大德發願文)—사경정보(寫成記)가 묵서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5종류의 경전·발원문 가운데 『일승법계도』 및 「표훈대덕발원문」이 완전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사경의 발원·조성정보가 담긴 사성기(寫成記)에는 조성의 주체·시기·배경·형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역사·문화적인 사실도 담겨져 있다. 사성기에는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의 옆 공란에다가 작은 글자로 보문품(普門品)이라 가필하여 경전 이름을 바로잡은 사실을 비롯하여, 명나라의 태조의 연호 홍무(洪武) 가운데 무(武)자가 고려 혜종의 휘(이름)이므로 피휘하여 무(武)자로 묵서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두(擡頭)·개혁(改行) 현상도 보이는 등 당대 불교와 왕실 및 부모에 대한 인식방식 등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경은 육경합부 조성의 이행과정과 함께 사경불사 당시의 역사·문화적 실체와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까지 고려 후기 조성된 백지묵서의 경전으로 사경시기가 확인되는 사례가 『범망보살계경』(보물 제1714호 : 1364년), 『묘법연화경』권1~7(국보 제211호 : 1377년), 『묘법연화경』 권1·3(보물 제315호 : 1389년)가 3건 정도로 확인되는

등 제한적이므로, 조사대상의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 및 제경은 문화재적 희소성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면 권수제 부분

뒷면 간행정보 부분

현존 『금강반야바라밀경』·『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의 경우는 상당 부분이 결락되어 있으며, 『아미타경』은 권수제(阿彌陀經)—한역정보(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본문내용—권미제(阿彌陀經)를 포함하는 전체 부분이 완전히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청팔금강 앞 내용의 ‘금강경 계청(金剛經啓請)—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안토지진언(安土地眞言)—보공양진언(普供養眞言)’ 부분, 그리고 본문 내용 가운데 ‘제13분과품(如法受持分)의 시각세계(是各世界)부터 제32분과품(應化非眞分)의 수봉행(受奉行)과 권미제(金剛般若波羅蜜經) 및 권미제 다음의 반야진언(般若眞言)—금강진언(金剛眞言)—보결진언(補闕眞言)’이 결락되어 있다. 아울러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의 경우도 ‘권수제(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한역정보(姚秦三藏沙門鳩摩羅什奉 詔譯)—본문내용(爾時無盡意……福不唐 : 34행17자 정도 탈락)’이 결락된 상태이다.

02.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木板本 : 1383년 판각, 후쇄본)

선장본/ 3권 1책(111장)/ 사주단변(四周單邊)/ 무계(無界 : 서문 공란 유계)/ 반곽 18.8×12.7cm/ 반곽 14행24자/ 무어미(無魚尾)/ 백구(白口)/ 26.9×16.8cm

권 수 제 : 妙法蓮華經要解序/ 妙法蓮華經卷第一/ 妙法蓮華經卷第二/ 妙法蓮華經卷第三

찬술정보 : 前往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 及南 撰(서문)/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권 1)·解(권2~3)

판 심 제 : 法序 /法一 一(廿七)/ 法二 一(廿·卅一)/ 法三 一(廿五)

권 미 제 : 妙法蓮華經卷第一/ 妙法蓮華經卷第二

각 수 : 종(宗 : 권1 제1~3장 등), 상(上 : 권1 제5~7장 등), 희(希 : 권1 제19~21장 등), 산(山 : 권2 제4·14~15장 등)

구성체계 : 요해 서문(서문제목—서문찬술정보—서문내용)—권수제—주석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

특이사항 : 권3 제35장은 탈락

이 책은 구마라집(鳩摩羅什) 한역의 『묘법연화경』을 계환(戒環)이 주해한 권1~7 가운데 해당 권차의 경전으로, 조성·인출 정보가 보이지 않으나 판식·각수 등으로 판각시기와 장소 등을 진단할 수 있다.

현존 『묘법연화경』 권1~3의 1책은 요해 서문(서문제목—서문찬술정보—서문내용)—권수제—주석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장의 판심제 하단에는 각수도 새겨져 있다. 그리고 개별 장은 무계(無界)이면서도 요해 서문의 공란 부분에는 유계(有界)로 되어 있다. 요해 서문의 첫 행에는 묘법연화경요해서(妙法蓮華經要解序)라는 서문 제목이 표기되어 있으며, 제2행에는 전주북주상생선원사조사문 급남 찬(前往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 及南 撰)이라는 요해 서문의 찬술자가 기술되어 있다. 권수제·권미제는 묘법연화경권제일(妙法蓮華經卷第一)과 같이 경전이름+권제+권차의 순서로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권미제 가운데 경자는 권차에 따라 (經)·경(經)자로 각각 양각되어 있어 차이를 보이며, 특히 권1·3의 권수제 가운데 권(卷)자는 특이한 형태의 이체자로 표기되어 있다. 권수제 다음 행의 주해정보는 온릉개원련사비구 계환 해(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라 표기되어 있으며, 권2~3의 주해정보에는 권1의 해(解)자가 해(解)로 새겨져 있다. 판심제는 법서(法序) 및 법일 일(法一 一)과 같이 표기되어 있으며, 장차는 입칠(廿七)·입(廿)·삽일(卅一) 등으로도 표시하고 있다. 판심제의 장차 아래에는 종(宗)·상(上)·희(希)·산(山) 등의 각수가 외자로 양각되어 있기도 하다.



권1 제1장 앞면 및 요해서문 뒷면



권2 제1장 앞면 및 권1 제37장 뒷면

이러한 판식과 글자형태 및 각수는 1383년(우왕 9) 4월 평양(平壤) 홍법산(法弘山) 백련암(白蓮庵)에서 조성한 해당 경판과 일치한다. 특히 각수와 더불어 서문 공란 유계와 계선 마모 정도·위치, 권1 제1장 상변·좌변의 쌍변형태, 권1 제37장 및 권2 제1장의 변계선 마모도·위치 등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묘법연화경』 권1~3 1책은 1383년 평양 홍법산 백련암의 역사·문화적인 실체와 성격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의 『묘법연화경』의 3권 1책은 전체 권1~7 가운데 권1~3으로 영본이며, 글자 등의 마모 정도에서 후쇄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권3 제35장도 탈락되어 있는 상태로 권미제도 확인되지 않는다.

03.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木板本 : 15세기 판각, 후쇄본)

선장본/ 3권 1책(164장)/ 사주단변(四周單邊)/ 무계(無界)/ 반곽 20.2×13.2cm/ 반곽 10행20자/ 무어미(無魚尾)/ 백구(白口)/ 28.5×17.8cm

권 수 제 : 妙法蓮華經弘傳序/ 妙法蓮華經要解序/ 妙法蓮華經卷第一/ 妙法蓮華經卷第二/ 妙法蓮華經卷第三

찬술정보 : 終南山釋 道宣 述(홍전서)/ 前住福州上生禪院嗣祖沙門 及南 撰(요해서)/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판 심 제 : 弘傳序 一/法一 一/法二 廿三/法三 一

권 미 제 : 妙法蓮華經卷第一/ 妙法蓮華經卷第二/ 妙法蓮華經卷第三

각 수 : 태전간(太顛刊 : 홍전서 제1장)

구성체계 : 홍전서—요해서—권수제—주석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간행정보

간행정보1: 黃振孫書(권3 제59장 본문 마지막 이후 공란 부분)

특이사항 : 홍전서는 행자수가 10행21자이며, 상하내향이엽화문흑어미가 새겨져 있는 상태. 권1 권미제 다음의 좌변 밖에는 大施主前判官李齊白一件/ 大施主 劉氏也 外德一件 등의 인출정보가 목서. 권3의 제38장과 제39장이 역순으로 제책. 권3의 본문 마지막 다음 공란 부분에는 黃振孫書라는 간행정보가 양각되어 있으며, 권3의 권미제 아래 공란에는 나무 모양의 문양을 양각

이 선장본은 표제는 없으며 주색의 비단으로 장황되어 있다. 간행정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간행시기·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나, 권3 본문 내용의 마지막 행 아래 부분에 새겨진 ‘황진손서(黃振孫書)’라는 기록에서 황진손 서체 계열의 판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황진손이 1453년(단종 1) 식년시의 병과에 합격한 이후 진용부위(進勇副尉)·좌군부사정(左軍副司正) 등을 역임한 행적 등에서 황진손 서체의 해당 경판은 15세기 중엽 세조 때 처음으로 조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사대상의 『묘법연화경』 권1~3 1책은 현존하는 동일 계열의 판본과 비교하여 구성체계·서체·문양 및 간행정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동일 계열의 판본은 홍전서 1장이 확인되지 않으나 조사대상의 선장본에서는 확인되고 있으며, 이 홍전서 제1장은 다른 장차의 판식과 달리 판심 부분에 상하내향이엽화문흑어미와 함께 태전간(太顛?刊)이라는 각수정보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인출본에서는 동일 계열의 판본(보물 제1153호 및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에서 확인되는 4면의 변상도와 2면의 간행정보(3권 제59장)가 탈락되어 있으며, 권3 제58·59장 등의 서체와 나무 모양의 문양(권3 제19장 앞면)도 서로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동일 계통 판본의 다른 인출본(보물 제793—9호 묘법연화경 권1~3 : 보물 제793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과 비교하여 서체와 함께 나무 문양·간행정보(보물 제793—9호의 권3 제59장에는 나무 문양이 없으며, 간행정보의 내용과 판식도 보물 제1153호 등과 차이)의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사주단변이 동일 계열의 다른 판본보다 선명한 상태이다. 때문에 조사대상의 선장본은 동일 계열의 보물 제793—9호, 그리고 보물 제1153호 및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보다 후대 중각된 경판을 찍어 만든 인출본이라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조성 시기는 동일 계열 판본이 조성된 15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대상의 선장본에는 나무 문양이 있으므로, 보물 제1153호 및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를 원간본으로 삼아 중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권3 제59장 앞면(黃振孫書) 및 제58장 뒷면

앞표지

한편 조사대상의 선장본은 3권 1책의 영본이며, 변상도와 간행정보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 권3의 제38장과 제39장이 역순으로 제책되어 있기도 하다.

04. 표법연화경 권3~4

목판본(木板本 : [1405년 安心寺 판각], 후쇄본)

선장본/ 2권 1책(119장)/ 사주단면/ 무계/ 반곽 21.4×16.0cm/ 반곽 10행20자/ 무어미/ 백구 / 27.3×16.7cm

권 수 제 : 妙法蓮華經卷第四

찬술정보 : 濶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판 심 제 : 法三 十/ 法四 一

권 미 제 : 妙法蓮華經卷第三/ 妙法蓮華經卷第四

구성체계 : 권수제—주석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

특이사항 : 권3 제1장 앞면이 탈락되어 있으며, 권3 제42장 및 권4 제34장의 뒷면이 공란 상태

이 책은 간행정보가 남아 있지 않아 간행시기·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나, 판식 및 서체 등에서 1405년(태종 5) 운제현(雲梯縣) 도솔산(兜率山) 안심사(安心社)에서 간행된 성달생 서체 계열의 원간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판단된다.



권4 제1장 권수제 및 권3 권미제

권3의 제1장 뒷면

그러면서 이 책은 2권 1책의 영본이고, 표지가 없으며 권3의 1장도 반엽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05. 묘법연화경 권7

목판본(木板本 : [1567년 판각], 후쇄본)

선장본/ 3장(제51~53장)/ 사주단변/ 무게/ 반곽 19.4×12.1cm/ 반곽 10행20자/ 무어미/ 백구/ 27.7×17.8cm

판 심 제 : 法七 五十三

권 미 제 : 妙法蓮華經卷第七

구성체계 : [권수제—주석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간행정보

간행정보 : 嘉靖四十六年丁卯(1567년 : 명종 22)正月日龍城山人默齋謹跋(권7 제53장)

권7 가운데 3장(제51·52·53장)만 현존한다.

06.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木板本 : [1492년 無量寺 판각], 후쇄본)

선장본/ 3권 1책(193장)/ 사주단변/ 무게/ 반곽 26.6×16.3cm/ 반곽 10행18자/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 백구(白口)/ 36.5×21.8cm

권 수 제 : 妙法蓮華經卷第五/ 妙法蓮華經卷第六/ 妙法蓮華經卷第七

찬술정보 :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판 심 제 : 妙法 五 一/ 妙法 六 一/ 妙法 七 一/ 法跋 一

권 미 제 : 妙法蓮華經卷第五/ 妙法蓮華經卷第六/ 妙法蓮華經卷第四

구성체계 : 권수제—주석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간행정보

간행정보

……華嚴師智熙居萬

壽山無量寺刊

顯陵朝爲春宮有患疾所祈鑄字法華經極妙乃重

雕焉字體甚工鐫之甚研始於辛亥(1491년 : 성종 22)春二月工訖

于壬子(1492년)夏五月……以此

勝因回向奉爲

世祖惠莊大王

貞熹王后

睿宗襄悼大王

德宗懷簡青蓮座下菩薩同遊奉祝

仁粹大王妃殿下椒闈衍慶

仁惠王大妃殿下鳳歷遐長

主上殿下聖躬萬歲

王妃殿下睿筭齊年

世子邸下鶴齡千秋(권7 발문 제1~2장)

특이사항 : 권5 제69장 등 일부 장차는 유계



간행정보(발문) 및 권7 권미제 부분



권5 제1장 권수제 부분

이 책은 간행정보가 있으므로 간행시기 등이 확인된다. 세종 1450년(세종 25) 동궁이던 문종의 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주자소에서 찍은 초주갑인자본을 저본으로 삼아, 1491~1492년(성종 23) 화엄종 승려 지희(智熙)가 만수산(萬壽山) 무량사(無量寺)에서 번각한 경판을 후대 찍어 만든 인출본이다.

이 책은 3권 1책의 영본이며 표지가 없는 상태이다.

07. 표법연화경 권1~6

목판본(木板本 : [1573년 雙溪寺 판각], 후쇄본)

213장(弘傳序-6장/ 권1-105장/ 권2-72장/ 권3-6장/ 권4-6장/ 권5-12장/ 권6-6장)/ 사주단

변/ 무게/ 반곽 25.5×16.2cm/ 반곽 10행18자/ 상하하향흑어미(上下下向黑魚尾)/ 백구(白口)/ 41.5×50.7cm

권 수 제 : 妙法蓮華經弘傳序/ 妙法蓮華經

찬술정보 : 終南山釋道宣述(홍전서)/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판 심 제 : 弘傳序 一/ 妙法一 六十七/ 法跋 一

권 미 제 : 妙法蓮華經

구성체계 : 서문(홍전서—저술정보—본문내용)—권수제—주석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

전체는 장정되지 않은 상태의 낱장본으로, 권차·장차의 구분도 없이 2~3장씩 인출되어 있으며, 권7이 없어 간행시기·장소 등을 확인되지 않으나 새별 장의 변란 밖에 새겨진 시주질로 1573년(선조 6) 쌍계사의 판본을 찍은 인출본으로 판단

08. 묘법연화경 권4~5

목판본(木板本 : [1555년 廣德寺 판각], 후쇄본)

선장본/ 2권 1책(129장)/ 사주단변/ 유계(有界)/ 반곽 25.5×19.7cm/ 반곽 9행16자/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 대흑구(大黑口)/ 주소자쌍행/ 35.3×24.6cm

표 제 : 妙法蓮華經卷第四

권 수 제 : 妙法蓮華經卷第四/ 妙法蓮華經卷第五

찬술정보 :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판 심 제 : 四法華經卷 一/ 法華經卷四 三/ 法華經卷五 一

권 미 제 : 妙法蓮華經卷第四/ 妙法蓮華經卷第五

구성체계 : 권수제—주석정보—품제—본문내용—권미제—간행정보

각 수 : 산(山 : 권4 제1·15장 및 권5 제42·57장 등), 령(令 : 권4 제11·66장 및 권5 제46장 등), 천(天 : 권4 제19·58·79장 및 권5 제37·59장 등), 인(仁 : 권4 제54장 및 권5 제3·4장 등), 현(玄 : 권5 제48장 등), 십(十 : 권5 제49·50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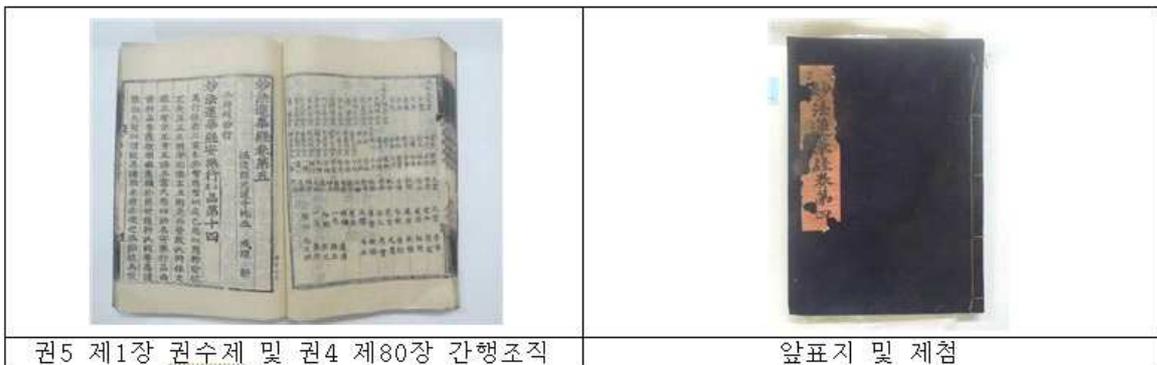
시주정보 : 잣덕(蠶德 : 권4 제1장), 유석지양주(劉石只兩主 : 권4 제3장), 안윤필양주(安允弼兩主 : 권4 제5장), 한수정양주(閑守丁兩主 : 권4 제8장), 김맹동양주(金孟同兩主 : 권4 제11장), 부인박씨천금(夫人朴氏千今 : 권4 제15장), 효덕(孝德 : 권4 제17장), 조산양주(趙山兩主 : 권4 제19장 및 권5 제3장), 안귀희양주(安貴希兩主 : 권4 제25장), 일운(一云 : 권4 제34장), 김칠동양주(金七同兩主 : 권4 제67장), 김기삼양주(金其三兩主 : 권4 제70장), 김손양주(金孫兩主 : 권4 제73장), 강순희(姜順希 : 권4 제75장), 강무적양주(姜無赤兩主 : 권4 제77장), 안우질지(安牛叱之 : 권5 제1장), 춘환(春還 : 권5 제5장), 강억공(姜億工 : 권5 제7장), 순개양주(順介兩主 : 권5 제9장), 부비(僅非 : 권5 제11장), 충생(忠生 : 권5 제14장), 한양양주(漢陽兩主 : 권5 제15장), 늘지(訥之 : 권5 제17장), 김억산양주(金億山兩主 : 권5 제19장), 울지(栗之 : 권5 제21장), 춘비(春非 : 권5

제23장), 막덕(莫德 : 권5 제25장), 김만년송양주(金万年松兩主 : 권5 제27장),
 흔덕(欣德 : 권5 제37장), 최확필(崔奩弼 : 권5 제45장), 보배(宝排 : 권5 제57
 장), 김옥견(金玉見 : 권5 제71장), 지행(智行 : 권5 제78장)

간행정보 : 大施主道雲……化主秩(권4 제80장)

특이사항 : 표제는 분홍색 한지의 개법장진언부호 아래 묵서되어 있으며, 권4 제1장의 관
 심제 가운데 권차 사(四)자는 위의 흑어미 안에 음각. 각수는 흑어미나 대흑
 구 안에 음각되어 있으며, 시주정보(시주질)는 좌·우변 밖에 양각

이 책은 1455년(세조 원년) 강희안의 글자체를 저본으로 만든 을해자 인출본의 번
 각본으로, 1555년(명종 10) 광덕사(廣德寺)에서 조성한 경판을 찍은 불교기록유산
 이다. 표지는 진한 남색 비단으로 장정하였으며, 제침은 주색 비단으로 만들어 장
 황하였다. 표제는 개법장진언부호 아래 묘법연화경권제사(妙法蓮華經卷第四)라 묵
 서되어 있다. 판본의 간행정보가 없으므로 간행시기·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개별 경판의 대흑구나 흑어미에 음각된 각수(山·승·天·仁·玄 등)와 좌우변란 밖에
 양각된 시주질(菴德·劉石只兩主·安允弼兩主·閑守丁兩主 등 및 권4 제80장의 간행
 조직 대시주도운(大施主道雲 등) 등에서 1555년 광덕사의 간행 목판을 찍어 만든
 인출본으로 짐작할 수 있다.



09.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목판본(木板本 : [1433년 花岩寺 판각], 후쇄본)

선장본/ 5권 1책(152장)/ 사주단변/ 무계/ 반곽 21.9×14.4cm/ 반곽 11행22자/ 무어미/ 주소
 자쌍행/ 27.7×17.1cm

권 수 제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六/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
 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七/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八/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九/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
 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十

찬술정보 :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판 심 제 : 楞六 五/ 楞七 一/ 楞八 一/ 楞九 一/ 楞十 一

권 미 제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六/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七/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八/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九/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十

구성체계 : 권수제—찬술정보—본문내용—권미제—음의—간행정보

간행정보 道人 定菴 道人 妙玄
同願比丘尼 覺海(권8 음의 다음)

특이사항 : 권6 제6장의 일부가 필사·보완되어 있으며, 찬술정보는 권6·8의 경우에 생략
목 서(인출정보)

大施主李致誠兩主
前(驛)承金(兌)敬兩主
戶長金己秋兩主
化主 一義
遠如
性宏
(後)隣(권10 음의 다음)

이 책은 권10의 권미제·음의(音義) 다음 장에 있는 간행정보가 탈락되어 있으므로 해당 경판의 간행시기·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구성체계와 판식·서체 등에서 1433년(세종 15) 고산(高山) 불명산(佛明山)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한 성달생 서체의 경판을 찍어 만든 인출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권8 권미제·음의 다행에 새겨진 도인 정암(道人 定菴) 도인 묘현(道人 妙玄)/ 동원비구니 각해(同願比丘尼 覺海)라는 간행정보에서 화암사 조성의 경판을 인출한 불교기록유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질 및 인쇄 상태를 볼 때 15세기 전반에 인출된 책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전체 10권 가운데 권6~10의 영본이며, 권6의 권수제 앞부분에 위치한 변상도(大佛頂首楞嚴經變相) 2장 4면과 권10의 권미제·음의 다음 장(간행정보)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이다. 아울러 권6 제6장 등 일부가 필사·보완되어 있기도 하다.

10.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목판본(木板本 : 1352년 판각, 후쇄본)

선장본/ 3권 1책(129장)/ 상하단변(上下單邊 : 사주단변 흔적)/ 무계(無界 : 권8 제21장의 권미제 부분 유계)/ 상하 25.4cm/ 반엽 5행13자/ 주소자쌍행/ 무어미/ 34.1×17.3cm

권 수 제 : 詳校正牟慈悲道場懺法卷第八/ 詳校正牟慈悲道場懺法卷第九/ 詳校正牟慈悲道場懺法卷第十

찬술정보 : 梁朝諸大法師 集撰

관 심 제 : 懺八 二/ 懺九 二/ 懺十 二

권 미 제 : 詳校正牟慈悲道場懺法卷第八/ 詳校正牟慈悲道場懺法卷第九/ 詳校正牟慈悲道場懺法卷第十

간행정보 : 至正十二年壬辰(1352년 : 공민왕 원년)十月 日(권10 제28장)

구성체계 : 권수제—찬술정보—본문내용—권미제—음의(音義)—간행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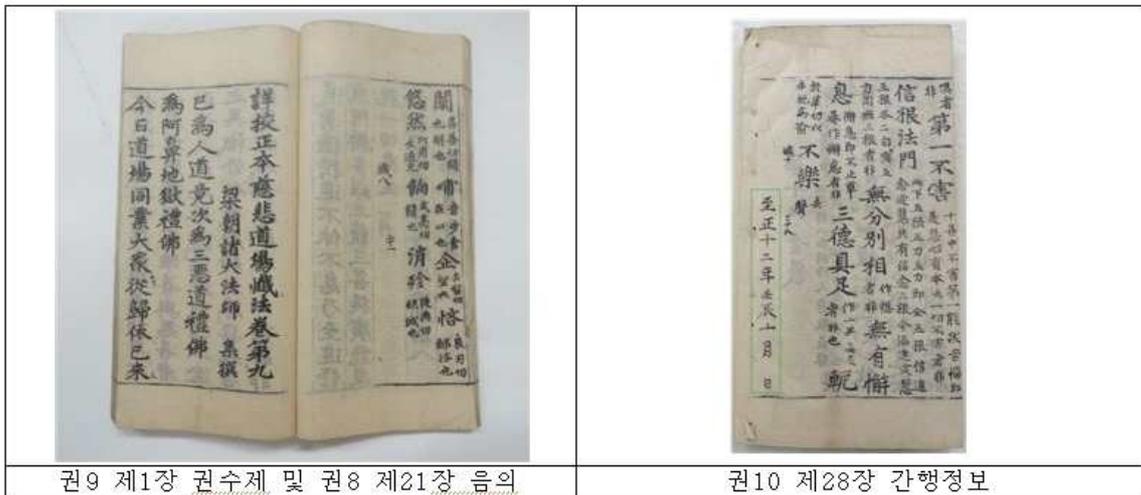
특이사항 : 권9 제27장의 음의 사이 공란 부분에 인출불사의 시주정보가 묵서되어 있으며, 권10 제28장의 간행정보 가운데 간행조직을 새긴 연판(鍊板 : 鍊은 鍊)부터 천호(千戶)까지 전체 13행이 탈락된 상태

목 서(인출정보)

大施主 智寧 崇卞 處閑	化主 智一
克崇 義溪 [信]海	戒正
性照 行田 一岑	義信
白雲 一智 性超	法岑
六罔 覺行 性根	一淳
信丕 敬眉 義亨	覺宗
戒心 祖一 義衍	竹林
才惠 道心 六俊	惠[聽]
罔月 海玉 義修	祖丁
信悟 志玄 戒回	
克衍 一淳 智[聽]	
信敏 戒空 學超	
智正 靈允 戒頓	
戒云 性溪 戒根(권9 제27장 음의의 공란)	

조사대상의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8~10 1책은 1352년(공민왕 원년) 10월 조성된 경판을 찍어 만든 선장본이다. 조사대상본은 권수제—찬술정보—본문내용—권미제—음의(音義)—간행정보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제·권미제는 상교정

본자비도량참법권제팔(詳校正牟慈悲道場懺法卷第八)과 같이 경전이름+권+제+권차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권9의 권미제 가운데 정(正)자가 특이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다. 권미제 다음 행에는 양조제대법사 집찬(梁朝諸大法師 集撰)이라는 찬술정보가 새겨져 있으며, 본문 사이에는 참팔 이(懺八 二)처럼 줄인 경전이름+권차+장차의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아울러 권미제 다음에는 제팔권음의(第八卷音義)와 같이 제+권차+권+음의라는 형식으로 해당 권의 음의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특히 권10 제28장에는 1352년 10월 어느 날(至正十二年壬辰十月 日)이라는 해당 경판의 조성시기를 밝힌 간행정보도 새겨져 있으며, 권9 제27장의 음의 사이 공란 부분에도 인출불사의 시주정보가 묵서되어 있으므로,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해당 경판의 조성시기와 함께 해당 인출본의 인출불사에 대한 역사·문화적인 실체를 진단할 수 있는 원천정보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9 제1장 권수제 및 권8 제21장 음의

권10 제28장 간행정보

그러면서 조사대상본은 전체 권1~10 가운데 권8~10으로 권1~7권이 빠진 영본(零本)이며, 권8 제13장의 본문 글자 간(間)자 등 일부가 마모되어 있으므로 후쇄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더구나 보물 제875—1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 가운데 권8 제13장의 해당 글자 간(間)자가 완전한 상태이므로, 조사대상의 인출본은 보물 제875—1호보다 후쇄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권10 제28장의 간행정보 가운데 간행조직을 밝힌 연판(鍊板 : 鍊은 鍊)부터 천호(千戶)까지 전체 13행이 탈락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11. 다라니

목판본(木板本 : 조선시대 판각·인출)

42장(墨-33장/ 朱-9장)/ 사주단변/ 무게/ 전곽 19.8×38.5cm/ 전곽 19행11~12자/ 38.2×50.5~59.0cm 내외

특이사항 : 다라니는 의례용으로 묵색 33장과 주색 9장 등 전체 42장이 확인.

○ 문헌자료

불교문화재연구소, 『공주 갑사 대웅전 관세음보살입상 복장유물 조사보고서』, 2015.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100~101쪽.

宋日基, 「高山 花岩寺 刊行 佛書의 考察」 『書誌學研究』 18, 1999.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 지정사례

보물 제960호 묘법연화경 권1~7(1382년 李穡 발문/ 권1~3은 순번 02와 동일 판본 : 1988년 12월 지정)

보물 제793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보물 제793—6호 묘법연화경 권1~7/ 1399년 南在 발문/ 권1~3은 순번 02와 동일 판본 : 1984년 10월 지정)

보물 제1081호 묘법연화경 권1~7(1399년 南在 발문/ 권1~3은 순번 02와 동일 판본 : 1991년 07월 지정)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92호 묘법연화경 권1~3(순번 02와 동일 판본 : 2008년 04월 지정)

보물 제793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보물 제793—9호 묘법연화경 권1~3/ 순번 03과 동일 계열 판본 : 1984년 10월 지정. 단, 보물 제793호는 보물 제1153호 및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와 비교하여 권3 제59장의 판식·서체 및 간행정보 내용에서 차이로 가장 앞선 판본으로 판단)

보물 제1153호 묘법연화경 권1~3(순번 03과 동일 계열 판본 : 1993년 04월 지정)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75호 묘법연화경 권1~3(순번 03과 동일 계열 판본 : 2015년 06월 지정)

보물 제961—1호 묘법연화경 권4~7(순번 04와 동일 판본 : 1988년 12월 지정)

보물 제961—2호 묘법연화경 권4~7(순번 04와 동일 판본 : 2013년 11월 지정)

보물 제961—3호 묘법연화경 권4~7(순번 04와 동일 판본 : 2014년 01월 지정)

보물 제971호 묘법연화경 권5~7(순번 04와 동일 판본 : 1988년 12월 지정)

보물 제1306—1호 묘법연화경(순번 04와 동일 판본 : 2001년 01월 지정)

보물 제1306—2호 묘법연화경(순번 04와 동일 판본 : 2009년 03월 지정)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16호 취정사 묘법연화경 권1~4(순번 04와 동일 판본 : 2012년 10월 지정)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32호 백운사 묘법연화경 권1~3(순번 04와 동일 판본 : 2012년 10월 지정)

본 : 2013년 10월 지정)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18호 묘법연화경 권5~7(순번 04와 동일 판본 : 2011년 02월 지정)

부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60호 관음사 묘법연화경 권4~7(순번 04와 동일 판본 : 2012년 05월 지정)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31호 고불사 묘법연화경(순번 06과 동일 판본 : 2013년 10월 지정)

보물 제1470호 영광 불갑사 불복장 전적(제1470—1호 석가삼존상·16나한상 복장전적/ 보물 제1470—1—9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5 : 2006년 04월 지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05호 보림사 사천왕상 복장 경전 불서(전남 유형문화재 제205—10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1~5 및 전남 유형문화재 제205—11호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6~10 : 1998년 08월 지정)

보물 제875—1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7~10(1986년 10월 지정 : 선장본)

보물 제875—2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3(1993년 09월 지정 : 선장본)

보물 제875—3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2019년 01월 : 절첩장)

[참고]

불복장 전적문화재 지정기준안

가. 검토 배경

-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및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상 복장전적’의 별도 지정을 계기로,
-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 특정 유물의 문화재 지정 가치 검토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지정기준안

구 분	내 용	비 고
제작 시기	제작(판각/인출) 시기가 명확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본(印本)의 경우 기지정본과 비교하여 문화재적 가치 우월한 경우 - 역사적(역사적사건과 인물 등) - 예술적(印出, 裝幀 등) - 자료적((善本/完帙/零本중 稀觀本/註釋/口訣/印文 등) • 단 원형의 변형이 심할 경우 지정 재고 - 원형의 변형은 전체 내용에 대한 임의적 合本 및 分卷, 내용의 훼손 및 변조, 장정의 지나친 변형, 후대 印文 날인 등 본래 가치를 훼손한 경우
성격	유일본(唯一本) 희귀본(稀貴本) 희구본(稀觀本)	
비교 가치	이미 지정된 유물과 비교하여 문화재적 가치 우월한 대상	

검 토 사 항

Ⅲ.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4-011

11.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陝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가. 검토사항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0.12.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10.3.20.)를 실시하고 2012년도 본 위원회 제3차 회의(‘12.6.14.)에서 검토 사안으로 부의하였으나, 보물 유지 사유로 부결되었음.
- 이후 (사)한국미술사학회장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신청(‘16.12.28.)이 있어 관계전문가 3회 보완조사(‘18.3.2./’20.5.14./’20.7.8.) 및 과학조사(‘20.7.8.)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보물 제999호(1989.04.10. 지정)
- 명 칭 :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陝川 海印寺 乾漆希朗大師坐像)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해인사성보박물관)
- 소재지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2, 해인사성보박물관

- 수 량 : 1구
- 규 격 : 높이 82.4cm, 무릎 폭 66.6cm, 앞 뒤 최대폭 44cm
- 재 질 : 건칠, 목조(소나무)
- 형 식 : 좌상
- 제작연대 : 고려시대(10세기 추정)



그림 383. 보물 제999호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라. 1차 조사자 검토 의견

○ (보류)

희랑조사상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건칠상으로서 한국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면은 건칠, 뒷면은 목조로 이루어진 이 초상 조각의 성격을 뚜렷하게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 상의 밑면까지 천이 발라져 있어 내부를 조사할 수 없어 복장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상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뒤에 국보 지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보류)

희랑대사조상은 양식적인 특징으로 보아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조각상 중에서 진영상으로서는 유일한 예이다.

비록 조선시대 말에 가채되었지만, 특정한 인물이 연상될 만큼 조각이 사실적이며, 정신적인 면까지 잘 표출된 수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희랑대사조상은 해인사에서 전승되어 오던 문화재로서, 해인사에서 화엄사상을 떨쳤던 희랑대사의 실제 모습을 조성한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이 상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이 되어 이덕무의 ‘해인사기’에 처음 확인된다. 희랑대사조상이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초기에 이 상이 희랑대사와 관련된다는 직접적인 문헌기록이 지금으로서는 확인되지 않는 관계로, 이 상이 희랑대사상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빙자료가 보다 보강된 후에 국보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보 승격 지정신청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보류)

이 상은 실존하는 인물을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제작한 국내 유일의 초상 조각이다. 제작 기법상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현존 최고의 상이라는 점에서도 학술적 가치가 높다. 또한 덕망 높은 고승(高僧)의 내·외면의 연륜과 심연한 수행의 깊이까지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당대 최고의 역량 있는 조각가가 제작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 상은 예술적, 종교적 감성을 조각이라는 조형 언어로 완벽하게 승화시킨 최고의 작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상의 조형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제작시기와 제작주체, 존명(尊名) 등 좀더 확실적인 자료 보완이 요구된다. 더불어 반건칠·반목재(反乾漆·反木材)의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는 제작기법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랑대사상이 지니고 있는 조각사적 위치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국보승격 문제는 지정 후 자료를 보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자료 보완 후 승격 지정할 것인지를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본상은 상의 재질과 명칭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현재 파악하고 있는 본상에 대한 더 이상의 특별한 정보를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일하며,

또한 가장 오래된 초상 조각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를 바란다.

마. 보완조사자 검토의견

○ (지정 가치 있음)

희랑대사상은 건칠과 나무를 조합하여 조각한 우리나라 유일의 초상조각으로서 뛰어난 조형성과 제작기술이 완벽하게 반영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최고의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승상을 제작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만, 실제 현존하는 사례는 극히 적은 점에서 그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크게 느껴진다. 기록을 통해 확인되면서 실제로 남아 있는 승상은 희랑대사상이 거의 유일하며, 실존했던 고승의 모습을 실제 인물처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내면의 인품까지 표현한 점에서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또한 문헌기록을 통해 현존하는 희랑대사상이 해인사에 봉안되었던 역사성과 해인사의 解行堂, 眞常殿, 조사전, 보장전을 거치면서 봉안되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희랑대사상은 고려초기 10세기경에 제작된 상으로서 예술성과 종교성, 역사와 기록성을 갖춘 작품으로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해인사 희랑대사좌상은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상 조각이다.
- 과학적 조사 결과, 희랑대사좌상은 뒤쪽과 아래쪽에 나무를 사용하여 상을 고정하고 건칠기법으로 만든 목심건칠상임이 밝혀졌다. 상의 앞쪽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칠 기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 이 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이덕무가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에 찬술한 [해인사기]에서 처음 확인된다.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에 희랑대사좌상을 특정한 기록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해인사 구전에 따르면, 희랑대사좌상은 통일신라시대말부터 고려시대초까지 해인사에서 주석했던 희랑대사의 실제 모습을 모델로 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해인사에서는 문헌에 기록된 희랑대사의 신체적 특징인 흉혈이 실제 상의 가슴 중앙에 남아 있어서 이 상을 희랑대사상으로 믿고 있다.
- 희랑대사좌상은 누구를 모델로 하여 언제 조성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덕무의 기록과 같이 18세기 후반에도 해인사에서 이 상을 희랑

대사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과 특정한 승려를 모델로 한 듯 매우 사실적인 조형이라는 점에서 희랑대사상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희랑대사좌상이 반드시 희랑대사를 모델로 하여 조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상은 우리나라 초상조각의 유일한 예이다. 또한 고려시대 전기의 조형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는 수준 높은 초상조각이라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 해인사 희랑대사좌상은 고려 전기 10세기 경에 조성된 것으로서 현존 最古, 唯一의 초상조각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 유척기의 「游伽倻記」, 등 18세기 이래의 기록들에, 당시까지 유존하던 희랑대사에 대한 1차 사료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들 1차 사료와 본 조상은 매우 긴밀하고 신빙할 만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 실존하였던 고승의 모습이 초상화처럼 사실적으로 재현된 조상으로서, 고승의 걸모습은 물론 성품까지도 충실하게 표현되어 초상조각으로서의 예술적 가치가 있다.
- 이상의 역사성, 예술성, 기록성 등의 가치를 갖고 있는 본 조상은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언제부터 희랑대사로 인식되어 왔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兪拓基의 『游海印寺記』 등 조선 후기의 여러 문인들의 기행문을 통해 오래전부터 희랑대사상으로 분명하게 신앙되고 인식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오랫동안 해인사에 봉안되어 왔던 우리나라 최고의 초상 조각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상은 희랑대사가 입적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하였기 때문에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인 묘사력이 돋보인다. 즉 형형하게 살아 있는 눈빛, 실오라기처럼 열게 퍼진 주름과 함죽 입술에 머물고 있는 범열의 미소, 노쇠한 살갓 위로 드러난 骨筋의 표현 등에서 아직도 살아 숨 쉬는 살아생전의 희랑대사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만큼 이 조각은 희랑대상의 내외면의 깊은 수행 이력과 정신성을 생명력 넘치는 조각예술로 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조성되는 관념조각과는 차별되는 요소여서 희랑대사의 입적 전후에 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조각 수법은 중국, 일본 등 유사시기 입적을 전후한 시기에 조성된 초상 조각에서도 공히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후삼국 격동기를 살았던 역사적 인물 희랑대사를 기념하기

위해 949년경에 제작한 작품으로, 현존 최고의 초상 조각이라는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건칠과 목조기법을 혼합하여 제작한 독특한 제작기법은 고대 건칠기법의 실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건칠희랑대사좌상은 후삼국 통일에 기여하고 불교 교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도 학술적, 예술적 가치 못지않게 두루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보로 승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예고함

1차 조사보고서



○ 내용 및 특징

이 상은 해인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희랑조사의 초상 조각이다. 희랑조사는 나말여초의 전환기에 해인사의 승려들이 남악과 북악으로 나뉘어져 각각 견훤과 왕건을 지지할 때, 남악파의 수장인 관혜에 대응하여 북악파의 수장으로 왕건을 지지했던 분이다. 뒷 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여 해인사에 500결의 토지를 하사했다는 것이나 후삼국통일을 기념하여 세운 개태사가 화엄종 사찰이었던 점은 희랑조사와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된다. 희랑조사의 생몰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최치원의 「증(贈)희랑화상」이라는 6수시(六首詩)가 전하고, 「사자산 흥녕사 징효대사비문」(924)에 ‘원주(院主)희랑장노’라는 언급이 보이며,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비문」(978)에 나타나는 ‘서백산에 있는 신랑 태대덕(神朗 太大德)’을 희랑조사로 보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자료들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희랑조사는 나말여초 기에 활동했으며 해인사가 후백제의 영역이었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해인사를 떠나 다른 사찰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상 조각의 사실적인 조각수법이나 고려 태조와의 관계에서 추측할 때 희랑조사상의 제작 시기는 고려 초 10세기 전반 무렵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희랑조사상은 X-레이 촬영을 통해서 앞면은 건칠(협저)상이고 뒷면은 목조상임이 밝혀졌다. 서로 다른 재료가 이어진 점에 대해서는 건칠로 제작된 초상 조각이 어느 시기에 훼손되어 나무로 뒷면을 보수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몸 속에는 후령

통을 비롯한 복장물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복장을 열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내용물은 알 수 없다. 『해인사지(海印寺誌)』에 수록된 청장관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가야산기」에는 희랑대사상의 얼굴과 손이 까맣게 칠해져 있다고 쓰여 있어 지금의 채색은 그 이후에 입혀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색이 벗겨진 군데군데에 금색이 남아있는 점으로 보아서 원래 가사에는 건칠 위에 금이 입혀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문헌자료

- 文明大, 「海印寺 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의 考察」, 『考古美術』 138·139, 1978.
- 金福順, 『新羅華嚴宗研究』, 민족사, 1990.
- 南東信, 「나말여초 화엄종단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성립」, 『外大史學』 5, 1993.
-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해안, 1996.
- 崔聖銀, 「開泰寺石造三尊佛立像의 研究 - 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敎彫刻」, 『美術史論壇』 16·17, 2003.

□

해인사 정보박물관에는 신라 말 고려 초에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삼국 통일에 공헌하였던 희랑대사좌상(889~956/967)이 있다. 희랑대사의 생몰 연대는 문헌 기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0세기에 해인사에 주석했던 화엄 승려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희랑대사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은 균여(均如, 917~973)의 전기를 다룬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제4, 입의정종분자立義定宗分者)에서 확인된다. 즉 신라 말, 가야산 해인사에 화엄학의 대가 관혜(觀惠)스님과 희랑스님이 있었는데, 관혜스님은 남쪽에서 견훤(甄萱)의 복전(福田)이 되었고 희랑대사는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되어 남북으로 갈라졌다.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조선사찰자료(朝鮮寺刹資料)』 상)에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왕손인 월광(月光)과 가야 지방에서 접전할 때, 희랑대사가 신병을 보내어 태조를 도움으로써 고려 건국에 큰 힘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의 건국 후, 태조는 그의 공적에 보답하는 뜻에서 해인사를 크게 증건하였다.

희랑스님에 대하여 최치원은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尚)>이라는 시에서 희랑스님을 용수보살이나 문수보살에 비유하거나 하늘이 우리나라를 교화하기 위하여 보낸 붓다로 비견하고 있다. 또한 해인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여 화엄종을 크게 떨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희랑스님은 고려 왕실의 비호를 받아 화엄종을 크게 일

오켜 10세기 경에는 북악과의 조사이자 해인사의 제3대 조사로서 추앙을 받았다. 희랑대사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 희랑대사의 영향력을 대변해 준다.

그러나 희랑대사를 둘러싼 일련의 기록들이 해인사 정보박물관 소장의 희랑대사 좌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상이 희랑대사좌상이라는 것은 오로지 구전에 의한 것이다. 조상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희랑대사가 활동하던 10세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나타난다. 즉 『해인사(海印寺誌)』 12편에 나오는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해인사 기행기인 [가야산기(伽倻山記)]에 처음으로 희랑대사 조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불당 북쪽 벽 아래에는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 말의 희랑선사의 상을 모셔놓았다. 얼굴과 손을 모두 까맣게 칠하였고, 힘줄과 뼈가 울퉁불퉁하게 나왔다. 옷섭을 헤쳐 가슴을 드러내었는데, 양쪽 유방 사이에 앵도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으니 아마도 그가 생존 시기에 중완(中腕)에다 쑥 뚫힌 흉터를 나타낸 것이거나 어쩌면 조각한 지가 오래되어 썩고 좀먹어 구멍이 생긴 것일 것이다.

이덕무의 기록은 18세기 후반에 해당되며, 매우 구체적으로 희랑대사좌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검은 색의 얼굴과 손은 옷칠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은 피부색으로 가채되어 있다. 사전(寺傳)에 가슴에 구멍이 있어 희랑대사를 ‘흉혈국인(胸穴國人)’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 구멍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런데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 말의 희랑선사상을 모셨다는 기록에서 ‘신라 말’은 신라 말에 나무로 조성된 희랑조사상이 아니라 신라 말에 활동했던 희랑조사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로 신라 말에 나무로 조성된 희랑조사상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도 이덕무가 이 상을 실견했던 것이 조상이 만들어지고 약 700년의 세월이 지난 18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이 상이 희랑조사상이 분명한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희랑대사좌상은 상의 뒷 부분과 바닥 부분은 나무로 골격을 세우고, 앞 부분은 건칠 기법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앞 부분의 건칠기법이 전통적인 건칠법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옷칠, 금박, 종이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어 좀 더 자세한 성분 분석이 요구된다.

희랑대사좌상은 결가부좌에 양손을 배꼽 부분에 모아 좌선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약간 긴 듯한 장방형의 얼굴과 긴 턱, 마른 체형을 갖추고 있다. 조선시대 19세기 경에 가채되었다고 추정되는 얼굴과 손, 법의의 채색은 오히려 상이 지닌 조형적인 우수성을 가리고 있다. 희랑대사좌상은 특정한 사람을 모델로 하여 의학적 골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만큼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가늘고 긴 이마, 미간·눈가·입가의 가늘고 긴 주름, 얇은 귀, 튀어나온 광대 뼈, 큰 코, 돌출된 목젓, 가슴 중앙의 구멍 등 마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하여 모델링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다. 비록 채색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시야에는 선뜻 들어오지 않지만, 팔과 무릎을 덮고 있는 법의 자락의 부드럽고 유연한 표현은 상당한 수준의 장인에 의해 상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정면을 응시하면서 조용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은 오랜 기간 수행에만 정진했던 스님을 상상하게 한다. 희랑대사좌상은 상의 조형적인 특징은 물론,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인 면까지 잘 표현한 수준 높은 작품이다. 상에 보이는 비례나 표현 등 양식적인 특징들은 희랑대사좌상이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희랑대사좌상은 우리나라 전시기에 걸쳐 현존하는 유일한 진영 조각상이자 초기 목심건칠 조각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합천 해인사 정보박물관에는 나말여초의 고승 희랑대사(希朗大師)의 상으로 전하는 초상 조각이 있는데, 고려까지 올라가는 고승의 진영조각(眞影彫刻)이 남아 있는 예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크게 주목받아 왔다. 물론, 북한산 승가사에는 7세기 중국 사주(泗州)지역에서 활약했던 승가대사의 상이 있지만, 생전의 실물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승도 아니기 때문에 희랑대사가 가지고 있는 조각사적 무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외 괴산 각연사에도 흙으로 빚은 유일대사(有一大師)의 상이 전하고 있지만, 이 역시 유래나 조성시기 등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다. 물론, 조각적 깊이나 역량에서도 희랑대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 기존의 설대로, 이 상을 나말여초 해인사를 중심으로 크게 활약한 희랑대사의 실존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 상은 한국조각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희랑대사는 889년(진성여왕 3) 경상남도 거창군 성기(聖基)의 주씨(朱氏) 집안에서 태어나 15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하고, 966년(고려 광종 17)에 입적하였다고 사찰에 전해오고 있지만,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 그런데 유척기(兪拓基, 1691~1762)의 「유가야기(游加耶記)」에 따르면, 고려 초 기유년(己酉年, 949년 추정) 5월에 나라에서 ‘해인존사원융무애부동상적연기상유조양시조대지존자(海印尊師圓融無碍不動常寂緣起相由照揚始祖大智尊者)’라는 시호를 내린 교지가 18세기까지 해인사에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그는 949년 이전에 이미 입적하였고, 상의 제작연대도 949년 이전이 될 것이다.

희랑대사는 후삼국 쟁탈기 태조 왕건을 도와 함천 지역에서 후백제 군대를 물리치고 후삼국 통일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왕건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해인사 중창에 필요한 토지를 하사하고 국가의 중요 문서를 이곳에 두었다. 신라 말 대문장가인 최치원은 희랑대사에게 보낸 찬시(讚詩)에서 그를 문수보살이나 용수보살에 비유하거나 하늘이 우리나라를 교화하기 위해 보낸 붓다로 비견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 초 그의 위상은 창건주인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그의 덕을 오래도록 숭모하기 위해 그의 초상을 조각으로 제작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마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이어서 희랑대사의 활동 시기와 시간적인 간격이 너무 크다. 이들 기록에서는 대체로 지금의 조사상(祖師像)을 희랑대사로 인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가야산기(伽倻山記)」(『간본 아정유고』 제3권)의 기록은 특히 주목된다.

불당 오른편 북쪽 벽 아래에는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 말의 희랑선사(希朗禪師)의 상을 모셔놓았는데, 얼굴과 손을 모두 까맣게 칠하였고 힘줄과 뼈가 울퉁불퉁 나왔으며 옷섶을 헤쳐 가슴을 드러냈는데 양쪽 유방사이에 앵도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으니 아마도 그가 생존 시에 중완(中腕)에다 썩뚝한 흉터를 형상한 것이거나 어쩌면 조각한지가 오래되어 썩고 좀먹어 구멍이 생긴 것일 것이다. 세상에서 이를 천흉국(穿胸國) 사람이라고 한다.⁵²⁾

이 기록은 이덕무가 1782년 2월에 가야산을 유람하고 남긴 기록인데, 지금의 희랑대사의 상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이 당시 희랑대사상의 얼굴과 손은 현재의 모습과 달리 검게 옷칠된 상태로 있었으므로 지금의 채색은 그 이후에 개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상의 재질은 최근까지 몇 개의 나무를 접목해서 만든 목조 상(像)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8년 9월 8일부터 2009년 2월 4일까지 진행된 보존처리 공사에서 앞쪽은 건칠기법으로, 뒤쪽은 목조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앞쪽에 사용된 건칠기법은 고려 후기 불상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칠과 포를 여러 겹으로 겹쳐 만든 흔적은 관찰되지 않고, 가소성의 물질로 소조기법처럼 두텁게 반죽하여 제작한 것처럼 보인다. 보다 과학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건칠

52) ...右北壁下. 安羅末希朗禪師木雕像. 面手髹漆. 筋骨戍削. 襟披胸現. 乳間有窟容櫻. 或象伊人生時中腕灸痕. 或是雕造多年. 腐蝕成窟. 世傳此穿胸國人..., 李德懋, 「伽倻山記」, 『雅亭遺稿』 卷3(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고전DBC 참조. <http://db.itkc.or.kr>)

기법의 초기적인 형태가 아닐까 한다.

일반적인 초상화가 해부학적 지식에 기초해서 그려지듯, 이 상(像) 역시 생전의 희랑대사의 신체적 구조와 특징을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뒤 조각으로 이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은 고개를 약간 좌측으로 가우뚱하게 기울이고 담담히 정면을 주시하고 있다. 쌍꺼풀이 있는 눈매, 우뚝하게 솟은 몽푹한 코, 움푹 들어간 양뺨, 그로 인해 유달리 튀어나온 광대뼈, 이와 함께 피골이 상접한 가슴 사이로 드러난 쇠골뼈, 얇고 작은 귀,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주름 표현 등에서 사실주의 조각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다. 더욱이 쌍꺼풀이 있는 그윽한 눈매와 합죽 들어간 입술에서 은은히 흘러나오는 미소에는 노승(老僧)의 법열(法悅)에 찬 정신성이 녹아 있다. 전반적으로 노인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선과 양감을 통하여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해 내고 있다.

여윈 몸에는 흰색 바탕 위에 적색, 녹색, 황색의 원점문이 규칙적으로 시문된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녹색의 분할선이 있는 붉은색의 분소의(分所衣)를 걸쳤다. 채색층 밑으로 곳곳에 금색이 드러나는 것으로 볼 때, 원래는 금빛 찬란한 금란가사(金欄袈裟)를 의도한 듯하다. 왼쪽 어깨 위에는 가사를 고정하는 끈과 삼각형의 수술 장식이 표현되었는데, 동화사 입구 마애여래좌상, 대흥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여주 포초골 석조여래좌상 등 나말여초 시기에 조성된 불상에서 많이 표현되는 특징이어서 이 상의 연대 추정에 도움이 된다. 목에는 울대뼈가, 가슴에는 앙상하게 드러난 쇠골뼈와 구멍이 뚫려 있다. 가슴의 구멍은 ‘흉혈국인(胸穴國人)’이라는 그의 별칭을 상징한다. 흉혈(胸穴)은 정혈(頂穴)과 함께 승려의 신통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종종 등장하는데, 북한산 승가사 승가대사상(1024년 추정)에는 정혈로 추정되는 것이 표현되어있다.⁵³⁾ 정혈과 흉혈로 상징되는 신통력 있는 두 승려의 초상 조각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⁵⁴⁾ 한편, 다소곳이 포개어 무릎 위에 올린 양 손은 앙상한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사실적인데, 마치 간다라 지방에서 제작된 석가모니의 고행상(苦行像)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에서 보이는 사실적 표현은 비교할 수 있는 작품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표현기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상의 제작 시기는 그의 입적 후 나라에서 시호를 내렸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949년 전후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상은 현존하는 유일의 건칠진영(乾漆眞影) 상이라는 점에서 미술사적 중요성이 인정된다.

53) 남동신 교수는 승가대사상의 조성연대를 광배에 새겨진 1024년의 명문 보다 앞선 통일신라시대로 보고 있다. 남동신, 「북한산 승가대사상(僧伽大師像)과 승가신앙(僧伽信仰)」, 『서울학연구』 14(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0, pp.5-36 참조.

54) 남동신은 탄문의 비문에 등장하는 西伯山の 神朗太德을 ‘신통력이 뛰어난 希朗’으로 보고 있는데, 희랑의 행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희랑대사의 신통력에 대해서는 남동신,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成立」, 『外大史學』 5(韓國外國語大學校史學研究所, 1993), pp.143-174 참조.

○ 문헌자료

- 文明大, 「海印寺 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 · 139, 韓國美術史學會, 1978.
- 南東信, 「羅末麗初 華嚴宗團의 대응과 《(華嚴)神衆經》의 成立」, 『外大史學』 5, 韓國外國語大學校 史學研究所, 1993.
- 『해인사 목조희랑대사상 보수·보존처리사업』, 합천군·법보종찰 해인사, 2009.
- 정미경, 「해인사 희랑대사상의 보존처리 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보존과학적 조사를 중심으로-」, 경주대학교대학원 문화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현 상

초상 조각의 형상은 결가부좌한 발목 위에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육신은 살색, 장삼은 백색 바탕에 붉은색과 녹색의 문양을 넣었으며, 붉은색 바탕에 녹색 띠를 그렸으나, 조선시대 후반에 보채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의 좌측 어깨의 윗면과 뒷면, 뒷면 하부의 중앙 및 좌우 측면의 하부에 균열이 확인된다. 또한 앞면 하단 중앙에는 채색이 박락되어 상의 바탕재가 보이며, 우측 무릎 밑의 바닥면도 파손되어 목재가 노출되어 있다. 얼굴과 신체 전면에 걸쳐 채색의 박락이 확인되어 2008년 경담연구소에 의한 보존처리가 실시되었다.

○ 내용 및 특징

본상은 그 형상과 옷주름 등의 세부 표현, 또한 그림이 아닌 조각상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 조각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며,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이미 보물 제99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금번 국보로서의 승격 신청에 대한 조사자의 조사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상의 재질

2008년의 보존처리 사업 당시에 실시된 X-ray 검사에 의하여 본상은 앞면이 건칠, 뒷면은 목재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앞과 뒤가 다른 재질로 이루어진 사례는 그 동안 보고된 바 없으므로 매우 특이한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재질의 차이가 상의 제작 당시에 채용된 것인지 또는 후대의 수리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금번 조사에서는 이 점에 주목하였으나, 조사 여건 상 이 문제를 분명히 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상의 명칭

본상은 이덕무의 「가야산기」에 희랑선사의 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바, 조선 후기에는 희랑대사의 초상으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고려시대까지 소급될 수 있는 문헌자료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인사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해인사의 개산조인 순응(順應)과 고려 시대의 중흥조인 희랑을 들 수 있으므로, 현재의 구전(口傳)만으로 이 상을 희랑대사의 초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문헌자료

본상은 희랑대사(希郎大師)의 초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상의 제작경위나 전래상황 등에 관한 고문헌은 남아있지 않다. 현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1741~1793)가 지은 「가야산기(伽倻山記)」(『해인사지(海印寺誌)』 수록)를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희랑선사상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얼굴과 손이 까맣다고 전하고 있으므로, 본상이 18세기에는 해인사에 전래되고 있었으며, 현재의 채색이 이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완조사보고서



1. 희랑대사상 관련기록과 봉안처

희랑대사는 신라말 고려초기에 활동한 고승으로 889년(진성여왕 3)에 태어나 15세에 해인사에서 출가하였으며 입적한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크게 10세기 중엽경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해인사에서 활동한 화엄종의 대가로서 북악파를 대표하는 왕건의 스승으로 유명하다.

희랑선사에 대한 기록은 최치원의 「贈希朗和尚」 六首詩에서 화엄종의 대가로서 용수나 문수보살에 비유하고 있으며,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塔碑文(944, 보물 제612호)에는 '院主希朗長老'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균여(均如, 917~973)의 전기를 다룬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제4, 立義定宗分者)에는 가야산 해인사에 화엄학의 대가 觀惠와 희랑스님이 있었는데, 관혜스님은 남쪽에서 甄萱의 福田으로, 희랑대사는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되었다고 한다. 즉 희랑스님은 고려 왕실의 비호를 받아 화엄종을 크게 일으켜 10세기경에

는 북악과의 조사이자 해인사의 제3대 조사로서 추앙을 받았다.

유척기(俞拓基, 1691~1762)의 「游伽耶記」(知守齋集 권15)에 따르면, 고려 초
 己酉(949년 추정) 5월에 나라에서 ‘海印尊師圓融無碍不動常寂緣起相由照揚始祖大
 智尊者’라는 시호를 내린 교지가 18세기까지 해인사에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949년경 입적했을 것이며 희랑대사상 역시 10세기 중엽 경 제작되었
 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헌에 등장하는 희랑대사의 명칭에 대해서는 希朗和尚
 (최치원), 希朗禪師(이덕무, 「가야산기」) 希朗祖師(유척기, 「游伽耶記」)로 기록
 되어 있다.

희랑대사의 상과 봉안장소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18세기에 쓴 여러 문집에 등
 장한다(표 1). 기록을 정리해 보면 희랑대사상은 조선시대에는 나무나 흙으로 제
 작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봉안 장소는 1712년 혹은 1727년 해행당에 희랑조사상이
 봉안되어 있었으며, 1490년 祖堂을 철거하여 해행당을 지었으므로 명칭으로 볼 때
 조당에 있던 희랑대사상이 해행당에 봉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1782년 이덕무
 가 해인사를 유람할 때 희랑대사상은 진상전에 봉안되어 있었다. 해행당에 있던
 희랑상이 언제 진상전으로 옮겨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해인사는 1743년(영
 조 19), 1763년, 1780년 연이어 화재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즈음 해행당이 소실
 되면서 진상전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방 조사전에
 오랫동안 진영과 함께 봉안되었었고 그 이후인 1965년부터는 보장전으로 모셔졌
 으며 현재는 정보박물관으로 이안되어 있다.

표 1) 희랑대사좌상과 봉안처 기록(18세기)

연도	출전	내용
1712년	游伽耶記 『知守齋集』, 俞拓基(1691~1767) 문집.	법당의 서쪽에 진상전이 있다. --중략-- 전 아래에는 해행당이 있고 희랑조사의 목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고려의 이름난 승려이다.--후략 (法堂之西。曰眞常殿。-중략-殿下有解行堂。安希朗祖師木像。卽高麗名僧云。)
1714~1725경 추정	北歸記, 『息山先生別集』 3, 이만부 문집(1664~1732)	밤에 해인사에 묵었다. 순응, 이정, 희랑유상 및 대장 총목을 보았다. (夜宿海印。觀 順應 利貞 希朗遺像及大藏總目)
정미년(1727) 9월	南遊記 『春洲遺稿』, 金道洙(1699-1733) 시문집.	22일 을해. 주지 철목이 나를 데리고 법당에 올랐다. 건물은 매우 컸으며 --중략-- 해행당이라는 곳에 희랑소상이 있고 매우 검어 기이했다. (二十二日乙亥。住持哲默引余上法堂。棟宇宏敞。-중략-有解行堂。坐希朗塑像。甚黑詭。)

연도	출전	내용
임인년(1782, 정조 6)	가야산기 『雅亭遺稿』	<p>법당(적광전)의 서쪽에 진상전이 있으니—중략— 오른편 북쪽 벽 아래에는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말의 희랑 선사의 상을 모셔 놓았는데, 얼굴과 손을 모두 까맣게 칠하였고 힘줄과 뼈가 울퉁불퉁 나왔으며 옷 설을 헤쳐 가슴을 드러냈는데 양쪽 유방 사이에 앵두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으니 아마도 그가 생존시에 중완에다 쑥뚝한 흉터를 형상한 것이거나 어쩌면 조각한 지가 오래되어 썩고 좀먹어 구멍이 생긴 것일 것이다. 세상에서는 이를 천홍국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일찍이 《三才圖會》를 보니 천홍국의 귀인들은 반드시 긴 장대로 구멍을 꿰어가지고 두 사람이 가마를 멘 것과 같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희랑 선사의 구멍은 겨우 붓대롱 하나가 들어갈 만하니, 가령 천홍국의 큰 귀인이라 하더라도 꿰어서 메게 되면 붓대롱만한 막대기로는 꺾어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을 것이다.</p> <p>(堂西有眞常殿。.....右北壁下。安羅末希朗禪師木雕像。面手髹漆。筋骨戍削。襟披胸現。乳間有竅容櫻。或象伊人生時。中腕灸痕。或是雕造多年。腐蝨成竅。世傳此穿胸國人。然嘗見三才圖會。穿胸國貴人。必以長杠貫穴。兩人擔之若藍輿。然今希朗之穴。僅容筆管。假令爲穿胸國大貴人。貫而擔之。則杠折而不可動矣。)</p>
<참고> 1490년	해인수 중수원문	판당 普眼堂
		판당 불전을 철거하여 寂光殿 옆으로 옮김 眞常殿
		祖堂을 철거하여 眞常殿 옆으로 옮김 解行堂

2. 현상 및 특징

희랑대사상은 전면은 건칠, 뒷면은 나무로 제작되었으며 건칠부분에는 고정된 철못이 다수 남아 있다. 이러한 기법은 유일한데 과학적인 조사 결과 제작 당시의 원 형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사 기법으로는 신라말 고려초기의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보물 1919호)이 건칠로서 앞판과 뒷판을 접합한 사례가 있다. 즉 두 판을 따로 만들어 접합하는 제작기법은 이 시기에만 등장하며 동아시아에서도 처음 등장하는 형식인 점에서 주목된다.

희랑대사상은 약간 좌측으로 기울이고 정면을 주시하고 결가부좌하였으며 무릎 위에 오른손을 왼손 위에 얹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길쭉한 얼굴에 쌍꺼풀이 있는

작은 눈매, 오뚝하고 뭉툭한 긴 코, 움푹 들어간 양 뺨과 튀어나온 광대뼈, 마른 몸매에 가슴 사이로 드러난 쇠골뼈, 얇고 작은 귀, 세월의 연륜이 묻어나는 주름 표현 등에서 사실주의 조각의 정수를 볼 수 있다. 더욱이 쌍꺼풀이 있는 그윽한 눈매와 훌쩍하게 들어간 입술, 고요한 듯 은은한 미소에는 고승의 法悅에 찬 정신성이 녹아 있다. 인자하면서도 위엄있는 모습에 많은 수행을 거치면서 쌓인 내면의 정신성이 잘 표현되어있는 수작이다.

왼쪽 어깨 위에는 가사를 고정하는 끈과 삼각형의 수술 장식이 표현되었는데. 이는 대홍사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과 같은 통일신라-고려초기의 불상에도 등장하는 특징이다. 살이 없는 몸에는 흰색 바탕 위에 적색, 녹색, 황색의 원점문이 규칙적으로 시문된 장삼을 입고, 그 위에 녹색의 분할선이 있는 붉은색의 가사를 입고 있다. 채색층 밑으로 곳곳에 금색이 드러나 있으며 검은 옷칠층도 남아 있다. 이는 18세기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내용과도 부합된다. 즉 ‘面手髹漆’(가야산기, 1782) ‘坐希朗塑像。甚黑詭’(「南遊記」, 1727) 등으로 이때까지는 검은 옷칠로 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며 18세기 이후 현재와 같이 채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실은 문양으로도 추정이 가능한데, 현재 희랑대사상의 가사 문양은 연속화된 동심원문이 특징이다. 이는 17세기 후반부터 등장하며 18세기 의겸과 그의 영향을 받은 화승들에 의해 유행하였다 (자료 1). 예를 들어 의겸의 작품인 1723년 흥국사 응진전 16나한도, 1725년 송광사 16나한도, 의겸의 제자 색민 등이 그린 1753년 33조사도 등에 보이는 문양이다. 그러나 이 문양과 비교하면 희랑대사상에 그려진 동심원문은 성글어지면서 규칙적으로 표현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오히려 19세기 완주 화암사(1858년), 미국 LACMA소장의 유가사 나한도(1862년)의 문양과 유사하다. 따라서 희랑대사상에 그려진 문양과 채색은 18세기말에서 19세기에 활동한 화승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자료 1) 18-19세기 동심원문 비교



현재까지 희랑대사상과 비교되는 승상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40년대 까지 있었다고 전하는 고려말경의 경기도 화장사의 지공대사상이 유리건판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1636년의 신륵사 조사당의 목조나옹화상, 부석사 조사당 소조의상대사상 그리고 괴산 각연사의 有一大師로 전하는 소조상은 모두 조선후기의 상들이다. 이 승상들은 희랑대사상과는 섬세함과 사실성 그리고 조형적, 예술적인 측면에서 시대적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진다 (자료 2).

희랑대사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승상으로 국내외에 소개되고 있으며, 고승초상조각은 동아시아에서 많이 발견되고 신성시되고 있다. 이에 일본의 경우 국보로 지정된 고승조각은 건칠鑑眞和上坐像(763년, 唐招提寺御影堂), 건칠行信僧都坐像(750~767년경, 法隆寺夢殿), 소조道詮律師坐像(873, 法隆寺夢殿), 목조俊乘上人(重源上人)坐像(1206경, 東大寺俊乘堂), 목조法相六祖坐像(康慶작,1189, 興福寺南円堂), 목조弘法大師坐像(康勝작,1233, 東寺) 등 6건이나 된다 (자료 3)

자료 2) 우리나라 고승 초상조각 주요사례

지공대사상(고려말조선초)	신륵사 나옹화상, 1636년	의상대사상(조선후기)

자료 3) 일본 국보 지정 고승초상조각 주요사례

乾漆鑑眞和上坐像,763년	乾漆行信僧都坐像,750~767년경	木造俊乘上人坐像,1206경

○ 참고문헌

『해인사 목조희랑대사상 보수·보존처리사업』, 합천군·법보종찰 해인사, 2009.
 文明大, 「海印寺 木造希朗祖師眞影(肖像彫刻)像의 考察」, 『美術史學研究』 138 · 139, 韓國美術史學會, 1978.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한국미술연구소, 2014.



○ 현상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채색이 입혀진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박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X-ray 촬영 결과, 상의 뒷부분과 바닥부분은 나무로 골격을 세우고, 앞부분은 건칠 기법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목조불1 본문』, p. 47). 또한 상의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슴 부위와 양쪽 무릎에 다량의 껍쇠가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된다(『목조불1 본문』, p. 74). 그러나 앞부분의 건칠기법이 전통적인 건칠법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옷칠, 금박, 종이 등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어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성분 분석이 요구된다(『목조불1 본문』, pp. 60-61).

○ 내용 및 특징:

해인사 정보박물관에는 신라말 고려 초에 고려 태조 왕건(王建, 918-943 재위)을 도와 고려 건국에 공헌하였던 희랑대사를 모델로 하여 만들었다는 희랑대사좌상(추정생물연대, 889~956/967)이 있다. 희랑대사의 생물 연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10세기에 해인사에 주석했던 화엄교학에 밝았던 승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다.

희랑대사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은 균여(均如, 917-973)의 전기를 다룬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제4, 입의정종분자[立義定宗分者])에서 확인된다. 즉 신라 말,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에 화엄학의 대가 관혜(觀惠)스님과 희랑스님이 있었는데, 관혜스님은 남쪽에서 견훤(甄萱)의 복전(福田)이 되었고, 희랑대사는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되어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것이다.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조선사찰자료(朝鮮寺刹資料)』上)에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왕손인 월광(月光)과 가야지방에서 접전할 때, 희랑대사가 신병을 보내어 태조를 도움으로써 고려 건국에 큰 힘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고려의 건국 후, 태조는 그의 공적에 보답하기 위하여 해인사를 크게 중건하였다.

희랑대사에 대한 또 다른 기록으로는 최치원(崔致遠, 857-900)의 [증희랑화상(贈希朗和尚)]이라는 시에서 확인되는데, 희랑스님을 용수(龍樹)보살과 문수(文殊)보살에 비유하거나 하늘이 우리나라를 교화하기 위하여 보낸 붓다로 비견하고 있으

며, 해인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여 화엄종을 크게 떨쳤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 희랑대사로 추정하게 하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보물 제612호 [사자산흥녕사징호대사탑비(獅子山興寧寺澄曉大師塔碑)](944)의 “원주희랑장노(院主希朗長老)”와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보물 제106호 [보원사지법인국사비(普願寺址法印國師碑)](978)의 “신랑태대덕(神朗太大德)”이라는 명문이 확인된다. 이들 기록은 희랑대사가 신라말 고려초에 활동했던 승려로서 고려 왕실의 비호를 받아 화엄종을 크게 일으켜 고려 10세기 전반에 북악파의 조사이자 해인사의 제3대 조사로서 추앙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희랑대사와 관련되는 이들 기록은 해인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희랑대사좌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이 상이 희랑대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오로지 해인사에서 전해 오는 이야기에 의한 것이다. 희랑대사좌상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희랑대사가 활동하던 10세기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나타난다. 즉 『해인사(海印寺誌)』 12편에 나오는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해인사 기행기인 [가야산기(伽倻山記)]에 처음으로 희랑대사좌상에 대한 기록이 나타난다.

“불당 북쪽 벽 아래에는 나무로 조각해 만든 신라 말의 희랑선사의 상을 모셔 놓았다. 얼굴과 손을 모두 까맣게 칠하였고, 힘줄과 뼈가 울퉁불퉁하게 나왔다. 옷깃을 헤쳐 가슴을 드러내었는데, 양쪽 유방 사이에 앵두가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다. 아마 그가 살아 있을 때 중완(中腕)에다 썩 뜬 흉터를 나타낸 것이거나 어쩌면 조각한 지가 오래되어 썩고 쪼이 먹어 구멍이 생긴 것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다. 이덕무의 기록은 18세기 후반의 것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희랑대사좌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얼굴과 손이 지금은 피부색으로 채색되어 있지만 까맣다고 표현한 것은 이덕무가 봤을 당시엔 옷칠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슴에 구멍이 있어 희랑대사를 “흉혈국인(胸穴國人)”이라고 기록한 [사전(寺傳)]의 내용과 같이 여기서도 가슴에 흉터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한편 나무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아마 옷칠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목조상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덕무가 이 상을 희랑선사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상이 만들어지고 700여년이 지난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 상이 정말 희랑대사의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희랑대사좌상은 양손을 배꼽 앞에서 포개어 잡은 다음, 다소곳한 모습으로 가부

좌를 하고 있다. 약간 긴 장방형의 얼굴과 길쭉한 턱, 마른 체형을 갖추고 있다. 희랑대사좌상은 특정한 사람의 의학적인 골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성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가늘고 긴 이마, 미간·눈가·입가의 가늘고 긴 주름, 얇은 귀, 튀어나온 광대 뼈, 큰 코, 돌출된 목젓, 가슴 중앙의 구멍 등 마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모델로 하여 모델링한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구체적이다.

조선시대 후기에 채색된 것으로 추정되는 얼굴과 손, 법의의 색깔은 화려하지만, 신체 조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색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상이 지닌 수준 높은 조형성을 퇴색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비록 채색이 화려하여 보는 사람의 시야를 가리긴 하지만, 팔과 무릎을 덮고 있는 법의 자락의 부드럽고 유기적인 조형은 수준 높은 장인의 솜씨를 짐작하게 해 준다.

한편 정면을 응시하면서 조용하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모습은 오랜 기간 수행에만 정진하던 승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희랑대사좌상은 상의 조형적인 특징은 물론, 그 이면에 있는 정신적인 면까지 잘 표현된 수준 높은 작품이다. 상에 보이는 비례와 표현 등 조형적인 특징은 희랑대사좌상이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희랑대사좌상은 우리나라 전시기에 걸쳐 현존하는 유일한 진영조각상이자 최초의 목심건칠조각상(木心乾漆彫刻像)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1. 『해인사 목조희랑대사상 보수 · 보존처리사업』, 합천군 · 법보종찰 해인사, 2009.
2. 『목조불1 본문』, 문화재청, 2013, pp.40-77.
3. 『목조불2 도판』, 문화재청, 2013, 도1-4, 97-100.

<사진자료>



사진1. 희랑대사좌상 정면과 후면



사진2. 희랑대사좌상 측면



사진3. 희랑대사좌상 밑면



사진4. 희랑대사좌상 부분



사진5. 희랑대사좌상 부분



사진6. 희랑대사좌상 부분



사진 7. 희랑대사 부분



사진8. 희랑대사좌상 부분



○ 현 상

- 합천 해인사 정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희랑대사상은 엑스선 촬영 사진을 통해 두부·신부의 뒷면, 밑면 등은 나무로 제작되었고, 상의 앞면은 건칠(칠포)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가슴과 복부, 하반신 등에 설치된 다량의 격쇠는 나무판에 漆布를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나무판과 칠포가 결합된 건칠불상 제작 기법이 제작 당시의 기법인지 아니면 후대의 보수에 의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상은 현존 最古의 승려초상 조각으로 부분적인 안료 탈락, 틀어짐 등 손상이 있지만,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 불보살상 등 불교의 造像 규정에 따라 제작된 상들과 달리 실제 승려의 개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 내용 및 특징

- 결가부좌로 앉아 두 손은 배 앞에 叉手하고 있으며, 목은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있으나 얼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긴 얼굴에는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턱도 뾰족하다. 이마, 눈가, 입 주위 등에 음각된 자연스러운 주름을 통해 노년에 접어든 고승의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다. 선정에 들지 않은 평시의 눈과 부드럽게 다물고 있어 입에서 평온하게 늙은 대사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
- 옷은 안쪽에 長衫(또는 直裰)을 입었고, 바깥쪽에는 田文相이 그려진 가사를 착용하고 있다. 가사는 몇 條 가사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每條 四長一短의 上品 袈裟로 판단된다. 大衣는 편단우견 방식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左肩 아래 앞뒤에는 鉤紐가 장착되어 있다.
- 현재의 채색은 조선시대 18세기 말 이후에 베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8세기에 해인사를 방문했던 儒者들의 기행문에 모두 검은색 옷칠로 마감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조상은 늦어도 조선 18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희랑조사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직접적인 근거는 아직 발견된 바 없다. 그러나, 조선 후기 관리인 유척기의 기행문인 「游伽倻記」에 의하면 1712년 당시까지 고려 光宗이 희랑대사에게 諡號를 내린 教旨 등 희랑조사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으며, 희랑에 대한 1차 기

록물이 남겨져 있던 시기에 이 조상이 희랑으로 알려져 있었던 사실은 조상과 기록물의 관계가 상당히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케 한다.

- 희랑의 만년에 대한 기록 중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944년)에 院主로 등장하고 있으며(院主 希朗長老……甲辰六月十七日立), 조선시대 兪拓基(1691-1767)의 「游伽倻記」(1712년)에 희랑에게 시호를 내린 教旨(己酉五月日=949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들 두 기록에 의하면 희랑은 944년 6월 이후에서 949년 5월 이전의 어느 해에 입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초상 조각이라는 특성, 그리고 희랑의 성품과 개성까지 잘 묘사된 희랑대사상의 조형적 특징으로 보아, 이 상은 희랑의 입적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이기에, 10세기 중엽 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寧越 興寧寺 澄曉大師寶印塔碑」; 兪拓基, 「游伽倻記」, 『知守齋集』; 金道洙, 「南遊記」, 『春洲遺稿』; 崔興遠, 「遊伽倻山錄」, 『百弗庵集』; 河鎭兌, 「遊伽倻錄」, 『杏亭文集』; 李德懋, 「伽倻山記」, 『雅亭遺稿』 (정소라, p. 37)

* 兪拓基, 「游伽倻記」, 『知守齋集』 권15: “壬辰(1712)……八月……至海印寺……大寂光殿……殿下有解行堂. 安希朗祖師木像. 卽高麗名僧云.……高麗時. 賜希朗祖師諡號教旨亦有之. 書曰贈海印尊師圓融無導不動常寂緣起相由照揚始祖大智尊者. 下書己酉五月日. 安寶而篆以高麗王印.”

* 李德懋, 「伽倻山記」, 『雅亭遺稿』 권3: “壬寅(1782)二月…十九日……佛堂西有眞常殿……右北壁下. 安羅末希朗禪師木雕像. 面手髹漆. 筋骨戍削. 襟披胸現. 乳間有竅容櫻. 或象伊人生時中脘灸痕. 或是雕造多年. 腐蠹成竅.……”

○ 참고문헌

1. 『목조불1 본문』, 문화재청, 2013.
2. 정소라,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은 2012년 제3차 동산문화재분과 위원회 국보승격 관련 검토안건으로 부의되었으나, 제작기법에 대한 자료 부족, 내부 구조에 대한 확인, 희랑대상의 역사성 등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뒤 국보지정 문제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으로 보류된 바 있다.

희랑대사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 함께 매우 중시되고 있는 해인사의 聖像으로 외부 노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지만, 2018년 12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대고려 특별전에 특별히 출품되어 전국민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희랑대사는 후삼국 쟁탈기 해인사에서 북악을 이끌며 왕건을 지지하여 후삼국 통일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그는 9세기 말 해인사에서 화엄학의 대가로 이름을 떨쳤음을 최치원이 지은 여섯 수의 시에서 확인된다. 후삼국 통일 이후 왕건의 스승으로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던 희랑대사의 위상은 더 높아졌고, 그에 따른 해인사에 대한 고려왕실의 지원도 컸다. 희랑대사 초상조각이 만들어지는 배경도 이와 유관하다. 희랑대사의 입적연대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척기의 「유가야기」에 기록된 諡號教旨를 내린 시기인 949년경으로 추정되며, 희랑대사상도 입적을 전후한 시기 그를 추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승려의 초상조각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첫째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固化하는 肉身像, 둘째 이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肉身像 위에 베를 입혀 칠을 하는 加漆肉身像, 셋째 屍身을 화장하여 유해를 흙과 섞어 조각하는 遺灰像이 있다.⁵⁵⁾ 중국 경우 승려의 육신상을 봉안한 사례가 3세기 말부터 등장하지만 현전하는 상은 없다. 가칠육신상으로는 713년 제작으로 알려진 六祖 慧能大師像이 알려져 있는데, 이 상은 미라(Mirra)화된 혜능의 육신 위에 제자들이 옷칠을 하고 철대로 보강한 것이라고 하며 현재 광동성 南華寺 祖殿에 모셔져 있다. 일본의 경우 763년 탈환건칠로 제작된 鑑眞和尚像(688~763)이 가장 오래된 사례이며, 이 상은 도쇼다이지(唐招提寺) 봉안되어 있다. 원래 영당에 감진의 유해를 안치하였다가 미라화에 실패하자 유해는 화장하고 건칠초상조각으로 제작하여 안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희상은 신라인이었던 無相(680~756)과 僧伽(617~710)의 제자 木叉, 그리고 束草師의 사례가 『宋高僧傳』에 기록되어 있고, 현존하는 예로는 둔황 막고굴 제17굴에 있는 洪鑿(?~862)의 소조상이 남아 있다.

55) 小杉一雄, 「肉身像及遺灰像の研究」, 『東洋學報』 24-3, 1937



도409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정면



도410 좌측면



도411 우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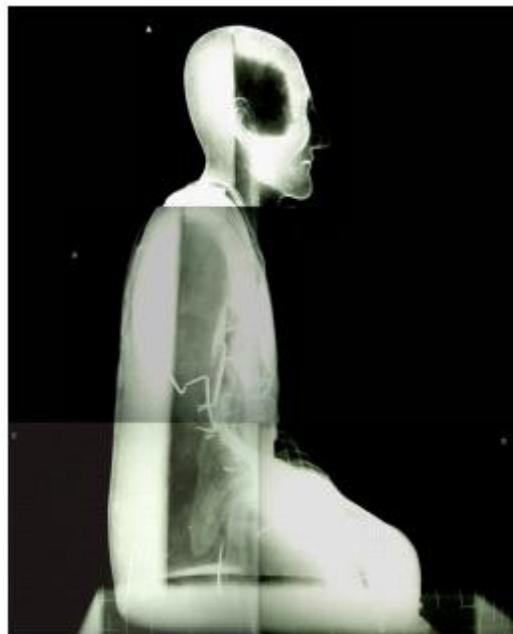


도412 배면

우리나라의 경우 화장한 원효대사의 유해를 흙에 섞어 초상조각을 만들어 분황사에 봉안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며, 이 상은 고려 중기까지 전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외 경주 흥륜사 금당에도 신라시대 十聖[我道, 猷鬻, 惠宿, 安舍, 義湘(이상 동벽), 表訓, 蛇巴, 元曉, 空慧, 慈藏(이상 서벽)]을 소조상으로 만들어 봉안하였다고 하지만 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10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상은 현존 最古의 초상 조각임에는 분명하다.



도410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 X-RAY 촬영(정면)



도 411 측면

해인사 건칠희랑대사좌상은 위에서 언급한 초상조각의 제작방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드러나는 기법과 재료의 특성상 독특한 제작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현재 X-RAY 필름상 일반적인 건칠기법에서 보이는 직물과 칠의 누적된 층위가 확인되지 않고, 塑造像처럼 여러 재료를 혼합·반죽하여 만든 가소성의 재료로 성형한 것처럼 보인다. 파괴분석이 불가능한 현재 몸체를 이루고 있는 이 가소성의 재료의 성분과 탄소연대 측정을 통한 연대분석은 어려운 상태이므로 인문학적 분석과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이상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실시한 엑스선 조사, 표면 성분분석, 그리고 금번에 실시한 내시경을 통한 내부조사를 통해 ‘半乾漆半木材’로 제작된 제작기법과 전통안료로 채색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만으로도 한국조각사에 기법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像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반건반목’이라는 지금껏 한국조각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제

작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 건칠기법의 원류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사실 이 상은 통건칠에서 여러 세월을 거치는 동안 뒷부분이 훼손되어 나무로 보수한 상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나 내시경 조사와 엑스레이 조사를 종합한 결과 앞뒷면은 제작 당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상 상이 파손되어 후대에 보수하게 되면, 파손된 부위 위주로 유사한 재료나 다른 재료로 보강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다른 재료로 보강할 경우 연결 부위를 못이나 꺾쇠로 고정하는 경우가 많다. 해인사 회랑대사의 경우 앞면과 뒷면을 정확히 분할하였는데, 이는 의도된 분할로 생각된다. 더불어 분할면은 전통접착제를 이용하여 면과 면을 이어붙이고, 결합 면을 이격을 막기 위해 직물로 배접하고 최종적으로 채색을 올려 마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앞면과 뒷면을 다른 소재로 제작하여 이어붙이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X-RAY 필름상 표면의 군데군데 확인되는 못과 꺾쇠는 반죽으로 성형한 건칠재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사용된 못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제작기법을 취한 건칠불상은 나말여초로 추정되는 봉화 청량사 건칠 약사여래좌상에서 확인된 바 있다. 재질과 만드는 과정이 약간 다르지만 나말여초 철불의 제작방식도 이러한 기법의 원류를 고찰하는데 참조가 된다. 철불은 진흙으로 원형을 만든 뒤 표면에 분리제를 바르고 바깥 틀을 제작하고, 다시 바깥 틀을 분리하여 주조하고자 하는 두께만큼 원형을 일정한 두께로 깎아 내고 다시 분리된 외형을 이어 붙이고 내틀과 단단히 고정한 다음 쇳물을 부어 제작하는 방식을 취한다. 근본적인 제작방식은 차이는 있겠으나 틀을 분리하여 다시 이어 붙인다는 개념적인 측면에서 같은 시기에 행해진 유사한 제작 방식이 건칠불상에도 적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참고문헌

- 최성은, 「『삼국유사』를 통해 본 芬皇寺의 중대신라 불교미술」, 『문화재』 47, 국립문화재연구소, 2014
- 정소라, 「해인사 건칠회랑대사좌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6

IV.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4-012

12.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

가. 검토사항

‘간이벽온방(언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간이벽온방(언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8.6.11.)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2.19.) 및 보완조사(‘20.3.12.)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간이벽온방(언해)[簡易辟瘟方(諺解)]
- 소 유 자 : 국유(국립한글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9, 국립한글박물관
- 수 량 : 1권 1책(25장)
- 규 격 : 半郭 22.1×15.2cm, 32.3×20.2cm
- 재 질 : 저지(楮紙)
- 관 종 : 금속활자본(乙亥字)
- 형 식 : 선장(線裝)
- 조성연대 : 1578년(선조 11) 이전 추정



그림 400. 간이벽온방(언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지정가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중종 20(1525)년에 醫官 金順蒙(?~?)·劉永貞(?~?)·朴世舉(?~?) 등이 왕명을 받아 瘟疫(돌림병)의 치료에 필요한 處方文을 모아 漢文과 아울러 한글로 諺解하여 중종 20(1525)년에 간행된 單卷의 韓醫學 專門書를 저본으로 하여 선조 11(1578)년 이전에 乙亥字로 간행된 版本이다.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에는 “宣賜之記”와 「內賜記」를 통하여 成均館博士 金緝(1610~?)에게 頒賜된 것과 본서가 늦어도 선조 11(1578)년 정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 중에서 가장 앞선 판본으로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하며, 특히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의 『簡易辟瘟方(諺解)』는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諺解)』보다 35年이나 뒤에 刊行된 版本이다.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韓醫學뿐 아니라 國語學·書誌學·民俗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이상과 같은 稀貴性和 貴重性を 지닌 만큼,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거기준>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의 『簡易辟瘟方(諺解)』는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諺解)』보다 35년이나 뒤에 刊行된 版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조사본 『간이벽은방』은 1578년(선조 11)년에 을해자(乙亥字)로 중간된 판본에서 찍은 책이다. 이 책의 초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으므로 가장 앞선 책이라 할 수 있다.

더욱 책의 권두에는 ‘선사지기(宣賜之記)’가 찍혀 있고, 앞 표지 이면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手決]”의 내사기(內賜記)가 있어 1578년(선조 11, 만력 6)년 정월에 당시의 도승지였던 윤두수(尹斗壽, 1533~1601)에 의하여 성균관박사 김집(金緝, 1610~?)에게 반사(頒賜)된 책이라는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조사본은 이미 지정된 보물 제1249호 『간이벽은방』이 1613년(광해군 5)에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로 간행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30여 년 이상 앞서 간행된 책이라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조사본 『간이벽은방』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지정신청본은 중종 20(1525)년에 醫官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등이 왕명으로 瘟疫(전염병)의 치료에 필요한 處方文을 漢文 원문과 한글로 諺解하여 간행한 1卷1冊의 韓醫學書 「簡易辟瘟方」을 저본으로, 선조 11 (1578)년 이전에 乙亥字로 간행한 重刊本이다. 간행시기는 선조 11(1578)년 정월에 成均館博士 金緝(1530-1580)에게 頒賜되었다는 ‘內賜記’를 근거로 본서가 선조 11(1578)년 정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본 「簡易辟瘟方」은 현존하는 『簡易辟瘟方』의 版本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희귀한 판본이며, 기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호 「簡易辟瘟方(諺解)」보다 35년이나 앞서 간행된 판본이다. 또한 「簡易辟瘟方」은 중세 한의학 연구 및 국어학, 서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귀중한

판본이므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연구하고 보존 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書誌記述 및 現狀

현재까지 전하는 乙亥字本 系列 및 訓鍊都監字本 系列의 모든 『簡易辟瘟方[診解]』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乙亥字本 系列의 書誌記述]

□ 日本 宮內廳 書陵部 所藏本 (未實查)⁵⁶⁾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敎撰.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中宗 36(1541) 印出].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2×15.3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28.2×19.2cm. 韓紙(楮紙). 線裝(四針眼訂法, 改裝). (藏號: 555-16).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合 綴: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診解]

印 文: 陽松, 佐伯侯毛利高標字培松藏書畫之印, 帝室圖書之章.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學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學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吁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敎謹書. (卷頭)

56) 韓國海外典籍文化財調查研究會 編, 『海外典籍文化財調查目錄: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 서울: 韓國海外典籍文化財調查研究會, 2001. p.69.

啓 文: 書寫成冊令校書館十九件刻日印出十件乙良本曹及典牲署司畜署五部典醫監惠民署爲等如分上九件乙良開城府及八道急速分送令各道即時刻板多印分送于各官染疫爲追平…嘉靖二十(1541, 중종 36)十一月二十五日左承旨臣權應昌次知啓依允.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 國立한글博物館 所藏本 (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3×20.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藏號: 000113-00000).

表 題: 簡易[辟瘟方 缺落].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六(1578)年正月日」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命除謝」恩」都承旨臣尹[手決]. (당시 都承旨는 尹斗壽이다).

印 文: 宣賜之記, 日休堂, 孳印.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齎藥餌以救之尚/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 以方言印頒中外使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墨 書: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 (後表紙 裏面).

所藏歷: 국립한글박물관이 2013년에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遺物이다. (유물취득경위서 참간).

現 狀: 表紙와 本文 사이의 空紙에 다소의 變色과 헤진 痕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漏濕의 痕적이 있으나 그 나머지는 保存의 狀態가 良好한 편이다.

評 價: 本書는 선조 11(1578)년 正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6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보다 35년이나 늦게 간행된 訓鍊都監字本이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高麗大學校 晚松文庫 所藏本(1)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0×15.1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1.8×19.3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晚松 貴203).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六(1578)年正月日「內賜行副護軍李仲樸簡易辟瘟方一件」命除謝「恩」都承旨臣尹[手決]. (당시 都承旨는 尹斗壽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선조 11(1578)년 正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6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보다 35년이나 늦게 간행된 訓鍊都監字本이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本(2)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1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1.8×19.9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大學院 貴203A).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無].

印 文: [無].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선조 11(1578)년 이전의 重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6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보다 35년이나 늦게 간행된 訓鍊都監字本이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訓鍊都監字本 系列의 書誌記述]

□ 嘉泉博物館 所藏本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3×14.9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2×18.7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寶物 第1249號).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奎章閣 韓國學研究院 所藏本(1)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3.0×21.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奎 3199).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年(1613)正月日」內賜辟瘟方一件五臺山上」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裏面). (당시 右承旨는 李信元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
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
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
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本(2)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
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
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3.0×21.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
號: 奎 5277).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1613)年正月日」內賜辟瘟方一件校書館上」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
裏面). (당시 右承旨는 李信元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灾/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學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
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飭/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
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
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
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本(3)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
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
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3×20.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藏號: 奎 5696).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年(1613)年正月日」內賜辟瘟方一件太白山上」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裏面). (당시 右承旨는 李信元이다).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所藏本(4) (未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3.0×21.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奎 7850).

序 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印 文: 宣賜之記, 弘文館, 帝室圖書之章. (卷頭).

編 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 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의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 (實查)

簡易辟瘟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教撰. -- 木活字(訓練都監

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 四周雙邊, 半郭 22.3×14.6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2×19.7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藏號: 奎 3199).

表題: 簡易[辟瘟方].

序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印文: 宣賜之記(8.2×8.2cm, 字徑 5.0cm), 清陰, 尹錫昌印. (卷頭).

編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所藏歷: 1979년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이 창설되고 1980년 무렵에 尹錫昌으로부터 구입한 8,000여 책 중의 일부.

現狀: 비교적 양호함.

評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調査者 個人 實査)

簡易辟瘟方[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敎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 四周雙邊, 半郭 22.4×14.7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1.3×19.0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

序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四十一(1613)年二月日 內賜辟瘟方一件[■上] 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裏面). (■부분은 漆墨되어 있으나 機關名인 듯하며, 당시 右承旨는 李信元이다).

印文: 宣賜之記. (卷頭).

編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墨書: 冊主新安曹

序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瘧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瘧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所藏歷: 購入.

現 狀: 表紙를 제외하면 대체로 양호함.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所藏本 (未實查)

簡易辟瘧方[診解]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敎撰. -- 木活字(訓練都監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 正月 以前 推定].

不分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3×14.7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5×20.3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藏號: 615.3202김순몽ㄱ).

序 題: 簡易辟瘧方.

卷頭題: 簡易辟瘧方.

版心題: 辟瘧方.

卷尾題: 簡易辟瘧方.

內賜記: 萬曆四十一年(1613)年正月日「內賜刑曹參議尹銑辟瘧方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李[手決]. (前表紙 裏面).

印 文: 宣賜之記. (卷頭).

編 成: 簡易辟瘧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瘧方(22張).

序 文: 簡易辟瘧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灾/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瘧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瘧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評 價: 本書는 光海君 4(1612) 12月 22日~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の 刊本으로서 傍點이 없는 17세기 國語學 研究의 자료일 뿐만 아니라 韓醫學 研究의 자료로도 그 가치가 높다.

既指定: 현재 同一의 訓練都監字本이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指定되어 있다.

□ 現 狀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指定申請本 『簡易辟瘧方(診解)』는 表紙와 本文 사이의 空紙에 다소의 變色과 헤진 흔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漏濕의 흔적이 있으나 그 나머지는 保存의 狀態가 良好한 편이다.

○ 內容 및 特徵

『簡易辟瘟方(諺解)』는 중종 20(1525)년에 醫官 金順蒙(?~?)·劉永貞(?~?)·朴世舉(?~?) 등이 왕명을 받아 瘟疫(돌림병)의 치료에 필요한 處方文을 모아 漢文과 아울러 한글로 諺解하여 엮은 單卷의 韓醫學 專門書이다.⁵⁷⁾

『簡易辟瘟方(諺解)』의 卷頭に 수록된 金希壽(1475~1527)의 「序文」에 의하면 중종 19(1524)년 가을부터 이듬해(1525) 봄까지 平安道 全域에 傳染성이 강한 熱病人 厲疫이 크게 번져 많은 百姓이 病死하자, 국왕이 行副護軍 金順蒙 등에게 溫疫에 필요한 모든 方文을 뽑아서 엮고 한글로 翻譯하도록 하여 편찬된 것⁵⁸⁾으로 기록되어 있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중종 20(1525)년 5월에 이를 간행하여 널리 보급한 것⁵⁹⁾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簡易辟瘟方(諺解)』의 초간으로 乙亥字의 金屬活字로 간행되었다. 현재 이 초간본은 日本의 宮內廳 書陵部 所藏⁶⁰⁾되고 있을 뿐 국내에 전해지는 판본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簡易辟瘟方(諺解)』는 그 후로 선조 11(1578)년에 乙亥字의 금속활자로 간행되 바 있으며, 광해군 4(1612)년에 訓練都監 木活字로 간행된 판본도 있다. 『광해군일기』에 의하면 광해군 4(1612)년 12월에 “政院에서 ‘지금 癘疫이 극성한 데, (咸境과 江原의 兩道 뿐 아니라 都城 및 諸道에 이미 전염되었으며, 다른 곳도 다 그러합니다. 앞으로의 걱정도 지금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니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辟瘟方』이란 서적은 長數가 많지 않아 만들기가 쉽습니다. 속히 校書館으로 하여금 많은 다수를 印出하게 하여 中外에 널리 배포하여 위급한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아뢰자, ‘윤희한다’고 전교하였다.”⁶¹⁾고 기록하

5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1月 23(壬午)日條.

下新抄辟瘟方于政院曰 此方書 藥名甚多 依前例 諺解印出可也 但待印出 則似乎遲緩 姑傳寫 竝辟瘟藥 下送于咸鏡 平安等道 且印出辟瘟方 宜令色承旨 略序首尾於篇末 使後世 知某時所著 前有辟瘟方 此則可名以續辟瘟方也.

58) 金順蒙 等 奉教撰, 『簡易辟瘟方』, 金屬活字(乙亥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中宗 36(1541) 印出]. ‘簡易辟瘟方序’條.

歲甲申(1524, 中宗 19)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舉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中宗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5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5月 6(甲子)日條.

頒賜辟瘟方于中外.

60) 韓國海外典籍文化財調查研究會 編, 『海外典籍文化財調查目錄: 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 서울: 韓國海外典籍文化財調查研究會, 2001. p.69.

61)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12月 22(辛亥)日條.

壬子十二月二十二日辛亥政院啓曰 目今癘疫熾發 (非但咸鏡·江原兩道 如京城及諸道 已爲傳染 處處皆然 將來之患 亦不止此 不可不預爲之備) 辟瘟方一書 張數不多 工役易就 速令校書館多數印出 廣布中外 以爲救急之地何如傳曰 允.

고 있다. 이러한 전교에 따라 간행된 『簡易辟瘟方(諺解)』이 訓鍊都監 木活字로 간행된 판본이다.

『簡易辟瘟方(諺解)』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金順蒙·劉永貞·朴世舉 등 주로 燕山君朝와 中宗朝에 활약한 醫官들로 이들의 자세한 傳記資料가 전하지 않아 정확한 生沒年代는 알 수 없다.

金順蒙은 中宗年間의 의원으로 후일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로 惠民署 提調御醫를 역임한 河宗海(1500~1571)와 더불어 許琮(1434~1494)의 門下生이었으며, 중종 11(1516)년에 內醫院 提調가 되고 중종 12(1517)년에는 大妃移御所의 侍藥醫員을 지내며 腫氣의 治療에 뛰어난 名醫로 알려져 중종 14(1519)년 3월에는 晉州까지 과송되어 晉州君 姜渾(1464~1519)의 大腿部에 생긴 종기를 치료한 功勞로 判官에서 堂上官의 서품을 받기도 하였다. 중종 20(1525)년에는 行副護軍의 직책으로 劉永貞·朴世舉 등과 함께 『簡易辟瘟方』을 편찬하였으며, 중종 27(1532)년에는 河宗海·洪沈(?~?)과 함께 궁중에 드나들며 여러 차례 중종의 병을 진료한 인물이다. 劉永貞은 金順蒙보다 이른 燕山君朝부터 의원으로 활약하여 연산군 9(1503)년에 醫學教授로서 東班을 제수되고 중종 2(1507)년에는 縣監으로 임명되었다. 중종 12(1517)년에는 大妃의 질환에 侍藥 醫員으로 金順蒙과 함께 堂上官에 제수되었으나 臺諫의 상소로 취하되고 말았다. 중종 20(1525)년에는 중6품의 禮賓寺主簿로 있으면서 金順蒙·朴世舉 등과 함께 『簡易辟瘟方(諺解)』를 편찬하였다.

朴世舉는 중종 21(1526)년에 內醫院 直長이 되고 중종 20(1525)년에 『簡易辟瘟方』이 간행되던 당시에는 前內醫院正이었다. 중종 27(1532)년부터 왕의 종기를 돌보아 중종 28(1533)년에는 그 功勞가 많다고 하여 准職同知로 加資되었을 뿐 아니라 軍職으로 內醫員을 겸하였다. 중종 37(1542)년에는 行護軍職으로 司猛을 겸하면서, 慕齋 金安國(1478~1543)이 왕명을 받아 瘟疫治療의 醫書인 『分門瘟疫易解方』을 편찬할 때에, 醫司 護軍 朴世舉·司猛 洪沈·內醫院正 文世璉(?~?)·直長 柳之蕃(?~?)·典醫 李倜(?~?)·前直長 鄭樞(?~?)·惠民署 前直長 洪世河(?~?) 등의 內醫院 醫員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分門瘟疫易解方』은 여러 醫書에서 실시하기 쉬운 藥方과 비치하기 쉬운 藥材를 골라 舊抄 60餘方에 다시 40餘方을 보태어 鎖鑰·不相傳染·服藥·勞服 등 4門으로 나누고 藥名과 採取法을 더하여 모두 한글로 翻譯·刊行한 것⁶²⁾으로 동년(1542) 6월에 함경도의 宗성·온성·경원·부령·

62) 金安國 著, 『慕齋先生集』. 卷11. 序. ‘分門瘟疫易解方序’條.

我聖上之三十七年 適值歲氣流運 癘疫熾發 遍于諸道 聖上惻念 命分遣醫員 考方劑藥救療 猶慮窮村僻鄉 醫或未及 遍歷 民之罹病者 未解治救之方 多致橫札之患 舊存辟瘟兩方抄錄 尙漏禳辟療治 又復混雜 且無藥名採法 蒙愚之民 尤所難解 雖有其方 不能濟急 乃命因舊方加抄簡要易解之方 分爲門類 并錄諸藥鄉名採收之法 彙成新方 刊刻中外 務令廣布 俾民人家有而人解 病之未發 預辟之 已發 旋救之 期無札瘥 以納仁壽之域 臣安國實承睿旨而摠之 轉下醫司 行護軍臣朴世舉·行司猛臣洪沈 率內醫院正臣文世璉·直長臣柳之蕃·典醫監前僉正臣李倜·前直長臣鄭樞·惠民署前直長臣洪世河等 掌而哀集 旁搜諸書 方取易施 藥取易備 於舊抄六十餘方 添入四十餘方 分爲四門 首鎖鑰 次不相傳染 次服藥 次勞復 繼之以藥名採法 皆翻解諺文 於是 救癘之方 秩然分曉 雖愚夫愚婦 可盡解識而易用 遂繕寫以進 賜名曰分門瘟疫易解方 臣竊惟 天地運化 唯以生物爲心 帝王承天莅位 其所施設 孰非仁民愛物之政 制爲醫藥 救活物命 所係尤切 況諸病之中 癘疫之作 薰染轉熾 淫于一家一鄉 以至被于遠邇 橫斃滅門者

경성·경흥·회령 등에 溫疫이 크게 유행하자, 이 醫書를 보내 救療한 사실⁶³⁾이 『中宗實錄』에 수록되어 있다. 명종 원(1546)년에는 嘉義大夫 僉知中樞院事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한편, 『簡易辟瘟方(諺解)』의 편찬에 앞서 세종 27(1445)년에 왕명에 의하여 편찬된 한의학 백과사전인 『醫方類聚』에 수록되지 않은 疫病治療의 處方을 뽑아 평안도에 보내 시험하도록 하고 辟瘟에 관한 醫藥을 먼저 평안도와 함경도에 보내었다. 나아가 새로 편찬한 『辟瘟方』은 承政院으로 보내 많은 전례에 따라 翻譯·印出하였으며, 먼저의 『辟瘟方』을 印出할 때에 나중의 『辟瘟方』이 있으면 이것도 『續辟瘟方』이라 이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다.⁶⁴⁾ 이러한 전후의 사정을 감안할 때 『續辟瘟方』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종 20(1525)년에 溫疫에 필요한 모든 方文들을 뽑아서 최종으로 『簡易辟瘟方』을 엮어 보급한 것으로 보인다.

『簡易辟瘟方(諺解)』의 記述의 體制는 病의 原因을 먼저 서술하고 그 뒤에 病症과 그에 따른 處方을 기술하였는데 특히 處方에 필요한 藥材名과 調劑法이 자세하다. 方文의 서술은 漢文의 原文을 앞세우고 이어서 諺解文을 붙이고 漢文原文의 音을 小字로 적고 있어, 일반 백성들도 處方을 이해할 수 있도록 諺解하고 諺解에서도 藥材名과 같이 중요한 부분은 誤謬를 줄이기 위하여 漢文을 병기하고 있다.

『簡易辟瘟方(諺解)』에 수록된 내용은 疫癘의 病候와 藥名 및 治法 등을 간명하게 서술하고 각각의 항목마다 註釋을 붙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疫癘病의 徵候와 豫·處方法, (2) 獄溫·傷溫·墓溫·廟溫·社溫·山溫·海溫·家溫·竈溫·歲溫·天溫·地溫 등의 原因과 豫·處方法, (3) 蘇合香元의 效能과 服用法, (4) 石雄黃의 효능과 복용법, (5) 香蘇散의 효능과 복용법, (6) 十神湯의 효능과 복용법, (7) 升麻葛根湯의 효능과 복용법, (8) 屠蘇酒의 효능과 복용법, (9) 螢火丸의 효능과 복용법, (10) 虎頭殺鬼元의 효능과 복용법, (11) 神明散의 효능과 복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疫病의 治療藥으로 湯약은 ‘湯’으로 가루약은 ‘散’ 알약은 ‘丸’으로 나누어 그 제조법 및 사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방법 외에도 “又方”이라 하여 별도로 33가지의 간결한 處方法과 豫防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1) 病者의 의복이나 그릇을 깨끗이 하라, (2) 술있을 갈아 술에 한 손갈씩 풀어 하루 3회 복용하라, (3) 病者가 누운 자리에 쭈뚝을 뜨라, (4) 따뜻한 무즙이나 박즙을 먹어라, (5) 설날 아침에 파·염구·마늘·해채·생강 등 五辛蔬를 먹어라, (6) 人

相踵 爲毒最亟 言之慘痛 聖上軫念至此 眞能體天地生物之心 而吾東方百萬億蒼生 永受其賜於萬世 保命遂性 熙熙樂生 休和充裕 殃沴自消 皇天降鸞 靈祚無窮 嗚呼至矣 內而若書局 若醫司 外而若監司 若守令 苟能體聖上至仁之政 盡心鉅梓 期永流布 則活人之善 亦應感動於天 而與蒙其垂祐矣 嘉靖二十一年蒼龍壬寅五月下澣 崇政大夫 行禮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五衛都總府都總管臣金安國拜手稽首謹序。

6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37年 6月 13(壬辰)日條.

咸鏡道 鍾城·穩城·慶源·富寧·鏡城·慶興·會寧等邑 癘疫熾發 溫疫易解方 下送救療。

64)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1月 23(壬午)日條.

下新抄辟瘟方于政院曰 此方書 藥名甚多 依前例 諺解印出可也 但待印出 則似乎遲緩 姑傳寫 竝辟瘟藥 下送于咸鏡 平安等道 且印出辟瘟方 宜令色承旨 略序首尾於篇末 使後世 知某時所著 前有辟瘟方 此則可名以續辟瘟方也。

糞은 여러 가지 毒을 없애준다, (7) 여자의 月經도 좋다 등과 같은 것이다.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현재까지 傳來의 현황(<表 1>) 및 版本別 文化財指定 現況(<表 2>·<表 3>)은 다음과 같다.

<表 1>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傳來

區分	中宗朝 刊本	宣祖朝 刊本	光海君朝 刊本	備考
書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本	[不明](未實查)	乙亥字本(金屬活字本)	訓鍊都監字本(木活字本)	
刊年	[中宗 20(1525)年 5月] ⁶⁵⁾	宣祖 11(1578)年 1月 以前 ⁶⁶⁾	光海君 5(1613)年 ⁶⁷⁾⁶⁸⁾⁶⁹⁾	
卷冊數	[不分卷 1冊]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	
邊欄	[不明](未實查)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郭	[不明](未實查)	22.1×15.2cm 內外	22.3×15.5cm 內外	
界線	[不明](未實查)	有界	有界	
行字數	[不明](未實查)	漢文 9行 17字 諺解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解文 9行 16字 註雙行	
板口	[不明](未實查)	白口	白口	
魚尾	[不明](未實查)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所藏處	·[日本 宮內廳 書陵部]	·國立한글博物館(實查) ·高麗大學校(2)(未實查)	·嘉泉博物館(未實查) ·奎章閣韓國學研究院(4)(未實查)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實查) ·清州古印刷博物館(實查) ·啓明大學校童山圖書館(未實查)	

6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中宗 20年 5月 6(甲子)日條.
頒賜辟瘟方于中外.

66) 金順蒙 等 奉教撰, 『簡易辟瘟方』. 金屬活字(乙亥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印出]. 前表紙裏面. '內賜記'條.
萬曆六(1578, 선조 11)年正月 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 恩/ 都承旨臣尹[手決].

67)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4年 12月 22(辛亥)日條.
壬子十二月二十二日辛酉政院啓曰 日今癘疫熾發 (非但咸鏡·江原兩道 如京城及諸道 已爲傳染 處處皆然 將來之 患 亦不止此 不可不預爲之備) 辟瘟方一書 張數不多 工役易就 速令校書館多數印出 廣布中外 以爲救急之地何如 傳曰 允.

68)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5年 1月 3(辛酉)日條.
癸丑正月初三日辛酉政院啓曰 實錄奉安處 例藏他古今書籍 已覺充棟 慮有浩汗之弊 惟我國纂定事跡草集·傳記· 諸家述作·中朝所無書籍 不可不分藏 以備文獻之徵 從之.

6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光海君 5年 2月 22(庚戌)日條.
癸丑二月二十二日庚戌咸鏡監司狀啓 '自今年正月以後 安邊等八邑 癘疫死亡者 一百二十人' 云.

<表 2> 宣祖朝 刊行『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 現況

區分	日本 宮内廳 書陵部	國立한글博物館	高麗大學校晚松文庫	高麗大學校中央圖書館	備考
書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本	乙亥字(金屬活字)本	乙亥字(金屬活字)本	乙亥字(金屬活字)本	乙亥字(金屬活字)本	
刊年	中宗 36(1541)年 11月 25日 以前	宣祖 11(1578)年 正月 以前	宣祖 11(1578)年 正月 以前	宣祖 11(1578)年	
卷冊數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邊欄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郭	22.2×15.3cm	22.1×15.2cm	22.0×15.1cm	22.1×15.1cm	
界線	有界	有界	有界	有界	
行字數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板口	白口	白口	白口	白口	
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規格	28.2×19.2cm	32.3×20.2cm	31.8×19.3cm	31.8×19.9cm	
內賜印	-	宣賜」之記	宣賜」之記	-	
內賜記	啓: 書寫成冊令校書館十九件刻日 印出十件乙良本曹及典牲署司 畜署五部典醫監惠民署爲等如 分上九件乙良開城府及八道急 速分送令各道即時刻板多印分 送于各官染疫爲追平…嘉靖二 十(1541, 중종 36)年十一月二十五日左承旨臣 權應昌次知啓依允.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 易辟瘟方一件」命除謝」 恩」都承旨臣尹[手決]	萬曆六年正月日, 內賜行副護軍李仲樞簡 易辟瘟方一件」命除謝」 恩」都承旨臣尹[手決]	-	
印文	-	日休堂, 葶印	-	-	
藏號	合綴: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	000113-00000	晚松 貴203	大學院 貴203A	
指定	非指定	指定申請本	非指定	非指定	

<表 3> 光海君朝 刊行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

區 分	嘉泉博物館	奎章閣韓國學研究院 (1)	奎章閣韓國學研究院 (2)	奎章閣韓國學研究院 (3)	備考
書 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 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刊 年	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	
卷冊數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邊 欄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 郭	22.3×14.9cm	22.1×15.2cm	22.1×15.2cm	22.1×15.2cm	
界 線	有界	有界	有界	有界	
行字數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板 口	白口	白口	白口	白口	
魚 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規 格	32.2×18.7cm	33.0×21.0cm	33.0×21.0cm	33.0×21.0cm	
內賜印	宣賜」之記	宣賜」之記	宣賜」之記	宣賜」之記	
內賜記	-	萬曆四十一年正月日」 內賜辟瘟方一件五臺山上 」右承旨臣李[手決]	萬曆四十一年正月日」 內賜辟瘟方一件校書館上 」右承旨臣李[手決]	萬曆四十一年正月日」 內賜辟瘟方一件太白山上 」右承旨臣李[手決]	
印 文	-	-	-	-	
藏 號	-	奎 3199	奎 5227	奎 5696	
指 定	寶物 第1249號	非指定	非指定	非指定	

區分	奎章閣韓國學研究院 (4)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	清州古印刷博物館	啓明大學校童山圖書館	備考
書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訓鍊都監字本	
刊年	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2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正月 以前	
卷冊數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不分卷 1冊(25張)	
邊欄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郭	22.1×15.2cm	22.3×14.6cm	22.4×14.7cm	22.3×15.5cm	
界線	有界	有界	有界	有界	
行字數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 17字 諺文 9行 16字 註雙行	
板口	白口	白口	白口	白口	
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規格	33.0×21.0cm	32.2×19.7cm	31.3×19.0cm	32.5×20.3cm	
內賜印	宣賜」之記	宣賜」之記 (方 8.2cm) (자경 5.0cm)	宣賜」之記	宣賜」之記	
內賜記	-	-	萬曆四十一年二月日」 內賜辟瘟方一件■上」 右承旨臣李[手決]	萬曆四十一年正月日」 內賜刑曹參議尹銜辟瘟方 一件」命除謝」恩」 右承旨臣李[手決]	
印文	弘文館, 帝室圖書之章	淸陰, 尹錫昌印	-	-	
藏號	奎 7850	C7-71	-	615.3202김순몽ㄱ	
指定	非指定	非指定	忠北有形 第371號	非指定	

한편, 傳來되는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國家指定文化財 指定의 現況은 [<表 2> 宣祖朝 刊行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 現況]과

[<表 3> 光海君朝 刊行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과 所藏處 및 文化財指定]에서 나타나듯이, 中宗 20(1525)년 5월에 간행된 『簡易辟瘟方(諺解)』의 初刊本은 傳來되지 않으며, 현재 傳來되는 版本은 선조 11(1578)년 이전의 乙亥字本과 광해군 5(1613)년의 乙亥字가 混入된 訓練都監字本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선조 11(1578)년 이전에 乙亥字로 간행된 것으로 卷頭에 “宣賜之記”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內賜本임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前表紙 裏面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手決]”의 「內賜記」를 통하여, 선조 11(1578, 만력 6)년 정월에 당시의 도승지였던 尹斗壽(1533~1601)에 의하여 成均館博士 金緝(1430~1580)에게 頒賜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 「內賜記」의 內賜年度는 본 판본이 늦어도 선조 11(1578)년 정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序文 3장과 本文 22장의 도합 25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序題와 卷頭題 및 卷尾題는 ‘簡易辟瘟方’이고 版心題는 ‘辟瘟方’이다. 版式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은 세로 22.1cm 가로 15.2cm이며 界線이 있다. 半葉의 行字數는 漢文은 9行17字이고 諺解文은 9行16字이며 註文은 雙行이다. 版心의 版口는 白口이고 魚尾는 上下內向3葉花紋魚尾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2.3cm 가로 20.2cm이고 지질은 韓紙(楮紙)이며, 裝訂은 五針眼訂法의 線裝으로 表紙는 改裝된 듯하다.

表紙 裏面에는 書寫者를 알 수 없는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의 詩句가 墨書가 되어 있다.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의 詩句는 南宋의 詩人 趙師秀(1170~1219)가 지은 七言詩 “中夜清寒入緇袍 一杯山茗當香醪 鳥飛竹葉霜初下 人立梅花月正高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春來擬約蕭閑伴 重上天台看海濤”라는 「呈蔣薛二友」의 일부이며,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의 詩句는 北宋의 哲學家요 易學家인 邵雍(1011~1077)이 지은 七言詩 “物理人情自可明 何嘗感感向平生 卷舒在我有成算 用舍隨時無定名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惊] 侯門見說深如海 三十年來掉臂行”이라는 「龍門道中作」의 일부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諺解)』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簡易辟瘟方(諺解)』의 版本 계통에서 국내에 소장된 판본으로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이와 동일한 乙亥字本은 현재 국내에는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과 국외에는 日本의 宮內廳書陵部に 소장된 것이 전부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전래가 매우 희귀하다. 특히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嘉泉博物館의 『簡易辟

瘰癧方(諺解)』는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指定申請本 『簡易辟瘰癧方(諺解)』보다 35年이나 뒤에 刊行된 版本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簡易辟瘰癧方(諺解)』는 韓醫學 뿐 아니라 國語學·書誌學·民俗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인 만큼 그 가치 또한 매우 높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稀貴性和 貴重性を 지닌 판본인 만큼,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文獻資料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簡易辟瘰癧方(諺解)』. 金屬活字(乙亥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國立한글博物館 所藏本.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簡易辟瘰癧方(諺解)』. 木活字(訓鍊都監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韓國學中央研究院 藏書閣 所藏本.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簡易辟瘰癧方(諺解)』. 木活字(訓鍊都監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光海君 5(1613) 2月 以前 推定]. 淸州古印刷博物館 所藏本.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06. 07.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이완우·옥영정)>.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kjg.snu.ac.kr/home/>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https://east.skku.edu/#/>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其 他

국립한글박물관 所藏의 指定申請本 『簡易辟瘰癧方(諺解)』는 국립한글박물관이 2013년에 개인으로부터 買入한 遺物이다. (유물취득경위서 참간)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簡易辟瘰癧方(諺解)』와 동일한 乙亥字本은 현재 국내에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晩松文庫와 국외에는 日本의 宮內廳書陵部에 소

장된 것이 전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현재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嘉泉博物館 소장의 『簡易辟瘟方(諺解)』는 指定申請本 『簡易辟瘟方』보다 35年이나 뒤에 刊行된 版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

書誌事項

簡易辟瘟方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 金屬活字(乙亥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推定].

1卷1冊(25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cm, 有界, 半葉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32.3×20.2cm. 韓紙(楮紙). 線裝(五針眼訂法, 改裝).

表題: 簡易

序題: 簡易辟瘟方

卷頭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 萬曆六年正月 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 恩/ 都承旨臣尹[手決]. (前表紙 裏面).

印文: 宣賜之記, 日休堂, 葶印. (卷頭).

編成: 簡易辟瘟方序(金希壽, 3張), 簡易辟瘟方(22張).

序文: 簡易辟瘟方序;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學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吁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卷頭)

墨書: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 (後表紙 裏面).

○ 현 상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의 지정신청본 『간이벽온방(簡易辟瘟方)』은 표지와 본문 사이의 공지에 다소의 변색과 헤진 흔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누습의 흔적이 있으나 그 나머지는 보존의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간이벽은방』은 1525년(중종 20)년에 의관 김순몽(金順蒙, ?~?)·유영정(劉永貞, ?~?)·박세거(朴世舉, ?~?) 등이 왕명을 받아 온역(瘟疫, 돌림병)의 치료에 필요한 처방문을 모아 한문과 아울러 한글로 언해하여 엮은 단권의 한의학 전문서이다.

『간이벽은방』의 권두에 수록된 김희수(金希壽, 1475~1527)의 「서문」에 의하면 중종 19(1524)년 가을부터 이듬해(1525) 봄까지 평안도 전역에 전염성이 강한 열병인 여역(厲疫)이 크게 번져 많은 백성이 병사하자 국왕이 항부호군 김순몽 등에게 온역에 필요한 모든 방문을 뽑아서 엮고 한글로 번역하도록 하여, 동년(1525) 5월에 이를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문은 다음과 같다.

갑신(甲申, 1524) 가을에 관서로(關西路)에 역병이 크게 일어나 전염되니 백성들이 죽어 나갔다. 을유(乙酉, 1525) 봄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않으니 임금께서 아침저녁으로 근심하여 무릇 제사까지도 거행하셨다. 또 의관(醫官)까지 나누어 파견하여 약이(藥餌)를 가지고 와 구휼하도록 하셨으나 두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염려하셨다. 이에 특별히 행부호군(行副護軍) 신(臣) 김순몽(金順蒙), 예빈시 주부(禮賓寺主簿) 신(臣) 유영정(劉永貞), 전 내의원정(前內醫院正) 신(臣) 박세거(朴世舉) 등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처방 가운데 온병을 치료하는 법(瘟之法)을 모아 1편으로 하여 이름을 간이벽은방(簡易辟瘟方)이라 이름하였다. 방언(方言)으로 번역하여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하니 사람마다 쉽게 깨닫고, 비록 궁촌벽향(窮村僻

巷)이라도 모두 처방에 의하여 살방도를 구하게 하셨다. 진실로 성상의 덕(好生之德, 순임금의 好生德)과 인(如傷之仁, 문왕의 視民如傷)이 아니라면 어찌 이에까지 이르겠는가. 감탄스럽도다 그 지극하심이여.

가정(嘉靖) 4년 을유(1525, 중종 20) 정월 25일 통정대부 승정원도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예문관직제학 상서원정 신 김희수(金希壽) 봉교근서.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學抄諸方治/ 瘧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瘧方翻/ 以方言印頒中外使人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吁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 중종 20)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간이벽온방』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은 김순몽·류영정·박세거 등 주로 연산군 조와 중종조에 활약한 의관들로 이들의 자세한 전기자료가 전하지 않아 정확한 생몰년대는 알 수 없다.

김순몽은 중종연간의 의원으로 후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혜민서(惠民署) 제조어의를 역임한 하종해(河宗海, 1500~1571)와 더불어 허중(許琮, 1434~1494)의 문하생이었으며, 중종 11(1516)년에 내의원 제조가 되고 중종 12(1517)년에는 대비 이어소의 시약의원을 지내며 종기(腫氣)의 치료에 뛰어난 명의로 알려져, 중종 14(1519)년 3월에는 진죽(晉州)까지 파송되어 진천군(晉州君) 강훈(姜渾, 1464~1519)의 대퇴부에 생긴 종기를 치료한 공로로 판관에서 당상관의 서품을 받기도 하였다. 중종 20(1525)년에는 행부호군직에 있으면서 류영정·박세거 등과 함께 『간역벽온방』을 편찬하였으며, 중종 27(1532)년에는 하종해·홍침(洪沈, ?~?)과 함께 궁중에 드나들며 여러 차례 중종의 병을 진료하였던 인물이다.

류영정은 김순몽보다 이른 연산군조부터 의원으로 활약하여 연산군 9(1503)년에 의학교수로서 동반을 제수되고 중종 2(1507)년에는 현감으로 임명되었다. 중종 12(1517)년에는 대비의 질환에 시약 의원으로 김순몽과 함께 당상관에 제수되었으나 대간의 끈질긴 상소로 취하되고 말았다. 중종 20(1525)년에는 중6품의 예빈시 주부로 있으면서 김순몽·박세거 등과 함께 『간역벽온방』을 편찬하였다.

박세거는 중종 21(1526)년에 내의원 직장이 되고 중종 20(1525)년에 『간이벽온방』이 간행되던 당시에는 전내의원정이었다. 중종 27(1532)년부터 왕의 종기를 돌보아 중종 28(1533)년에는 그 공로가 많다고 하여 준직동지로 가자되었을 뿐 아니라

군직으로 내의원을 겸하였다. 중종 37(1542)년에는 행호군직으로 사명을 겸하면서,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이 왕명을 받아 온역 치료의 의서인 『분문은역역해방(分門瘟疫易解方)』을 편찬할 때에, 의사 호군 박세거·사명 홍침·내의원 정 문세련(文世璉, ?~?)·직장 류지번(柳之蕃, ?~?)·전의 이척(李倜, ?~?)·전직장 정추(鄭樞, ?~?)·혜민서 전직장 홍세하(洪世河, ?~?) 등의 내의원 의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분문은역역해방』은 여러 의서에서 실시하기 쉬운 약방과 비치하기 쉬운 약재를 골라 이전의 60여방문에 다시 40여 방문을 보태어 진양(鎭讓)·불상전염(不相傳染)·복약(服藥)·노복(勞服) 등 4문(門)으로 나누고 약명과 채취법을 더하여 모두 한글로 번역·간행한 것으로 동년(1542) 6월에 함경도의 종성·온성·경원·부령·경성·경흥·회령 등에 온역이 크게 유행하자, 이 의서를 보내 구료한 사실이 『중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명종 원(1546)년에는 가의대부 첨지중추원사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간이벽온방』에는 여러 가지 역려(疫癘)의 병후와 약명 및 처방 등을 간명하게 서술하고 각각의 항목마다 주석을 붙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역려병(疫癘病)의 징후와 예·처방법, (2) 옥온(獄溫)·상온(傷溫)·묘온(墓溫)·묘온(廟溫)·사온(社溫)·산온(山溫)·해온(海溫)·가온(家溫)·조온(竈溫)·세온(歲溫)·천온(天溫)·지온(地溫) 등의 원인과 예·처방법, (3) 소합향원(蘇合香元)의 효능과 복용법, (4) 석웅황(石雄黃)의 효능과 복용법, (5) 향소산(香蘇散)의 효능과 복용법, (6) 십신탕(十神湯)의 효능과 복용법, (7) 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의 효능과 복용법, (8) 도소주(屠蘇酒)의 효능과 복용법, (9) 형화환(螢火丸)의 효능과 복용법, (10) 호두살귀원(虎頭殺鬼元)의 효능과 복용법, (11) 신명산(神明散)의 효능과 복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역병의 치료약으로 탕약은 ‘탕(湯)’으로 가루약은 ‘산(散)’ 알약은 ‘환(丸)’으로 나누어 그 제조법 및 사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방법 외에도 “우방(又方)”이라 하여 별도로 33가지의 간결한 처방법과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1) 병자의 의복이나 그릇을 깨끗이 하라, (2) 술임을 갈아 술에 한 손가락씩 풀어 하루 3회 복용하라, (3) 병자가 누운 자리에 쭉뚝을 뜨라, (4) 따뜻한 무즙이나 박즙을 먹어라, (5) 설날 아침에 파·염규·마늘·해채·생강 등 오신소(五辛蔬)를 먹어라, (6) 인분(人糞)은 여러 가지 독을 없애준다, (7) 여자의 월경(月經)도 좋다 등과 같은 것이다.

이같이 『간이벽온방』은 병의 원인을 먼저 서술하고 그 뒤에 병증과 그에 따른 처방을 기술하였고, 특히 처방에 필요한 약재명과 조제법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문(方文)의 서술은 한문의 원문을 앞세우고 이어서 언해문(諺解文)을 붙이고 한문 원문의 음을 소자(小字)로 적어 놓았다.

『간이벽온방』의 간행은 1525년(중종 20)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간본(初刊本)은 전래되지 않고 1578년(선조 11)년에 을해자(乙亥字)로 중간

된 판본과 1613년(광해군 5)년에 훈련도감자(訓練都監字)로 중간된 판본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조사본 『간이벽은방』은 1578년(선조 11)년 이전에 을해자(乙亥字)로 간행된 것으로 권두(卷頭)에 “선사지기(宣賜之記)”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내사본(內賜本)임을 알 수 있다. 더욱 앞 표지 이면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手決]”의 「내사기(內賜記)」를 통하여, 선조 11(1578, 만력 6)년 정월에 당시의 도승지였던 윤두수(尹斗壽, 1533~1601)에 의하여 성균관 박사 김집(金緝, 1610~?)에게 반사(頒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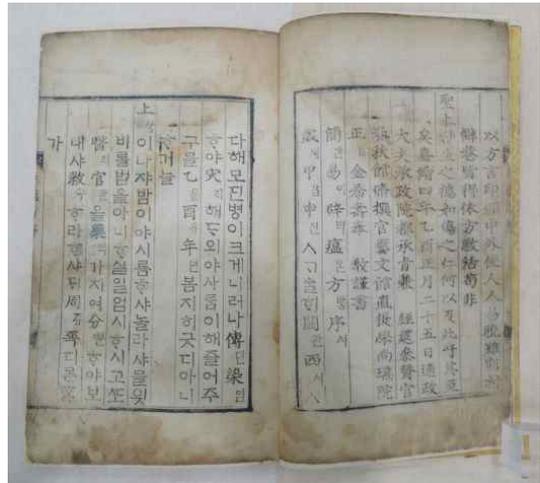


조사본은 서문 3장과 본문 22장으로 모두 25장이다. 서제(序題)와 권두제(卷頭題) 및 권미제(卷尾題)는 ‘簡易辟瘟方’이고 판심제(版心題)는 ‘辟瘟方’이다. 판식(版式)의 변란(邊欄)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고 반곽(半郭)은 세로 22.1cm 가로 15.2cm이며 계선(界線)이 있다. 반엽(半葉)의 행자수는 한문은 9행17자이고 언해문은 9행16자이며 주문(注文)은 쌍행이다. 판심의 판구(版口)는 백구(白口)이고 어미는 상하내향3엽화문어미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32.3cm 가로 20.2cm이고 지질은 한지(저지)이며, 장정은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의 선장으로 표지는 개장되었다.

뒷 표지 이면에는 쓴 사람을 알 수 없는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의 시구가 묵서되어 있다.



간이벽은방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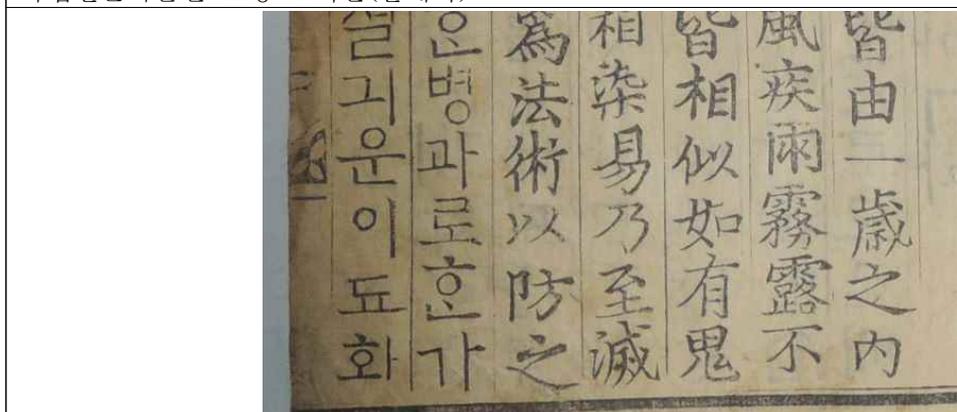


간이벽은방 서문

조사본은 현재까지 알려진 『간이벽은방』의 판본 가운데 ‘乙亥字本’으로 가장 오래된 자료이다.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晚松文庫와 日本의 宮内廳書陵部に 소장된 것이 알려져 있다. 현재 보물 제1249호로 지정된 『간이벽은방』(가천박물관 소장본)은 1613년(광해군 5)년에 간행된 책으로 을해자와 함께 ‘훈련도감자(訓鍊都監字)’가 함께 사용되었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조사본(을해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훈련도감자)

區分	中宗朝 刊本	宣祖朝 刊本	光海君朝 刊本
書名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簡易辟瘟方
版本	[不明]	乙亥字本	[乙亥字混入]訓鍊都監字本
刊年	中宗 20年(1525년 5월)	宣祖 11(1578)年 1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卷冊數	1卷1冊	1卷1冊(25張)	1卷1冊
邊欄	[不明]	四周雙邊	四周雙邊
匡郭	[不明]	22.1×15.2cm, 有界	22.3×15.5cm, 有界
行字數	[不明]	漢文 9行 17字, 諺解文 9行 16字, 註雙行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板口	[不明]	白口	白口
魚尾	[不明]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規格	[不明]	32.3×20.2cm	32.5×20.3cm
所藏處	[不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立한글博物館 · 高麗大學校 - 晚松文庫(만송귀203) - 漢籍室(대학원귀203A) · 日本 宮內廳書陵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嘉泉博物館(보물 제1249호) · 淸州古印刷博物館(충북유형 제371호) · 奎章閣韓國學研究院(奎 3199) · 啓明大 童山圖書館(이귀 615.3202 김순몽-) · 韓國學中央研究院藏書閣(04_C07-0071)

조사본 『간이벽온방』은 한의학 뿐 아니라 국어학·서지학·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활용도가 높은 자료로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된다.

○ 文獻資料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06. 07.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이완우·옥영정)>.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의 書誌記述 및 現狀은 다음과 같다.

○ 書誌記述

簡易辟瘟方 /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等奉命撰. -- 金屬活字本(乙亥字).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1卷1冊(25張, 序文3張, 本文22張): 四周雙邊 半郭 22.1×15.2 cm, 有界, 漢文 9行17字, 諺解文 9行16字 註雙行, 白口, 內向3葉花紋魚尾; 32.3×20.2 cm

表題: 簡易

序題: 簡易辟瘟方

卷首題: 簡易辟瘟方

版心題: 辟瘟方

卷尾題: 簡易辟瘟方

內賜記(前表紙裏面): 萬曆六年正月 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 恩 都承旨臣尹(手決)

印文(卷頭): 宣賜之記, 日休堂, 孛印

序文: 歲甲申秋關西路厲疫大作傳染爲災 民多夭札至乙酉春不熄 上夙夜憂惕 凡祈告之典靡有不舉又分遣 醫官齋藥餌以救之尙 慮未周特 命行副護軍臣金順蒙禮賓寺主簿臣劉 永貞前內醫院正臣朴世學抄諸方治 瘟之法纂爲一篇名曰簡易辟瘟方 以方言印頒中外使人 人易曉雖窮村 僻巷皆得依方救活苟非 聖上好生之德如傷之仁何以及此呼其至 矣嘉靖四年乙酉(1525)正月二十五日通政 大夫承政院都承旨兼經筵參贊官 春秋館脩撰官藝文館直提學尙瑞院 正臣金希壽奉教謹書

墨書(後表紙裏面):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

裝訂: 線裝本(五針眼訂, 表紙改裝)

所藏歷: 2013년 공개유물구입 절차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매입

狀態: 표지가 후대에 改裝되었고, 전체적으로 漏濕에 의한 변색의 흔적이 있으나 보존상태는 良好함

評價: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은 선조 11(1578)년 이전 乙亥字로 간행된 重刊本으로 韓醫學 및 16세기 國語學 研究를 위한 자료로 가치가 높음

既指定: 寶物 第 1249號(광해 5(1613) 訓練都監字本)

傳來歷:

	乙亥字本(金屬活字)	訓練都監字本(木活字)
刊年	宣祖 11(1578)年 1月 以前	光海君 5(1613)年 1月 以前
所藏處	- 국립한글박물관 (지정신청분, 000113-00000) - 고려대학교도서관(만송귀203,대학원귀 203A)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04_C07-0071) - 日本 宮內廳書陵部	- 奎章閣韓國學研究院 (奎3199, 奎5227, 奎5696, 奎7850) - 啓明大學校 童山圖書館 (이귀 615.3202 김 순몽기)
既指定		- 嘉泉博物館(寶物 第1249號) - 淸州古印刷博物館 (충북유형 제371호)

○ 현 상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은 表紙가 후대에 改裝되었고, 전체적으로 本文과 책 하단에 漏濕으로 인한 변색의 흔적이 있으며, 표지와 본문 사이의 空紙도 漏濕으로 汚損되었으나 보존 상태는 良好한 편이다.

○ 내용 및 특징

「簡易辟瘟方」은 조선 中宗 19년(1524) 평안도 지방에 瘟疫(전염병)이 창궐하여 피해가 커지자 이듬해인 중종 20년(1525)에 醫官 金順蒙(?-?)·劉永貞(?-?)·朴世學(?-?) 등이 왕명으로 瘟疫 치료에 필요한 處方文을 한문과 한글로 諺解하여 간행한 1卷1冊(25張)의 韓醫學書이다.

金希壽(1475-1527)의 序文에 의하면 中宗 19년(1524) 가을부터 이듬해(1525) 봄까지 평안도 전역에 전염성 열병인 厲疫이 크게 번져 많은 백성들이 병사하자 중종이 行副護軍 金順蒙 등에게 溫疫 치료에 필요한 모든 處方文을 뽑아서 엮고 諺解하도록 하고, 같은 해 5월에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편찬에 참여한 金順蒙, 劉永貞, 朴世學 등은 주로 燕山君과 中宗年間に 활약한 醫官들로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다.

金順蒙은 河宗海(?-?)와 더불어 許琮(1434-1494)의 門下生이었으며, 중종 11년(1516)에 內醫院 提調가 되고 중종 12년(1517)에는 大妃移御所의 侍藥醫員을 지냈고 중기 치료에 뛰어난 명의로 알려졌다. 중종 14년(1519) 3월에는 晉州까지 파송되어 晉州君 姜渾(1464-1519)의 중기를 치료한 공로로 判官에서 堂上醫官의 서품을 받기도 하였다. 중종 20(1525)년에는 行副護軍職에 있으면서 劉永貞, 朴世學 등과 함께 「簡易辟瘟方」을 편찬했고 중종 27(1532)년에는 河宗海, 洪沈(?-?)과 함께 궁중에 드나들며 여러 차례 중종의 병을 진료하였다.

劉永貞은 燕山君 9(1503)년에 醫學教授로서 東班, 즉 文臣에 제수되고 중종 2년(1507)에 縣監으로 임명되었다. 중종 12(1517)년에는 大妃의 질환에 侍藥 醫員으로 봉직한 공로로 堂上官에 제수되었으나 臺諫의 끈질긴 상소로 취하되었고, 중종 20(1525)년에는 중6품 禮賓寺主簿로 있으면서 金順蒙·朴世學 등과 함께 「簡易辟瘟方」을 편찬하였다.

朴世學는 前 內醫院 正으로 「簡易辟瘟方」 편찬에 참여했고 중종 21년(1526)에 內醫院 直長이 되었다. 중종 23년(1528)년에는 세자빈의 병을 돌보아 말 한필을 하사

받았다. 중종 27(1532)년부터 왕의 종기를 치료하고 중종 28(1533)년에는 내의로 왕실 진료에 공이 많다고 하여 准職同知로 加資되었을 뿐 아니라 軍職으로 內醫員을 겸하였다. 중종 37(1542)년에는 行護軍職으로 司猛을 겸하면서, 金安國(1478-1543)이 왕명을 받아 瘟疫治療書 「分門瘟疫易解方」을 편찬할 때 司猛 洪沈, 內醫院正 文世璉(?-?), 直長 柳之蕃(?-?), 典醫 李倜(?-?), 前直長 鄭樞(?-?), 惠民署 前直長 洪世河(?-?) 등 내의원 의원들과 함께 참여하였다. 明宗 원년(1546)에는 벼슬이 嘉義大夫 僉知中樞院事에 이르렀다.

「簡易辟瘟方」의 편찬 체제는 먼저 病의 원인을 서술하고 이어서 病과 증상에 따른 處方에 필요한 藥材名과 調劑法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處方文은 漢文 原文을 기술하고 이어 일반 백성들도 쉽게 처방을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언문으로 해석한 諺解文을 붙였으며, 언해문에는 한문 원문의 음을 小字로 병기해서 藥材名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오류가 없도록 하였다.

수록된 내용은 疫癘의 病候와 藥材名 및 치료법 등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각각의 항목마다 註釋을 붙이고 있다.

(1) 疫癘病의 徵候와 예방 및 처방법 (2) 獄溫, 傷溫, 廟溫·社溫·山溫·海溫·家溫·竈溫·歲溫·天溫·地溫 등의 原因과 豫·處方法, (3) 蘇合香元의 效能과 服用法, (4) 石雄黃의 효능과 복용법, (5) 香蘇散의 효능과 복용법, (6) 十神湯의 효능과 복용법, (7) 升麻葛根湯의 효능과 복용법, (8) 屠蘇酒의 효능과 복용법, (9) 螢火丸의 효능과 복용법, (10) 虎頭殺鬼元의 효능과 복용법, (11) 神明散의 효능과 복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治療藥으로 湯약은 ‘湯’으로 가루약은 ‘散’ 알약은 ‘丸’으로 구분하여 제조법 및 사용법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又方”이라 하여 33가지의 간결한 처방법과 예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1) 病者의 의복이나 그릇을 깨끗이 하라 (2) 술있을 갈아 술에 한 손갈씩 풀어 하루 3회 복용하라 (3) 病者가 누운 자리에 쭉뚝을 뜨라 (4) 따뜻한 무즙이나 박즙을 먹어라 (5) 설날 아침에 파·염규·마늘·해채·생강 등 五辛蔬를 먹어라 (6) 人糞은 여러 가지 毒을 없애준다 (7) 여자의 月經도 좋다 등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은 선조 11(1578)년 이전에 乙亥字로 간행된 것으로 卷頭に “宣賜之記”가 찍혀 있고 앞표지 이면에 “萬曆六年正月日 內賜成均館博士金緝簡易辟瘟方一件 命除謝恩 都承旨臣尹”의 기록이 있어 內賜本임을 알 수 있다. 즉 萬曆 6年인 선조 11(1578)년 정월에 당시 도승지였던 尹斗壽

(1533-1601)에 의해 成均館博士 金緝(1530-1580)에게 頒賜되었다는 사실과, 內賜年度로 미루어 본서가 선조 11(1578)년 정월 이전에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정신청본은 1卷1冊, 25張(序文 3장, 本文 2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序題와 卷頭題 및 卷尾題는 ‘簡易辟瘟方’이고 版心題는 ‘辟瘟方’이다. 版式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은 세로 22.1cm 가로 15.2cm이며 界線이 있고 行字數는 漢文은 9行17字, 諺解文은 9行16字, 註雙行이고 版口는 白口, 魚尾는 內向3葉花紋魚尾이다. 책 크기는 세로 32.3cm 가로 20.2cm, 지질은 楮紙, 裝訂은 五針眼訂法の 線裝이고 表紙는 후대에 改裝되었다.

뒤표지 이면에 쓰인 墨書의 앞부분 “無慾自然心似水 有營何止事如毛”는 南宋의 詩人 趙師秀(?-?)가 지은 七言詩 「呈蔣薛二友」의 일부이며, 뒷부분 “滿目雲山俱是樂 一毫榮辱不須驚”의 詩句는 北宋의 哲學家 邵雍(1011-1077)이 지은 七言詩 「龍門道中」의 일부이고 書寫者는 알 수 없다.

현재 중종 20(1525)년에 간행된 「簡易辟瘟方」 初刊本은 전하지 않고 선조 11(1578)년에 乙亥字로 重刊된 판본과 광해군 5(1613)년에 訓練都監字로 重刊된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지정신청본은 국내 소장 판본 중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乙亥字本이며, 동일한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과 日本 宮內廳書陵部 소장본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특히 기존에 寶物 第1249號로 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 「簡易辟瘟方」보다 35年이나 앞서 刊行된 版本이다.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은 중세 韓醫學 연구를 위해 귀중한 자료이며 國語學, 書誌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높은 貴重한 판본이므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 管理할 만한 價値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헌자료

- 金順蒙, 劉永貞, 朴世舉 等奉命撰, 『簡易辟瘟方』. 金屬活字(乙亥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宣祖 11(1578) 以前]. 국립한글박물관 所藏本.
- 서울특별시,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2018. 06. 07.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서>.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조사보고서(송일기·이완우·옥영정)>. 서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018. 01. 09
-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https://mlibrary.kmu.ac.kr>
- 고려대학교도서관: <http://kjg.snu.ac.kr/home/>
-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library.korea.ac.kr>
- 청주고인쇄박물관: <https://cheongju.go.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rcis/>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http://jsg.aks.ac.kr/>

○ 기 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지정신청본 「簡易辟瘟方」은 국립한글박물관이 2013년 공개유물구입 절차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遺物이다. 지정신청본과 동일한 乙亥字本은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日本 宮内廳書陵部 소장 자료만 알려져 있으며, 國家指定文化財 寶物 第1249號로 기지정된 가천박물관 소장 「簡易辟瘟方」 보다 35年이나 앞서 간행된 귀중한 版本이다.

13.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가. 검토사항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로부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8.7.20.)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5.12.) 및 보완조사('20.6.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6호(2014.9.24. 지정)
- 명 칭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 소유자(관리자) :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수 량 : 1좌(4폭)
- 규 격 : 전체(병풍틀 포함) 179.4×312.4cm, 각 화폭 110.0×61.6~62.0cm
- 재 질 : 삼베에 수묵채색
- 형 식 : 병풍(屏風)
- 조성연대 : 1604년(선조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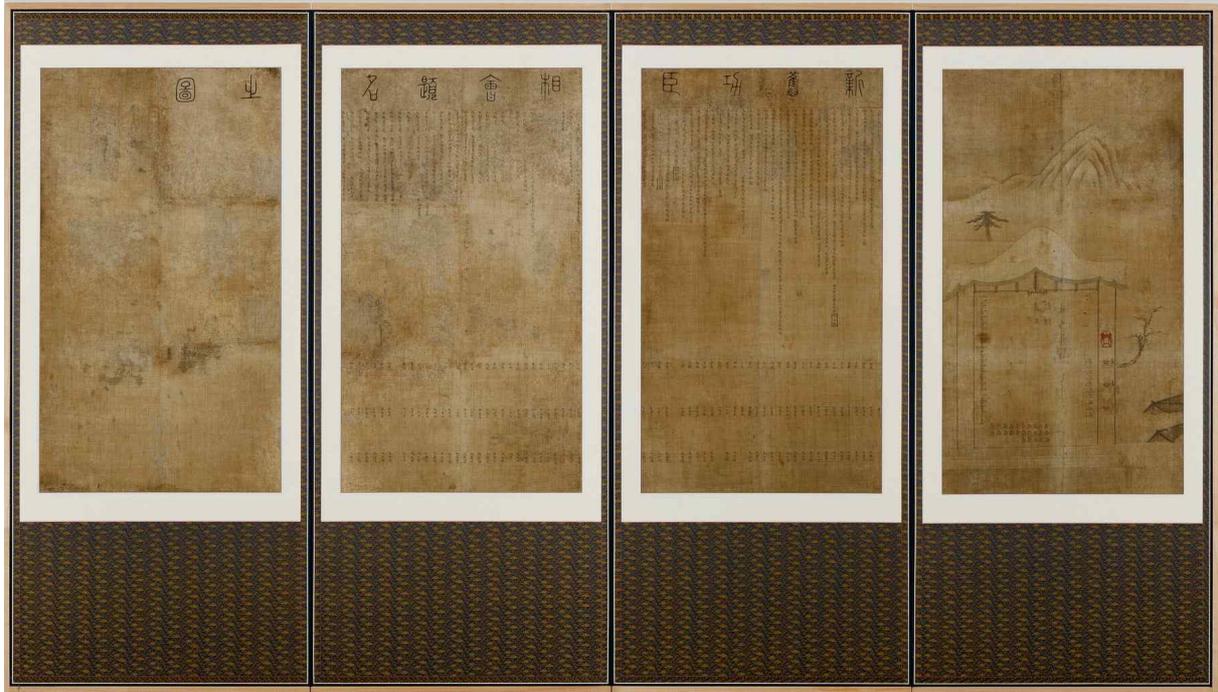


그림 409.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선조 연간 녹훈된 신공신과 구공신들이 1604년(선조 37) 11월 12일 충훈부(忠勳府)에서 가졌던 상회연(相會宴)을 기념하여 참석한 공신들에게 제작 하사된 기록화이다.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태평회맹도>(보물 제668-3호)와 거의 동일한 작품으로 함께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선시대 공신녹훈 관련한 회화로서 공신초상화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공신 회맹의례를 기록한 유일한 사례로서 희소성이 높다.
- 공신관련 기록화로서 제작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커다란 화면으로 이루어져 회화사적 가치가 높다.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있음)

1.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선조연간에 녹훈된 신구공신들이 1604년 11월 12일 충훈부에서 법음(法醞)을 하사받았던 상회연을 주제로 한 궁중행사 기록화이다. 4폭 병풍으로 제1폭은 상회연 장면이고, 제2폭과 제3폭은 신구공신 63명의 약력을 적은 좌목(座目)이며, 제4폭은 빈 여백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제2폭과 제

4쪽의 상단을 붉은색으로 구획하고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라는 표제(標題)가 전서체로 적혀 있다. 이러한 구성은 계회도(契會圖) 형식을 병풍에 적용한 특이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상회연을 다룬 보기 드문 궁중행사 기록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 1604년은 전란 직후 왕권이 실추되고 사회적 혼란도 심각했던 때이다. 상회연 2틀 전인 11월 11일 선조의 탄일이었지만 축하연도 간략하게 치르고, 다음날 자신이 녹훈한 신구공신 63명에게 충훈부(忠勳府)에서 법온을 하사하는 상회연을 거행하였다. 이는 왕권 강화나 국가 기강의 정립과정에서 신하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를 지녔던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연회 관련 사실을 실록에 남기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는지 『선조실록』에는 선조 37년 갑진(1604) 11월 13일에 상회연 답례로 다음날 이항복과 유영경이 올린 감사의 전문(箋文)만 확인된다.

3.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평난·국광의 구공신과 호위·선무·청난의 신공신 총 63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제1쪽의 연회 장면은 58명만 참석하였음을 알려준다. 또한 신구공신이 착석한 자리에서 우측의 10명 가운데 끝부분에 위치한 3명은 복식이 전혀 달라 사복시 소속의 마부로 호성공신에 녹훈된 전룡(全龍), 오련(吳連), 이희령(李希齡)이라 추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선조실록』에도 기록되지 않은 상회연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은 물론 신구공신들의 정확한 정보까지 알려주는 역사적 사료라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현재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6호인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조선시대 궁중행사 가운데 ‘상회연’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다룬 희소한 사례로서 보물로 승격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문화재라고 생각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선조 37년(1604) 음력 10월 28일과 29일에 걸쳐 열린 신구 5공신들의 회맹 의례 이후의 상회연(相會宴)을 재현한 기념 계병이다. 공신회집 기록화로서 가장 오래된 자료이자 왕명으로 제작되어 하사된 최초의 행사 기록화 병풍이다. 또한 ‘제명지도’라는 표제가 적힌 유일한 화적이다.

- 동일 행사를 재현한 <태평회맹도>가 남아 있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와 비교가 가능하다. 현재 <태평회맹도>는 보물 제 668호로 지정되어 있으나,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와 달리 표제가 생략됐고, 공신에서 삭훈된 인물 표기도 없다.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공신회집을 기록한 계명일 뿐만 아니라 상회연이 열린 경북궁 옛 터와 눈 덮인 백악산의 풍경이 표현된 17세기 실경산수화의 사례이기도 하다. 이것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의 미술사적인 의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행사를 재현한 <태평회맹도>는 보물 제 668호로 지정된 만큼, 이 작품 역시 보물로 지정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현 상

- 이 작품은 현재 4폭 병풍으로 상황되어 있는데, 제1폭은 모임 장면을 그린 것이고 제2폭과 제3폭은 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한 것이며, 제4폭은 위쪽의 제목을 제외하고는 비어 있다. 각 폭은 비단 2쪽을 위에서 아래로 길게 이어 붙였으며, 제2폭부터 제4폭까지 위쪽에 붉은 선을 그어 구획을 하고 그 안에 전서체로 제목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를 적었다.
- 제1폭에는 왕의 선운(宣醞)을 하사받는 장면으로 돌로 만든 3단의 기단 위에서 흰 장막을 치고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다. 오른쪽 아래에는 안개 위로 솟은 건물 두 채의 기와지붕이 보이고 그 위로 앙상한 가지의 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서있다. 장막 위 왼편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서있는데 밑둥치와 꼭대기는 안개에 덮여 있다. 다시 위쪽으로 커다란 산봉우리를 그렸다.
- 기단 위에는 여섯 폭 병풍이 일자로 펼쳐져 있고, 그 앞쪽에 탁자와 술항아리 네 개가 놓여있다. 그림 속 병풍에는 아무 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 탁자 아래에서는 두 인물이 나란히 앞뒤로 앉아 두 손을 모아들고 있어 마치 술잔을 떠받드는 것 같다. 두 사람 옆으로는 각각 서있는 관리와 그 뒤에 서 있는 작은 인물이 배치되었다. 인물들의 의복은 연한 분홍색을 띤다. 병풍 가까운 곳에는 네 개의 빈 자리가 있는데 아마도 술잔을 든 두 사람과 옆에 서있는 두 사람의 자리인 듯하다.

오른쪽에는 10명이 일렬로 앉아 있는 모습을 측면으로 묘사했는데 각자 앞에는 주칠반상이 놓여 있다. 왼편에는 21명이 같은 방식으로 앉아 있다. 아래 쪽에는 3줄로 25명의 인물이 등을 보이며 앉아 있다. 가운데 공간에는 시중을 드는 인물 5명이 무언가를 손에 들고 등을 구부린 측면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우측 나무 옆에는 붉은 호족형 주정(酒亭)에 뚜껑이 덮인 향아리 두 개가 놓여 있다. 그 아래로는 커다란 향로 세 개를 놓고 음식을 데우는 사람 세 명을 그렸다.

-제2쪽, 제3쪽에는 참석 대상자 63명의 좌목을 품계 순서에 따라 적었다. 공신훈, 문무관 품계, 작호와 관직, 자(字), 생년, 본관을 해서로 단정하게 적었다. 흥미롭게도 광해군 대에 삭훈된 유영경(柳永慶), 고언백(高彦伯), 박명현(朴名賢)의 경우에는 이름에 네모난 칸을 돌려 표시했다. <태평회맹도>에는 이런 표시가 없다.

-유물의 상태는 최근의 과학적 조사에 의하면 바탕이 마모되거나, 얼룩과 변색이 된 부분이 여기저기 있으며 충해가 심하다. 특히 제3쪽과 제4쪽은 각각 1/6 정도가 삼베를 덧대어 보수했다. 그 결과 제목의 “題名之圖”와 일부 묵서는 덧댄 삼베 위에 새로 쓴 것이다. 제1쪽의 주봉, 건물지붕 일부분도 보수되었다. 그런데 덧댄 삼베 부분 역시 마모되었고 충해가 있어 매우 오래 전에 보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래의 병풍을 한번 보수하고 나서, 근래에 다시 현재의 병풍으로 다시 장황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장황 상태는 1990년 이전의 것이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공신훈의례에 참석했던 권응수(權應銖) 후손 소장자의 <태평회맹도>(보물 제668-3호)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태평회맹도>에는 제목이 적혀있지 않다.

○ 내용 및 특징 (그림 부분의 회화사적 의의를 중심으로 서술함)

선조대에는 1590년 1월 평난공신(平難功臣)과 광국공신(光國功臣)을 책훈하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1604년 6월 호성공신(扈聖功臣), 선무공신(宣武功臣), 청난공신(淸難功臣)을 다시 책훈했다. 전쟁 중에 공을 세운 사람은 선무공신, 선조를 의주까지 모시고 피난하는 데 공을 세운 사람은 호성공신에 봉해졌다. 또한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을 청난공신으로 봉했다. 세 공신을 녹훈하기 위해서 1601년부터 1604년까지 공신 선별 심사가 진행되어 109명을 정했고, “도형후수(圖形後垂)”의 관례에 따라 생존해 있는 64명을 위해 공신상을 제작하여 수여했다. 이를 기념하여 1604년 10월 28일 밤에 호성, 선무, 청난 삼공신 회맹제를 거행했으며, 다음날 낮에 평난, 광국 공신까지 더하여 친구 다섯 공신 가운데 생존자 63인을 대상으로 상회연을 거행했다. 이때 이산해(李山海), 류성룡(柳成龍), 정탁(鄭琢), 이운룡(李雲龍), 남절(南截) 등 5명은 노환과 상중 등의 사정으로 불참했다. 따라서 최종 참석자는 구공신 9명, 신공신 49명으로 도합 58명이었다. 이 사

실은 그림에 그려진 인물은 58명의 숫자와 일치한다.

- 조선시대를 통틀어 공신녹훈은 28회 책봉되었다. 이때마다 공신들은 왕과 국가에 대한 충성과 공신 간의 의리를 피로써 맹세했는데 이것이 바로 회맹이다. 회맹의례와 관련해서는 회맹문, 회맹첩, 회맹록, 회맹축 등 각종 기록물이 다수 전하고 있지만, 상회연과 관련된 기록화로는 이 작품과 <태평회맹도>가 유일하다. 심지어 공신녹훈과 관련된 기록화로서도 1728년 영조가 분무공신에게 교서를 내리고 선운을 베푼 장면을 그린 <공신교서부도(功臣敎書附圖)>(규장각 소장) 정도만 알려져 있고, 녹훈도감 관원들의 계회도가 몇 점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거행된 상회연을 시각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는 이 작품과 <태평회맹도>뿐이라서 매우 희소한 가치가 있다.
-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시대 공신관련 기록화로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커다란 화면으로 당시 기록화의 장대한 면모를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 참고문헌

- 홍선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신구공신상회제명도》」, 『미술사논단』 48 (2019)
- 신윤희, 「태평회맹도의 역사적 배경」, 『미술자료』 85 (2014)
- 동아대학교, 고창문화보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보존상태 진단 용역 보고서』 (2018)
- 장서각, 『조선의 공신』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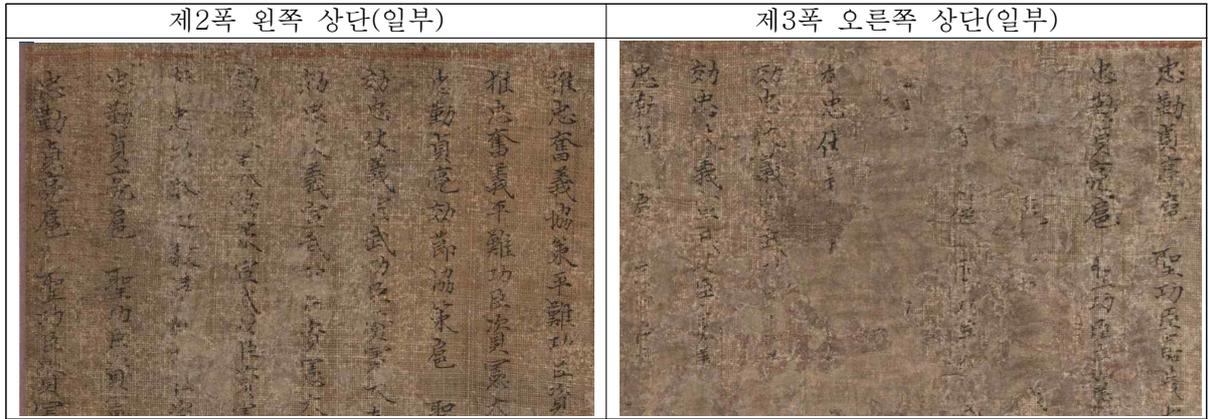
○ 현 상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4폭 병풍은 선조연간(재위 1567~1608)에 녹훈된 신(新)공신과 구(舊)공신들이 1604년(선조 37) 11월 12일 충훈부(忠勳府)에서 가졌던 상회연(相會宴)을 기념하여 참석한 공신들에게 제작 하사된 조선시대 궁중행사 기록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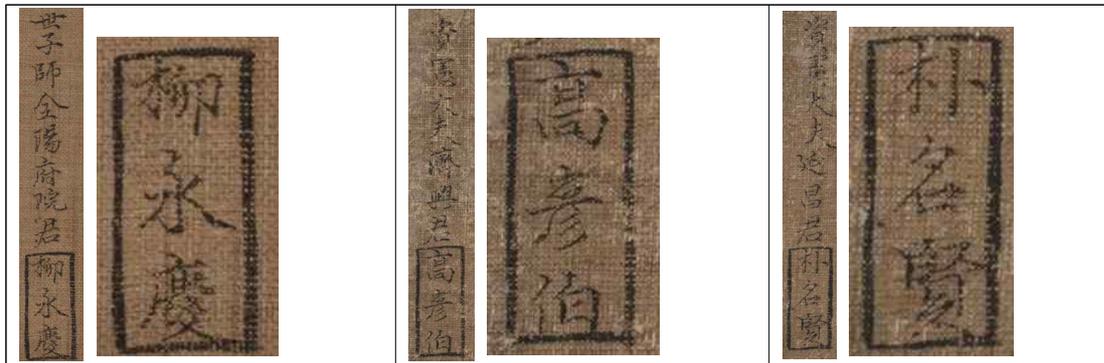


작가미상,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1604년, 삼베 바탕에 수묵채색,
전체 179.4×312.4cm,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 제1폭은 폭 30.5cm의 삼베 2장을, 제2폭~제4폭은 폭 31.0cm의 삼베 2장을 잇대어 꿰맨 것으로 화면이 어두운 편이며, 바탕재인 삼베가 훼손된 곳들이 다수 발견된다.
- 제1폭은 신구공신 58명이 참석한 상회연(相會宴) 장면이고, 제2폭과 제3폭은 좌목(座目)으로 신구공신 63명의 이름과 녹훈명칭·자(字)·출생연도·본관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제4폭은 빈 여백으로 남겨져 있다.
- 제2폭부터 제4폭까지의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구획된 공간에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라는 표제(標題)가 전서체로 적혀 있으며, 먹색이 짙고 보필(補筆)의 흔적이 보이므로 나중에 적은 것이라 추정된다.
- 제2폭에는 호성공신2등으로 선조의 다섯째 아들 이부(李瑋, 1580~1616)를 시작으로 호성공신3등의 내시 민희건(閔希鵷)까지 총 32명, 제3폭에는 선무공신3등의 무관 이광약(李光岳, 1557~1608)을 시작으로 호성공신3등의 마부 이희령(李希齡, 1545~?)까지 총 31명의 약력이 계선(界線) 없이 소해(小楷)로 적혀 있다. 특히 제2폭의 왼쪽 상단과 제3폭의 오른쪽 상단은 바탕재의 심한 훼손은 글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 제2쪽의 좌목 가운데 7번째 줄 유영경(柳永慶, 1550~1608)과 28번째 줄 고언백(高彦伯, ?~1608), 30번째 줄 박명현(朴名賢, ?~1608)의 이름 위로 네모 칸이 둘러져 있다. 이들은 광해군 즉위 초에 역적으로 몰리면서 처형되고 삭훈(削勳)되었기 때문에 후대에 먹선을 둘러 다른 공신들과 구분한 것이라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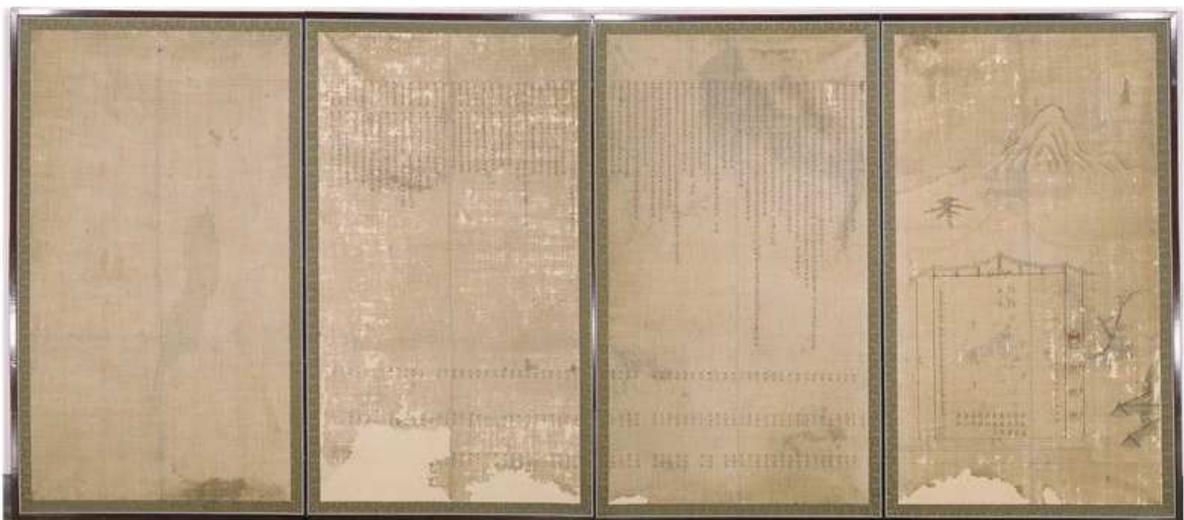
- 제2쪽과 제3쪽의 좌목 내용을 정리한 다음의 <표 1>과 <표 2>는 2020년 5월 12일 (화) 실사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근간으로 현재의 원문 상태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읽을 수 없는 글자는 '□'로 처리하였다.

표 3. 《태평회맹도》의 제2쪽 좌목(국립진주박물관 보관)

표제	공신명칭	지생년	본관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定遠君 瑀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定遠君 瑀	庚辰生	本韓山
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鵝城府院君李山海	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鵝城府院君李山海	而見 壬寅生	本豐山
忠勤貞亮屢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西原府院君鄭琢	忠勤貞亮屢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西原府院君鄭琢	子精 丙戌生	本清州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完平府院君李元翼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完平府院君李元翼	公勳 丁未生	本全州
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竭誠劾節協策屢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鰲城府院君李恒福	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竭誠劾節協策屢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鰲城府院君李恒福	子常 丙辰生	本慶州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全陽府院君柳永慶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世子師全陽府院君柳永慶	善餘 庚戌生	本全州
輸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海平府院君兼知經筵事尹根壽	輸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海平府院君兼知經筵事尹根壽	子固 丁酉生	本海平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清平府院君兼知經筵事韓應寅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清平府院君兼知經筵事韓應寅	春卿 甲寅生	本清州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唐興府院君兼知經筵事洪進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唐興府院君兼知經筵事洪進	希古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完陽府院君李忠元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完陽府院君李忠元	元夫 丁酉生	本全州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兼知經筵事李好閔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兼知經筵事李好閔	孝彥 癸丑生	本延安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	德輝 壬子生	本延安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晉原君柳根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崇祿大夫行議政府左參贊兼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春秋館成均館事晉原君柳根	晦夫 己酉生	本晉州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崇祿大夫平川君兼春秋館事申礪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崇祿大夫平川君兼春秋館事申礪	伯峻 辛丑生	本平山
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崇政大夫完山君李軸	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崇政大夫完山君李軸	子任 戊戌生	本全州
忠勤貞亮屢聖功臣崇政大夫陽平君許浚	忠勤貞亮屢聖功臣崇政大夫陽平君許浚	淸源 己亥生	本陽川
忠勤貞亮屢聖功臣崇政大夫寧城君金鳳	忠勤貞亮屢聖功臣崇政大夫寧城君金鳳	雲卿 甲寅生	本金海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崇憲大夫五衛都摠府都摠管順寧君 景儉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崇憲大夫五衛都摠府都摠管順寧君 景儉	子文 癸亥生	
奮忠出氣合謨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	奮忠出氣合謨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	興道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屢聖功臣正憲大夫眞城君金起文	忠勤貞亮屢聖功臣正憲大夫眞城君金起文	斐仲 乙巳生	本三陟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正承大夫順義君景濶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正承大夫順義君景濶	汝剛 己酉生	
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資憲大夫茂城君尹洞	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資憲大夫茂城君尹洞	而遠 己酉生	本茂松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全城君李準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全城君李準	平卿 乙巳生	本全州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晉興君兼知義禁府春秋館事姜紳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晉興君兼知義禁府春秋館事姜紳	勉卿 癸卯生	本晉山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資憲大夫錦溪君兼知春秋館事朴東亮	忠勤貞亮劾節協策屢聖功臣資憲大夫錦溪君兼知春秋館事朴東亮	子龍 己巳生	本羅州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行黃海道兵馬水軍節度使豐壤君趙儼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行黃海道兵馬水軍節度使豐壤君趙儼	士惕 辛丑生	本豐壤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濟興君高彥伯	効忠仗義宣武功臣資憲大夫濟興君高彥伯	仲平 丙午生	本安東
効忠仗義協策宣武功臣資憲大夫花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權應鍊	効忠仗義協策宣武功臣資憲大夫花山君兼五衛都摠府都摠管權應鍊	君聘 辛酉生	本竹山
奮忠出氣迪毅清難功臣資憲大夫延昌君朴名賢	奮忠出氣迪毅清難功臣資憲大夫延昌君朴名賢	仲仁 戊申生	本耽津
忠勤貞亮屢聖功臣資憲大夫武陽君安彥鳳	忠勤貞亮屢聖功臣資憲大夫武陽君安彥鳳	孝伯 壬戌生	本驪州

표 4. 《태평회맹도》의 제3쪽 좌목(국립진주박물관 보관)

		표제	공신명칭	지생년	본관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行水原都護府使兼京畿防禦使廣南君李先岳	鎮之	本廣陵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月城君崔彦俊	大美	本慶州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清河君鄭漢瓚	太珉	本河東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奈城君辛大容	德器	本寧越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伽城君金秀源	選元	本全州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鰲原君朴忠敬	誠直	本慶州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永昌君兼五衛都摠府副摠管訓練院都正權俊	彦卿	本安東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戶曹參判吉原君權恢	思省	本安東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文興君柳思瑗	景悟	本文化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晉昌君姜瓘	仁卿	本晉山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和城君崔應淑	而澂	本晉山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花川君金禮禎	景和	本川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花城君趙龜壽	健叟	本橫川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盆城君金俊榮	仁吉	本金海
			忠勤貞亮扈 聖功臣嘉善大夫樂城君金璽信	君實	本慶州
			効忠仗義宣武功臣嘉善大夫息城君李雲龍	景見	本載寧
			奮忠出氣清難功臣通政大夫行長興都護府使辛景行	伯道	本高靈
			奮忠出氣清難功臣折衝將軍行忠清水營虞候林得義	子房	本澤
			忠勤貞亮扈 聖功臣通政大夫行順天都護府使奇孝福	士吳	本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武衛副司果崔世俊	仲敬	本丙申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兼五衛將李士恭	彦佑	本寅生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兼五衛將呂定邦	善陵	本生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平安虞候李應順	應	本甲子生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金繼韓	繼叔	本生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禦侮將軍忠壯衛大護軍南嶽	仲秀	本辛卯生
			□勤貞亮扈 聖功臣通政大夫行司僕寺判官全龍	汝見	本己未生
			忠勤貞亮扈 聖功臣宣略將軍行忠武衛副司果洪澤	宣叔	本辛酉生
			忠勤貞亮扈 聖功臣保功將軍行龍騎衛副司果吳連	達之	本己亥生
			忠勤貞亮扈 聖功臣禦侮將軍行軍忠武衛副司果李希齡	汝鷹	本乙巳生



작가미상, 《태평회맹도(太平會盟圖)》, 1604년, 국립진주박물관 보관(보물 제668호)

- 《태평회맹도》는 선무공신2등에 녹훈된 권응수(權應銖, 1546~1608) 장군에게 하사된 것이며, 1980년 8월 23일 권응수장군의 유물들 가운데 하나로 보물 제668호로 지정되어 국립진주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이때 회맹제(會盟祭: 임금이 공신(功臣)들과 산 짐승을 잡아 하늘에 제사지내고 그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며 단결을 맹세하던 의식)와 관련한 기록화로 오인되면서 ‘태평회맹제’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앞으로 검토를 거쳐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각각의 화면은 폭 30.4~32.5cm의 삼베 2장이 세로로 꿰매져 있고, 후대에 다시 장황을 하면서 미색 바탕재를 배접지로 사용하여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보다 전반적으로 밝은 인상을 준다.
- 구성이나 내용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와 동일하지만, 제2폭부터 제4폭까지의 상단을 붉은색으로 구획한 공간에는 표제가 적혀 있지 않다.
- 《태평회맹도》 제2폭의 좌목에는 유영경, 고언백, 박명현의 이름에 먹선이 둘러져 있지 않으며,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의 제2폭 소해(小楷)와 비교하면 전자의 글씨는 왕희체(王羲之體)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빠침이 강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 《태평회맹도》는 소박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을 준다.



○ 내용 및 특징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4폭 병풍은 1604년 11월 12일 선조연간에 녹훈된 신구공신들이 1604년 11월 12일 충훈부에서 가졌던 상회연을 다룬 궁중행사 기록화이다. 하지만 상회연 관련 기록은 『선조실록』 선조 37년 갑진(1604) 11월 13일(기축)에 「임금이 하사한 술을 받고 오성 부원군 이항복 등이 사례하여 올린 전문(箋文)」만이 실려 있다. 이는 전란 직후에 왕권이 실추되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며 연회를 공식적으로 베푸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항복 등이 올린 전문의 내용은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며,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이번 신·구(新舊)의 모임은 예전에도 행한 것이므로 동맹한 날이 지나자 구례(舊禮)를 지키는 뜻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난리를 겪은 지 오래지 않으므로 잔치를 벌일 때가 아닌 줄 잘 아는데, 거듭되는 상은(上恩)을 입고 놀랍게도 거듭 중사(中使)를 보내셨습니다. (후략)”

- 제2폭과 제3폭의 좌목에는 평난(平難)·광국(光國)의 구공신과 호성(扈聖)·선무(宣武)·청난(淸難)의 신공신 63명의 약력이 소해로 적혀 있다. 평난공신은 1590년 1월 정여립 모반사건 평정에서 공을 세운 22명을 책훈한 것이며, 광국공신은 1590년 8월 명나라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에 잘못된 이성계의 가계 기록을 바로 잡는데 공을 세운 20명을 책훈한 것이다. 신공신은 모두 1604년 6월 책훈한 것으로 호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위하는 공을 세운 86명이고, 선무공신은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과 관련해 공을 세운 18명이며, 청난공신은 이몽학의 난을 토벌하는 데 공을 세운 5명이다. 좌목의 신구공신 63명은 1604년 11월 12일 상회연 때 생존했던 인물들이며, 제2폭과 제3폭의 좌목에 적혀 있는 인물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閔希鵞	安彦鳳	朴名賢	權應鍊	高彦伯	趙儼	朴東亮	姜紳	李準	尹洞	順義君	金起文	洪可臣	順寧君	金鳳	許浚	李軸	申礫	柳根	李光庭	李好閔	李忠元	洪進	韓應寅	尹根壽	柳永慶	李恒福	李元翼	鄭琢	柳成龍	李山海	定遠君	李瑋	제2폭 공신명단	
호성3등	호성3등	청난2등	선무2등	선무3등	선무3등	호성2등	평난3등	평난2등	광국2등	호성2등	호성3등	청난1등	호성2등	호성3등	호성3등	평난1등	호성2등	호성2등	호성2등	호성2등	호성2등	광국2등	광국1등	호성2등	호성2등	평난3등	호성2등	호성3등	광국3등	광국3등	평난2등	호성2등	호성2등	제2폭 공신명단

李希齡	吳連	洪澤	全龍	南嶽	金繼韓	楊舜民	柳肇生	李應順	呂定邦	李士恭	崔世俊	奇孝福	林得義	辛景行	李雲龍	金璽信	金璽榮	趙龜壽	金禮禎	崔應淑	姜綱	柳思瓊	權俠	權俊	朴忠敬	金秀源	辛大容	鄭漢璣	崔彦俊	李光岳	제3폭 공신명단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평난2등	호성3등	청난3등	청난3등	선무3등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선무3등	선무3등	선무3등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호성3등	선무3등	호성3등	제3폭 공신명단							

- 제1폭은 충훈부에서 선조가 법은(法醞)을 하사했던 상회연 장면을 그린 것이다. 배경의 설산(雪山)은 상회연이 열린 1604년 11월 12일의 계절과 일치하며, 충훈부가 있었던 인사동 방면에서 보이는 백안산(白岳山)을 그린 것이라 추정된다.

- 하얀색 대형 차일이 드리워진 공간을 보면 북쪽 상단에 붉은색 다리가 있는 병장(屏帳)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왕이 내린 법은을 담은 주준(酒樽) 4동이 상 위에 진설되어 있다.



- 차일이 드러진 공간의 우측 상단에 빈 방석은 법운을 가져온 승지들이 앉았던 자리이며, 좌측의 빈 방석은 중앙에서 예(禮)를 갖추고 있는 공신 2명의 자리이다. 화면 중앙을 보면 승지 2명이 예를 갖춘 공신 2명에게 법운을 전달하고 있다.
- 신구공신들은 북향해 ‘ㄴ’자 형태로 앉아 있으며, 좌측에는 상단의 빈 방석 2좌를 포함해 주칠원형의 단독상을 앞에 둔 23명이, 하단에는 25명, 우측에는 10명으로 총 58명만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신구공신 63명 가운데 5명의 불참 사실도 알 수 있다.
- 신구공신들은 거의 시복(侍服) 차림이지만, 오른쪽 10명 가운데 마지막 3명은 복장이 다른 것으로 보아 직급이 낮았던 사복시(司僕侍) 소속으로 말을 관리했던 전룡(全龍), 오련(吳連), 이희령(李希齡)으로 추정된다.
- 제2쪽부터 제4쪽에 걸쳐 “신구공신(新舊功臣)”, “상회제명(相會題名)”, “지도(之圖)”라는 표제가 나뉘어 전서체로 적혀 있다. 전반적으로 먹색이 짙고, 동일한 내용을 다룬 국립진주박물관 보관의 《태평회맹도》 4쪽 병풍에는 표제가 적혀 있지 않아 후대에 적은 것이라 판단된다.
- 선조는 1604년 11월 11일 탄일이었지만 전란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축하연도 간략하게 하였다. 하지만 향후 국가 기강을 바로 잡고 정국을 안정시키는 데 신하들의 협조가 절실하였으므로, 다음날인 11월 12일 충훈부에서 자신이 녹훈한 신구공신들에게 법운을 하사하는 상회연을 통해 군신(君臣) 간의 단합을 도모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내용을 그림과 문자로 남긴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계획도(契會圖) 형식을 빌려 국가 행사를 그린 보기 드문 역사기록화라는 점에서 역사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문헌자료

『선조실록(宣祖實錄)』

權應銖, 『白雲齋實記』 권4, 「內賜屏風題名」, 국립중앙도서관

辛景行, 『釣隱先生文集』 권2, 「內賜屏風題名」,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원

○ 참고문헌

신윤희, 「宣祖의 임진왜란 功臣策勳 배경과 그 의미」, 『慶尙史學』 26, 慶尙史學會, 2010.12, pp. 1-27.

신윤희, 「태평회맹도(太平會盟圖)의 역사적 배경」, 『美術資料』 85, 2014.6, pp. 80-93.

홍선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신구공신상회제명도》」, 『美術史論壇』 제48호, 한국미술연구소, 2019.06, pp. 71-89.

『부산광역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146호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보존상태 진단 용역 보고서』, 동아대학교·고창문화재보존, 2018.



I. 현 상

○ 본 작품은 삼베에 수묵 채색으로 완성된 4폭 병풍화다. 소장처의 유물 보관 내역에 따르면, 1959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입수하여 2014년 9월 24일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46호로 지정됐다. 현재의 상황도 2014년도에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병풍의 각 화면은 가로 30.5-32cm의 비단 2장을 이어 붙인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제1폭은 상태가 양호한 반면, 제3폭은 박락이 심하여 바탕지의 훼손이 그대로 드러난다. 비단의 울이 어긋나거나 틀어졌다. 화면 바탕이 곰팡이로 오염된 흔적이 있고, 바탕 견이 결락되어 보건(補絹) 처리한 부분이 있다.

○ 제1폭에는 왕의 범을 하사받은 상회연(相會宴) 장면이 묘사됐다. 제2폭과 3폭에는 참석자의 좌목인 제명록과 전서체의 표제가 적혀 있다. 표제의 경우, 화면 상단에서 10m 가량 밑에 주선이 가로로 구획됐고, 그 위에 농묵의 전서체로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라고 적혀 있다. 마지막 4폭은 빈 화면이고, 상단에 표제의 마지막 두 글자인 ‘之圖’가 적혀 있다. 표제의 서체나 농도가 좌목의 서체나 농도와 달라, 작품이 완성된 이후 표기됐음을 알 수 있다.

II. 조사 내용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는 선조 37년(1604) 음력 10월

과 11월에 열린 신구 5공신들의 회맹 의례의 상회연(相會宴)을 재현한 일종의 계병(禊屏)이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 종결되자 선조 34년(1601)에 공신의 책훈 문제가 거론됐다. 그리고 3년 뒤인 1604년 10월 28일과 29일에 신구공신회맹 의례가 열렸다. 이 의례는 임진왜란 직전과 직후에 녹훈된 5공신 가운데 생존자 63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행사였다.

선조 23년(1590년) 2월 1일자로 녹훈된 구공신은 광국(光國), 평난(平難) 공신이며, 선조 37년(1604년) 6월 25일자로 녹훈된 신공신은 호성(扈聖), 선무(宣武), 청난(淸難) 공신이다. 먼저 구공신을 살펴보면, 광국공신은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된 이성계의 계보를 정정한 공신이며, 평난공신은 정여립 사건을 평정한 공신이다. 신공신에 포함된 호성공신은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했던 공신이고, 선무공신은 전쟁에서 공을 세웠거나 후방을 지원했던 공신이며, 청난공신은 전쟁 중에 발생한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신이다.

신공신이 1964년 2월 1일에 녹훈되자 10월 28일 복단에서 회맹제를 가진 뒤, 이튿날인 29일에 공신 교서와 녹권을 받았다. 그 후 11월 12일 충훈부 주관의 상회연이 열렸다. 이 연회가 끝난 뒤 기념으로 계병을 제작하여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신구 5공신은 모두 146명인데, 당시 생존자는 제2쪽과 제3쪽에 기재된 63명이다. 그러나 충훈부에서 주관한 상회연에 참석한 신구공신은 모두 58명이고, 불참한 공신은 5명이었다. 불참 공신은 광국, 평난공신 이산해(李山海, 1539-1609), 광국, 호성공신 류성룡(柳成龍, 1542-1607), 호성공신 정탁(鄭琢, 1526-1605), 선무공신 이운룡(李雲龍, 1562-1610), 평난공신 남절이다. 66세인 이산해는 5개월 전 부인상을 당한 상황에서 병색이 깊었고, 63세인 유성룡과 79세인 정탁은 노환으로 은퇴하여 낙향한 상태였다. 64세의 남절도 노환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43세였던 이운룡은 상중이었다.

○ 제1쪽 신구공신상회연도를 살펴본다. 왕 앞에서 신하들의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인 공신회맹제는 경복궁 신무문 북쪽의 회맹단에서 거행됐고, 왕이 하사한 상회연은 충훈부(忠勳府)에서 열렸다. 제1쪽은 상회연 장면이다. 백악산을 배경으로 커다란 차일을 치고 왕이 하사한 선운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악공과 기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연(賜宴) 형식은 아니며, 선조가 선운만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화면에 등장하는 58명의 신구공신은 좌측에 21명, 하단에 25명, 우측에 10명, 중앙 상단에 2명이 시복차림으로 북향 배례를 하고 있다. 오른 쪽 상석의 경우 2명의 자리가 배치되고 간격을 두고 10명이 앉아 있다. 산에는 흰 눈이 쌓여 있고, 화면 오른쪽에 서 있는 나무에 잎이 없어, 음력 11월의 겨울 풍경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계획도 성격의 기록화이지만, 17세기 초의 궁중 화원이 그린 실경산수화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제2쪽과 3쪽에는 상회연 참석 대상인 신구 5공신 63명의 공신호와 문무관 품계, 작호와 관직, 자(字), 생년, 본관이 적혀 있다. 제2첩에는 정원군(定遠君) 부(瑋)를 비롯한 32명, 제3첩에는 수원도호부사 이광악(李光岳)을 비롯한 31명의 인적 사항이 기록됐다. 좌목의 순서는 공신 명칭에 상관없이 품계순이다. 서체는 작고 깔끔한 소해체이다. 일부 글자가 박락되었고, 가필의 흔적도 남아 있다. 그중에서 제2쪽 7번째 행의 유영경(柳永慶, 1550-1608), 28째 행의 고언백(高彦伯, ?-1608), 30째 행의 박명현(朴名賢, ?-1608)의 이름에는 검은 사각형이 구획되어 있다. 이들은 광해군 즉위 초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고 삭훈된 인물들이다. 마지막 제4쪽에는 공백으로 남겨진 빈 화면에 표제의 마지막 부분인 ‘之圖’만 상단부에 적혀 있다.

○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는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에 소장된 <태평회맹도>(보물 제 668-3호)와 동일한 행사를 기록한 작품이다. <태평회맹도>는 선무공신 2등에 책훈된 권응수(權應銖, 1546-1608)가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병풍이다. 조선시대 무신이었던 권응수는 선조 17년(1584)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무찌르는 등 많은 활약을 한 장군이다. 권응수가 쓰던 물건 및 국왕의 하사품, 그리고 집안에 내려오던 유품은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이전됐다.

권응수 유품에 포함되어 있는 <태평회맹도>는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보다 세로 2cm 정도 더 크다.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의 경우 상단(특히 3쪽)의 박락이 심한 반면, <태평회맹도>은 하단(특히 1, 3쪽)의 박락이 심하다. 특히 <태평회맹도>는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와 달리 화면 상단의 표제가 없다. 그러나 그림 솜씨나 서체가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보다 뛰어난 점, 국왕이 직접 권응수에게 하사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태평회맹도>가 원본이고, 이를 바탕으로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의 표제는 나중에 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 명 문

제2쪽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定遠君李瑋 庚辰生

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鵝城府院君李山海 汝受 己亥生 本韓山

輸忠翼謨光國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 崇祿大夫豊原府院君柳成龍 而見

壬寅生 本豐山

忠勤貞亮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西原府院君鄭琢 子精 丙戌生 本清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完平府院君李元翼 公勵 丁未生 本全州

推忠奮義平難忠勤貞亮竭誠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鰲城府院君李恒福 子常 丙辰生 本慶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 春秋館觀象

監事 世子師全陽府院君 柳永慶 善餘 庚戌生 本全州

輸忠貢誠翼謨修紀光國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海平府院君兼知 經筵事尹根壽子固 丁酉生 本海平

輸忠翼謨修紀光國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輔國崇祿大夫清平府院君兼知 經筵事韓 應寅 春卿 甲寅生 本清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唐興府院君兼知經筵事洪進 希古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完陽府院君李忠元 元夫 丁酉生 本全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陵府院君兼同知 經筵事李好閔 孝彦 癸丑生 本延安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輔國崇祿大夫延原府院君李光庭 德輝 壬子生 本延安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崇祿大夫行議政府左叅贊兼判義禁府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

春秋館成均館事晉原君柳根 晦夫 己酉生 本晉州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崇祿大夫平川君兼知春秋館事申礪 伯峻 辛丑生 本平山

推忠奮義炳幾協策平難功臣崇政大夫完山君李軸 子任 戊戌生 本全州

忠勤貞亮扈 聖功臣崇政大夫陽平君許浚 清源 己亥生 本陽川

忠勤貞亮扈 聖功臣崇政大夫寧城君金鳳 雲卿 甲寅生 本金海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崇政大夫五衛都摠府都摠管順寧君 景儉 子文 癸亥生

奮忠出氣合謀迪毅清難功臣正憲大夫寧原君洪可臣 興道 辛丑生 本南陽

忠勤貞亮扈 聖功臣正憲大夫眞城君金起文 斐仲 己巳生 本三陟

忠勤貞亮効節協策扈 聖功臣正憲大夫順義君 景溫 汝剛 己酉生

輸忠翼謨修紀光國功臣資憲大夫茂城君尹澗 而遠 己酉生 本茂松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資憲大夫漢城府判尹兼知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全城君李 準 平卿 乙巳生 本全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李應順 善陵乙丑生 本原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衛□護軍柳肇生 應時 甲子生 本全州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楊舜民
 忠勤貞亮扈 聖功臣折衝將軍行忠佐衛副護軍金繼韓 繼叔 癸丑生 本延安
 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禦侮將軍忠佐衛大護軍南嶽 仲秀 辛卯生 本宜寧
 忠勤貞亮扈 聖功臣通訓大夫行司僕寺判官全龍 汝見 己未生 本臨河
 忠勤貞亮扈 聖功臣宣略將軍行□□□□副司果洪澤 宣叔 辛酉生 本南陽
 忠勤貞亮扈 聖功臣保功將軍行□□□衛副司果吳連 達之 己亥生 本石城
 忠勤貞亮扈 聖功臣禦侮將軍行忠武衛副□勇李希齡 汝膺 乙巳生 本海州

Ⅲ. 참고문헌 및 도판

- 『선조실록』 37년(1604) 11월 13일 조
- 신운호, 「태평회명도의 역사적 배경」, 『미술자료』85, 국립중앙박물관, 2014.
- 尹軫暎,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4
- 홍선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 《신구공신상회제명도》」, 『美術史論壇』 48, 한국미술연구소, 2019.



그림 1.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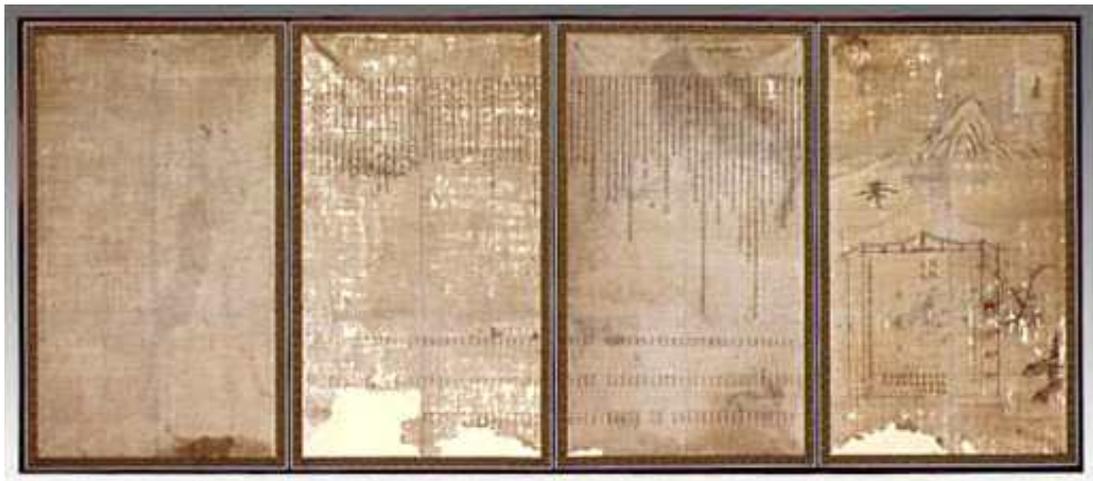


그림 2. <태평회맹도>, 국립진주박물관

14.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金海 大成洞 七十六號墳 出土 頸飾)

가. 검토사항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가치 규명’의 일환으로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 대상 추천이 있어(18.9.28.) 관계 전문가 조사(19.4.5.)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金海 大成洞 七十六號墳 出土 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대성동고분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26, 대성동고분박물관
- 수 량 : 1건 3조 2,473점 (3줄로 복원된 상태 + 별도 유리곡옥 2점 포함)
수정제 곡옥 2점, 수정제 다면옥 8점.
마노제 다면옥 74점, 마노제 환옥 3점.
유리제 곡옥 3점, 소형 유리 구슬 2,383점.
- 규 격 : 전체 연결 길이 A (95.5) + B (61.2) + C (53.7) = 210.4cm
 - ① A : 수정 곡옥 1점 + 마노 다면옥 34점 + 유리 구슬 1,111점
중앙 수정 곡옥 크기 : 길이 22.9mm, 두께 8.1mm.
마노 다면옥 1 : 높이 7.7mm, 최대폭 12.7mm.

마노 다면옥 2 : 높이 5.2mm, 최대폭 8.3mm.

유리구슬 1 : 높이 4.4mm, 지름 6.0mm.

유리구슬 2 : 높이 2.7mm, 지름 4.5mm.

② B : 유리 곡옥 1점 + 수정 다면옥 6점 + 마노 다면옥 33점 + 유리 구슬 614점

중양 유리 곡옥 크기 : 길이 26.0 mm. 두께 8.5mm.

수정 다면옥 1 : 높이 32.3mm, 최대폭 40.5mm.

마노 다면옥 1 : 높이 6.6mm, 최대폭 10.4mm.

③ C : 수정 곡옥 1점 + 수정 다면옥 2점 + 마노 다면옥 10점 + 유리 구슬 658점

중양 수정곡옥 크기 : 길이 23.1mm, 두께 8.1mm.

수정 다면옥 1 : 높이 8.8mm, 최대폭 15.3mm.

수정 다면옥 2 : 높이 10.3mm, 최대폭 15.9mm.

마노 다면옥 1 : 높이 5.2mm, 최대폭 7.3mm.

마노 다면옥 2 : 높이 6.8mm, 최대폭 10.7mm.

○ 재 질 : 수정, 마노, 유리

○ 형 식 : 수정, 유리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 목걸이

○ 조성시기 : 3~4세기



그림 459.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2011년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조사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의 목곽묘에서 토기나 철기 등의 공반 유물과 함께 발굴되어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장신구로서 출토지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출토된 목걸이는 수정구슬 10점, 마노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인데, 하나의 유적에서 한꺼번에 발견되었으며 그동안 금관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량의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희귀한 사례에 해당되며, 이를 통해 착장자의 신분적 위상이나 지배계층의 위세와 권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학술적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예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목걸이를 제작하는데 사용한 맑고 투명한 수정과 주황색 마노 및 파란색 유리와 같이 다종다양한 재질과 색감이 조화로운 재료를 선택하고 그것을 곡옥이나 다면체로 섬세하게 가공하고 세밀하게 구멍을 뚫어 펜다거나 표면을 깔끔하게 다듬어 조형적인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당시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적인 성취가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다종다양한 재료를 정교하게 가공하는 기술과 색상과 질감의 조화로 당시 복식 문화의 세련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이 목걸이는 김해지역의 금관가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1)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대성동76호분 중앙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로 가야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가야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A, B, C 세 가지 형태로 켜어 관리하고 있다.

2)전체구성은 수정제 곡옥 2점, 수정제 다면옥 8점, 마노제 다면옥 74점, 마노제 환옥 3점, 유리제 곡옥 3점, 소형 유리구슬 2,383점으로 전체 2,473점으로 되어 있다.

3)목걸이의 규모는 전체 연결 길이가 271.6cm(A 122.4)+B 95.5)+(C 53.7)이며, 부분적으로는 A: 중앙 유리곡옥-1.36×0.8.5cm, 수정다면옥-0.32×0.40cm, B: 중앙 수정

곡옥-0.23×0.08cm, 마노다면옥-0.77×0.12cm, 유리구슬-0.6×0.44cm. C: 중앙 수정 곡옥-0.23×0.08cm, 수정다면옥-0.15×0.08cm, 마노다면옥-0.73×0.52cm(모든 구슬은 각기 크기가 달라 각 부분 대표적인 구슬만 측정함).

4)전체적으로 화려한 목걸이로써,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구슬,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된 무색투명한 수정 구슬들의 조화가 뛰어나며, 마노와 수정의 세공 솜씨 또한 뛰어난 작품이며, 조형성이 뛰어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6)이와 같이 이 목걸이는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구성되었고, 세공솜씨도 뛰어나고 예술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아름다운 형태이며, 가야를 대표할 만한 장신구로써, 국가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구슬 목걸이 일괄품은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 구슬 10점, 마노 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의 구슬로 이루어졌다. 이 목걸이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위세품으로서,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예품이며, 현존하는 가야의 목걸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만큼 많은 수량의 구슬이 한 곳에서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목걸이는 다양한 형태의 수정, 마노, 유리 구슬의 형태 및 색채의 조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신구로서, 금관가야 지배계층이 선호하던 미감과 장신구 문화 양식을 살펴 볼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고가의 보석과 섬세한 유리 세공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이 목걸이는 금관가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대성동 76호분은 4세기 초의 금관가야 지배세력의 목곽묘이고, 이를 나타내는 위세품으로서 대성동고분군에서 가장 뛰어난 목걸이가 출토되었다.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구슬 10점, 마노구슬 77점, 각종 유리제 구슬 2386점 등 총 2473점으로 이루어졌다. 이 목걸이는 곡옥·다면옥 형태의 수정, 다면옥 형태의 마노,

곡옥과 환옥 형태의 유리구슬로 이루어졌고, 투명한 수정구슬과 짙거나 밝은 마노, 그리고 녹색과 청색의 유리구슬이 색채의 조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신구로서, 가야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김해 대성동 76호분 목걸이는 지금까지 출토된 김해의 금관가야 목걸이들 중에서 구슬의 수량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세공기술이 뛰어난 가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유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김해 대성동 76호 목걸이 3종 일체



김해 대성동 고분 유적의 원경



김해 대성동 고분 제1차 발굴조사 전경

○ 형 식

김해 대성동 76호 고분 출토 목걸이[頸飾]는 김해지역의 가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것 중 크고 작은 수정(水晶)으로 만든 다면옥(多面玉)과 곡옥(曲玉), 마노(瑪瑙)로 만든 다면옥과 환옥, 유리로 만든 곡옥과 구슬 총 2,473점으로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굴 당시 각종 구슬들은 흩뿌려진 상태여서 그 원래의 형태를 알기 어려운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에 2,473점에 달하는 출토 구슬은 전체를 목걸이로서 재배열하여, 그 중에서 비교적 크기가 크고 형태가 좋은 곡옥이나 수정 및 마노 등을 중심에 배치하고 나머지 구슬들을 빙 둘러 좌우 대칭적으로 꿰었다. 이에 현재 상태는 출토된 구슬을 3중 목걸이로 보기 좋게 재구성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다.

○ 조성연대

김해 대성동 76호 고분은 발굴 결과 대형의 목곽묘임이 확인되었고 이 곳에서 철촉이나 토기 등의 공반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것들은 4세기 초로 편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걸이의 제작 시기는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로 비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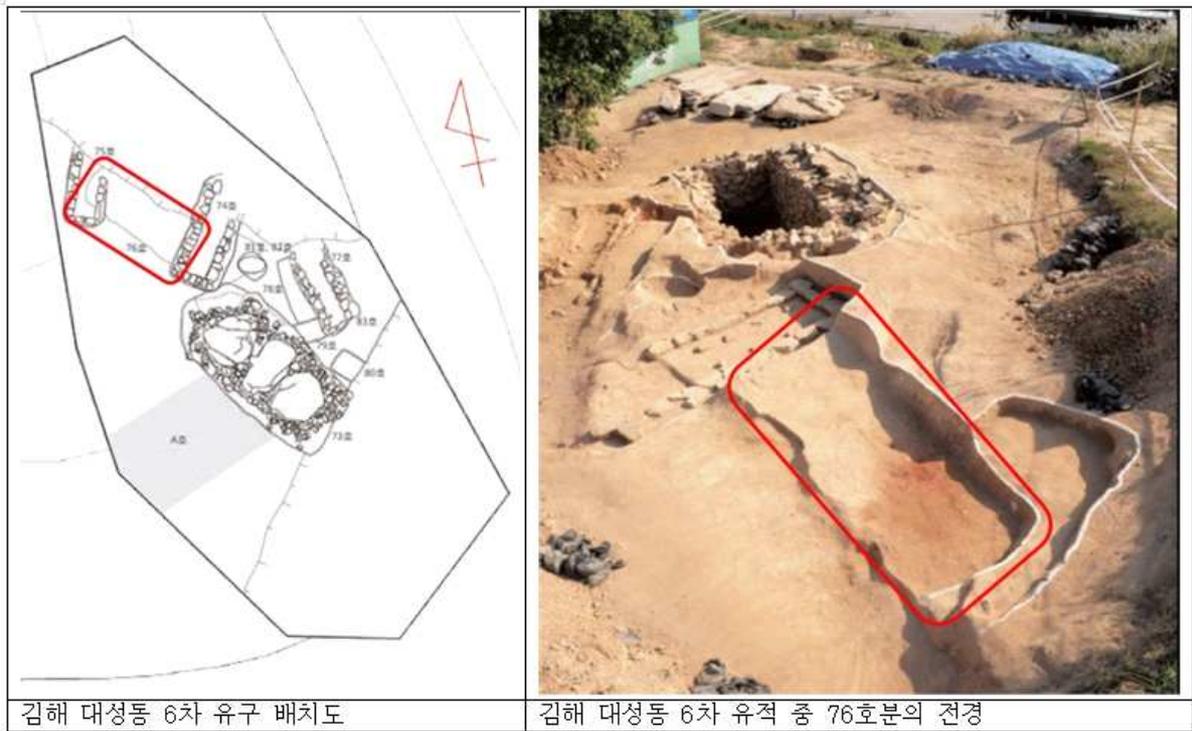
○ 유물의 출토 상황

김해대성동 고분은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에 위치한 구릉에 위치하며, 이곳으로부터 약 600m 정도 북쪽에 가야의 건국설화가 깃들어 있는 구지봉(龜旨峰)이, 동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김수로왕릉이 위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애꼬(꾸)지’, ‘애구지’ 등 작은 구지봉이라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이전까지는 밭으로 개간되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철저히 도굴 파괴되어 전체적인 유적의 보존 상태는 나쁜 편이다. 이곳에 대해서는 1990년 6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1차 발굴을 통해 대형 목곽분인 1호분과 2호분을 발굴하였고, 같은 해 1990년 11월에 사적 제341호로 지정되었다.

2011년 7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대성동 고분박물관에서는 6차 발굴을 하게 되었다. 당시의 6차 발굴은 대성동 고분군에 시행했던 기존의 1-5차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에 조성된 대형무덤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당시 대성동고분군은 구릉의 축조 순서상으로 미루어 볼 때 남동쪽의 비스듬한 위치[斜面]에 5세기 후반대에 조성된 대형무덤이 존재할 가능성을 두고 대상지를 선정하였다. 이에 제6차 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석개목 관묘 1기(84호), 삼한시대 목관묘 2기(79, 80호), 삼국시대 목곽묘 2기(76호와 78호), 수혈식석곽묘 4기(73호, 74호, 75호, 77호), 옹관묘 3기(81호, 82호, 83호) 등 모두 12기의 분묘와 시기불명 수혈 1기, 삼가마 1기가 추가로 조사하게 되었다.

특히 대성동 76호분은 목곽묘이었는데, 그 좌우에 수혈식 석곽묘인 74호분과 75호분이 축조되면서 파손되었다. 때문에 묘광의 상태는 그다지 좋지 못했으며, 일부분은 도굴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 대성동 76호 무덤은 제 6차 발굴 조사를 통해 기원 후 4세기 1/4분기의 대형 목곽묘인 것이 확인되었다. 발굴 당시 묘광이 놓여 있던 중앙의 목곽부에서는 철기류나 토기류 등이 다수 출토되어 무덤의 제작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김해 대성동 76호분의 목곽 중앙부에서는 각종 곡옥과 다면옥, 환옥 등이 수정, 마노, 유리 등의 구슬이 다수 흩뿌려진 채 출토되었다.



중앙부에 산재된 채 출토된 구슬류의 유물은 총 2,473개이며, 이것들은 수정으로 만든 다면옥이나 곡옥을 비롯하여 유리로 만든 곡옥이나 환옥 등이었다. 출토된 구슬류 전체 유물은 수습한 이후 이것들의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존처리 후 이것들을 보기 좋게 3줄의 목걸이로 재구성하여 꿰었다.

		A	B	C	A+B+C
사진					
유리	고정	1,031	614	648	2,293
	청록	80	.	10	90
다면체	수정	.	6	2	8
	마노	34	다면옥30+환옥3	10	77
곡옥		1 (수정)	1(유리)	1 (수정)	3
합계		1,146	654	671	2,471 +2(별도)
길이*두께	수정	-	큰 것 2.8*1.6 작은 것 1.8*1.1 중간 것 1.2*1.0	1.6*1.0	
	마노	큰 것 1.2*0.8 작은 것 0.9*0.6	1.2/0.7	-	
	곡옥	2.3*0.7	2.6*0.8	2.1*0.8	
전체 길이		94	61	52	

<표> 김해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 수량

(단위: cm)

출토된 구슬들의 재질은 수정, 마노, 포타쉬 유리와 소다 유리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맑고 투명한 수정이나 주홍색의 마노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의 것이어서 출토 당시부터 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곡옥의 경우 수정과 유리로 만든 것들이 총5점이었고, 그중 유리제 곡옥 3점 중 발견 당시부터 상태도 좋지 않은 데다가 부식이 진행된 2점은 목걸이에 끼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총2,471점의 다종다양한 구슬류는 크기가 크고 형태나 모양이 아름다운 수정제 곡옥이나 다면체 수정옥을 가운데에 배치하고, 그 좌우로 마노와 파란색 유리제 구슬을 연결하는 등 보기 좋게 배치하여 A, B, C 3개의 목걸이로 연출해서 보관하고 있다.



이처럼 김해 대성동 76호분 목걸이는 지금까지 출토된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시대 목걸이들 중에서도 출토된 구슬의 수량이 가장 많아 화려하고, 그 재료는 크고 투명한 무색의 수정을 비롯하여 붉은색을 띄는 마노, 푸른색을 보이는 유리 등 다종 다양하며, 수정과 마노를 다면체로 컷팅하고 각각 양쪽에서 구멍을 뚫어 꿰어 다는 기술적인 수준도 우수한 편이다.

○ 문헌자료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의 기록을 보면,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 사람들이 구슬[瓔珠]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목걸이는 2011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제6차 발굴 당시 출토되어 국가에 귀속된 이후,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자료총서 03, 『가야발굴조사 자료편 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8.

국립김해박물관, 『양동리, 가야를 보다』, 2012 기획특별전도록. 2012.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2018.

대성동고분박물관, 『金海 大成洞古墳群東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대성동고분박물관,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도록,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동의대학교박물관, 「김해 양동리고분군 발굴조사(제3차)약보고서」, 1994.



○ 현 상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로 A, B, C 세 가지 형태로 켜어 관리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대성동76호분 목곽중앙부에서 출토된 것이다.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로 가야목걸이 중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구성은 수정제 곡옥 2점, 수정제 다면옥 8점, 마노제 다면옥 74점, 마노제 환옥 3점, 유리제 곡옥 3점, 소형 유리 구슬 2383점으로 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목걸이로써,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구슬,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된 무색투명한 수정 구슬들의 조화가 뛰어나며, 마노와 수정의 세공 솜씨 또한 뛰어난 작품이며, 조형성이 뛰어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문헌자료

大成洞古墳博物館,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 -73호분~84호분』

□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頸飾)로, 김해 지역의 가야 고분들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량의 구슬이 발견되어 주목된다(그림 1). 출토 당시에는 각종 구슬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원래의 목걸이 형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는 유물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3줄 목걸이로 재구성된 상태이다. 김해 지역에서는 대성동 고분군 이외에도 양동리 고분군을 비롯한 여러 유적에서 각종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나 장신구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성동 76호분 출토 구슬 목걸이는 최대 수량의 구슬들이 확인된 예로서 주목된다.

○ 조성연대

이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대성동 76호분은 목곽묘로서, 공반된 토기의 형식에 의해서 4세기 초로 편년되고 있다. 한편, 함께 출토된 철촉이나 와질단경호는 앞시기 요소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⁷⁰⁾ 같은 고분에서는 훨씬 이른 시기의 후한대 추정 청동제 삼족정도 함께 출토된 바 있다. 그러므로 이 목걸이의 제작 시기는 유적 연대를 고려해볼 때, 유적 편년기보다 조금 이른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초반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현 상

이 구슬 목걸이 일괄품은 2011년 7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루어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제 6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제 76호분의 묘광 중앙부근에서 집중하여 출토되었다. 목곽묘인 대성동 76호분은 인근의 75호분과 74호분이 축조되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묘광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했으며, 일부분은 도굴도 당했다(그림 2). 이 구슬들은 목곽의 중앙부에서 다량의 흙 속에 각종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 유리제 곡옥과 환옥 등이 무더기로 함께 출토되었다고 한다(그림 2, 3, 4).⁷¹⁾



그림 1. 김해 대성동 76호분 목걸이 일괄. 대성동 고분박물관 소장.

70)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p.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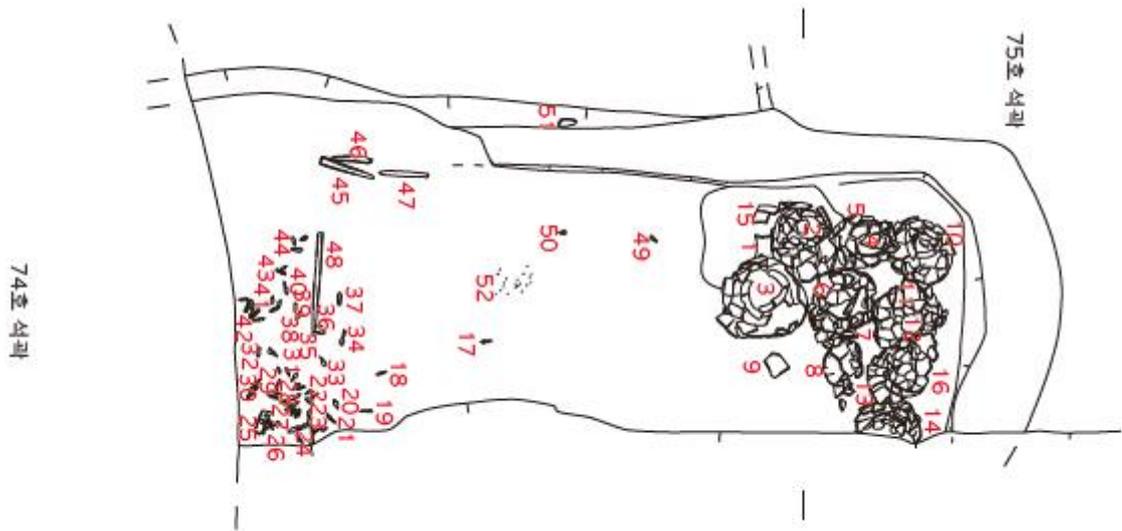


그림 2. 김해 대성동 76호분 유물 출토 상태 도면. 대성동고분박물관.

이 구슬들은 보존처리 과정에서 전체 구슬의 규모가 2000여점 이상이 되는 것이 밝혀졌으며, 재질은 수정, 마노, 유리 등으로 다양함이 확인되었다. 유리의 경우에는 포타쉬 유리와 소다 유리가 모두 확인되었다고 한다.⁷²⁾ 현재는 보존과 전시를 위해서 곡옥을 중심으로 3개의 목걸이로 재구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별도의



그림 3. 김해 대성동 76호분 수정구슬 출토 상태. 대성동고분박물관.



그림 4. 김해 대성동 76호분 각종 구슬 출토 상태. 대성동고분박물관.

유리 곡옥 2개가 따로 보관되고 있다. 별도 보관중인 유리 곡옥 2점과 현재 목걸이 A의 중앙에 있는 유리 곡옥 1점 등 총 3점의 유리 곡옥은 모두 표면 부식이 심하게

71) 위의 책, p. 59; 73.

72) 강형태, 윤은영, 2013, 「김해 대성동고분군 출토 유리구슬의 과학 분석」, 『金海 大成洞古墳群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부록 p. 31.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그림 5, 6). 그러나 그외의 다른 수정과 마노 구슬들과 소형 유리구슬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그림 5. 별도 보관 중인 유리 곡옥 2점,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대성동 고분박물관 소장.



그림 6. 유리 곡옥, 김해 대성동 76호분 출토, 대성동 고분박물관 소장.

김해 대성동 76호분 목걸이는 지금까지 출토된 김해의 금관가야 시대 구슬 목걸이들 중에서 출토 구슬의 수량이 최대에 달하는 화려한 목걸이로서,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구슬, 그리고 포인트로 사용된 무색 투명한 수정 구슬들의 조화가 뛰어나며, 마노와 수정의 세공 솜씨 또한 뛰어난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 문헌자료

3세기의 중국 문헌기록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 조에 의하면 당시 삼한의 사람들은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⁷³⁾고 하여, 구슬을 매우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반도 남부의 삼한(三韓) 사람들이 영주(瓔珠), 즉 구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국의 기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재질의 구슬 사용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문헌기록이다.

○ 기 타

2011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조사한 대성동 76호분에서 출토된 이후, 계속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며, 국가귀속 역시 대성동고분박물관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같은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음.

73) "以瓔珠爲財寶，或以綴衣爲飾，或以縣頸垂耳，不以金銀錦繡爲珍. 『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傳 韓條.

○ 주요 도판 출판 현황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東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p. 189, 도 69.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도록,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p. 105, 도 46.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p. 62-63, 도 86.

□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환옥, 유리제 곡옥과 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긴 목걸이로,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수의 구슬로 이루어졌다. 출토 당시에는 각종 구슬들이 흩뿌려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원래의 목걸이 형태와 구슬 배치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 3개로 쪼개어 있다. 김해를 포함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는 대성동 고분군 이외의 여러 고분군에서 각종 구슬로 만들어진 목걸이나 장신구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성동 76호분 출토 구슬 목걸이는 최대 수량의 구슬로 이루어졌고, 이 시기의 가야 장신구를 상징하는 목걸이로서 주목된다.

○ 조성연대

이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대성동 76호분은 목곽묘로서, 공반된 유물의 구성과 형식에 의해서 4세기 초로 편년되지만, 철축이나 와질단경호 등은 앞 시기 요소가 남아 있어서,⁷⁴⁾ 이 목걸이의 제작 시기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현 상

이 구슬 목걸이 일괄품은 2011년 7월 2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이루어진 김해 대성동 고분군 제 6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제 76호분의 목곽 중앙부의 서측에 집중하여 출토되었다. 76호분은 파괴가 심해 전체의 1/4정도만 남아 있었다.

목걸이는 현재 보존과 전시를 위해서 곡옥을 중심으로 3개의 목걸이로 쪼개어 있으며, 유리 곡옥 2점이 따로 보관되고 있다. 별도 보관중인 유리 곡옥 2점과 현재 목걸이 A의 중앙에 있는 유리 곡옥 1점 등 총 3점의 유리 곡옥은 모두 표면 부식이 심하게 진전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외의 다른 수정과 마노 구슬들과 소형 유

74)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 - 73호분 ~ 84호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 p. 105.

리구슬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 문헌자료

대성동고분박물관, 2013, 『金海 大成洞古墳群東 - 73호분 ~ 84호분』

대성동고분박물관, 2017, 『비밀의 문 다시 두드리다』 대성동고분박물관 재개관 기념도록

○ 기 타

2011년 김해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조사한 대성동 76호분에서 출토된 이후,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보관 관리해오고 있으며, 현재 대성동고분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음.

15.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 (金海 良洞里 二百三十五號墳 出土 頸飾)

가. 검토사항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가치 규명’의 일환으로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 대상 추천이 있어(‘18.9.28.) 관계 전문가 조사(‘19.8.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양동리 235호분 목걸이(金海 良洞里 二百三十五號墳 出土 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건 1,729점
수정제 다면옥 2점, 수정제 곡옥 48점, 마노제 다면옥 15점,
유리질 다면옥 2점, 각종 유리구슬 1662점
- 규 격 : 전체 길이 51cm.
중앙부 수정제 다면옥 1 : 높이 22.6mm. 최대폭 36.4mm. 구멍지름 2.6mm.
중앙부 수정제 다면옥 2 : 높이 20.8mm. 최대폭 36.9mm. 구멍지름 2.7mm.
중앙부 마노제 다면옥 : 높이 6.4mm. 최대폭 8.9mm. 구멍지름 3.5mm.

수정제 곡옥 크기 : 향좌측 2번째 : 길이 20.6mm, 두께 6.1mm.

적갈색 유리 : 높이 2.4mm. 지름 3.9mm.

- 재 질 : 수정, 마노, 각종 유리.
- 형 식 :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주관옥, 각종 유리 구슬로 이루어진 목걸이
- 조성연대 : 3세기 추정



그림 436. 김해 대성동 235호분 출토 목걸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2년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 토광목곽묘를 발굴하였고 무기 등 철제 유물과 고배와 단경호 등 토기유물과 공반 출토되어 출토이력이 분명한 3세기 금관가야시대 유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이 목걸이는 비교적 크기가 큰 수정제 다면옥 2점과 수정제 곡옥 48점과 유리질 다

면옥 2점, 적갈색 마노 15점 및 청색과 군청색 환옥 1,662점, 총 1,729점으로 구성되어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복식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다만 수정 표면에 실금이 가거나 훼손이 되어 있고 마노와 유리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고 전체 구슬들의 투명도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공예 기술적인 가치가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은 분명하지만, 재료를 가공하는 기술이나 유물의 보존상태 등이 다소 흠결이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목걸이는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 1)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235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여러 목곽묘들이 중복되고 파괴가 심하여 출토양상이 불량하지만 고분의 주인공이 착장하고 있었던 유물로 보인다. 출토상황이 좋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 출토위치가 분명한 유물이다.
- 2) 탁한 수정을 6각의 주판알모양 장식2개를 중심에 두고, 양옆으로 그보다 작은 유리질 옥장식 2개와 마노장식15개, 그 다음에는 수정제 곡옥48개를 배치한 다음, 작은 유리구슬 1662개를 가운데 연결구멍을 뚫어 실에 꿰어 목에 걸도록 되어있다.
- 3)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 2줄로 겹쳐 목에 거는데 아래중심의 수정 주판알장식은 3.69×3.3cm로 수정 출토품 중 큰 것에 속한다.
- 4) 목걸이의 전체길이는 51.0cm이며, 여러 가지 옥장식은 같은재질이라도 크기가 각기 다른데, 대표적인 규모는 수정(주판알장식) 3.69×3.3cm, 마노 0.89×0.77cm, 수정곡옥 길이2.06cm, 너비 0.61cm, 유리질옥 1.62cm×1.18cm 이다.
- 5) 수정 주판알 장식과 곡옥은 약간 탁하고 조각솜씨도 거칠은 편이며, 옥색의 유리질 옥제품과 마노옥 주판알 장식도 크기가 각기 다르고 질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다. 작은 유리구슬 1662개는 크기가 각기 다른데, 질은 남색과 탁한 하늘색의 두 종류로 만들었다.
- 6) 이 목걸이는 수정, 유리질 옥, 마노, 유리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 의미가 있으나 다듬은 기술력과 조형성 등이 거칠고 예술적으로도 뛰어나지 않아 국가 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 일괄품은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 및 각종 유리구슬 등 천여개 이상의 구슬들로 이루어진 3세기 금관가야의 위세품으로,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공예품이다. 그러나, 현재 수정과 마노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고 세공 상태도 다소 거친 편이며, 전체적으로 구슬들의 표면에 잔금이 많이 가서 투명도가 떨어진 상태인 점 등으로 볼 때, 보석제 장신구로서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다. 그러므로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 일괄품은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 및 각종 유리구슬 등 1700여개 이상의 구슬들로 이루어진 3세기 금관가야의 장신구로, 가야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예품이다. 그러나 수정과 마노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고 세공 상태도 다소 거친 편이며, 전체적으로 구슬의 표면에 잔금이 많이 가서 투명도가 떨어진 상태인 점 등으로 볼 때, 보석제 장신구로서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므로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형 식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는 총 1,729점인데, 재료는 수정과 마노 및 유리이고 그 색상은 청색과 군청색 및 적갈색이며, 그 형태는 다면옥과 곡옥 및 주판옥으로 이뤄져 있다. 이 목걸이는 비교적 크기가 큰 수정제 다면옥 2점과 수정제 곡옥 48점과 유리질 다면옥 2점, 적갈색 마노 15점 및 청색과 군청색 환옥 1,66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연질의 유리구슬은 무덤의 흠더미가 내려앉으면서 깨지거나 삭아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목걸이는 유리제 환옥의 수량이 많은 편에 속한다.



김해 양동리 235호분 조사보고서 수록 사진



2019.8.19. 조사당시 촬영 목걸이 사진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 조성연대

김해 양동리 235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이며, 무구와 마구 등 철제유물과 고배와 단경호 등의 공반 유물의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목걸이는 3세기 경 금관가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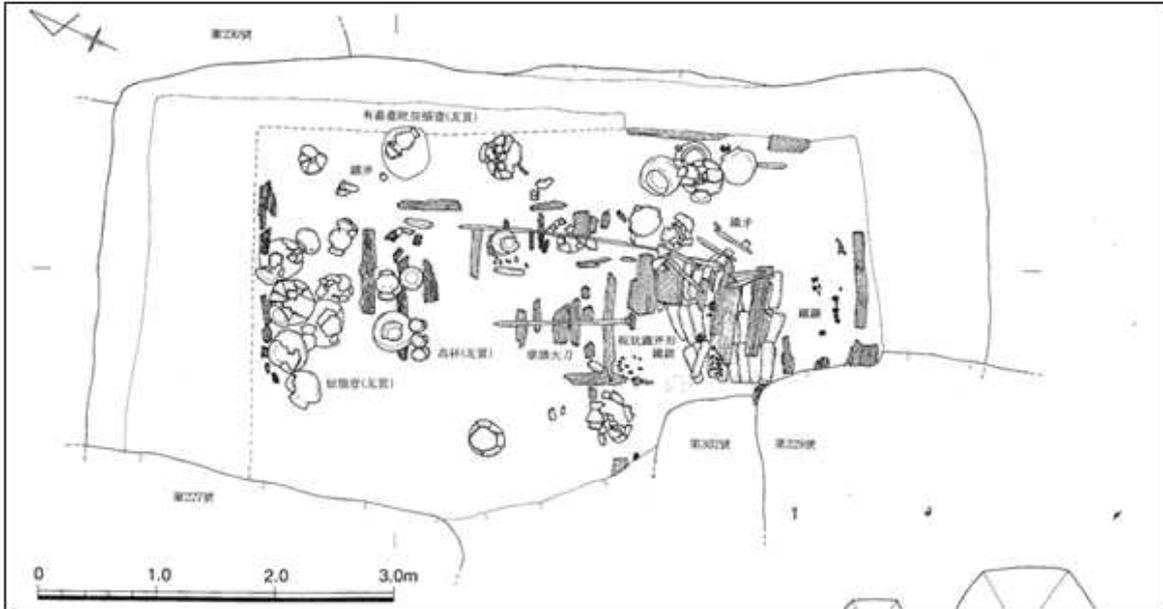
○ 발굴 현황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는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제2차 발굴조사를 하였는데, 김해 양동리 235호분은 1992년에 발굴되었다. 당시의 발굴 상황은 그동안 그다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가, 최근 약식보고서가 간행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김해 양동리 235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인근의 여러 고분들과 중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구의 중복상태로 볼 때, 제 221, 227, 229, 230호분보다는 앞선 시기이자, 287호분과 302호분보다는 늦게 조성된 고분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기원전 2세기부터 7세기까지 구야국부터 금관가야의 목관묘에서 석실묘까지 가야의 모든 묘제가 확인되었다. 해당 유적에서는 구야국과 금관가야의 무기, 갑주와 마구 및 농공구 등의 철제 유물과 고배와 단경호 및 양이호 등의 토기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최근 간행된 약식 발굴보고서에 의해 유리 및 마노 등 목걸이의 구체적인 구성이 밝혀지게 되었고, 아울러 가장 많은 숫자가 발견된 구슬은 크기가 매우 작은 각종 유리제 구슬로서 총 1,662점이 출토되었음도 확인되었다.



김해 양동리 235호분 유물 출토 당시 도면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 출토 당시 사진

○ 목걸이의 내용 및 특징

1) 재료와 수량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과 마노 및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며, 색상은 수정체는 무색 투명하고, 마노는 붉은색이며, 유리체는 파란색이다. 출토된 구슬류로는 수정체 다면옥 2점, 수정체 곡옥 48점, 마노제 다면옥 15점, 유리질 하늘색 다면옥 2점, 크기가 작은 유리제 환옥 1,662점 등이고, 전체는 총 1,729점이 있다. 목걸이의 전체 길이는 총 51cm이다.

현재 구성된 목걸이는 중앙에는 마노제의 다면옥을 배치하였는데, 그 높이는 6.4mm, 최대폭 8.9mm, 구멍지름 3.5mm이다. 마노 좌우로는 비교적 크기가 큰 수정으로 만든 다면옥을 배치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높이 22.6mm, 최대폭 36.4mm, 구멍지름 2.6mm이고 다른 하나는 높이 20.8mm, 최대폭 36.9mm, 구멍지름 2.7mm이다. 그 좌우로 하늘색 주판알 유리옥을 각각 1개씩 배치하였고, 다시 7개씩의 적갈색 마노제 주판알 유리옥을 배치하였는데 높이 2.4mm, 지름 3.9mm이다. 그에 맞춰 배치한 수정체 곡옥은 왼쪽 2번째의 것을 실측하였는데, 길이 20.6mm, 두께 6.1mm이다.



2) 재료의 상태

중앙에 배치한 수정체의 다면옥 2점은 높이 22.6-20.8mm, 최대폭 36.4-36.9mm, 구멍지름 2.6-2.7mm이다. 이것은 가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수정들 중에서 비교적 크기가 큰 편에 속한다. 그러나 표면이 긁히거나 깨지거나 실금이 많이 가고 투명도가 높지 않고, 색상 또한 맑고 깨끗하지 않고 탁한 편이다. 이것은 함께 출토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이렇게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마모가 많이 된 점은 함께 출토된 마노 구슬들이나 수정체 곡옥들 또한 표면이 깨지거나 마모되고 긁히거나 투명도가 탁한 현상이 유사하여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3) 목걸이의 양식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는 유리제와 마노제 및 수정제의 여러 재질로 만들어진 초기철기시대 이후로 한반도 남부 및 서부 지역 일대에서 널리 사용된 목걸이 형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무색투명한 수정제 구슬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후 2-4세기경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어, 이 목걸이는 3세기 가야의 지배층이 애호한 위세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 문헌자료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의 기록을 보면,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 사람들이 구슬[瓔珠]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김해 양동리 235분은 1992년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한 이후 계속 소장하고 있다가, 2010년 경 국가 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소장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2012.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2018.
東義大學校博物館,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2017.
복천박물관,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복천박물관, 2013.
신숙,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현 상

주판알 모양의 수정장식 2개와 유리질의 옥색광석 2개, 마노옥 15개, 수정곡옥 48개, 소형의 유리구슬 1,662개를 적절히 배치하고, 옥 가운데 구멍을 뚫어 목에 걸도록 한 목걸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235호분에서 출토된 각종 옥으로 만든 목걸이이다. 약간 탁한 수정을 잘라 6면체의 주판알모양 장식2개, 그보다 작은 유리질 옥장식 2개와 마노장식15개, 그 다음에는 수정제 곡옥48개를 배치한 다음, 작은 유리구슬 1662개를 가운데 연결구멍을 뚫어 실에 꿰어 목에 걸도록 되어있다. 여러 종류의 옥제품으로 된 목걸이나 비슷한 목걸이가 많고 질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 문헌자료

조현복 외,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東義大學校博物館.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주판옥, 그리고 각종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목걸이(頸飾)로, 김해 양동리 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비교적 다수의 수정제 곡옥이 발견된 독특한 예이다(그림 1, 2). 함께 출토된 유리 구슬의 전체 수량은 1662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색상은 청색, 군청색, 적갈색 등 3종류가 확인된다. 비교적 큰 수정제 다면옥이 2점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렇게 다종다양한 수정과 유리 구슬로 만든 목걸이들은 초기철기시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인근의 분묘 유적들에서 다수 출토되고 있다. 특히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걸이들이 수십여점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유리 구슬로 제작되어 파손이 심하고 원래의 형태를 알기 어렵다.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는 비교적 대형의 수정제 다면옥 2점과 48점에 이르는 다수의 수정제

곡옥이 포함되어 매우 화려하고 우수한 형식에 속한다.



그림 1.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 국립 김해박물관 소장 (김해 74698).



그림 2.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목걸이 출토 상태. 1992년. 동의대학교 박물관.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235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인근의 여러 고분들과 중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유구의 중복상태로 볼 때, 제 221, 227, 229, 230호분보다는 앞선 시기이자, 287호분과 302호분보다는 늦게 조성된 고분으로 추정된다. 유구 내에서 도질토기가 확인되고 있으며, 고분의 구조 및 유구 상태로 볼 때, 양동리 고분의 후기 목곽묘 단계인 3세기 경의 고분으로 추정되고 있다.⁷⁵⁾ 그러므로 이 목걸이도 역시 금관가야 시대 3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김해 양동리 235호분은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시행한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중 제 2차 조사인 1992년에 발굴된 유적이다.

75)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71; 심재용, 2012, 「良洞里古墳群의 墓制 變遷과 意味」,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p. 152.

아쉽게도 양동리 유적의 발굴보고서가 최근까지 대부분 미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정제 목걸이의 출토 상황에 대해서도 그다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가, 최근 약식 발굴보고서가 간행되면서, 유리 및 마노 등 목걸이의 구체적인 구성이 밝혀지게 되었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각종 유리 구슬 1662점, 수정제 다면옥 2점, 수정제 곡옥 48점, 마노제 다면옥 15점, 유리질 다면옥 2점 등 전체 172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⁷⁶⁾ 현재 이 구슬들은 중앙의 붉은색 마노 구슬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에 맞추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구슬들의 배열은 원래 출토 상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출토 상태를 보면, 지금과 같이 곡옥들이 연이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드문 드문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그림 2), 아마도 곡옥과 곡옥 사이에 유리 구슬들이 배치되어 있었거나, 혹은 섬유와 같은 유기물질을 길게 연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출토 정황을 알 수 없으며, 당시 발굴에서 구슬들의 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목걸이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한편, 수정제 다면옥 2점은 일반적으로 가야 고분에서 발견되는 수정들 중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편에 속하지만, 그다지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여 모서리를 비롯한 일부분이 다소 훼손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잔금이 잔뜩 가 있어서 보석의 투명도가 현저하게 훼손된 상태이다(그림 3). 이렇게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마모가 많이 된 점은 함께 출토된 마노 구슬들이나 수정제 곡옥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어서 상당히 아쉽다(그림 4).



그림 3. 수정제 다면옥 세부.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그림 4. 수정제 곡옥 상태.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 내용 및 특징

유리, 마노, 수정 등 여러 재질로 만들어진 구슬들은 초기철기시대 이후로 한반도 남부 및 서부 지역 일대에서 널리 사용된 중요한 장신구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무

76)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위의 책, pp. 75-76.

색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각종 구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기 시작한 장신구의 재질이다. 경도가 7인 수정은 여러 종류의 보석 중에서도 상당히 단단한 광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제 공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수정제 구슬 및 각종 장신구들은 철기시대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235호분의 목걸이는 비교적 다수의 수정제 곡옥이 발견된 예로서 주목된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수정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여 잔금이 많이 가 있고 약해진 것으로 보아, 수정의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노와 수정, 각종 유리 구슬들을 이용하여 제작된 비교적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신구로서, 3세기 가야의 지배계층 사이에서 애호된 장신구이자 위세품으로서 의의가 있다.

○ 문헌자료

3세기 중국 기록인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韓條에 의하면 당시 삼한의 사람들은 금은이나 비단보다 구슬을 귀중하게 여겨서, 몸과 의복에 드리워 장식하는 데에 썼다고 알려져 있다. 삼한시대 사람들이 영주(瑩珠), 즉 구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국의 기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각종 재질의 구슬 사용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주요 도판 출판 현황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p. 32, 도 034.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p. 124.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p. 75-76, 도판 175-④.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p. 58. 도 83.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다면옥과 다양한 형태의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목걸이다. 김해 양동리고분군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다수의 수정제 곡옥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예이다. 함께 출토된 유리구슬의 전체 수량은 1662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색상은 청색, 군청색, 적갈색 등 3종류이다. 수정제 곡옥은 48점과 비교적 큰 수정제 다면옥이 2점 포함되어 있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235호분은 규모가 큰 장방형의 목곽묘이다. 여러 기의 목곽묘들과 중복되었는데, 유구의 중복상태로 볼 때, 287호분과 302호분보다는 늦고, 제 221, 227, 229, 230호분보다는 앞선다. 이 목걸이와 함께 와질토기와 도질토기, 동북 등과 함께 많은 수량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공반한 유물들의 종류와 형식 등의 특징들은 3세기 후반 낙동강 하구지역의 유물 양상이다. 이 목걸이는 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김해 양동리 235호분은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시행한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중 제 2차 조사인 1992년에 발굴된 유적이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각종 유리 구슬 1662점, 수정제 다면옥 2점, 수정제 곡옥 48점, 마노제 다면옥 15점, 유리질 다면옥 2점 등 전체 1729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⁷⁷⁾ 현재 이 구슬들은 중앙의 붉은색 마노 구슬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에 맞추어 연결되어 있으나 정확한 출토 정황을 알 수 없어 현재 목걸이의 상태가 원래의 상태와 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림1. 수정제 곡옥 상태. 김해 양동리 235호분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한편, 수정제 다면옥 2점은 일반적으로 가야 고분에서 발견되는 수정들 중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편에 속하지만, 그다지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여 모서리를 비롯한 일부분이 떨어져 결실되었고, 전체적으로 잔금이가 있어서 보석의 투명도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함께 출토된 마노 구슬들이나 수정제 곡옥들에서도 비슷한 잔금이 있다(그림 1).

77)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위의 책, pp. 75-76.

○ 내용 및 특징

양동리 235호분의 목걸이는 비교적 다수의 수정제 곡옥과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예로서 주목되지만, 전체적으로 수정의 보존 상태가 좋지 못하여 잔금이 많이 가지고 약해진 것으로 보아, 수정의 품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노와 수정, 각종 유리 구슬들을 이용하여 제작된 비교적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장신구로서, 3세기 가야의 지배층 사이에서 애호된 장신구로서 의의가 있다.

○ 문헌자료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 기 타

1990년대 발굴조사에서 출토되어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16.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金海 良洞里 二百七十號墳 出土 水晶頸飾)

가. 검토사항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부터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신청이 있어(‘18.2.26.) 관계 전문가 조사(‘18.8.31.) 및 보완조사(‘19.8.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金海 良洞里 二百七十號墳 出土 水晶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건 146점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수정제 곡옥 6점)
- 규 격 : 전체 연결 길이 142.6cm.
 - ① 중앙 최대 다면옥 크기 : 높이 35.8mm. 최대 폭 32.3mm.
 - ② 주판옥 크기 : 높이 13.0mm × 최대 지름 13.1mm ~
높이 6.5mm × 최대 지름 7.6mm.
 - ③ 곡옥 크기 : 향좌측 중앙 대형 : 길이 34.5mm, 두께 18.9mm.
향좌측 최소형 : 길이 21.9mm, 두께 14.0mm.
- 재 질 : 수정
- 형 식 : 수정제 다면옥과 주판옥, 곡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 조성연대 : 3세기 추정



그림 445.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제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2년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이 지역의 제2차 발굴 조사 중 토광목곽묘에서 발굴하였는데, 이 유구는 근처에 있던 여러 고분과 겹쳐 있어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으나 고배를 비롯한 토기류나 철제 유물이 공반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목걸이는 수정제 다면옥 20점과 주판옥 120점, 곡옥 6점, 총 146점의 수정으로 이뤄진 142.6cm의 길이에, 육각다면체형, 주판알형, 곡옥형 등 형태가 다양하고, 색채에 있어 맑고 투명한 무색과 황색 및 갈색 등의 다채로운 색상의 수정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는 세공 기술 또한 우수하여 조형적인 가치 또한 뛰어나다. 이러한 이 목걸이를 구성하는 수정은 이 지역에서 채취하기도 하여 3세기 금관가야를 대표하는 지배계층의 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 더욱이 수정 목걸이는 이 시기 가야 유적에서 다수 출토되지만, 이 목걸이처럼 수정의 형태와 색채가 다양하면서도 146점의 많

은 수량이 출토된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여서 주목된다. 이처럼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이 분명할 뿐 아니라 다종다양한 재료를 다양한 형태로 정교하게 가공하거나 구멍을 뚫는 공예기술과 다채로운 색상과 질감을 조화시켜 당시 복식 문화의 세련된 수준을 엿볼 수 있는 3세기 김해지역의 금관가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공예품으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1) 이 수정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 270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여러 목곽묘들이 중복되고 파괴가 심하여 출토양상이 불량하지만 고분의 주인공이 착장하고 있었던 유물로 보인다. 출토상황이 좋지 않지만 고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물이다.
- 2) 맑고 투명한 수정을 대중소 3종류로 절단하여 6각의 주판알모양 장식을 모두 140개를 만들었다. 장식은 길이로 중앙에 구멍을 뚫어 실로 꿰도록 하였다. 그리고 또한 같은 수정으로 소형의 곡옥6개를 아래 중앙부에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 3)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이 2줄로 겹쳐 목에 거는데 아래중심의 장식수정은 3.58×3.23cm로 수정 출토품 중 가장 큰 것에 속한다.
- 4) 목걸이의 전체길이는 142.6cm, 가장 큰 수정장식 3.58×3.23cm, 가장 작은 수정장식 0.76cm×0.65cm이며, 곡옥 길이2.19cm이다.
- 5) 질 좋은 수정을 대중소로 나누어 6각형으로 다듬고 소형→중형→대형순서로 배치하고, 대형장식을 목걸이 중앙 아래에 오도록 한 다음 그 사이에 곡옥을 끼워넣어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 6) 이와 같이 이 목걸이는 수정을 다듬은 기술력과 조형성이 뛰어나 예술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아름다운 형태이며, 가야를 대표할 만한 장신구이다. 또한 고고학 자료로도 높은 가치가 있어 국가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 일괄품은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제 구슬 146점으로 이루어진 3세기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위세 품으로서,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예품이다.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처럼 많은 수량과 종류의 수정제 구슬을 사용한 예는 많지 않다. 또한 이 목걸이는 수정 구슬의 형태가 육각다면체형, 주판알형, 곡옥형 등 여러 종류로 다양하고 표면 마연 상태 및 구슬의 세공 솜씨가 매우 우수하여, 3세기의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주목된다. 구슬의 형태, 세공 솜씨, 보존 상태, 고가의 보석 재질 사용 등으로 볼 때, 금관가야 지역의 3세기 지배계층의 문화를 대표하는 이 수정제 목걸이는 가야의 대표적인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 일괄품은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제 구슬 146점으로 이루어진 3세기 가야의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가야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예품이다.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처럼 많은 수량과 종류의 수정제 구슬을 사용한 예는 많지 않다. 또한 이 목걸이는 수정 구슬의 형태가 육각다면체형, 주판알형, 곡옥형 등 여러 종류로 다양하고 표면 마연 상태 및 구슬의 세공 솜씨가 매우 우수하여, 삼국시대 목걸이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세공기법과 상태를 보여주는 작품일 뿐만 아니라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 또한 목걸이 중앙의 수정은 현존하는 동시대 수정 구슬들 중에서 최대 크기에 해당하는 귀중한 보석으로서 가치가 크다. 그러므로 이 목걸이는 가야는 물론 삼국시대 공예품과 장신구를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 형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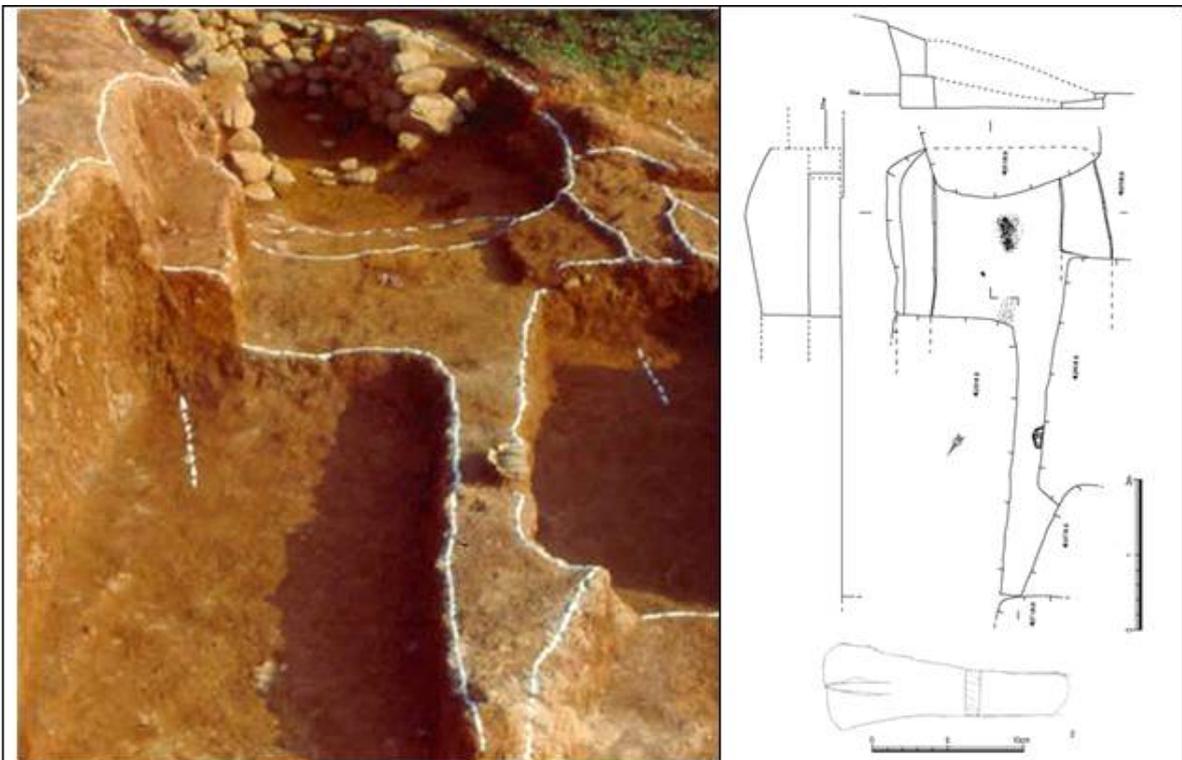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제 다면옥 20점과 주판옥 120점, 곡옥 6점, 총146점으로 이루어진 수정 목걸이 142.6cm이다. 출토 당시 이 목걸이와 작은 청색 유리구슬이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착장지에는 동시에 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반도에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



기경부터 시작하여 기원후 3-4세기까지 유행하였다. 특히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의 대다수가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데, 그중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특별히 크고 맑고 투명하며 품질이 우수한 수정제 구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조성연대

김해 양동리 270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3세기 금관가야에 조성되었는데 여러 유구가 중복되어 훼손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고분의 축조방식이나 공반 출토



김해 양동리 제270호분 발굴 당시 사진

김해 양동리 제270호분 출토 도면



270호분 유물 출토 사진

270호 보고서 수록 출토 유물

된 고배를 비롯한 각종 토기나 철제 유물 등으로 미루어 이 목걸이는 3세기 금관 가야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 출토 현황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는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 조사 중 제 2차 조사인 1992년에 토광목곽묘인 김해 양동리 270호분을 발굴하였다. 발굴 이후 발굴보고서가 미간행 상태여서 해당 고분의 발굴 상황이나 유물의 출토 상황도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가 최근 간략한 보고서가 간행되어 당시 상황이 파악된다.

발굴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이 고분은 바로 근처에 있던 제 187호, 219호, 266호, 269호 고분과 중복하여 유구가 겹쳐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 때문에 유구의 대부분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 고분에서는 고배나 손잡이 있는 잔 등 토기류와 농기구와 같은 철기류 등이 출토되었고, 이와 함께 수정제 목걸이와 유리 목걸이가 공반하여 출토되었다.



김해 양동리 270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출토 당시 주변에서는 여러 색의 작은 유리구슬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에 피장자는 수백 점의 색유리 구슬과 이 수정목걸이를 함께 착용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색유리 구슬은 크기가 작고 파손이 심해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는 수정제 목걸이와 색유리 목

걸이로 구분하여 각각 보관하고 있다.

○ 목걸이의 내용 및 특징

1) 수정제 목걸이의 재료와 수량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과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며, 색상은 수정제는 무색 투명하고, 유리제는 파란색이다.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수정제 곡옥 6점을 연결하여 총길이는 142.6cm이다.

수정은 산화규소(SiO_2)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로, 옛날부터 무색투명하고 강도가 높아서 고급 장신구로 사용된 보석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정을 이용하여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부터이며, 기원후 3-4세기까지 유행하였다. 수정제 장신구의 출토 지역은 한반도 서북부 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등인데, 그중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은 금관가야에 해당되는 김해 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다. 그중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특별히 크고 품질 좋은 수정 구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맑고 투명한 수정의 품질과 그것을 정교하게 가공하여 기술적 수준도 높은 편이다.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는 맑고 투명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부의 수정 구슬은 황색이나 연갈색 및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띠거나 수정 속에 독특한 이물질이 포함되는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2) 수정제 목걸이의 크기와 형태

김해 양동리 270호 출토 목걸이는 가장 큰 다면체의 크기를 보면 높이 35.8mm에 최대폭은 32.3mm이다. 주판알처럼 생긴 주판옥의 경우 높이는 13.0mm이고, 가장 큰 것의 지름은 13.1mm이고, 작은 것은 높이 6.5mm에 지름은 7.6mm이다. 곡옥의 크기는 왼쪽 중앙에 있는 대형의 것은 길이 34.5mm에 두께 18.9mm이고, 가장 작은 것은 길이 21.9mm에 두께 14.0mm이다.

현재 재구성하여 목걸이의 가장 중앙 아래쪽에 달려 있고 가장 크기가 큰 다면옥 3점의 경우 단면은 육각형의 다각형 구슬이다. 이것들을 목걸이로 꿰기 위해서는 구슬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두께가 두꺼워 한 방향으로 구멍을 뚫기 어려워 철제 천공구를 이용해서 구슬의 아래쪽과 위쪽의 양쪽에서 각각 구멍을 뚫었다. 이 때문에 기구를 넣은 양쪽 끝의 구멍은 연장을 돌리면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굽기가 굽어졌고, 구멍이 만나는 구슬 중앙 부분은 가장자리보다 구멍의 두께가 얇은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였다.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및 주판알의 구멍 뚫은 상태

다면옥의 양쪽 구멍 뚫은 상태

그러나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은 주판옥이나 곡옥의 경우에는 구멍을 한쪽 방향에서만 뚫었기 때문에 구멍의 두께가 일정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수정제 목걸이는 단단한 수정 원석을 하나마다 깎고 구멍을 뚫고 표면을 깔끔하게 갈아서 맑고 투명하게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연질의 유리구슬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품도 많이 드는 최고급 보석이었다.

크기가 다소 큰 다면옥과 곡옥들에 비해서, 작은 크기의 주판옥들은 주판알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주판알 모양 구슬, 혹은 주판옥(珠板玉), 산반옥(算盤玉) 등으로 부르는데, 다면옥과 비슷한 형태지만 중앙을 중심으로 각이 없이 둥글게 마연한 형태가 특징이다(그림 5). 이 주판옥들은 크기와 형태가 모두 조금씩 달라서, 하나씩 손으로 깎고 마연한 후, 구멍을 뚫어서 만든 값비싼 보석 공예품들이다. 따라서 이 목걸이는 수정의 숫자도 많고 3점의 다면옥과 6점의 곡옥 및 주판옥 60점 등 종류도 다양하여 피장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3) 수정제 목걸이의 특징

김해 양동리 270호 출토 목걸이와 같이 수정제 구슬을 꿰 목걸이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기원후 3-4세기 경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었다. 경도가 7인 수정은 단단한 광물이어서 철제 공구로 구멍을 뚫거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다면체나 주판알이나 곡옥으로 만들면서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세공 기술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동안 가야시대의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수정제 구슬이 다수 출토되었지만, 270호분 출토 목걸이처럼 다량의 품질 좋은 수정목걸이가 발견된 예는 많지 않다. 더욱이 이 지역은 수정을 채취했던 기록과 함께 인근에 있는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 수정 원석을 채취한 사례가 있어 우리나라의

남부지역에서 수정을 자체 조달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이 수정 목걸이는 이 지역에서 제작하여 3세기 금관가야의 지배층이 애호했던 위세품으로 여겨진다.

○ 문헌자료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의 기록을 보면,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 사람들이 구슬[瓔珠]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1992년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김해 양동리 유적에 대한 제 2차 발굴조사를 통해 양동리 270호분을 발굴한 이후 이 목걸이는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가 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가야 지역 출토 유리 I -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 연구 자료집 I, 국립김해박물관, 2019.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2018.

국립김해박물관,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2012.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2019.

東義大學校博物館,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동의대학교박물관, 2017.

북천박물관,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2013.

신숙, 「한국 고대 보석장식 공예품과 국제교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

○ 현 상

맑고 투명한 수정을 6각의 주판알 모양과 곡옥모양으로 다듬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목에 걸도록 한 목걸이로 주판알 장식이 대중소 140개, 곡옥장식 8개로 이루어져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270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이다. 맑고 투명한 수정을 잘라 6면체의 주판알모양으로 다듬고, 가운데 연결구멍을 뚫어 실에 꿰어 목에 걸도록 되어있다. 주판알장식은 대중소의 140개로 이루어져 있고 아

래쪽으로 중심에 6개의 소형곡옥으로 장식하였다.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 2줄로 겹쳐 목에 거는데 아래중심의 장식수정은 3.58×3.23cm로 수정 출토품 중 가장 큰 것에 속한다. 수정수가 많고 조형성이 뛰어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문헌자료

조현복 외,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Ⅱ』, 東義大學校博物館.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주판옥, 곡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頸飾)로, 김해 양동리 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발전된 양식을 보여주는 목걸이이다(그림 1).

수정(水晶, rock crystal)은 산화규소(SiO₂)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로, 옛날부터 무색투명하고 강도가 높아서 꾸준히 값비싼 고급 장신구의 재질로 사용되는 보석의 일종이다. 한반도에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며, 고대 수정제 장신구들이 출토되는 지역은 한반도 서북부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등 세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현존하는 가장 이른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는 전북 전주 원장동 G유적 초기철기시대 1호 토광목관묘에서 출토된 수정제 환옥이다.⁷⁸⁾ 초기철기시대부터 애용된 수정제 구슬을 이용한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후 3-4세기경까지 꾸

78) 양아람, 2019,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pp. 3-6.



그림 1.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 일괄.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김해 74791).



그림 2.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유리구슬 장식 일괄.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김해 74790).

준히 사용되었다. 특히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의 대다수는 금관가야의 중심지인 김해 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특별히 크고 품질 좋은 수정 구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중요하다. 수정제 구슬을 이용한 목걸이는 삼국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으나, 삼국시대 이후에는 그 수가 확연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형태를 달리한 각종 수정제 장신구들의 존재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통일신라시대부터는 수정제 사리장엄구가 제작되기도 하였다. 이는 수정이 한국의 전통적인 보석이자 중요한 장신구 재료로 꾸준히 애호되어 왔음을 뜻한다.

김해 양동리 270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피장자의 목 부분으로 추정되는 위쪽에서 일괄 출토되었으며, 이 위쪽 부분에서는 유리구슬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대신 유리구슬들은 같은 피장자의 몸 아래쪽 부분에서 별도로 출토되었다(그림 2, 3, 4). 이러한 출토 상태로 볼 때, 양동리 270호분의 수정 목걸이는 피장자의 목 부분을 장식했던 독특한 수정제 장신구로서, 일반적인 가야의 목걸이들이 수정과 유리로 구성된 점과는 다른 착장 방식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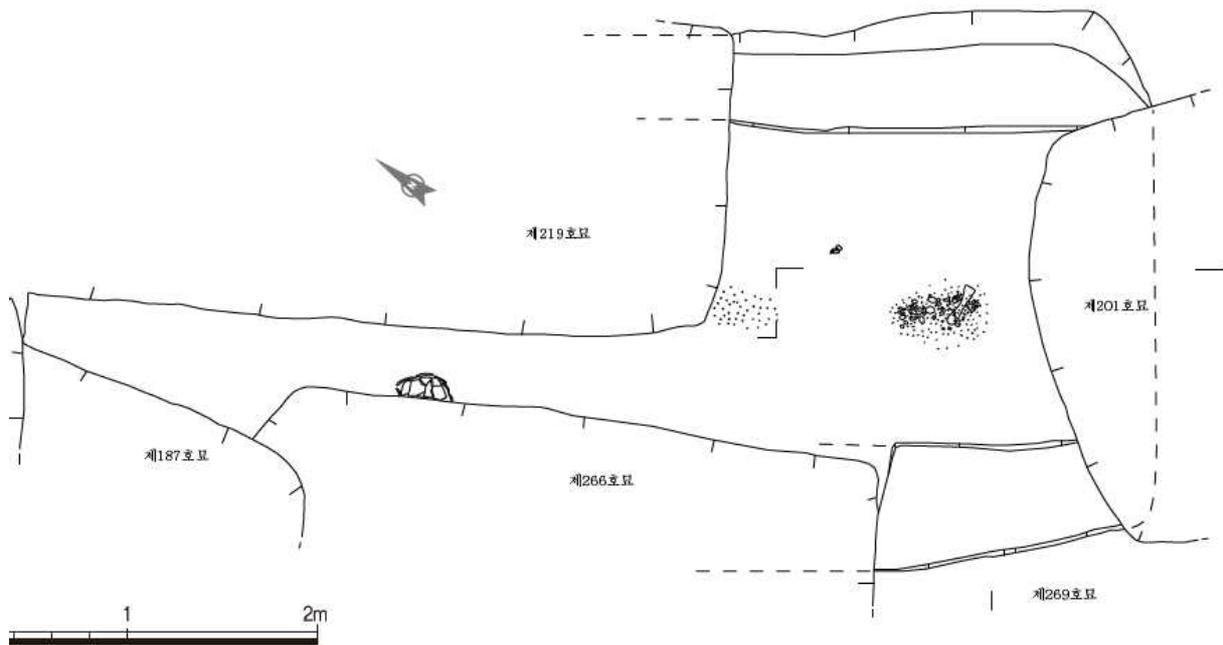


그림 3. 김해 양동리 270호분 구슬 출토 상태. 동의대학교박물관.



그림 4. 김해 양동리 270호분 수정제 구슬 (그림 5. 김해 양동리 270호분 유리구슬 (그림 1) 출토 상태. 동의대학교박물관. 2) 출토 상태. 동의대학교 박물관.

현재 피장자의 몸 아래쪽에서 나온 색유리 구슬로 만든 목걸이는 파손이 심하고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여 정확한 유리 구슬의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현재 남아 있는 유리 구슬들을 보면, 각종 파란색 및 적갈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⁷⁹⁾

이렇게 다종다양한 수정과 유리 구슬로 만든 목걸이들은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인근의 분묘 유적들에서 다수 출토되고

79) 국립김해박물관, 2019, 『가야 지역 출토 유리 I -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 연구 자료집 I, 국립김해박물관, p. 54, 유물번호 김해 74790.

있다. 특히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걸이들이 수십 여점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유리 구슬로 제작되어 파손이 심하고 원래의 형태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리에 비해 단단한 보석인 수정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그림 1)는 같은 시기의 구슬 목걸이들 중에서도 비교적 완전한 형식을 보여주며, 최고가(最高價)의 품질과 수준높은 보석 세공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270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인근의 제 187호, 219호, 266호, 269호 고분과 중복된 상태로 발견된 고분이다. 다른 유구들과 중복되면서, 유구의 대부분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었다.⁸⁰⁾ 함께 출토된 와질토기와 철기, 그리고 유구의 중복 상태로 볼 때, 금관가야 시대 3세기경에 조성된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수정제 목걸이도 역시 고분의 축조 연대를 고려하여 3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수정제 목걸이는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시행한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중 제 2차 조사인 1992년에 출토되었다. 아쉽게도 양동리 유적의 발굴보고서가 최근까지 대부분 미간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수정제 목걸이의 출토 상황에 대해서도 그다지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다량의 유리 구슬들과 함께 출토되었으며, 현재까지 출토된 김해 지역의 가야 시대 고분들 중에서 발견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상당히 큰 다면옥들이 세 점 포함되어 있고, 수정제 구슬의 숫자도 다른 고분들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피장자의 위상이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 목걸이는 현재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6점,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등 총 146점의 수정제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수정 구슬들의 상태는 상당히 좋으며, 표면은 잘 마연되어 광택이 잘 난다. 천공 솜씨도 매끄러워서 상당히 뛰어난 세공 솜씨를 보여준다.

이중에서 중앙 아래쪽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커다란 3점의 다면옥은 단면 육각형의 다각형 구슬로서, 이 구슬들 중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들이다. 구슬들의 구멍을 뚫는 방식은 구슬 아래쪽과 위쪽 양쪽에서 뾰족한 천공구(穿孔具)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었음이 확인된다(그림 6). 이러한 수정제 구슬들은 원석에서 하나씩 깎고 구멍을 뚫어서 제작하는 수공예품들로서, 다량 제작할 수 있는 유리

80)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111.

구슬들에 비해서 훨씬 값비싸고 중요한 보석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6.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중앙 하단부.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 세부.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그림 7. 수정제 주판옥.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목걸이 세부.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크기가 다소 큰 다면옥과 곡옥들에 비해서, 작은 크기의 주판옥들은 주판알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주판알 모양 구슬, 혹은 주판옥(珠板玉), 산반옥(算盤玉) 등으로 부르는데, 다면옥과 비슷한 형태지만 중앙을 중심으로 각이 없이 둥글게 마연한 형태가 특징이다(그림 7). 이 주판옥들은 크기와 형태가 모두 조금씩 달라서, 하나씩 손으로 깎고 마연한 후, 구멍을 뚫어서 만든 값비싼 보석 공예품들이다. 수정의 품질과 색상은 대부분 투명하고 우수하지만, 일부 수정 구슬 중에서는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띤 예도 있고, 수정 속에 독특한 이물질이 포함된 예도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 내용 및 특징

무색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각종 구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기 시작한 장신구의 일종이다. 경도가 7인 수정은 여러 종류의 보석 중에서도 상당히 단단한 광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제 공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수정제 구슬 및 각종 장신구들은 철기시대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270호분 출토품과 같이 다량의 품질 좋은 수정제 구슬들로만 목걸이를 구성한 예나, 이렇게 많은 양의 수정제 구슬이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매우 드물다. 또한 이 고분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유리 구슬들로 구성된 장식을 별도로 착장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가야시대 상류 계급의 다양한 구슬 장신구 착장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아쉽게도 피장자의 배나 가슴 아래부분을 장식했던 유리 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

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과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3세기 김해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보석들과는 달리 수정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산출되었다는 기록과 실제 광석 채취 사례 등이 알려져 있다.⁸¹⁾ 그러므로 이러한 수정제 구슬들의 제작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자체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한국의 고대 수정제 장신구의 제작지 관련 유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남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에서 수정제 구슬 제작 관련 유적이 발견된 바 있으며, 최근 김해 양동리 고분군 인근에 있는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었다.⁸²⁾ 이러한 예들로 보아, 이 수정제 구슬들은 김해 인근 지역이거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제작되어 가야의 지배계층이 애호했던 3-4세기경의 중요한 위세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3세기의 중국 문헌기록인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 조에 의하면 당시 삼한의 사람들은 “구슬(瓊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⁸³⁾고 하여, 구슬을 매우 귀한 보물로 여기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반도 남부의 삼한(三韓) 사람들이 영주(瓊珠), 즉 구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국의 기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다양한 재질의 구슬 사용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문헌기록이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주요 도판 출판 현황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p. 69, 도 082.
 복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복천박물관, p. 121.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554,
 도판 87-③; 도판 198-⑩.

81) 최근 국내의 옥류 원석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국내산 자수정과 무색투명 등이 있는데, 울주군 언양읍 작괘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등에 원석 채집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홍국, 2018, 「옥류(玉類) 원석 탐사」, 『야외고고학』 33, p. 99 <표 1>의 6번 수정 항목 참조.

82) 양아림, 2019, 위의 논문, pp. 13-16.

83) "以瓊珠爲財寶，或以綴衣爲飾，或以縣頸垂耳，不以金銀錦繡爲珍. 『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傳 韓條.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p. 59. 도 84.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가야본성 -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p. 127, 도 107.

□

○ 형 식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주판옥, 곡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로, 가야고분군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목걸이이다(그림 1). 출토 당시에는 작은 청색 유리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색이 다른 청색 유리구슬 목걸이와 투명한 수정제 구슬로 만든 목걸이를 함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1).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의 대다수는 낙동강 하류의 김해와 부산 지역의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는 특별히 크고 품질이 매우 좋은 수정 구슬들로 만들어져 있다.

김해 양동리 270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출토 당시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색의 작은 유리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그림 3), 원래 피장자는 수백점이 넘는 엄청난 양의 색유리 구슬로 만든 다른 목걸이와 이 수정제 목걸이를 함께 겹쳐서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색유리 구슬로 만든 목걸이는 파손이 심해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여 정확한 유리구슬의 숫자는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남아 있는 유리구슬들은 각종 파란색 및 적갈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매우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그림 2).⁸⁴⁾

84) 국립김해박물관, 2019, 『가야 지역 출토 유리 I - 김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품 연구 자료집 I, 국립김해박물관, p. 54.



그림 1. 김해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목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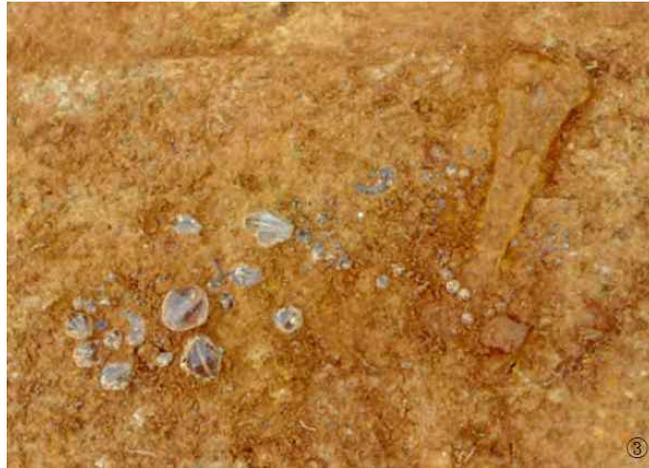


그림 3. 김해 양동리 270호분 목걸이 출토상태.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목걸이들이 수십 여점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유리 구슬로 제작되어 파손이 심하고 원래의 형태를 알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리에 비해 단단한 보석인 수정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양동리 270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는 같은 시기의 구슬 목걸이들 중에서도 비교적 완전한 형식을 보여주며, 최고가(最高價)의 품질과 수준 높은 보석 세공 양식을 보여주는 수작(秀作)이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270호분은 장방형의 목곽묘로서, 제187호, 219호, 266호, 269호 고분에 의해 유구의 대부분은 훼손된 상태로 확인되었다.⁸⁵⁾ 함께 출토된 와질토기와 철기 등의 유물 구성과 형식 등을 고려하면 3세기경에 조성된 목곽묘로 추정된다. 이 수정제 목걸이도 역시 고분의 축조 연대를 고려하여 3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수정제 목걸이는 1990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시행한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중 제 2차 조사인 1992년에 출토되었다. 목걸이를 구성한 수정들은 투명하고, 표면에 마연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균열이나 결실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이다. 이 수정제 목걸이는 다량의 유리구슬들과 함께 출토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야 고분에서 발견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상당히 큰 다면옥들이 세 점 포함되어 있고, 수정제 구슬의 숫자도 다른 고분들보다 월등하게 많다.

85)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111.

이 목걸이는 현재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6점, 수정제 다면옥 20점, 수정제 주판옥 120점 등 총 146점의 수정제 구슬로 구성되어 있다. 구슬들의 구멍을 뚫는 방식은 구슬 아래쪽과 위쪽 양쪽에서 뽕족한 천공구(穿孔具)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었음이 확인된다.

크기가 다소 큰 다면옥과 곡옥들에 비해서, 작은 크기의 주판옥들은 주판알 형태를 닮았다고 하여, 주판알 모양 구슬, 혹은 주판옥(珠板玉), 산반옥(算盤玉) 등으로 부르는데, 다면옥과 비슷한 형태지만 중앙을 중심으로 각이 없이 둥글게 마연한 형태가 특징이다(그림 3). 이 주판옥들은 크기와 형태가 모두 조금씩 달라서, 하나씩 손으로 꺾고 마연한 후, 구멍을 뚫어서 만들었다. 수정의 품질과 색상은 대부분 투명하고 우수하지만, 일부 수정 구슬 중에서는 약간 어두운 갈색을 띤 예도 있고, 수정 속에 독특한 이물질이 포함된 예도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3. 김해 양동 270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의 수정제 주판옥

○ 내용 및 특징

무색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각종 구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기 시작한 장신구의 일종이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등 낙동강 하류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270호분 출토품과 같이 다량의 품질 좋은 수정제 구슬들이 함께 발견된 예는 많지 않다. 또한 이 고분에서는 파란색 소형 유리구슬들도 함께 출토되어 투명한 수정과 파란 유리구슬로 만든 여러 줄의 목걸이가 함께 사용되어 가야의 장신구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유리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는 좋은 재질과 뛰어난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2~3세기 낙동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수정제 장신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남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에서 수정제 구슬 제작 관련 유적이 발견된바 있으며, 최근 김해 양동리 고분군 인근에 있는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었다.⁸⁶⁾ 이러한 예들로 보아, 이 수정제 구슬들은 김해 인근 지역에서

제작되어 가야 지배층이 착장형 장신구로 애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東義大學校博物館,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 II』,

○ 기 타

1990년대 동의대학교박물관 조사에서 출토되었고,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86) 양아람, 2019,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pp. 3-6. pp. 13-16.

17.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金海 良洞里 三百二十二號墳 出土 頸飾)

가. 검토사항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가치 규명’의 일환으로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 대상 추천이 있어(‘18.9.28.) 관계전문가 조사(‘19.8.26.) 및 보완조사(‘20.5.20.)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金海 良洞里 三百二十二號墳 出土 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부산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동의대학교박물관
- 수 량 : 1건 2조 574점
수정제 다면옥 2점, 수정제 곡옥 147점,
유리 곡옥 1점, 마노 환옥 6점, 소형 유리 환옥 418점.
- 규 격 : 총 길이 164cm(수정 목걸이 99.1cm + 유리 환옥 목걸이 64.7cm)
중앙 유리질 곡옥 : 길이 47.1mm. 두께 16.6mm.
수정 다면옥 1 : 높이 27.9mm. 최대 폭 40.2mm.
수정 다면옥 2 : 높이 21.8mm. 최대 폭 41.0mm.
마노 환옥 1 : 높이 11.8mm. 최대 지름 13.4mm.

마노 환옥 2 : 높이 9.0mm. 최대 지름 11.8mm.

마노 환옥 3 : 높이 4.9mm. 최대 지름 6.5mm.

수정 곡옥 1 : 길이 14.7mm. 두께 5mm.

수정 곡옥 2 : 길이 16.4mm. 두께 6.6mm.

소형 유리 환옥 : 높이 1.8mm. 지름 2.3mm.

- 재 질 : 수정, 마노, 유리
- 형 식 : 수정과 마노, 유리 등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 조성연대 : 3세기 추정



그림 458.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1994년까지 동의대 박물관에 의해 2차 발굴 조사한 목곽묘에서 명문에 의해 중국 한나라 시기의 청동 예기로 밝혀진 세발 솥 [鼎] 등과 함께 공반 출토되어 3세기 금관가야의 유물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가치가 높다. 이 목걸이는 수정제 곡옥 147점,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 환옥 6점, 대형 유리제 곡옥 1점, 소형 파란 유리 환옥 418점 등 다종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보석 총 574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경도 7의 수정을 다루어 다면체로 가공하거나 많은 수량의 곡옥으로 섬세하게 가공하는 공예 기술적인 수준은 매우 탁월하다. 수정이나 마노 및 유리 등 여러 종류의 보석을 섬세하게 다룬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보석세공품으로서 복식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특히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는 하나의 고분에서 수정제 곡옥 147점이 한꺼번에 출토되었다는 점의 유례가 없는 사례이다. 이처럼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와 유물의 내역이 분명할 뿐 아니라 수정제 곡옥이나 대형 유리제 곡옥이 한꺼번에 발견된 희귀한 사례로서,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하는 기술과 다채로운 색채와 질감이 조화를 이룬 조형의식이 돋보여 당시 복식 문화의 세련된 수준을 엿볼 수 있어 3세기 금관가야의 지배층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귀중한 장신구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 (지정 가치 있음)

- 1)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대성동322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출토상황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 고분에서 한대의 명문이 새겨진 청동정이 같이 출토된바 있다. 수정제 다면옥과 곡옥, 마노제 환옥, 유리제 곡옥과 소형의 유리구슬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이다. 출토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제 곡옥이 중심이 된 수정목걸이와 소형유리구슬로 이루어진 유리구슬 목걸이로 관리하고 있다.
- 2) 전체구성은 유리제 곡옥 1점을 중심으로 수정제 곡옥 146점,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제 환옥 6점으로 된 수정목걸이와 소형 유리구슬 418점으로 구성된 유리구슬 목걸이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에 짙은 남색의 유리제 곡옥을 중심으로 마노제 환옥, 수정제 곡옥을 배치하고, 수정제다면옥을 중간에 배치하고 있다. 별도로 관리하는 소형유리구슬418점으로 구성된 유리구슬목걸이는 파란색을 띠고 있다.
- 3) 목걸이의 규모는 전체 연결 길이가 164cm(수정목걸이 99.1cm+유리구슬목걸이 64.7cm)이며, 각 부분의 규모는 중앙 유리곡옥-0.47×0.16cm, 수정다면옥-0.27cm×0.40cm, 마노환옥-0.13×0.11cm, 수정곡옥-0.14×0.05cm, 소형유리구슬-0.23×0.18cm.(각 부분 대표적인 구슬만 측정함).

- 4) 전체적으로 화려한 목걸이로써, 투명한 수정곡옥과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곡옥의 조화가 뛰어나며, 세공 솜씨 또한 우수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5) 따라서 이 목걸이는 출토지가 명확하고 예술적으로도 매우 우수하고 아름다운 형태이며, 가야를 대표할 만한 장신구로써, 국가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일괄품은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제 곡옥 147점과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그리고 마노 환옥 6점, 대형의 유리질 곡옥 1점, 소형 유리 환옥 418점 등 총 57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슬 목걸이는 마노, 수정, 유리 등 다양한 재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3세기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위세품으로서, 가야시대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예품이다. 김해 지역 이외에도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다수의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제 곡옥이 최대 수량으로 출토되어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예에 속한다. 이 목걸이는 전반적으로 다채로운 색채와 뛰어난 수정의 조형성이 강조된 공예품으로, 수정제 곡옥들의 마연 상태나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 전반적으로 뛰어난 양식과 품질을 보여주는 이 목걸이는 3세기 금관가야의 지배계층에서 사용했던 대표적인 장신구로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

○ (지정 가치 있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섬세하고 뛰어난 보석 세공 기술로 제작된 수정제 곡옥 146점과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 그리고 마노 환옥 6점, 대형 유리제 곡옥 1점 등으로 이루어진 3세기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위세품으로서, 가야 지배계층의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초기철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한반도 서부와 남부 해안가 일대의 주요 유적에서는 유리 및 보석제 구슬들을 이용한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들이 출토되지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수정제 목걸이처럼 다량의 수정제 곡옥과 대형 유리제 곡옥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드문 편이다. 이 목걸이는 수정을 다면옥과 곡옥 형태로 가공해서 만든 가야의 목걸이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수정제 곡옥을 포함한 뛰어난 작품으로 우수한 보석 세공 솜씨와 세련된 색상 배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목걸이로서,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조사보고서



○ 형 식 :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유리 곡옥 1점과 마노 환옥 6점, 맑고 투명한 대형 수정제 다면옥 2점과 수정제 곡옥 147점 및 소형의 유리 환옥 418점으로 총 57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걸이는 특히 단단하면서도 투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 부분

명한 무색의 수정으로 비교적 크기가 큰 다면옥 2점과 147점의 곡옥의 숫자가 가장 많이 출토되어 수정 목걸이의 길이가 99.1cm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조성연대



김해 양동리 제322호분 발굴 당시

양동리 제322호분 목걸이 출토 위치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322호분은 장방형의 3세기 경의 토광목곽묘이며, 중국 한대 양식을 따르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 세 발 술과 공반 출토되어 3세기 금관가야의 작품으로 비정된다.

○ 목걸이 발굴 현황

김해 양동리 고분군은 김해시 영동리 산3번지 일대의 가곡마을 뒤 야산의 남쪽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1970년대에 마형검과두식과 사신박국경을 비롯한 일군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곳에 대한 발굴 조사는 1984년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하여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5차례 발굴을 하였고, 국립김해박물관과 김해시대



김해 양동리 제322호분 공반 출토 유물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청동 세발 솔



김해 양동리 322호분 목걸이 출토 상태

성동고분박물관의 공동조사가 1차례 있었으며, 해동문화재연구원에서 8차례의 발굴이 이뤄졌다.

1993년 9월 20일부터 1994년 5월 5일까지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는 김해 양동리 유적에 대한 3차 발굴을 시행하였다. 당시 발굴된 김해 양동리 322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인근에 있는 316호, 323, 324호분과 중복된 상태이다. 이로 미루어 322호분은 316호보다 먼저 조성되었고, 323호와 324호보다는 나중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분의 형식은 대체로 3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굴 당시에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자세한 현황을 알기 어려웠다.

최근 발굴조사보고서가 간행되었으나 보고서는 몇 컷의 사진자료와 출토 위치를 표시한 도면 및 출토 유물은 매우 간략해서 유물의 구체적인 출토 상태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크고 작은 다수의 구슬들이 출토되었다. 더욱이 147점의 수정제 곡옥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단일 고분에서 출토된 곡옥의 사례

로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서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 목걸이의 내용 및 특징

1) 재료와 수량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수정과 마노 및 유리로 제작되어 있으며, 색상은 유리제는 파란색이고, 마노는 붉은색이며, 수정제는 무색 투명하다.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147점, 수정제 다면옥 2점, 마노제 환옥 6점, 유리제 곡옥 1점, 소형 유리 환옥 418점 등 총 57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연결하면 수정제 목걸이는 99.1cm, 유리 환옥 목걸이는 64.7cm로서 최대로 연장한 총길이는 164cm이다.

수정은 경도가 7로서 여러 종류의 보석 중에서도 매우 단단한 광물질이어서, 이것을 가공하려면 철제 공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수정제 구슬이나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어 위세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보석이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322호분 출토품과 같이 품질 좋은 수정제 곡옥들이 백여점 이상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매우 드물다. 유리 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과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3세기 김해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정은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지금까지 자수정이 산출됐다는 기록도 있고, 우리나라가 자수정의 산지라는 실제 울주군 언양읍 작패천이나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등의 광산에서 수정옥을 채취했다는 사례도 있으며. 전남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에서는 수정제 구슬을 제작한 유적이 발견되었다. 또 최근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어 김해 양동리 출토 수정은 국내산 원석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노 환옥 3개

유리질 곡옥의 상태

2) 재료별 크기와 내용

발굴 당시 흩어져 있던 보석류를 보관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목걸이 형태로 재구성하였다. 그중 중앙에 배치한 유리질 곡옥의 경우 길이 47.1mm에 두께 16.6mm이며 불빛에 빛나는 파란색을 띄고 있다. 그 좌우에는 마노 환옥 3개를 좌우에 배치하고 있다. 크기에 따라 가장 큰 것은 높이 11.8mm, 최대 지름 13.4mm이고, 중간 크기의 것은 높이 9.0mm, 최대 지름 11.8mm이며, 작은 것은 높이 4.9mm에 최대 지름 6.5mm이다.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정으로 만든 148점의 곡옥이 하나의 고분에서 출토된 점이다. 수정(水晶, rock crystal)은 산화규소(SiO_2)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이다. 무색 투명하면서도 강도가 높아 고급 장신구로 주로 사용된 것이다. 그동안 가야 고분을 비롯하여 신라 고분이나 백제 고분에서 다수의 목걸이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이렇게 다량의 수정제 곡옥이 사용되어 출토된 사례가 없어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현지 조사 당시 수정제 곡옥 2점을 실측하였는데, 그 길이는 14.7-16.4mm에 해당되었고, 두께는 5-6.6mm 정도였다.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의 구성 사례

한편 김해 양동리 322호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정제로 만든 다면옥 2점이다. 둘 중 큰 것은 높이 27.9mm에 최대 폭 40.2mm이고,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은 높이 21.8mm에 최대 폭 41.0mm이다. 지름 4cm, 두께 2.5cm 정도의 수정 다면옥은 국내에서 출토 발견된 것 중에서 매우 큰 사례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정제 곡옥들은 표면의 상태가 매끈하고 투명도가 높으며 조각도 정교하여 뛰어난 가야 옥석 공예의 조형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수정제의 크기가 크고 두꺼운 다면체 옥의 경우 구멍을 뚫을 때 상하 2군데에서 각각 뚫어 중앙에서 일치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구멍이 시작되는 입구 쪽은 구멍이 큰데 비해 양쪽의 구멍이 만나는 가운데 부분은 굵기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곡옥이나 환옥처럼 그다지 두께가 두껍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두께의 구멍이 뚫려 잇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밖에 이러한 수정제 곡옥과 다면옥 이외에 소형의 유리도 다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리로 만든 환옥은 파란색이며, 높이 1.8mm에 지름 2.3mm이며, 총 418점이다. 이것들은 크기가 크고 알이 굵은 수정제 곡옥이나 다면옥 목걸이와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3) 수정제 목걸이의 양식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이 지역에서 발견된 목걸이 중에서도 우수한 수준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출토된 수정제 장신구들은 한반도 서북부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등 세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기원후 3-4세기경까지 사용되었다. 그러나 수정목걸이들은 삼국시대 이후 그 수가 줄어들었다.



양동리 322호 목걸이가 전시된 상태

양동리 322호 목걸이의 구멍 뚫은 상태

○ 문헌자료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의 기록을 보면,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 사람들이 구슬[瓔珠]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에 귀속되었고, 현재에는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보관 및 전시 중이다.

○ 참고문헌

국립김해박물관,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2012.
 국립김해박물관,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2018.
 동의대학교박물관, 『金海良洞里古墳文化』, 2000.

동의대학교박물관, 『金海良洞里古墳群』 III, 2019.

박홍국, 「옥류(玉類) 원석 탐사」, 『야외고고학』 33, 2018.

북천박물관,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2013.

□

○ 현 상

다양한 크기의 수정제 다면옥과 유리제곡옥, 마노제 환옥, 소형유리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대형의 목걸이로 곡옥, 수정, 마노로 구성된 큰 목걸이와 소형 유리구슬로만 연결된 형태로 짝어 관리하고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322호분에서 출토된 것이나 출토상태가 명확하지 않다. 146점의 수정제 곡옥과 2개의 대형 수정제 다면옥, 그리고 마노제 환옥, 파란색 유리 곡옥 및 다수의 소형 유리 환옥으로 구성된 목걸이이다. 전체구성은 중앙에 짙은 남색의 유리제 곡옥을 중심으로 마노제 환옥, 수정제 곡옥을 배치하고, 수정제다면옥을 중간에 배치하고 있다. 별도로 관리하는 소형유리구슬418점으로 구성된 유리구슬목걸이는 파란색을 띠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목걸이로써, 투명한 수정곡옥과 붉은색의 마노와 푸른색의 유리곡옥의 조화가 뛰어나며, 세공 솜씨 또한 우수한 가야목걸이로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 문헌자료

東義大學校博物館, 2019, 『金海良洞里古墳群 III』.

□

○ 형 식

다수의 수정제 곡옥과 2개의 대형 수정제 다면옥, 그리고 마노제 환옥, 파란색 유리질 곡옥 및 다수의 소형 유리 환옥으로 구성된 목걸이이다(그림 1, 2). 김해 양동리 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는 수정제 곡옥의 양이 가장 많은 예로서 중요하다. 또한 수정제 다면옥도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 중에서는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여 매우 진귀한 목걸이 형식에 속한다.

수정(水晶, rock crystal)은 산화규소(SiO₂)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로, 옛날부터 무색투명하고 강도가 높아서 꾸준히 값비싼 고급 장신구의 재질로 사용되는 보석의 일종이다. 한반도에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 출토된 수정

제 목걸이들은 이러한 초기 수정제 장신구들 중에서 가장 발달된 목걸이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현존하는 한반도 출토 고대 수정제 장신구들은 한반도 서북부지역, 서남부지역, 동남부지역 등 세 지역에서 기원전 3세기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현존하는 가장 이른 수정제 장신구는 전북 전주 원장동 G유적 초기철기시대 1호 토광목관묘에서 출토된 수정제 환옥이 있다. 또한 김해 농소리에서는 수정 원석을 가공했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해서, 김해 지역에 수정 제작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⁸⁷⁾ 초기철기시대부터 애용되었던 각종 수정제 구슬을 이용한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후 3-4세기경까지 꾸준히 사용되었으나, 이러한 형태의 수정제 목걸이들은 삼국시대 이후에는 그 수가 줄어든다. 그러나 통일신라



그림 1. 양동리 322호분 출토 수정 목걸이.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동의대학교박물관 소재.



그림 2. 양동리 322호분 출토 수정 및 유리목걸이.

87) 양아람, 2019,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pp. 3-6.

시대의 감은사지 사리장엄구에서는 전통적인 수정구슬 제작기법을 따라 제작된 수정제 사리병이 확인되고 있으며(그림 3),⁸⁸⁾ 이러한 수정제 사리장엄구는 고려시대까지 계속 제작되었다. 이러한 수정제 장신구나 사리장엄구는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사용되었으므로(그림 4), 수정은 한국의 전통적인 보석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애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수정제 사리병, 경주 감은사지 동탑 출토. 통일신라 7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 수정제 귀걸이, 서울 은평뉴타운 제2지구C공구 체육시설부지내 유적 출토. 조선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5. 양동리 322호분 목걸이 출토상태.

김해 양동리 322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출토 당시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색의 작은 파란색 유리 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그림 5),⁸⁹⁾ 양동리의 다른 고분들과 마찬가지로 유리 구슬 목걸이와 수정 목걸이를 함께 착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유리와 수정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는 다소 모호한 상태이며, 지금은 유리와 수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

88) 주경미, 2019, 「신라 사리장엄구와 중국 불교문화의 상관성 연구」, 『불교학연구』 61, pp. 223-224.

89) 東義大學校博物館, 2019, 『金海良洞里古墳群 I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201, 도판 29-⑤.

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리구슬은 대부분 이 시기에 흔히 보이는 균청색 계통의 둥글고 작은 구슬들이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322호분은 장방형의 토광목곽묘로서, 인근의 316호, 323, 324호분과 중복된 상태인데, 316호보다는 먼저 조성되었고, 323호와 324호보다는 나중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322호분에서는 중국 한대 양식을 따르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정(靑銅鼎, 그림 6)이 함께 출토되었으나, 고분의 형식은 대체로 3세기 경의 유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목걸이도 역시 3세기 경의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 명문 청동정. 양동리 322호분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 현 상

이 수정제 목걸이는 1993년 9월 20일부터 1994년 5월 5일까지 진행된 동의대학교 박물관의 제 3차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최근 발굴조사 보고서가 간행되기는 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소략하여 구체적인 출토 상태는 다소 모호하다. 다만 피장자의 상반신 부분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정과 유리 구슬들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목걸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7). 이 목걸이에 포함된 수정제 곡옥은 총 147개나 되어, 현재까지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예 중에서는 한꺼번에 가장 많은 수정제 곡옥이 출토된 최대 규모의 예로서 주목된다. 또한 함께 발견된 2점의 수정제 다면옥도 상당히 크고 세공 솜씨가 우수한 편으로 중요하다.

이 목걸이는 현재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146점, 수정제 다면옥 2점, 유리질 곡옥 1점, 마노제 환옥 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보관되는 4백여개의 유리 환옥으로 목걸이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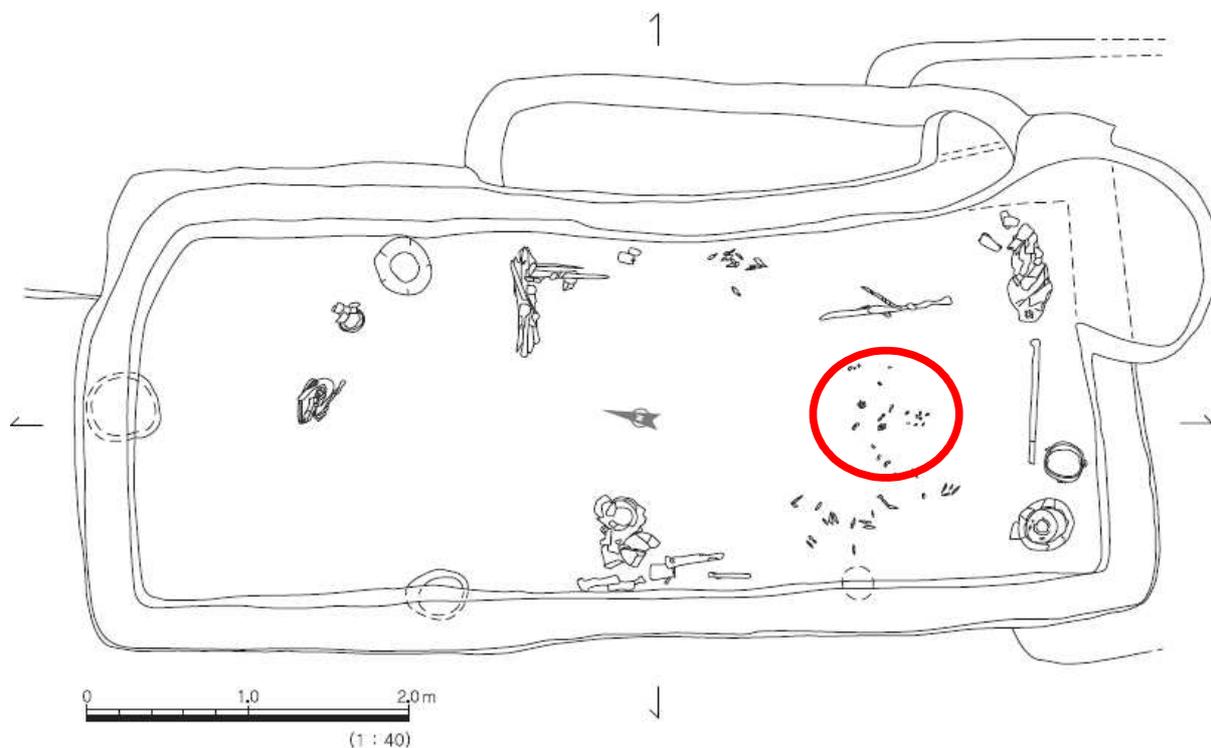


그림 7. 김해 양동리 322호분 유물 배치도. (붉은선 부분이 목걸이 출토 위치) 동의대학교박물관.

중앙의 유리질 곡옥은 주조기법으로 제작한 유리 곡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이 곡옥의 경우에는 표면에 어자문정과 비슷한 C자형 정으로 친 흔적이 여러 곳에 남아 있고, 곡옥의 구멍도 뾰족한 천공구를 이용하여 파낸 흔적이 확인되어(그림 8), 주조한 유리 구슬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 최근 이 구슬보다는 조금 색이 열긴 하지만 낙랑시대의 평양 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된 비슷한 성격의 구슬은 유리질 광물로 판단되었던 예가 있으므로,⁹⁰⁾ 이 유리질 곡옥의 재질에 대해서는 향후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 유리질 곡옥의 표면에 찍힌 C자형 정의 흔적은 함께 발견된 수정제 다면옥의 표면에서도 확인되므로(그림 10), 고대 보석 세공 기법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유리질 광물질이나 수정과 같은 고대의 보석 세공기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

90) 국립중앙박물관, 2018, 『平壤 石巖里 9號墳』, 국립중앙박물관, pp. 414-415; 482-483.



그림 10. 수정제 다면옥의 표면 세부.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 동의대학교박물관.

각적으로 연구 및 조사될 필요가 있다. 수정제 다면옥들은 가운데 구멍의 상태로 볼 때, 양쪽에서 가운데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서 연결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수정제 곡옥들은 대부분 한쪽 방향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수정 곡옥들의 조각 상태와 표면 광택 마연 상태는 매우 정교하고 투명도가 높고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으나, 일부 수정 곡옥 중에는 마연이

마무리되지 않은 면들이 드물게 확인되기도 한다. 이 수정제 구슬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뛰어난 조형양식과 세공 솜씨를 보여주는 한국 고대의 뛰어난 보석세공품으로서 주목된다.

○ 내용 및 특징

무색투명한 수정으로 만든 각종 구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애호되기 시작한 장신구의 일종이다. 경도가 7인 수정은 여러 종류의 보석 중에서도 상당히 단단한 광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제 공구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수정제 구슬 및 각종 장신구들은 철기시대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알려져 있다. 가야 지역에서는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고분군 일대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고 있지만, 322호분 출토품과 같이 품질 좋은 수정제 곡옥들이 백여점 이상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매우 드물다. 아쉽게도 유리 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과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3세기 김해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보석들과는 달리 수정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산출되었다는 기록과 실제 광석 채취 사례 등이 알려져 있다.⁹¹⁾ 그러므로 이러한 수정제 구슬들의 제작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자체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수정제 장신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전남 보성 도안리 석평 유적에서 수정제 구슬 제작 관련 유적이 발견된바

91) 최근 국내의 옥류 원석 조사 연구에 의하면, 국내산 자수정과 무색투명 등이 있는데, 울주군 언양읍 작괘천, 경주시 산내면 대현리 등에 원석 채집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홍국, 2018, 「옥류(玉類) 원석 탐사」, 『야의고고학』 33, p. 99 <표 1>의 6번 수정 항목 참조.

있으며, 최근 김해 양동리 고분군 인근에 있는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었다.⁹²⁾ 이러한 예들로 보아, 이 수정제 구슬들은 김해 인근 지역이거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제작되어 가야의 지배계층들에게 애호되었던 3세기경의 중요한 위세품으로 볼 수 있다.

○ 문헌자료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韓條에 의하면 당시 삼한의 사람들은 금은이나 비단보다 구슬을 귀중하게 여겨서, 몸과 의복에 드리워 장식하는 데에 썼다고 알려져 있다. 삼한시대 사람들이 영주(瓔珠), 즉 구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국측 기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각종 재질의 구슬 사용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었음. 현재는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보관 및 전시 중임.

○ 주요 도판 출판 현황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p. 71, 도 084.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p. 128.

東義大學校博物館, 2019, 『金海良洞里古墳群 I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p. 322, 도판 150-③.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p. 60, 도 85.



○ 형 식

146점의 수정제 곡옥과 2개의 대형 수정제 다면옥, 그리고 6점의 마노제 환옥, 1점의 파란색 유리 곡옥 및 다수의 소형 유리 환옥으로 구성된 목걸이이다(그림 1, 2). 김해 양동리고분군을 포함해 가야지역 고분에서 출토된 목걸이들 중에서 수정제 곡옥의 수가 가장 많은 예이다. 또한 수정제 다면옥도 현존하는 수정제 구슬들 중에서는 그 크기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하여 매우 진귀한 목걸이에 속한다.

수정(水晶, rock crystal)은 산화규소(SiO₂)를 주성분으로 한 석영질의 광물질

92) 양아림, 2019, 위의 논문, pp. 13-16.

로, 옛날부터 무색투명하고 강도가 높아서 꾸준히 값비싼 고급 장신구의 재질로 사용되는 보석의 일종이다. 한반도에서 수정을 이용해서 만든 각종 장신구들은 기원전 3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김해 양동리 지역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들은 이러한 초기 수정제 장신구들 중에서 가장 발달된 목걸이 형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양동리고분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 수정 원석을 가공했던 유구에서 수정 원석과 도구들이 발견되기도 해서, 김해 지역에 수정 제작지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⁹³⁾ 김해 양동리 322호분에서 출토된 수정제 목걸이는 출토 당시에 주변에서 작은 파란색 유리구슬들과 함께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정구슬과 유리구슬이 함께 나온 양동리의 고분들과 마찬가지로 유리구슬 목걸이와 수정 목걸이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발굴조사 당시의 출토 상황으로 볼 때, 유리와 수정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는 모호한 상태이며, 지금은 유리와 수정을 별도로 분리하여 꿰어져 있다. 유리구슬은 대부분 이 시기에 흔히 보이는 균청색 계통의 둥글고 작은 구슬들이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322호분은 장방형의 목곽묘로서, 제316호, 323, 324호분과 중복된 상태인데, 316호보다는 먼저 조성되었고, 323호와 324호보다는 나중에 조성되었다. 322호분에서는 중국 한대 양식을 따르는 명문이 새겨진 청동정(靑銅鼎, 그림 4)이 함께 출토되었으나, 목곽묘는 대체로 3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 목걸이도 역시 3세기의 것으로 편년할 수 있다.

○ 현 상

이 목걸이는 현재 크기가 다른 수정제 곡옥 146점, 수정제 다면옥 2점, 유리제 곡옥 1점, 마노제 환옥 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보관되는 4백여개의 유리 환옥으로 목걸이와 한 세트를 이루고 있다. 수정 곡옥들의 제작 상태는 매우 정교하고 투명도가 높고 우수하여 전체적으로 뛰어난 작품이다.

○ 내용 및 특징

이 수정제 목걸이는 1993년 9월 20일부터 1994년 5월 5일까지 진행된 동의대학교박물관의 제 3차 김해 양동리 유적 발굴조사의 322호분에서 출토되었다. 322호분 출토 목걸이는 4백여 점의 소형 유리구슬들과 함께 다수의 수정제 구슬들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수정제 곡옥의 숫자가 146점으로 현재까지 단일 고분에서 가장

93) 양아람, 2019, 「한반도 출토 수정제 장신구와 김해 양동리 고분군」,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pp. 3-6.

많은 수가 출토된 예로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2점의 수정제 다면옥도 크고 세공 솜씨가 우수하다. 중앙의 유리제 곡옥은 주조기법으로 제작되었고 크다.

김해를 포함한 영남의 동남부 지역의 고분들에서 수정제 구슬을 포함한 목걸이들이 상당히 많이 출토되지만, 김해 양동리 322호분 출토품과 같이 품질 좋은 수정제 곡옥들이 백여점 이상 한꺼번에 발견된 예는 매우 드물다. 아쉽게도 유리 구슬들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한 수량과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수정제 목걸이 부분은 상당히 우수한 양식과 세공 기술을 가진 장신구 제작과 사용 문화가 3세기 김해 지역에서 발전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아직까지 수정제 장신구의 제작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최근 김해 양동리고분군 인근에 위치한 김해 농소리 유적에서도 수정 원석이 출토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예들로 보아, 이 수정제 구슬들은 김해 인근 지역이거나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제작되어 가야의 지배층들에게 애호되었던 중요한 장식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문헌자료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東義大學校博物館, 2019, 『金海良洞里古墳群 III』, 부산: 동의대학교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2018, 『김해』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전, 국립김해박물관

○ 기 타

1990년대 동의대학교박물관 조사에서 출토되었고,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18.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金海 良洞里 四百六十二號墳 出土 金箔珠 頸飾)

가. 검토사항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가야문화권 출토 중요 유물 가치 규명’의 일환으로 2018년도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조사 대상 추천이 있어(‘18.9.28.) 관계 전문가 조사(‘19.8.19.)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안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金海 良洞里 四百六十二號墳 出土 金箔珠 頸飾)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김해박물관)
- 소재지 :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 수 량 : 1건 102점
유리제 곡옥 1점, 마노제 다면옥 2개, 중형 유리구슬 6점,
금박유리구슬 20점, 소형 유리구슬 73점
- 규 격 : 전체 길이 28.6cm. (전시 고정 상태 높이 12.8cm × 폭 5.7cm)
곡옥 크기 : 길이 36.2mm. 두께 12.2mm.
마노제 다면옥 1 : 높이 11.3mm. 최대 폭 15.8mm. 구멍지름 3mm.
마노제 다면옥 2 : 높이 9.5mm. 최대 폭 12.8mm. 구멍지름 2.6mm.

중형 유리구슬 1 : 높이 7.1mm. 지름 6.6mm.
금박유리구슬 : 높이 3~5mm. 지름 4~5mm.
소형 유리구슬 : 높이 1.2~4mm. 지름 2~3.5mm.

- 재 질 : 유리, 마노
- 형 식 : 곡옥, 금박유리구슬 등으로 이루어진 목걸이
- 조성연대 : 3세기 추정



그림 473.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구슬 목걸이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목걸이는 동의대박물관의 발굴 조사로 출토되었으나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고분의 성격이나 해당 유물의 출토 상태나 경위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역사적 가치가 미흡한 편이다. 이 목걸이는 마한 및 백제 지역에서 다수 출토되던 유리의 표면에 금박을 입힌 금박유리구슬 20점이 금관가야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는 학술적 가치가 있는 편이다. 그러나 마노제와 유리제 구슬 등 총 102점으로 매우 짧은 28.6cm의 길이여서 그 용도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워 조형적으로 해결한 여지가 존재한다. 유리제 곡옥을 비롯

한 연질 유리제의 보존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편이며, 금박유리구슬의 제작 과정이나 전래 등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지는 분명하지만 그것의 현황이 온전하기 못하고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용도의 문제나 유물의 보존상태 등으로 미루어 이 목걸이는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 1)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462호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출토양상이 불분명하고 도굴 등에 의해 매장원상이 훼손되어 수습된 유물로 보인다.
- 2) 표면이 거친 유리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마노제다면옥 2점, 중형 유리구슬 6점, 금박유리구슬 20점, 소형유리구슬 7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전체적으로 길이가 짧아 목걸이로는 어색하나, 국내에서 출토예가 많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금박유리구슬 목걸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금박유리구슬은 평양의 낙랑유적이나 백제, 신라지역에서 일부 출토되고 가야지역에서는 부산 북천동80호분에서 출토된바 있다.
- 4) 목걸이의 전체길이는 금박유리구슬(대표) 0.49×0.42cm, 마노(대) 1.58×1.13cm, 곡옥 길이3.62cm, 머리너비 1.22cm, 유리구슬(대) 0.52×0.47cm 규모이다. 같은 재질의 장식이라도 크기가 다르다.
- 5) 이 목걸이는 매우 희귀한 금박유리구슬로 제작되어 의미가 있으나 출토상황이나 매장원상이 불확실하고 마노, 유리구슬 등의 재질이 우수하지 못하여 국가 지정유물(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일괄품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금박유리구슬 20점이 포함된 독특한 구슬 목걸이로서, 3세기 금관가야의 지배계층에서 애호했던 대표적인 위세품이다. 그러나 출토 상태가 다소 모호하여, 현재의 형태와 원래의 목걸이 형태를 거의 파악할 수 없으며, 유리 구슬들이 다수 파손된 상태이므로, 전체적으로 조형적 특징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대부분이 깨지기 쉬운 유리 재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보존 상태도 그다지 좋지 못한 점도 매우 아쉽다. 이 목걸이는 금관가야의

문화 교류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중요한 물질문화적 자료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유물들이 마한 및 백제 지역에서도 다수 출토되고 있으며 제작지와 유입 경로 등이 다소 불분명하여,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된다.

○ (지정 가치 미흡)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추정 목걸이 일괄품은 낙동강 하류 외의 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이는 금박유리구슬 20점이 포함된 독특한 장신구로서, 금관가야 지배층의 장식문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출토 상태가 다소 모호하며, 현재의 상태로는 목걸이인지, 아니면 별도의 장신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정확한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전반적인 보존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다. 이 목걸이는 금관가야의 문화 교류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중요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용도가 불분명하고, 보존 상태도 좋지 않는 등 가야 문화를 대표하는 보물로 지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의결사항

○ 부 결

조사보고서

□

○ 형 식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목걸이는 유리제 곡옥 1점, 붉은색 마노제 다면옥 2점, 금박유리구슬 20점, 중형 파란색 유리구슬 6점, 소형 파란색과 남색 유리구슬 73점 등 10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걸이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재료의 구슬들이 지닌 붉은색, 노란 황금색, 파란색 등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채감이 특징이며, 특히 유리옥의 표면에 금박을 입힌 금박유리구슬(金箔琉璃玉 Gilt Glass Bead) 20점이 다수 출토된 것이 주목된다.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목걸이



금박 유리옥(金箔琉璃玉 Gilt Glass Bead)

○ 조성연대

김해 양동리 462호분은 발굴 조사 이후 아직까지 발굴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분의 형식이나 공반 출토된 유물의 상황도 파악되지 않아 이 목걸이의 조성연대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해당 고분을 3세기 중후반 경으로 비정하고 있어, 이 목걸이의 대체적인 제작시기는 3세기로 추정한다.

○ 발굴 현황

김해 양동리 462호분은 1990년대에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 조사되었으나, 현재까지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아 무덤의 성격이나 목걸이의 출토 위치 및 함께 공반 출토된 유물 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목걸이 내용 및 특징

1) 재료와 크기

현재 목걸이는 유리제 곡옥 1점, 붉은색 마노 다면체 구슬 2점, 금박유리구슬 20

점, 작은 파란색 계열 유리구슬 73점이다. 이것들을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구슬 목걸이와 비교할 때 해당 무덤에서 출토된 구슬의 수량이 매우 적고,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 썬 현재의 전체 길이는 28.6cm로서 매우 짧은 편이다.

실측 결과 곡옥의 크기는 길이 36.2mm, 두께 12.2mm였다. 마노제의 다면옥은 2개인데, 하나는 높이 11.3mm, 최대 폭 15.8mm, 구멍지름 3mm이고, 나머지 하나는 높이 9.5mm, 최대 폭 12.8mm, 구멍지름 2.6mm이다. 유리구슬 중 중간 크기를 한 개 선정하여 측정한 치수는 높이 7.1mm, 지름 6.6mm이고, 작은 유리 구슬의 치수는 높이 1.2~4mm, 지름 2~3.5mm이다. 금박 유리구슬은 20점으로서 그것은 높이 3~5mm, 지름 4~5mm이다.

이와 유사하게 여러 점의 금박유리구슬로 이뤄진 팔찌로는 부여 왕흥사지와 백제 익산 입점리 출토 팔찌가 있어 참고가 된다.



2) 금박유리구슬의 기술 및 전래현황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목걸이를 만든 재료 중에서 금박 유리 구슬 20점이 주목된다. 이번 지정조사 과정에서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양동리 462호분에서 출토된 금박유리구슬에는 금(金, gold)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박유리옥은 투명한 유리옥의 표면에 금박을 입혀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제작하는 기법은 2가지이다. 하나는 철심에 말아붙이는 기법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유

리구슬 위에 금박을 씌우고 그 위에 다시 유리를 녹여 덧입히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가는 유리대롱에 금박을 입히고 그 위에 약간 굵은 유리대롱을 덧씌운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금박유리구슬들은 제작기법상 여러 겹의 유리 사이에 금박, 혹은 은박을 끼워 넣으며 겹쳐 만들기 때문에 “중층유리옥(重層琉璃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전자는 기원전 3세기 경에 처음 나타나는 기법이고, 후자는 대롱불기 기법이 등장한 이후인 기원 전후 경에 발생하였다고 한다.

현재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20점은 서로 붙어 있는 것과 떨어져 있는 것도 있다. 그 이유는 금박유리구슬들은 제작할 당시부터 2-4개의 구슬을 서로 연결시켜 제작하기 때문에, 현재 보관할 때에도 이것을 유의한 상태이다.

금박유리옥의 제작 지역은 기원전 동부 지중해 연안을 위시한 서아시아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흑해 연안의 남러시아, 중앙아시아, 헝가리와 스칸디나비아 등 유럽 각지, 자바 등지의 동남아시아, 한반도, 일본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제작되고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한시대 이후 여러 유적에서 금박유리옥이 발견된 바 있다. 김해 양동리 462호 고분을 비롯하여, 부산 복천동 80호, 경주 금관총, 천안 두정동 II-12호, 나주 덕상리 9호 및 신촌리 9호, 나주 반남면 백제고분과 북암리 3호분, 익산 입점리, 공주 무녕왕릉, 부여 염창리, 부여 능산리 사지, 부여 왕흥사지 등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그런데 공주 무녕왕릉, 함평 신덕고분, 부여 능산리 사지, 부여 왕흥사지 등과 같이 마한 및 백제지역에서 출토 금박유리옥의 경우, 내부에 사용된 금속박이 금제[金箔]가 아니라 과학적인 성분 분석 결과 은제[銀箔]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철을 착색제로 사용하여 유리의 색상을 황색으로 조절하여 금박효과를 낸 것이다.

한편 금박유리옥 가운데 몇 개의 유리옥이 연달아 붙어있는 연주형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제작과정상 금박을 넣은 긴 유리관을 흠이 있는 석제 틀 위에서 굴러가며 눌러 잘라낼 때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서이다. 한반도 출토 금박유리옥은 2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특히 타일랜드 지역의 금박유리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것들은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를 통해 유입된 외래품으로 생각되며, 4-6세기 대 무덤에 위세품으로 부장된다.

이처럼 마한 백제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던 금박유리구슬이 가야 지역에서는 동래 복천동 80호분과 김해 양동리 462호분에서 출토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출토되던 이국적인 재료가 금관가야시대 3세기의 고분에서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국제 교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백제 공주 무령왕릉, 지름 0.2~0.6cm 내외,
국립공주박물관



마한 원주 상운리, 길이 44.5cm,
전북대학교박물관



3) 목걸이 구슬의 상태

김해 양동리 462호분 목걸이는 출토 당시부터 구슬의 숫자가 나머지 가야시대 위

제품으로 사용된 목걸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때문에 이것은 목걸이가 아니라 팔찌이거나 만약 목걸이라면 연결의 유리가 산화되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목걸이로 사용된 구슬의 재료의 경우, 출토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다. 유리제의 곡옥은 이미 심하게 산화되어 부식된 상태여서 원래의 색상이나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편이다. 금박유리구슬의 경우에도 구슬의 표면이 깨져서 안쪽에 있던 금박이 드러나 있거나 구슬을 이은 부분이 깨진 것도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재질이 부서지기 쉬운 연약재질로 취약하여 보존상태가 좋지 못한 편이다.

○ 문헌자료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 한(韓)의 기록을 보면, “구슬(瓔珠)을 재보(財寶)로 삼아서, 옷에 장식으로 매달거나, 혹은 목에 걸거나 귀에 드리웠으며, 금은이나 비단을 진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삼한시대 사람들이 구슬[瓔珠]을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 귀속되었고,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전시용 패널에 끈으로 완전히 고정시킨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 참고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2012.
-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2019.
- 북천박물관,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2013.
- 이인숙, 1999, 「삼국시대 비금속장신구」, 『삼국시대의 장신구와 사회상』, 1999.

이한상, 「百濟 玉類 裝身具의 분포와 해석」, 『한국 선사·고대의 옥문화 연구』, 북천박물관, 2013.

조성원, 「옥으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2019.

□

○ 현 상

중앙하단 중심에 유리제곡옥 1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 장식하였는데, 마노제 다면옥, 유리구슬, 금박유리구슬, 소형의 유리구슬을 적절히 배치하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 목에 걸도록 한 목걸이이다. 그러나 전체길이가 28.6cm로 다른 가야 목걸이들 보다 짧아 어색하고, 출토상황도 불분명하여 도굴 등으로 원상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이 목걸이는 목곽묘인 김해 양동리462호분에서 출토된 각종 옥으로 만든 목걸이이다. 표면이 거친 유리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마노제다면옥 2점, 중형 유리구슬6점, 금박유리구슬20점, 소형유리구슬 7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금박구슬과 여러 종류의 옥으로 이루어진 목걸이나 출토상황이 불분명하고 질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 문헌자료

조현복 외, 2017, 『金海良洞里古墳群Ⅱ』, 東義大學校博物館.

□

○ 형 식

다양한 색의 유리 구슬들과 2개의 마노제 다면옥으로 구성된 구슬 목걸이의 일종으로, 중앙의 유리제 곡옥을 중심으로 붉은 색의 마노 구슬, 노란 빛을 띠는 금박 유리구슬, 그리고 여러 종류의 파란 유리 구슬로 구성되어 있어서 색상이 화려한 점이 특징이다(그림 1).

이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내에서 거의 출토되지 않는 금박유리구슬 20점이다(그림 2). 국내에서 금박유리구슬은 평양의 낙랑 유적들, 전북 완주 상운리 등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가야 지역에서는 북천동 80호분에서 출토되었다.⁹⁴⁾ 특히

94)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pp. 152-154; 조성원, 2019, 「옥으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 『금관가야 출토 옥을 통해 본 대외교류』, 국립김해박물관 · 동의대학교박물관, pp. 84-85.

마한 및 백제 지역에서 여러 점이 출토되고 있으며, 공주 무령왕릉에서는 금박유리구슬로 알려진 구슬들을 성분조사해본 결과, 내부에 사용된 것은 금박(金箔)이 아니라 은박(銀箔)으로 확인되었다.⁹⁵⁾



그림 1.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그림 2. 금박유리구슬 세부.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이번 지정조사 과정에서 국립김해박물관이 수행한 성분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동리 462호분에서 출토된 금박유리구슬에 사용된 것은 금(金, gold)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금의 순도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금은박유리 구슬들을 외국, 특히 중앙유라시아 지역에서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중국 동북지역의 삼연(三燕)이나 북방 유목민족들을 통해서 전래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백제나 마한지역에서도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 전래된 것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95) 백제 지역의 금박유리구슬들은 제작기법상 여러 겹의 유리 사이에 금박, 혹은 은박을 끼워 넣으며 겹쳐 만들기 때문에 “중층유리옥(重層琉璃玉)”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인숙, 1999, 「삼국시대 비금속장신구」, 『삼국시대의 장신구와 사회상』, 복천박물관; 이한상, 2013, 「百濟 玉類 裝身具의 분포와 해석」, 『한국 선사·고대의 옥문화 연구』, 복천박물관, pp. 283-311. 이한상, 위의 글, p. 302.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462호분은 아직까지 발굴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성 연대는 다소 불분명하다. 가야시대 고분 전공자들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3세기 중후반 경의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 목걸이도 대체로 3세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 현 상 : 이 금박유리구슬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462호분은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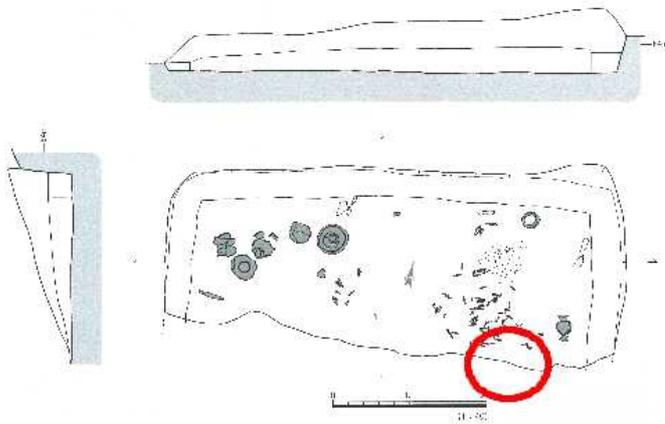


그림 3. 김해 양동리 462호분 도면. 동의대학교박물관.

귀속되어, 국립김해박물관에서 보관 및 전시되고



그림 4. 김해 양동리 462호분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출토 상태. 동의대학교박물관.

대에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되었으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출토 고분에 대한 발굴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의대학교박물관에서 작성한 당시 고분의 출토 상태를 보면, 이 구슬들은 목곽묘의 피장자 가슴 부근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고 한다(그림 3, 4).

이 금박유리구슬 목걸이는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 있는데 전시용 패널에 끈으로 완전히 고정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으므로 향후 형태나 보관 상태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유리제 곡옥 1점, 마노제 다면옥 2점, 금박유리구슬 20점, 중형 유리구슬 6점, 소형 유리구슬 73점 등 총 102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도 원래는 파손된 유리구슬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유리구슬의 원래 숫자는 불명확하다.

또한 금박유리구슬의 경우에는 현재 동근 구슬의 숫자에 중심을 두어 20점으로 세고 있지만, 원래 금박유리구슬들은 2-4개의 구슬이 서로 연결된 상태로 제작되

었고, 출토될 때에도 2-3개씩 붙은 상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원래 구슬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이 목걸이는 출토 당시부터 이미 중앙의 유리제 곡옥은 심하게 산화되어 부식된



그림 5. 유리제 곡옥 세부.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세부.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그림 6. 금박유리구슬 세부 2.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세부.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상태였다(그림 5). 금박유리구슬들의 경우에는 원래 2-3개씩 한꺼번에 연이어 제작되었으나 지금은 이어진 부분이 깨지기도 하고 구슬 표면이 깨져서 속의 금박 부분이 드러나 있는 곳도 많다(그림 6). 또한 목걸이라고 보기에 다소 구슬의 숫자가 적어서, 원래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며 매우 약해서 부서지기 쉬운 상태이다.

○ 내용 및 특징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진귀한 금박유리구슬 20점이 포함된 화려한 구슬 목걸이로서, 두 점의 마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슬들이 유리로 제작되었다. 그중에서도 금박유리구슬들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일찍부터 출토되는 서방산 공예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관가야 시대 3세기의 국제 교역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리의 부식 및 파손 상태가 심한 편이며, 목걸이인지 팔찌인지 그 용도도 다소 부정확한 상태이므로, 정확한 용도와 형태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유사한 구슬들이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도 다수 확인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작지와 전래 과정 등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문헌자료

중국의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韓條에 의하면 당시 삼한의 사람들은 금은이나 비단보다 구슬을 귀중하게 여겨서, 몸과 의복에 드리워 장식하는 데에 썼다고 알려져 있다. 삼한시대 사람들이 영주(瓔珠), 즉 구슬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이러한 중국의 기록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각종 재질의 구슬 사용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문헌기록이다.

○ 기 타

1990년대 발굴된 이후로 내내 동의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 주요 도판 출판 현황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p. 72, 도 085.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p. 152.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가야본성 -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p. 134, 도 114.

□

○ 형 식

양동리 462호분 목걸이는 다양한 색의 유리구슬들과 2개의 마노제 다면옥으로 구성된 구슬 목걸이의 일종으로, 중앙의 유리제 곡옥을 중심으로 붉은 색의 마노 구슬, 노란 빛을 띠는 중층유리구슬, 그리고 여러 종류의 파란 유리구슬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 아쉽게도 출토 상태가 불분명하고, 발굴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내 목걸이로 알려져 왔지만, 일반적인 구슬 목걸이들에 비해서 현존하는 구슬의 양이 적고 전체 길이도 상당히 짧기 때문에, 목걸이가 아니라 팔찌나 다른 장신구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내에서 거의 출토되지 않는 중층유리구슬 20점이다. 국내에서 중층유리구슬은 평양의 낙랑 유적들, 전북 완주 상운리 등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가야 지역에서는 북천동 80호분, 산청 옥산리 79호 목곽묘에서



그림 1.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출토되었다. 복천동 80호는 시기가 4세기 초이고, 산청 옥산리 79호 목곽묘는 5세기 전반이다. 국립김해박물관이 행한 성분조사 결과에 의하면, 양동리 462호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표면에 사용된 성분이 금(金, gold)으로 밝혀져 금박유리구슬로 불린다.

○ 조성연대

수정제 목걸이가 출토된 김해 양동리 462호분은 아직까지 발굴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성 연대는 다소 불분명하나 대체로 3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어 이 목걸이도 대체로 3세기의 유물로 추정된다.

○ 현 상

이 금박유리구슬 목걸이는 현재 유리제 곡옥 1점, 마노제 다면옥 2점, 금박유리구슬 20점, 중형 유리구슬 6점, 소형 유리구슬 73점 등 총 10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파손된 유리구슬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유리구슬의 원래 숫자는 불명확하다. 금박유리구슬은 20점이지만, 원래 금박유리구슬들은 서로 연결된 상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 구슬들은 2~5개가 서로 연결된 상태로 있다.

이 목걸이는 출토 당시부터 이미 중앙의 유리제 곡옥은 심하게 산화되어 부식되어 표면이 거칠고, 색상이 변색된 상태였다. 금박유리구슬들은 원래 여러 개씩 한꺼번에 이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이어진 부분이 깨지기도 하고 구슬 표면이 깨져서 속의 금박 부분이 드러나 있는 곳도 많다(그림 2). 또한 목걸이라고 보기에 다소 구슬의 숫자가 적어서, 원래의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며 매우 약한 상태이다.



그림 2. 금박유리구슬 세부 2. 김해 양동리 462호분 출토 금박유리구슬 목걸이 세부, 국립김해박물관 소장.

○ 내용 및 특징

양동리 462호분 출토 추정 목걸이는 2점의 마노 다면옥과 한반도에서는 상당히 희귀한 금박유리구슬 20점, 감청색과 청색의 유리구슬로 이루어졌다. 금박유리구슬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되어 중국대륙을 거쳐 한반도로 들어왔거나 마한·백제 지역을 통해 낙동강 하류지역에 반입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 금박유

리구슬은 3~4세기 가야의 국제 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리의 부식 및 파손 상태가 심한 편이며, 목걸이인지 팔찌인지 정확한 용도와 형태를 추정하기 어렵다.

○ 문헌자료

국립김해박물관, 2012, 『양동리, 가야를 보다』, 국립김해박물관
북천박물관, 2013, 『선사 · 고대 옥의 세계』, 북천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가야본성 - 칼과 현』, 국립중앙박물관

○ 기 타

1990년대 동의대학교박물관 조사에서 출토되었고, 2010년대에 국립김해박물관으로 국가귀속되어 현재 국립김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V.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명칭 변경 예고

안건번호 동산 2020-04-019

19.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昌慶宮 自擊漏) 명칭변경

가. 검토사항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의 지정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립고궁박물관으로부터 ‘국보 제229호 창경궁 자격루’ 명칭에 대한 변경 신청(’20.7.1.) 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2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변경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해당 문화재 개요

명칭	지정사항	사진
창경궁 자격루 (昌慶宮 自擊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번호 : 국보 제229호 ○ 지정일자 : 1985. 8. 9. ○ 소유자 : 국유 ○ 관리자 : 국립고궁박물관 ○ 조성연대 : 1536년(중종 31) ○ 수 량 : 1건 5점(파수호 3 및 수수호 2) 	

라. 신청 내용

신청자 (신청일시)	변경신청 내용	신청사유
국립고궁박물관장 (2020. 7. 1.)	(변경전) 창경궁 자격루 (변경후) 창경궁 자격루 파수호 및 수수호	자격루를 구성하는 부재가 완전히 남아 있지 않음에도 현재 명칭으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변경 필요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현 황

보루각(報漏閣) 자격루(自擊漏)는 조선 세종16년(1434년)에 만들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조선 중종 31년(1536년) 때 만든 것이다. 조선 후기까지 창경궁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덕수궁의 야외에 전시되어 왔다.

『세종실록』 속의 자격루는 크게 물의 양이나 유속 등을 조절하는 ‘수량 제어 장치’와 이를 바탕으로 시간을 알리는 ‘시보 장치’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자격루 수량 제어장치인 대파수호(大播水壺) 1점, 중파수호(中播水壺) 1점, 소파수호(小播水壺) 1점, 수수호(受水壺) 2점 등 모두 5점만 남아있다.

최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 2018.8.30.~2020.3.31. 동안 창경궁 자격루에 대한 보존처리를 마쳤으며,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 지정명칭에 대한 종합 의견

조선 중종 보루각(報漏閣) 자격루(自擊漏)는 1985년 3월 국보 제229호로 지정되면서 ‘보루각 자격루(報漏閣 自擊漏)’로 명명되었으며, 2011년 현재의 명칭인 ‘창경루 자격루’로 변경되었다.

1985년 국보 지정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칭이 ‘보루각 자격루’ 줄여서 ‘자격루’로 불려왔으나 현재 ‘수량 제어 장치’만 남아 있고, 시간을 알리는 ‘시보 장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격루의 완전한 구성물이 아닌 상태에서 ‘자격루’라는 명칭이 적합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소장처에서 제시한 명칭변경 신청내용인 ‘창경궁 자격루 파수호와 수수호’는 현재 자격루를 구성하고 있는 부재 하나 하나를 이르는 명칭이며, 더하여 파수호와 수수호라는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격루에 대한 명칭은 『세종실록』 권107, 세종 27년(1445년) 기사 및 이순지(李純之)의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 발문 기사에 ‘보루각루(報漏閣漏)’로 쓰고 있으며, 이칭으로 ‘자격궁루(自擊宮漏)’, ‘자격루(自擊漏)’, ‘금루(禁漏)’ 등이 사용되었다.

명칭 변경에서 경복궁 자격루와 구별하기 위해 창경궁 자격루 즉 창경궁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자격루’ 명칭을 쓰지 않게 되는 것은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명칭에는 ‘창경궁 자격루’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창경궁 자격루의 ‘파수호와 수수호’를 지칭하는 명칭이 필요한데, ‘누기(漏器)’는 물시계 그러므로 파수호와 수수호를 통칭해서 ‘누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이 누기에 자격장치인 시보장치가 더해지면 자격궁루라고 해야 하고 이것을 공식화하면 보루각루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격루 누기라는 명칭은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이를 대신할 명칭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창경궁 자격루를 촬영한 유리원관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禁漏器 금누기’로 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 1 참조).

특이한 점은, 그동안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자격루 유리원관 사진을 보면 파수호와 수수호의 배치가 대파수호 아랫단에 중파수호와 소파수호를 2열로 나란히 두고 배치되어 있다(사진 2 참조). 이와 달리 ‘금누기 표기 자격루 사진’은 파수호와 수수호를 일직선상인 1열로 두고 배치되고, 파수호에서 수수호로 물이 흘러들어가도록 도수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수수호에 잣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격루의 파수호와 수수호의 정확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열된 상태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치는 그간 창경궁 누궁과 덕수궁에 놓여있던 모습인 자격루 중파수호 소파수호가 같은 단에 나란히 2열로 배열된 상태와는 배치되는 모습으로 자격루 원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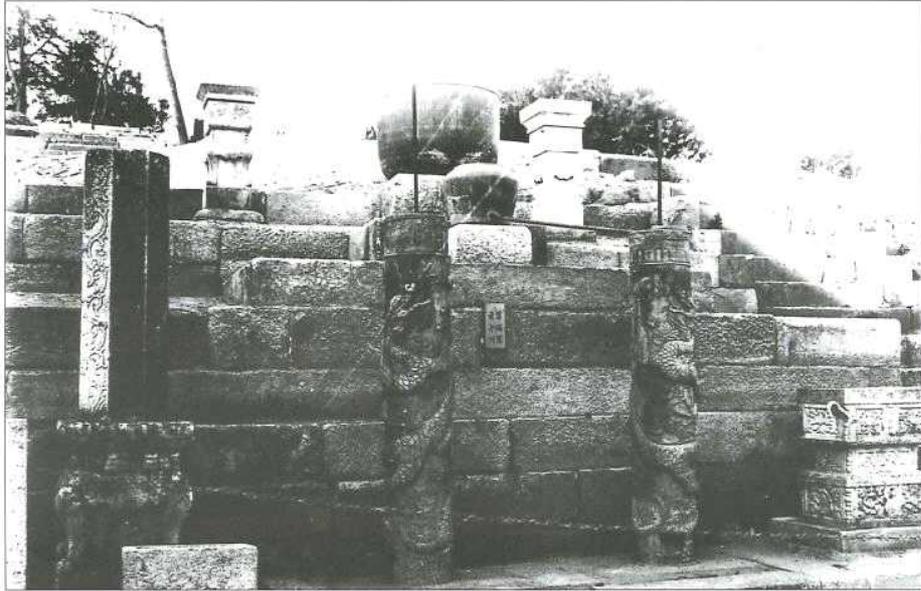
따라서 관련 문헌 및 ‘禁漏器 금누기’ 자격루의 옛 사진 속에서 확인된 용어 등을 고려하여 ‘창경궁 자격루 누기(昌慶宮 自擊漏 漏器)’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참고 사진 1부.

[참고 사진]



자 격 루

< 사진 1 > '禁漏器 금누기' 표기 자격루



보루각 자격루(9-1)



< 사진 2 > 그간 창경궁 자격루와 덕수궁 자격루 배치 오류 모습

20.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靑陽 雲藏庵 金銅菩薩坐像) 명칭변경

가. 검토사항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의 지정명칭 변경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보물 제986호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명칭에 대한 변경 신청(’20.4.8.)이 있어 관계전문가 조사(’20.7.31.)를 실시하고 본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명칭변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면 변경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다. 해당 문화재 개요

명칭	지정사항	사진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靑陽 雲藏庵 金銅菩薩坐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번호 : 보물 제986호 ○ 지정일자 : 1989. 4. 10.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운장암 ○ 조성연대 : 고려 후기 ○ 수 량 : 보살상 1구 	

라. 신청 내용

신청자 (신청일시)	변경신청 내용	신청사유
충청남도지사 (2020. 4. 8.)	(변경전)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 (변경후) 청양 운장암 금동 관음 보살좌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불상의 ‘중수발원문’에 ‘관음’으로 표기 • 1965년 간행 『靑陽郡誌』에 ‘관음’으로 표기

마. 조사자 검토 의견

○ 현황

- 1) 청양 운장암의 창건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조선시대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도 등장하지 않음. 다만, 조선 후기 학자인 柳振漢(1712-1791)의 『晚華集』 卷1에 운장암에 관한 詩가 한편 수록되어 있으나 동일사찰인지 불분명함.
- 2) 근대기 불교학자 權相老가(1879-1965) 편찬한 『조선사찰전서』에는 “雲藏菴 在忠淸南道靑陽郡斜陽面白華山 大本寺麻谷寺末寺”라고 기록되어 있음. 1965년에 편찬한 『청양군지』에는 운장암을 일명사지에 근래 재건한 암자로 소개하면서 중요 유물로 “金銅觀音菩薩坐像”을 수록하고 있음.
- 3) 1970년대 중반 금동보살좌상의 복장유물에 대한 도난사건이 있었다고 하며, 그때 수습한 일부의 복장유물이 현전하고 있음. 복장유물 중에는 元 大德9年(1305) 刊記가 있는 『금강경』을 비롯하여, 조선 전기의 『수능엄경』(天順6年, 1462年刊), 묘법연화경(嘉靖7年, 1528年刊)과 조선 후기의 주서다라니, 탑다라니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1610년 보살상을 중수하면서 기록한 ‘觀音重修發願文’이 포함되어 있음. 이들 자료를 통해 이 보살좌상은 고려 후기(14세기) 조성된 이래 몇 차례 중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4) 현재 이 금동보살좌상은 운장암의 주불전인 관음전의 주불로 봉안되어 있음.
- 5)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현재 공식적인 지정 명칭은 ‘금동보살좌상’이지만, 보물로 지정된 이후 과학조사를 거쳐 ‘청양 운장암 철보살좌상’에서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으로 명칭 변경된 이력이 있음.

○ 명칭 관련 종합 의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에서 ‘금동보살좌상’에서 ‘금동관음보살’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첫째, 1965년 청양군지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사찰에서는 오래전부터 관음보살로 신앙되어 왔고 청양군에서도 관음보살로 파악하고 있었음.

둘째, 권상로의 조선사찰전서에서 기록한바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산 이름이 白華山으로, 백화산은 곧 관음보살이 머무는 백화도량을 의미하므로 이 관음보살상의 조성과의 연관이 큰 山名으로 생각됨.

셋째, 복장에서 수습된 중수발원문에도 ‘觀音重修發願文’이라고 하여 중수 주체(觀音)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넷째, 이 보살상은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려 설법인을 짓고 있는데. 이러한 도상적 특징은 고려시대에서 조선 초기에 조성된 안동 봉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영덕 장육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대구 파계사 건칠관음보살좌상, 양양 낙산사 건칠관음보살좌상 등 유사시기 존명이 확실한 관음보살좌상과 같은 도상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이상과 같이 현재의 ‘청양 운장암 금동보살좌상’에서 ‘청양 운장암 금동관음보살’로 명칭변경을 하여 존상이 갖고 있는 본래의 신앙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붙임. 참고자료 1부.

[참고 1] 중수발원문(16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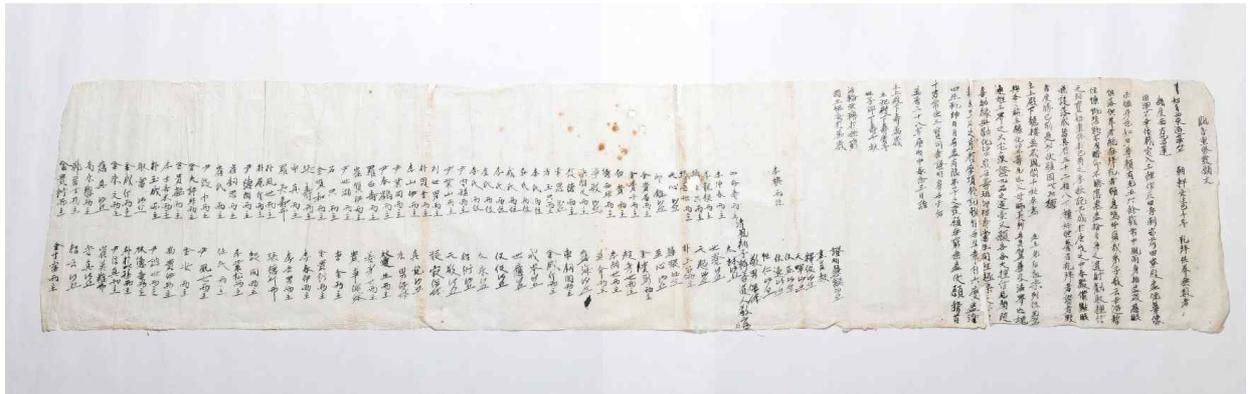


그림 489. 중수발원문(전체), 16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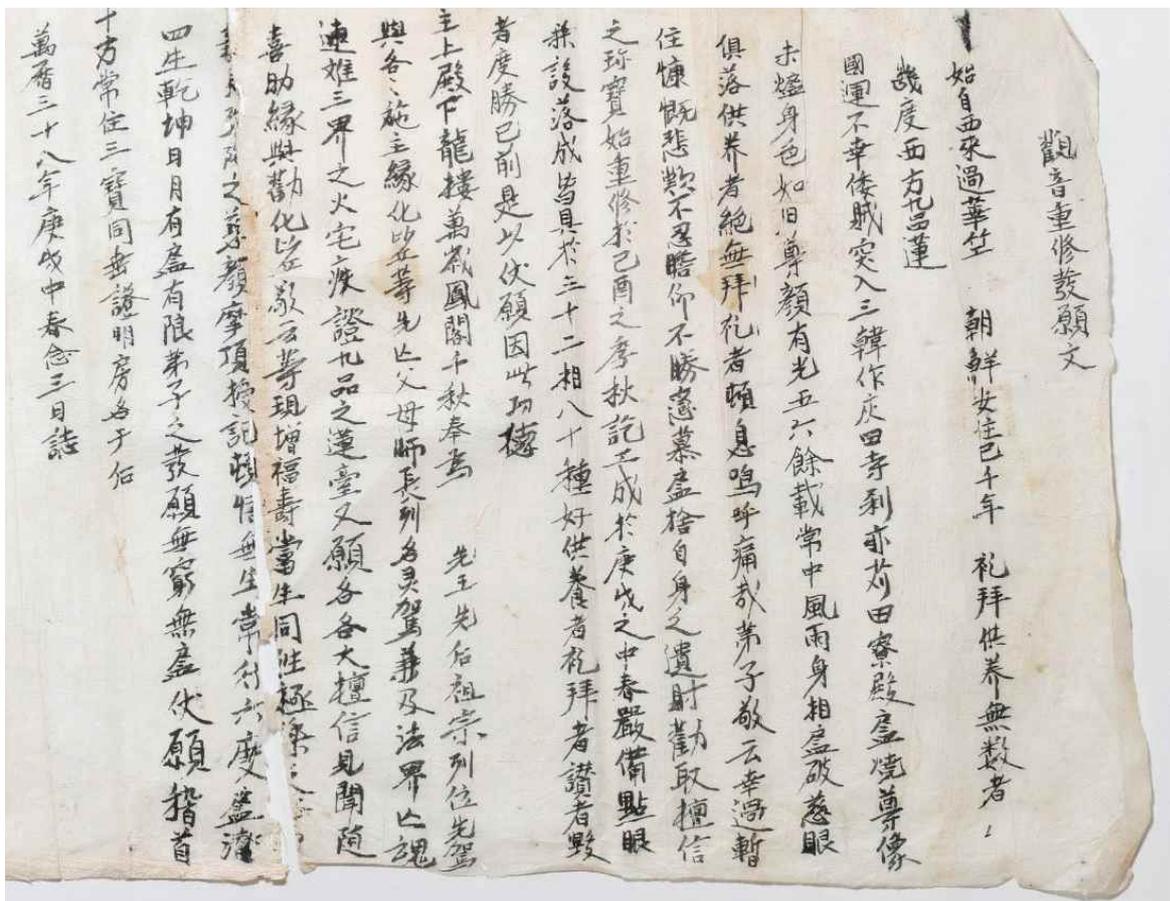


그림 490. 중수발원문 세부

[참고 2] 중수발원문(1610년) 번역문

원문	한글 번역	비고
<p>始自西來過華竺 朝鮮安住已千年 禮拜供養無數者 幾度西方九品蓮</p>	<p>처음 서쪽 인도에서 나와 중국을 지나 조선에 안주한 지 이미 천 년일세 예배하고 공양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 얼마나 서방정토 구품연대에 올랐나.</p>	
<p>國運不幸，倭賊突入， 三韓作灰，舊寺刹亦， 荷田寮殿盡燒，尊像未 燼，身色如舊，尊顏有 光，五六餘載，常中風 雨，身相盡破，慈眼俱 落，供養者絕無，禮拜 者頓息，嗚呼痛哉!</p>	<p>국운이 불행해지고 왜적이 갑자기 침입하여 삼한 이 잿더미가 되었는데, 옛 사찰도 연밭과 요사채와 전각이 모두 불탔으나 존상만은 타지 않고 신색이 옛날과 같으며 존안에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대여 섯 해 동안 비바람 속에 방치되어 신상이 모두 깨 지고 자비로운 눈동자도 함께 떨어져 나가서 공양 하는 사람도 싹 없어지고 예배하는 사람도 딱 끊 어지니, 아아, 슬픔니다!</p>	

원문	한글 번역	비고
<p>弟子敬云，幸過暫住，慷 慨悲歎，不忍瞻仰，不勝 戀慕，盡捨自身之遺財， 勸取檀信之珍寶，始重修 於己酉之季秋，訖工成於 庚戌之中¹⁾春，嚴備點眼， 兼設落成，皆具於三十二 相八十種好，供養者，禮 拜者，讚者，致者，度勝 以前，是以，伏願，因此 功德，</p>	<p>제자 경운이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다가 잠시 머 물렀는데, 울분이 끓어올라 슬피 탄식하며 차마 우 러러볼 수도 없었고 그렇고 사모하는 심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희사하고 단월과 신도의 보물을 가져오도록 권하 여, 기유년(1609) 9월에 중수를 시작하여 경술년 (1610) 2월에 공역을 끝마쳤습니다. 엄숙히 점안 식을 준비하고 아울러 낙성식을 베푸니, 32상과 80종호가 모두 갖추어져서 공양하는 사람, 예배하 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치성드리는 사람들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p>	<p>仲의 오자이다.</p>
<p>主上殿下，龍樓萬歲，鳳 閣千秋，奉爲先王先后， 祖宗列位先駕，與各各施 主緣化比丘等，先亡父母 師長，列名靈駕，兼及法 界亡魂，遭難三界之火 宅，疾證九品之蓮臺，</p>	<p>그래서, 엿드려 바라건대, 이 공덕으로 인하여 주상전하께서는 만세를 누리시고, 세자저하는 천세 를 누리시며, 선왕과 선후, 조종의 열위 선가와, 각각의 시주 모연 화주한 비구 등의 먼저 돌아가 신 부모와 스승의 열명 영가와 아울러 법계의 죽 은 영혼, 삼계의 화택에서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구품의 연대를 빨리 증득하게 하시옵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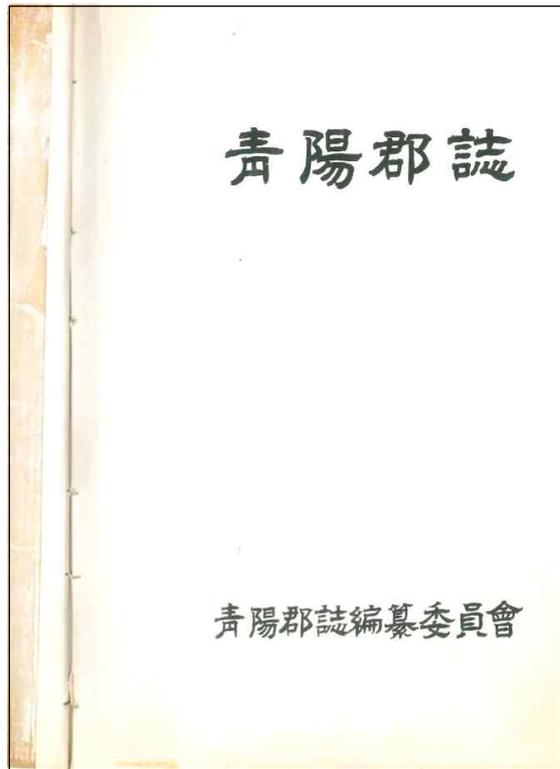
<p>又願，各各大檀信，見聞隨喜，助緣與勸化，比丘敬云等，現增福壽，當生同往極樂之(淨土)，親見彌陀之慈顏，摩頂授記，頓悟無生，常行六度，盡渡四生，乾坤日月，有盡有限，弟子之發願，無窮無盡，伏願，稽首十方常住三寶，同垂證明房名于后。</p> <p>萬曆 三十八年 庚戌 中 3)春 念三日 誌</p>	<p>또 바라건대, 각각의 큰 단월과 신도들이 보고 들으며 모두 기뻐하고, 모연을 돕고 화주를 권한 비구 경운 등의 현세 복과 수명이 늘어나고, 마땅히 극락정토에 함께 가서 태어나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얼굴을 뵈옵고 마정수기를 받으며, 단박에 깨달아 생사를 없애고 항상 욕도를 실천하며, 네 가지 중생을 모두 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p> <p>천지와 일월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으나 제자의 발원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사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시방세계에 항상 계시는 삼보께 머리 숙이옵고, 증명(證明)과 방명(房名)이 모두 후세에 전해지기를 바라옵니다.</p> <p>만력 38년 경술 2월 23일에 적다.</p>	<p>3) 仲의 오자이다.</p>
--	---	--------------------

원문	한글 번역	비고
<p>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法輪常轉於無窮 國土恒安於萬歲</p>	<p>주상전하께서는 만세를 누리시며 왕비전하께서는 그와 같은 수명을 누리시며 세자저하께서는 천세를 누리소서 법의 수레바퀴는 항상 무궁하게 돌아가고 국토는 만세에 언제나 편안하소서</p>	

원문	한글 번역
<p>李穰 兩位 嚴命壽兩主 李仲春兩主 李龍福兩主 張□只兩主 張芾世兩主 无心比丘 印鑑比丘 金貴番兩主 金貴千兩主 南貴兩主 億西非兩主 淨敏比丘 梁閔失兩主 懿德兩主 幸思比丘 香玉只兩主 李氏兩位 張氏兩位 成氏兩位 李氏兩位 金氏兩位 尹內乙孫兩主 尹業山兩主 劉世男兩主 朴恩金兩主 李山伊兩主 尹業同兩主 尹奉鶴兩主 羅白壽兩主 崔順伊兩主 尹世湖兩主 石只兩主 金順和兩主 張壽兩主 申眞兩主 羅長壽兩主 朴風世兩主 朴芾斤兩主 尹德閑兩主 崔釗忠兩主 崔氏兩主 龜巾兩主 金夫許非兩主 金貴鶴兩主 李古音米兩主 朴玉成兩主 取富比丘 金成斤兩主 金永文兩主 應眞比丘 高永鶴兩主 鄭居士兩主 金貴衍兩主 太林比丘 世澄比丘 天起比丘 朴玉石兩主 慧凝比丘 至心比丘 金貴弼兩主 趙彥世兩主 李閑世兩主 莫介兩主 應海比丘 車釗同兩主 金成斤兩主 戒岑比丘 世應比丘 僅俊比丘 太永比丘 智行比丘 天敬比丘 凝寂保體 眞覺比丘 永男保體 林□生兩主 姜彥世兩主 貴卓保體 曹金兩主 金貴衍兩主 李春伊兩主 李去</p>	<p>이익양위 엄명수양주 이중춘양주 이용복양주 장□지양주 윤돌세양주 무심비구 인감비구 김귀반양주 김 남귀양주 억서비양주 정민비구 양윤화양주 엇덕양주 행사비구 향옥지양주 이씨양위 장씨양위 성씨양위 이씨양위 김씨양위 윤넬손양주 윤업산양주 박세남양주 박은규 양주 이산이양주 윤업동양주 윤봉학양주 라백수양주 최순이양주 윤세호양주 석지양주 김순화양주 장수양주 신진양주 라장수양주 박풍세양주 박돌근양주 윤덕한양주 최희충양주 최씨양주 윤곳건양주 김부허비양주 김귀학 양주 이곰미양주 박옥성양주 취부비구 김성근양주 김영문양주 응진비구 고영학양주 정거사양주 김귀연양주 태립비구 세징비구 천기비구 박옥석양주 혜응비구 지심 비구 김귀필양주 초연세양주 이한세양주 막개양주 응해 비구 차희동양주 김성근양주 계잠비구 세응비구 근준 비구 태영비구 지행비구 천경비구 응적보체 진각비구 영남보체 임□생양주 강연세양주 귀탁보체 조김양주 김귀연양주 이훈이양주 이거남양주</p>

<p>男兩主 張德竹兩主 靛同兩主 李業松兩主 任氏兩主 尹風世兩主 金安兩主 南貴伊兩主 尹訥世兩主 林億 龜兩主 朴崧孫兩主 尹信眞兩主 崔莫難兩主 守眞比 丘 智云比丘 金丁富兩主 證明慧凝比丘 畫員秩 釋俊比丘 天暉比丘 僅正比丘 休逸比丘 性仁比丘 敬 男保體 淸風衲子幹善道人敬云書</p>	<p>장덕대양주 갓동양주 이업송양주 임씨양주 윤희세양주 김안양주 남귀이양주 윤눌세양주 임억구양주 박엇손양 주 윤신진양주 최막난 양주 수진비구 지운비구 김정부 양주 증명 혜응 비구 회원 명단 석준비구 천휘비구 근정비구 휴일비구 성인비구 경남 보체 청풍납자 간선도인 경운비구 쓰다.</p>
---	---

[참고 2] 청양군지(1965년) 해당 부분



— 420 — 名勝古蹟

長谷寺	1.鐵造藥師如來座像. 2.鐵造毘盧舍那佛座像. 3.金銅藥師如來座像. 4.上大雄殿. 5.下大雄殿. (以上指定文化財) 1.鐵造如來座像. 2.鐵造. 3.雲鶴樓. 4.蓮花紋磚. 5.石塔破片. 6.石燈破片. 7.座臺破片. (以上重要遺物)	新羅統一時代	大峙面長谷里七甲山
梧桐寺		李朝末	定山面西亭里梧桐山
鷄鳳寺	三層石塔一基(再建)	鷄鳳寺址에 近來再建함	定山面鷄鳳山
定慧寺	金銅佛像	定慧寺址에 近來再建함	赤谷面花山里七甲山
雲藏庵	金銅觀音菩薩座像	逸名寺址에 近來再建함 庵子	斜陽面溫岩里
華藏寺		和鼎寺址에 1959년에 再建	斜陽面新旺里
圓覺寺			化城面九在里
文博寺		李朝末	飛鳳面中黑里

보고 사항

21. 국외 긴급매입 국유문화재 관리청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국외 경매 및 개인소장자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환수문화재(나전국화녕쿨무늬합,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제5) 2건에 대한 관리청 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유물개요

문화재명	현황	사진
나전 국화녕쿨무늬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대 : 고려시대 ○ 수 량 : 1점 ○ 크 기 : 높이 3.2cm, 폭 10.0cm, 무게 약50kg ○ 재 질 : 나전, 구리, 주석 등 ○ 환수국가 : 일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제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대 : 고려시대 ○ 수 량 : 1축 ○ 크 기 : 1장 27.5×9.5cm(94장) ○ 재 질 : 감지에 은니 ○ 환수국가 : 미국 	

다. 관리청 지정

- 관리청 : 국립중앙박물관
- 사 유
 - 동 박물관은 한일 나전칠기 공동조사 연구를 수행(2007~2008년), 나전칠기 특별전(2006년) 등 목칠공예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목칠공예실을 운영, 연구 및 전시에 활용 가능한 상황으로 관리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경 특별전(2007년), 대고려전(2018년) 등 고려유물에 대한 활용 실적이 있으므로, 해당 유물을 총괄적으로 보관·연구·전시, 활용하는 데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 기대

라. 향후 계획

- 동 환수문화재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추진 등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